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86호 2024. 12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특집 청일전쟁과 동아시아 질서의 전환

모리 마유크(森万佑子) ■ 1894년 조선 정부의 청나라 군대 파병 요청에 이르게 된
정책 결정 과정 재고 7

위신광(魏晨光) ■ 청일전쟁기 일본 제5사단의 한성 집결과 경부 병참선 설치 45

쉬춘젠(許存健) ■ 청일전쟁 시기 청 정부의 군비 조달 연구 79

리짜이취엔(李在奎) ■ 청일전쟁
- 중국 남방의 한 사인(土人)의 관찰과 사고 117

손성욱 ■ 청일전쟁기 조선 진하사
- 최초의 성수절 경하와 최후의 대청사행 147

논문

김성환 ■ 13세기 말~14세기 중반 원과의 관계에서 추진된 고려의 역사 편찬 189

박채린·신동훈 ■ 조선 후기 양념김치의 등장과 확산 235

박해운 ■ 생존경쟁과 영토 팽창
- 칠박사 집단이 제시한 러일전쟁 개전론의 사상적 배경 검토 275

엄소정 ■ 도바타 세이이치(東畑精一)의 전후 아시아개발론
- 배상에서 개발원조로 323

배성준 ■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 중국의 백두산 연구와 개발의 새로운 추세 359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393



Contents

Special Issue **The First Sino-Japanese War (1894-1895) and the Transformation of East Asia**

- Mori Mayuko ■ A Re-examination of the Policy-Making Process That Led to the Chosun Government's Request for Chinese Troops in 1894 7
- Wei Chenguang ■ The Japanese Fifth Division's Assembly in Seoul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eoul-Pusan Supply Line in the First Sino-Japanese War 45
- Xu Cunjian ■ A Study on the Financing of Qing Government's Military Expenditure during the Sino-Japanese War 79
- Li Zaiquan ■ The Sino Japanese War of 1894~1895: Observation and Reflection of a Scholar in Southern China 117
- Son Sungwook ■ Joseon's Tribute Missions for Imperial Celebrations during the Sino-Japanese War: The First Envoy Celebrating the Emperor's Birthday and the Final Mission to Qing 147

Articles

- Kim Sunghwan ■ The Political Situation Changes of the Yuan Dynasty and the History Compilation of the Goryeo Dynasty in the Late 13th Century to the Mid-14th Century 189
- Park Chaelin · Shin Donghoon ■ The Emergence and Spread of Seasoned Kimchi in the Late Joseon Period 235
- Park Haewoon ■ Struggle for Existence and Territorial Expansion: Examinations of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Russo-Japanese War Presented by the Seven Doctors Group 275
- Um Sojung ■ Tobata Seiichi's Vision for the Development of Postwar Asia: From Reparations to Development Assistance 323
- Bae Sungjoon ■ New Trends in China'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Baekdu Mountain in the 14th Five-Year Plan Period 359

특집

청일전쟁과 동아시아 질서의 전환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894년 조선 정부의 청나라 군대 파병 요청에 이르게 된 정책 결정 과정 재고

모리 마유코(森万佑子) | 도쿄여자대학 국제사회학과 준교수

- I. 머리말
- II. 조중 관계의 긴밀함에 따른 갑신정변 처리: 김옥균과 박영효 암살 시도
- III.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청군 차용의 결정 과정
- IV. 맺음말



I. 머리말

청일전쟁은 세계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불린다. 청일전쟁은 조선을 둘러싸고 일본과 청 사이에서 서구적 군사 방식과 국제법에 근거해 벌어진 최초의 전면전이었다. 또한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기존의 동아시아 질서였던 중국 중심의 중화 질서(화이 질서)가 무너지고, 서양식의 새로운 조약 체제로 국제 관계가 재편되었다.

일본에서 청일전쟁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으며, 특히 개전 과정(개전 요인)에 큰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¹ 이러한 연구들은 일본의 정치 외교사적 관점에서 일본이 왜, 언제, 어떻게 출병하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등 온건파에 의한 청일 연계를 중심으로 한 비개전론(개전 유발론)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²

청일전쟁이 조선을 둘러싼 분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조선의 시각에서 본 청일전쟁에 대한 연구도 진전되고 있다. 박종근은 개전 직전 일본 정부의 경복궁 점령과 전후 을미사변에 대해 논했으며 그 의의가 크다.³ 그러나 개전 과정에

* 투고: 2024년 10월 11일, 심사 완료: 2024년 11월 7일, 게재 확정: 2024년 11월 11일

** 이 글은 일본 JSPS KAKENHI Grant Number 24K04191의 지원을 받았다.

- 1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下卷, 朝鮮總督府樞密院; 田保橋潔, 1951, 『日清戰役外交史の研究』, 東洋文庫; 中塚明, 1968, 『日清戰爭の研究』, 青木書店; 信夫清三郎 著, 藤村道生 校訂, 1970, 『増補日清戰爭—その政治的·外交的觀察』, 南窓社; 藤村道生, 1973, 『日清戰爭』, 岩波書店; 東アジア近代史學會 編, 1997, 『日清戰爭と東アジア世界の変容』上·下卷, ゆまに書房; 原田敬一, 2008, 『日清戰爭』, 吉川弘文館; 古結諒子, 2016, 『日清戰爭における日本外交—東アジアをめぐる國際關係の変容』, 名古屋大學出版會; 檜山幸夫, 2022·2023, 『日清戰爭の研究』上·中·下卷, ゆまに書房.
- 2 高橋秀直, 1995, 『日清戰爭への道』, 東京創元社; 大澤博明, 2021, 『明治日本と日清開戦—東アジア秩序構想の展開』, 吉川弘文館.

서 조선 정부가 동학농민군 봉기에 대해 취한 정책에 관해서는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의 연구⁴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은 청일전쟁 시기의 조선, 청, 일본 삼국 간 상호 인식과 정치적 충돌, 그리고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를 논의하는 공동 연구를 정리했다. 이 중 다이동양(戴東陽)은 청나라의 대일 정책에 주목하여 개전 과정을 분석하며, 청나라의 조선 출병에 리홍장이 조선의 ‘속방’ 논쟁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⁵ 그리고 한국에서는 청일전쟁이 조선의 사회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조선인의 시각에서 본 청일전쟁을 재구성하는 연구도 발표되었다.⁶

방대하고 다양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보면, 청일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철저히 규명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히야마 유키오(檜山幸夫)의 다음과 같은 지

-
- 3 林宗根, 1982, 『日清戰爭と朝鮮』, 青木書店.
 - 4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의 조선 외교사 연구에 나타난 역사인식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최근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많은 논문이 발표되어 있다(하지만, 2013,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의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와 한국근대사 인식」, 『송실사학』 제31집; 김중준, 2013, 「식민사학의 ‘한국근대사’ 서술과 ‘한국병합’ 인식」, 『역사학보』 제217호; 박찬승, 2013,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의 근대한일관계사 연구에 대한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7집; 김중학, 2018, 「일본의 근대 실증사학의 에토스(ethos)와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의 조선사 연구」, 『한국문화연구』 34). 그 요지는 김중학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보하시는 실증사학에 입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일본의 한국 병합을 합리화시키는 시각으로 조선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김중학, 2018, 위의 글, 43쪽). 필자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청일전쟁의 개전 과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다보하시의 연구 가치가 여전히 퇴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것이 바로 청일전쟁이 발발하기까지의 경위로 갑신정변의 주역인 김옥균과 박영효 암살(미수) 사건을 거론한 일이다. 단, 위의 연구들이 비판한 바와 같이 다보하시는 고종 및 조선 정부의 정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강하다. 이 글에서는 다보하시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고종과 조선 정부의 주체성에 주목하고, 김옥균과 박영효 암살(미수) 사건을 재검토하면서 청일전쟁 개전 과정을 논한다.
 - 5 다이동양, 2009, 「갑오 중일전쟁 기간 청 정부의 대일정책」(원문: 戴東陽「中日甲午戰爭開戰前夕新政府的對日政策」), 왕현중 외 4명,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 전략』, 동북아역사재단.
 - 6 조재근, 2024,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전쟁과 휴머니즘』, 푸른역사.

적은 일본의 조선사 연구자인 필자에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왜 이토 내각은 1894년에 반도와 대륙에 국운을 걸고서라도 침출을 결단하고 실행해야만 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명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

이 문제를 추구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조선 출병의 원인이 된 동학농민 반란이라는 조선의 내정 문제에는 일본과 청국 사이에 전쟁까지 이르게 할 만한 정치적 쟁점이 없었다는 것이다. ... 즉, 청일전쟁의 원인을 추구한다면 위안스카이 이의 전략적 의도를 차치하더라도, 직접적인 원인은 자국의 농민 반란을 외국 군대에 의존해 진압하려 한 조선 정부에 있었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논점에서 첫 번째로 다뤄야 할 것은 조선 정부의 정치적 책임 문제로, 조선 정부가 청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게 된 정책 결정 과정과 그 배경을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⁷

히야마 유기오의 청일전쟁 연구는 ‘비(非)계획적 개전설’, 즉 개전 우발론을 따른 것으로 ‘계획적 개전설’과는 다르다.⁸ 설령 청일전쟁 우발론에 근거했더라도 히야마가 지적하는 “일본과 청국 사이에 전쟁까지 이르게 할 만한 정치적 쟁점”은 중화 질서에 의거한 조중(朝中)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다보하시 기요시의

7 檜山幸夫, 2022, 『日清戦争の研究』上巻, ゆまに書房, 29~30쪽.

8 檜山幸夫는 청일전쟁의 개전 원인에 대해 高橋秀直(1995, 앞의 책)나 大澤博明(2021, 앞의 책)과 같이 우발론, 즉 청일전쟁은 일본 정부 내에서 장기적으로 계획·결의된 전쟁이 아니라, 청일 전면 전쟁으로 전개된 원인은 조선 출병 이후의 동향에서 찾아야 한다는 학설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信夫清三郎(1970, 앞의 책), 藤村道生(1973, 앞의 책) 그리고 中塚明(1968, 앞의 책)은 ‘계획적 개전설’을 제시했다. 그들은 1890년대 이후의 일본의 제국 영토 확대에 관해서는 山県有朋의 주권선·이익선 개념에 잘 나타나듯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적·필연적으로 전쟁을 이끌어나갔다고 이해했다. 단, 信夫清三郎(1970, 앞의 책)과 藤村道生(1973, 앞의 책)이 지적한 군부가 주도하여 전쟁을 이끌어나갔다는 소위 이중외교적 시각에 대해서는 현재 부정되어 있다(佐々木雄一, 2017, 『帝国日本の外交1894-1922-なぜ版図は拡大したのか』, 東京大学出版会, 2~24쪽).

연구 이래 상세한 연구 축적이 있다.⁹

단, 조선의 내정 문제였던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청일전쟁으로 귀결된 흐름을 조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종 및 조선 정부의 관점에서 청일전쟁 개전 과정을 재고할 목적으로, 조선 정부가 청병 차병을 결정한 1894년 6월 5일(양력)까지의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사용하는 사료들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와 『리홍장전집(李鴻章全集)』을 기초사료로 삼으면서, 이러한 주제의 연구에서는 본고가 처음으로 다루는 영국 외교 문서(F.O.228/1161 및 F.O.228/1168)와 주진독리통상사무(駐津督理通商事務)의 직무일지인 『구한국정부외교문서철(舊韓國政府外交文書綴)』¹⁰ 제11책을 이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된 김옥균 암살 사건과 동시에 발생한 박영효 암살 미수 사건에서 비롯된 주일공사 유기환의 이임 귀국 강행이 조선 정부의 일본 인식 및 조중 관계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한다.

둘째,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강화되면서 청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차용론이 전개되는 가운데, 조선 국왕의 청국 출병 요청에 대한 자세가 전주 함락 시점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것에 주목하며, 조선 정부 내에서의 청군 차용론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을 정리하고 그 배경에 있는 의도를 검토한다.

9 田保橋潔, 1940, 앞의 책.

10 이 사료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는 森万佑子, 2017, 『朝鮮外交の近代-宗屬關係から大韓帝國へ』, 第一章・第二章, 名古屋大學出版會; 모리마유코, 2020, 「駐津督理通商事務의 활동을 통해서 본 事大와 交隣의 교착-『舊韓國政府外交文書綴』第三冊~第五冊의 分析」, 『한국사학보』, 79; 森万佑子, 2022, 「天津からみる朝鮮の『交隣』-事大における敵禮の模索」, 岡本隆司 編, 『交隣と東アジア-近世から近代へ』, 名古屋大學出版會; 森萬佑子, 2024,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による中朝關係の變容(一八八二~一八九二年)」, 『東洋史研究』 82-4에서 자세히 논하고 있다.

II. 조중 관계의 긴밀함에 따른 갑신정변 처리: 김옥균과 박영효 암살 시도

조선 정부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에 출병을 요청하기 약 2개월 전인 1894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갑신정변(甲申政變)의 주도자 김옥균(金玉均)이 상하이에서 암살되고, 박영효(朴泳孝)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 도쿄에서 각각 발생했다. 1894년에 벌어진 김옥균과 박영효에 대한 암살 기도는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에 대한 원한을 갚으려는 조중 관계의 얽힌 복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의 청군 차용 요청 정보를 입수하자, 청일 간에 체결된 텐진조약(1885년)에 근거하여 조선에 출병하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텐진조약은 김옥균과 박영효가 주도한 갑신정변의 후속 처리로 리홍장과 이토 히로부미 사이에서 체결된 조약이었다.

1. 김옥균 암살사건

1) 조중 관계의 긴밀함에 의한 사후 처리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은 1894년 3월 28일 상하이에서 암살되었다. 김옥균 암살 사건이 일본에서 청 및 조선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보하시 기요시¹¹를 비롯한 선행연구들이 밝혔다.¹² 또한 김옥균이 갑신정변

11 田保橋潔, 1940, 앞의 책(下卷), 第22章 「金玉均暗殺事件」, 朝鮮總督府樞密院.

12 다보하시 기요시의 연구는 김옥균 암살 사건 때문에 일본에서 조청관계에 대한 인식이 악화하여 청일전쟁의 유인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이후의 연구에서도 많이 참조되었다(琴秉洞, 1991, 『金玉均と日本-その滞日の軌跡』, 綠蔭書房; 坂野正高, 1973, 『近代中國政治外交史』, 東京大學出版會, 394쪽). 1997년에는 권혁수가 당시의 사료 상황에서 보면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다보하시의 연구와 같이 김옥균 암살 사건을 청일전쟁의 유인으로 보았다(권혁수,

후에 일본에 망명하였기 때문에 그의 신변 문제가 조선, 청, 일본의 삼국의 외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되기도 했다. 김영작은 이러한 삼국의 외교 문제를 피하려고 일본 정부가 김옥균의 신변 보호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한 책임을 지적하고, 한성민은 당시 일본 정부가 불평등조약 개정을 위해 구미 열강과의 관계를 중시해서 김옥균의 신변 문제에 소극적이었으나, 청과의 전쟁 준비가 된 1890년에 들어서면서 김옥균의 신변 문제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지적했다.¹³ 또한 김홍수는 러시아 외교문서를 구사하면서 김옥균 암살 사건에 고종과 민씨 척족의 관여를 시사했다.¹⁴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필자도 별도로 상세히 논한 바 있으며,¹⁵ 이 글에서는 논의의 흐름상 필요한 부분에 한해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김옥균은 상하이 공동 조계에서 살해되었고, 이튿날인 3월 29일 체포된 범인 홍종우(洪鍾宇)도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사건은 조선인이 범인과 피해자인 데도 상하이에 주재하는 조선 영사가 없었기 때문에 회심아문(會審衙門)¹⁶에 이송되었다. 상하이 현령 황청쉬안(黃承暄)이 홍종우를 신문하여 사건의 동기와

1997, 「金玉均 暗殺事件과 淸政府의 關係에 對하여」, 『동아시아문화연구』 31, 211~277쪽).

13 金榮作, 1995, 「金玉均暗殺事件과 韓·淸·日 三國-既存學說에 대한 批判的 再檢討」,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 근대정치사의 쟁점』, 집문당, 24~318쪽; 韓成敏, 2018, 「망명자 김옥균(金玉均)에 대한 일본의 처우와 조선정책 1884~1890」, 『역사와 현실』 109.

14 金興秀, 2023, 「김옥균의 최후」, 『한국학연구』 68.

15 森万佑子, 2024, 「金玉均暗殺事件をめぐる中朝日英關係-中華秩序の崩壊の始まり」, 黒沢文貴 編, 『日本外交の近代史-秩序への順応と相剋2』, 東京大學出版會, 27~54쪽.

16 회심아문은 1869년 상하이 공동조계에 상하이 양킹빈(上海洋涇濱) 설관 심회장정에 기초하여 세워져, 상하이 공동조계 내 조약국(영사재판권을 보유한 나라) 이외의 외국인 및 중국인 간 혼합사건 및 중국인끼리의 사건을 심리하는 권한을 지닌 곳이다. 중국의 정·부 심회관과 상하이 각국 회심관(각국의 회심심회관 수는 일정하지 않지만, 통상 중국어가 가능한 부영사 12명을 파견했다)이 회동하여 재판했다(上海日報社, 1926, 『上海年鑑一九二六年版』, 上海日報社出版部).

상황을 파악한 후, 김옥균의 종자(從者)인 기타하라 엔지로[北原延次郎, 와다 엔지로(和田延次郎)라고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일본외교문서』에 나온 이름으로 기타하라를 사용함]와 살해 현장인 동화양행 여관의 주인 요시지마(吉島)가 김옥균의 시신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소청서를 제출하여 승낙받았다. 이때 홍종우는 자신이 조선 국왕의 명을 받고 김옥균을 살해했다고 시사했다.

기타하라는 3월 31일 새벽 출발하는 사이쿄마루(西京丸)를 타고 김옥균의 시신과 함께 일본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황청쉬안으로부터 상하이 도대(上海道臺)에게 보고 후 답변을 받기 위해 귀국을 1주일 연기하라는 연락이 들어왔다. 이 배경에는 암살 사건 직후 조선 정부가 텐진에 주재하는 주진독리통상사무(駐津督理通商事務, 이하 주진독리) 서상교(徐相喬)에게, 그의 카운터파트인 진해관도(津海關道) 황젠관(黃建筦)을 통해 북양대신 리홍장(李鴻章)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전달하려 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홍종우가 미국 조계¹⁷ 내에서 김옥균을 살해했기 때문에, 미국 영사의 관할이므로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따라 피고와 원고가 모두 조선인일 경우는 조선이사관(朝鮮理事官)이 처리해야 할 것이지만, 상하이에 주재하는 조선 영사가 없기 때문에 자신(주진독리)이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상하이로 가겠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서상교는 조미수호통상조약에 언급하는데, 그는 제4장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제4장에서는 조선인이 미국이 관할하는 곳에 가서 사건을 벌여질 일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서상교는 영사재판권에 관해 미국인과 조선인의 경우를 똑같이 생각했다.

또한 서상교는 황청쉬안에게는 리홍장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덧붙여 전달하도록 했다. 그것은 리홍장이 상하이 도대에게 ‘행문(行文)’하고, 상하이 도대가 미국 영사에게 ‘조회(照會)’하여 홍종우를 주진독리에게 인도하고, 조선으로

17 주진독리는 미국 조계라고 하였으나, 1863년에 미국과 영국의 조계를 통합하여 ‘공동조계’가 되었다(藤田拓之, 2015, 『居留民の上海-共同租界行政をめぐる日英の協力と対立』, 日本經濟評論社, 26~27쪽).

송환할 수 있도록 처리해달라는 내용이었다.¹⁸ 즉, 조선 정부는 김옥균의 시신과 홍종우의 신병을 인도받기 위해, 조선 국왕이 주진독리를 통해 리홍장에게 요청했고, 청국은 이를 받아들여 회심아문에서의 재판에 개입한 것이다.

이러한 주진독리 서상교의 태도는 조선 정부에서 온 전보를 바탕으로 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조선 정부는 홍종우의 신병과 김옥균의 시신의 인도를 강력하게 원했던 것이다.

2) 영국 영사의 지원

이러한 청국의 회심아문 개입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상하이에 주재한 영국 부영사 스콧(James Scott)의 대응과 영국 영사관의 동아시아 인식이 있었다.

회심아문 배심관을 겸임하던 스콧은 3월 30일, 홍종우가 기소되어 다시 구금되는 자리에 참석했으며, 그 자리에서 상하이 도대가 위안스카이(袁世凱)와 리홍장으로부터 각각 전보를 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전보에는 조선 국왕이 김옥균의 죽음에 대해 만족의 뜻을 표하며, 홍종우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군함을 파견해 홍종우의 신병과 김옥균의 시신을 조선으로 운송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또 다른 전보가 도착해 홍종우를 상하이에 있는 조선 관료인 조한근(趙漢根)에게 인도하라는 요청이 있었고, 3월 31일 밤, 스콧은 회심아문의 배심관으로서 상하이 현령, 회심아문 장관, 조한근, 경찰서장과의 회의에 참석하여, 경찰서장이 공식적으로 홍종우를 중국 당국에 인도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그리고 홍종우는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을 상황이었으나, 위안스카이와 리홍장을 통해 전달된 조선 국왕의 긴급한

18 “花農觀督 仁兄大人閣下, 頃送電抄已蒙台覽, 並承允准明早十點鐘枉顧心感之至, 弟思洪鍾宇係在美租界內殺玉均, 想必為美領事所押, 惟兩造均係朝鮮人, 按通商條約, 自應歸朝鮮理事官宜辦, 惟辰下敝國尚無駐滬理事, 敝署督理所以奉命前往, 荷以仰懇台端代求, 中堂行文上海道照會美領事, 將洪鍾宇交敝署督理, 送回本國, 照例辦理, 為荷為此, 專佈, 順頌, 台安, 徐相喬頓首, 二月二十四日”, 『구한국정부외교문서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청구기호 한은84, 「제십일책」(이하 『구한국정부외교문서철』 「제십일책」 「제사십칠건」).

요청을 존중하여, 살해당한 남자(김옥균)가 대역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무법자였다는 점을 이유로 중국 당국은 홍종우에 대한 관할권과 재판권을 포기하기로 동의했다.¹⁹

이 배경에는 영국 영사관원이 조선을 중국의 ‘속방’으로 이해했던 일이 있었다. 영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보면 하나는 중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할 만한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다른 하나는 중국과의 자유 무역을 영국이 독점하면서 확대하기를 원했다. 그러한 영국의 동아시아 정책 때문에 영국은 중국이 조선을 ‘속방’으로 삼아 ‘지배’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았다.²⁰

이러한 상하이에서의 조선, 청국, 영국 간의 협력에 비해, 상하이에 주재하던 일본 영사 오코시 나리노리(大越成徳)는 전임지인 영국에서 막 부임한 신임 영사였고, 일본 외무성의 지시²¹도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²² 이로 인해 김옥균이 갑신정변 이후 상하이로 갈 때까지 일본에 망명해

19 Embassy and consular archives-China: Correspondence series 1 (British Foreign Office [collection]; F.O. 228), F.O.228/1161, No.19, 9th April 1894, H. B. M. Consulate General, Shanghai, Assassination of the Korean Conspirator Kim Ok Kiun at Shanghai, 1 Enclosure.

20 佐々木揚, 1981, 「イギリス極東政策と日清開戦」, 『佐賀大學教育學部研究論文集』 29-1, 39쪽; 石井摩耶子, 1998, 「近代中國とイギリス資本-19世紀後半のジャーディン・マセソン商會を中心に」, 東京大學出版會, 제1장; 小林隆夫, 2012, 『一九世紀イギリス外交と東アジア』, 彩流社, 7~12, 256쪽.

21 1894년 4월 4일에 일본의 아시아 주의자들은 김옥균의 사신을 인도받으려고 상하이로 갔는데, 무쓰 외무대신은 그 일본인들이 일본 영사관을 찾아와도 김옥균은 외국인이므로 일본 영사에게는 관계가 없다고 말해 거절하라고 명령했다[1894년 4월 4일, 무쓰 외무대신이 상하이 주재 오코시 총영사 대리에게, 「金玉均遺骸引取りに關し内訓の件」,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1冊(以下『日外書』), No. 312].

22 예컨대, 홍종우가 무조건 조선 측에 넘겨진 후에 상하이 영사회의에서 영국영사(Nicholas J. Hannen)가 “청국이 심사할 때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인도했으므로 지장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그는 조선인이니 (더욱) 그렇다”, “조선은 청국의 속방이다”라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오코시 영사는 “속방이 아니다. 우리와는 독립국으로서 조약을 맺었다. 조선에 넘긴다면, 시체 위에 형육(刑戮)을 더해야 한다. 무조건 넘긴다니 어찌 된 일이나?”라고 되물을 뱉어냈다(1894년 4월 6일, 상하이 주재 오코시 총영사 대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居留地警察署に於て暗殺者洪鐘

있었음에도 일본 정부는 김옥균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고,²³ 김옥균의 시신과 홍종우의 신병은 조선 정부의 희망대로 조선 측에 인도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아시아주의자들이 바랐던 것처럼 일본이 김옥균의 시신을 받아 일본에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조선에 돌아간 김옥균의 시신이 비문명적인 능지처사에 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 외무대신은 능지처사를 막기 위해 조선 주재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에게 조선의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 독판 조병직(趙秉稷)과 협상할 것을 명령했다. 오토리 공사는 조병직에게 무쓰 외무대신의 입장을 전했으나, 조병직은 능지처사가 조선의 국가적 명예를 훼손하고 외국의 감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조선에는 500년간 이어져온 옛 법이 있으며 여론도 이를 지지하고 있어 자신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²⁴ 4월 12일, 김옥균의 시신과 홍종우는 인천에 상륙하였고, 14일 김옥균의 시신은 능지처사에 처해졌다.²⁵

김옥균의 시신에 대한 능지처사가 집행된 후인 4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영사 회의에서 오토리 공사는 능지처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러시아 공사는 이에 대해 “김옥균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었고, 오토리가 “한국 국적”이라고 답하자, 러시아 공사는 “한국 국적이라면 한국이 스스로 처리해야 하며, 우리는 사람을 보내 권유할 수 있을 뿐 내정에 개입하는 것은 좋지

字及金玉均死體を清國官吏へ公布並に領事會議の模様ニ付上申の件」, 『日外書』, No. 314).

23 김옥균 ‘암살방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략적 의도에 관해서는 金榮作, 1995, 앞의 글, 302~318쪽.

24 1894년 4월 11일(임시), 조선국 주재 오토리 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金玉均屍體處分に付朝鮮國政府へ忠告したる旨報告の件」 『日外書』, No. 316.

25 또한 동시에 조선 정부 내에서는 홍종우의 승진도 계획되었지만, 상하이 영사단의 의견과 청국 총리아문의 권고를 조선 정부가 배려했다. 그 결과 5월 24일 직부전시(直赴殿試)에서 7월 1일 부수찬(副修撰)까지는 시간이 비어 있다(광서 20년 3월 13일, 申刻). 顧廷龍·葉丕廉 主編, 1986, 『李鴻章全集』 2, 上海人民出版社(이하 『리홍장전집』), 669쪽.

않다”고 말하는 등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고 위안스카이가 리홍장에게 보고했다.²⁶

이상과 같은 김옥균 암살 사건 사후 처리 과정을 보면, 조선 정부는 청국과 영국의 지원 아래 김옥균의 시신과 홍종우의 신병 인도, 그리고 능지처사와 홍종우의 승진²⁷을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시킬 수 있었다. 또한, 조선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중국, 영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에 반발하지 못하는 상황도 목격하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여론은 김옥균 암살사건 때문에 청국 및 조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양성했었는데,²⁸ 조선 정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오히려 조중 간의 협력과 이를 지지하는 영국 영사, 러시아 공사 등 외국 사신들 앞에서 일본 외교가 강하게 나서지 못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던 것이다.

2. 박영효 암살 미수 사건과 유기환 공사의 귀국

1) 박영효 암살 미수 사건

김옥균 암살 사건과 동시에, 도쿄에서는 박영효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²⁹ 1892년에 김옥균과 박영효를 살해할 목적으로 일본에 건너와, 왕명

26 총리아문에 보냄, 광서 20년 3월 11일 辰刻, “袁道電: … 再, 聞昨, 各使會議求寬金屍, 俄使詢大鳥, 金究何國籍, 鳥答仍韓籍, 俄等謂, 既韓籍, 應由韓自辦, 我輩只可遣人勸商, 未便幹預其內政等語”, 『리홍장전집』, 668쪽. 1894년 6월 9일에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濬) 임시대리공사는 무쓰 외무대신에게 “김옥균의 시체에 형을 더할 때 오토리 공사가 열었던 사신 회의(使臣會議)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했다(1894년 6월 9일, 조선국 주차 스기무라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金玉均生父及妻女ニ對スル處分報告ノ件」, 『日外書』 No. 336).

27 홍종우의 귀국에서 승진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는 각조 25를 참조(광서 20년 3월 12일 申刻, 「寄朝鮮袁道」, 『리홍장전집』, 669쪽).

28 小林瑞乃, 2010, 「日清戰爭開戰前夜の思想狀況 -金玉均暗殺事件をめぐる一考察」, 『青山學院女子短期大學紀要』 第64輯.

을 받았다고 알려진 이일직(李逸植), 권동수(權東壽), 권재수(權在壽) 세 명은 1894년 1월경부터 암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들은 1894년 3월 24일 고베(神戸)에서 김옥균 일행이 상하이로 출발하는 것을 배웅한 후, 25일에 도쿄로 돌아와 26일에는 암살을 결행할 준비를 마쳤다. 이일직은 3월 26일에 박영효를 자신이 묵고 있던 운래관(雲來館)으로 불러들이려 했으나, 오히려 박영효가 그가 머물고 있던 친린의숙(親隣義塾)으로 이일직을 불러들여 심문하게 했다. 이일직은 친린의숙을 방문하여 박영효를 운래관으로 데려가려 했으나 실패했다.

김옥균 암살이 3월 28일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³⁰ 이일직 등은 박영효가 그 소식을 듣기 전에 암살해야 한다는 초조함을 느꼈다. 그래서 이일직은 친린의숙으로 가는 한편, 권동수와 권재수는 권총과 도검을 소지한 채 운래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일직이 친린의숙을 방문했으나, 숙생인 이규완(李圭完)과 정난교(鄭蘭教) 등에 의해 제압되었다. 그 사이 권동수와 권재수는 이일직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껴, 권총과 도검을 지닌 채 조선 공사관³¹으로 출두해 임시대리공사 유기환(兪箕煥)에게 보호를 요청했다. 3월 29일, 유기환은 이일직을 친린의숙에서 구출하기 위해 고지마치(麴町)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으며,³² 무쓰 무네미쓰 외무대신에게 이일직의 조선 공사관으로의 호송을 요청하는 서신을

29 이하 박영효 암살 미수 사건의 개요와 유기환 대리 공사 귀국의 전말은 田保橋潔, 1940, 앞의 책(下卷), 제22장 「金玉均暗殺事件」, 191~202쪽을 참고했다.

30 田保橋潔, 1940, 위의 책, 193쪽. 다보하시는 이 부분에 관해 「李逸植謀殺未遂被告事件檢事聽取書, 同豫審調書」를 인용하고 논하고 있다.

31 주일조선공사관에 대해서는 한철호, 2010, 『한국근대 주일한국공사의 파견과 활동』, 푸른역사가 상세하다. 한철호는 유기환의 이임 귀국 문제에 대해서 일본 『東京朝日新聞』을 활용하여 언급했다. 단 이 글에서는 외교 당국의 입장을 더 깊이 분석하기 위해 『일본외교문서』를 중심 사료로 삼으면서 『東京朝日新聞』도 참조했다.

32 1894년 3월 2일(원문 그대로)(4월 2일의 오기) 조선국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取調の必要あるを以て李逸植を公使館に護送されたき旨申出の件」, 『日外書』 No. 337.

보냈다.³³ 같은 날 고지마치 경찰서가 친린의숙을 수색하여 이일직을 구금에서 풀어주고 본서에서 심문을 진행했다.

2) 유기환 공사의 이임 귀국 강행

경시청은 본 사건을 중시하여, 3월 31일에 이일직, 박영효, 이규완, 정란교 등 7명을 심문한 후, 도쿄 사법 재판소 검찰국에 송치했다. 그러나 권동수와 권재수는 조선 공사관으로 도피했기 때문에, 이들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절차가 필요했다. 이에 무쓰 무네미쓰 외무대신은 유기환 임시 대리공사에게 ‘만국 보통의 관례’를 들어 권동수와 권재수의 인도를 요구했다.³⁴ 이에 대해 유기환 공사는 이일직, 권동수, 권재수는 본국 정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인물들이며, 이미 본국 정부에서 소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들이 실종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 1월에 일본 정부에 그들의 소재 파악을 요청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던 와중 3월 28일 권동수와 권재수가 긴급한 상황에서 조선 공사관으로 피신해 와 현재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첫째, 이일직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 공사관으로 인도해 줄 것, 둘째, 권재수는 경찰서에 인도할 수 있지만 당일 안에 다시 공사관으로 돌려보낼 것, 셋째, 권동수는 ‘육군성’ 관원³⁵으로 본국의 지시를 기다린 후 경찰서 출두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급할 경우 일본 경찰이 조선 공사관으로 와서 심문하는 것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회신했다.³⁶

33 1894년 3월 29일 조선국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刺客李逸植の引渡要求の件」, 『日外書』 No. 338; 3월 29일 조선국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李逸植の引渡重ねて要求の件」, 『日外書』 No. 339.

34 1894년 3월 31일, 무쓰 외무대신이 조선국 임시대리공사에게, 「權東壽權在壽を尋問する要あるを以て兩人の召喚を応諾されたき旨請求の件」, 『日外書』 No. 340.

35 이 글에서는 『일본외교문서』에서 나온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단 『승정원일기』를 보면 권동수는 1894년 3월 1일(고종 31년 1월 24일)에 친군장위영(親軍壯衛營) 소속이었다가 감하되었다(『승정원일기』 고종 31년 1월 24일).

36 3월 2일(원문 그대로)(4월 2일의 오기), 조선국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取調の必要あるを以て李逸植を公使館に護送されたき旨申出の件」, 『日外

4월 2일, 무쓰 외무대신은 권동수가 ‘육군성’ 관원이므로 일본 경찰서에 인도할 수 없다는 유기환 공사의 주장에 대해, 만국공법에 따라 외교관에 대해서는 주재국 경찰이 공사관에서 심문할 수 있는 예가 있지만, 이번과 같은 인물, 더욱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경찰이 조선 공사관에 가서 심문한 전례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첫째 사항인 이일직의 인도에 대해, 조일 간 조약에 따르면 조선 정부는 일본 내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조선 공사관에 보내거나 구금할 권리가 없으며, 유기환 공사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³⁷

동시에 무쓰 외무대신은 오토리 공사에게 전보를 보내,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 독판과 협상하여 만국의 공법에 따라 신속히 이들의 신병을 인도하도록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4월 1일, 무쓰 외무대신의 지시를 받은 오토리 공사는 4월 2일에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 독판 조병직의 자택을 방문했다. 조병직은 치외법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본에 있는 조선인도 조선에 있는 일본인처럼 치외법권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토리 공사가 조선은 일본과의 조약에 따라 치외법권이 없음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각종 만국공법의 치외법권에 관한 서술 부분을 뽑아 독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4일 정오까지 권동수와 권재수의 인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³⁸ 조병직은 참의 샤를 르장드르(Charles W. Le Gendre, 李善得)와 협의한 끝에, 일본 재판소에서의 조사를 위해 권동수와 권재수를 일단 인도하는 것에 동의하되, 조사 완료 후에는 조선 법률을 위반한 것을 처벌할 것이므로, 이일직, 권동수, 권재수를 다시 조선 공사관에 인도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4월 3일 오후 2시에 유기환 공사에게 전보를 보냈다.

書』 No. 337.

37 1894년 4월 2일, 무쓰 외무대신이 조선국 임시대리공사에게, 「兩權を我が裁判所に召喚することに應諾されたき旨請求の件」, 『日外書』 No. 342.

38 1894년 4월 5일, 조선국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權東壽等の逮捕に關し朝鮮政府との交渉の件」, 『日外書』 No. 247.

하지만 한성에서 오토리 공사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이 협상하는 동안 일본 외무성과 유기환 공사 간에도 권동수와 권재수의 인도 문제에 대해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보낸 전보가 유기환 공사에게 도착하기 전인 4월 3일 오전 8시, 일본 외무성은 이날까지 답변을 요구했었지만 유기환 공사가 애매모호한 태도였으니 경찰관을 조선 공사관에 파견해 권동수와 권재수를 공사관 밖에서 체포했다.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은 4월 1일에 무쓰 외무대신이 권동수와 권재수의 인도를 요구한 직후부터 조선 공사는 본국 정부와 빈번히 전보를 주고받으며 주일본 청국 공사관에 가서 청국 공사와 상의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³⁹ 이 보도가 진실이라면 조선 공사는 한일 외교 문제를 청국 공사에게 상담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다른 외국 공사가 아닌 청국 공사에게 상담한 이유는 바로 조중 관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유기환 공사에게 보낸 전보에도 일본에서 조사가 끝난 후 이일직, 권동수, 권재수를 조선 공사관에 인도할 것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래서 유기환 공사는 조일 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조선 공사관에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비난했다. 그리고 4월 5일에 유기환 임시 대리공사는 무쓰 외무대신에게 이임 귀국과 외교 관계 단절을 통보하고, 조선 공사관의 사무대리인의 이름도 알리지 않은 채 사실상 조선 공사관을 철수했다. 같은 날 유기환 공사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국권 침해’를 이유로 이임 귀국을 요청했고,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이튿날 귀국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상신하고 정부의 지시를 기다리라는 회신을 보냈으나, 유기환 공사는 이미 귀국길에 올랐다.⁴⁰

4월 6일, 무쓰 외무대신은 오토리 공사에게 유기환의 귀국이 조선 정부의

39 「잡보 二權의拘引」, 『東京朝日新聞』, 明治 7년 4월 5일 1면 4단.

40 4월 5일 아침 첫 기차를 타고 귀국했다(「잡보 朝鮮代理公使の歸國」, 『東京朝日新聞』, 明治 7년 4월 6일 1면 2단).

명령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⁴¹ 유기환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로 간주했다.⁴²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유기환 공사의 강행한 귀국에 놀라며, 4월 9일 변리공사 김사철(金思轍)을 공사로 임명하고, 그가 도착할 때까지 주일 서기관 김사순(金思純)을 대리로 지정해 일본 측에 통보했다.⁴³

유기환 공사는 일본 정부가 조선 공사를 능욕했기 때문에 귀국을 강행했다고 귀국 후에 민영준(閔泳駿)과의 대화에서 토로했다.⁴⁴ 그리고 유기환은 즉시 영사를 파견해 조선인의 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으나, 민영준은 이 문제는 어렵고 비밀리에 각국 공사들과 상의한 후 위안스카이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했다.⁴⁵ 즉, 조일 간의 조약에 따르면 조선은 일본에서 영사재판권이 없지만, 위안스카이의 중재를 통해 각국 공사들과 협의하여 영

-
- 41 고종 31년 3월 4일, (발신) 독판교섭통상사무 조병직, (수신)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 스케, 「同上経緯와 書記官 金思純館務代辦의 件」, 아세아문제연구소 구한국외교문서편찬위원회 편, 1967, 『구한국외교문서』 제2권(일안 2), 고려대학교출판부, 2747.
- 42 무쓰 외무대신은 유기환이 ‘조선국 정부의 交際官’으로 다시 일본에 돌아올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1894년 4월 9일, 무쓰 외무대신이 조건국 주차 오토리 공사에게, 「代理公使不在中の事務代理者任命を朝鮮國政府へ勸告すべき旨訓令の件」, 『日外書』 No. 351).
- 43 고종 31년 3월 4일, (발신) 독판교섭통상사무 조병직, (수신)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 스케, 「同上経緯와 書記官 金思純館務代辦의 件」, 아세아문제연구소 구한국외교문서편찬위원회 편, 1967, 앞의 책, 2747.
- 44 「方今, 朝日兩國ノ勢ハ、竝立ス可カラス、我國ハ既ニ内外ノ權理ヲ失ヒ、凌侮ヲ日本ニ受ケリ、和約已來、泰西各國ハ然ラスシテ、瀾リ日本ニ至リテハ、我ヲ凌ク事太甚シク、餘地アラス、1894년 5월 5일, 조선국 주재 일본공사관 기밀 보고, 「在本邦駐劄朝鮮國公使の進退並洪鐘宇に關する風説の件」, 『日外書』 No. 355. 이 사료를 비롯하여 『일본외교문서』에는 일부 소문에 근거하여 외무대신에게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한 부분은 신빙성이 불충분하므로 조선 정부의 내정을 분석하기에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단, 일본 정부가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선 정책을 세웠다는 일은 중요하다.
- 45 1894년 5월 5일, 조선국 주재 일본공사관 기밀 보고, 「在本邦駐劄朝鮮國公使の進退並洪鐘宇に關する風説の件」, 『日外書』 No. 355.

사재판권을 행사하려는 것이었다. 즉, 조약이나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위안스카이(중국)의 중재를 통해 각국 공사들과 협의하여 조선 정부의 희망을 이루려 했던 것은 앞서 김옥균 암살 사건의 사후 처리와 유사한 구조를 보였다.

3) 일본의 조선 출병에 대한 우려

한편, 유기환 공사가 귀국을 강행한 지 3일 후, 총리아문은 리홍장에게 일본 정부가 조선에 출병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나가사키 이사관(長崎理事官)의 전보를 받고 즉시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이때 총리아문은 일본 정부가 조선에 출병할 경우, 그 이유가 김옥균 암살 사건과 이일직, 권동수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총리아문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과 오토리 공사의 협상을 주시하도록 리홍장에게 지시하는 동시에, 유기환 귀국 후의 대리 사절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⁴⁶ 이에 리홍장은 4월 8일, 위안스카이와 주일 공사 왕평자오(汪鳳藻)에게 이 건을 조사하도록 명령했다.⁴⁷

그런데 4월 8일 리홍장이 왕 공사에게 보낸 전보에서, 리홍장은 “일본이 조선 공사관 내에서 권동수를 체포한 것이 공법에 위배된다”고 기록했다. 4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임시 대리 공사와 독일 공사 바론 호프 센크의 대화에서도 독일 공사가 주조선 영사의 보고를 인용해 “박영효 암살 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도쿄 조선 공사관의 특권을 침해했다든가 하는 소식인데 실제로 어떠한지 문의”⁴⁸하고 고무라에게 이를 확인

46 조선 주재 위안스카이에게 보냄, 광서 20년 3월 초3일 申刻, “總署電: 長崎理事官電聞, 日廷電調兵急赴韓, 速查復, 金玉均事有無首尾雲, 是否因李逸植, 權東壽事後變? 外署與大鳥理論若何? 俞箕煥回後, 韓駐倭有人否? 有無電報? 速查示. 鴻”, 『리홍장전집』 663쪽.

47 일본 주재 왕평자오에게 보냄, 광서 20년 3월 초3일 酉刻, “日遣捕搜擊韓使館內權東壽違公法, 韓員俞箕煥撤回, 作何調停? 長崎理事電聞日廷調兵赴韓, 確否? 速查覆. 鴻”, 『리홍장전집』 663쪽.

48 1894년 4월 26일, 청국 주차 고무라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權東壽等逮捕問題に關し清國駐劄獨國公使と問答に關し報告の件」, 『日外書』 No. 354.

했다. 외국 사신들 사이에서는 일본 경찰이 조선 공사관 내로 들어가 권동수 등을 체포했다고 오해하고 있던 듯하다. 그러나 유기환 공사가 귀국 직전에 무쓰 외무대신에게 보낸 서신에는 일본 관헌이 조선 공사관에 침입한 것에 대한 비판은 없고, 오히려 조선 ‘육군성’ 관원인 권동수를 체포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만 있었다.⁴⁹ 앞에서 인용한 『도쿄아사히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유기환 공사는 청국 공사와 상의하여 권동수와 권재수가 조선 공사관 내에서 체포되면 조선의 국가 체면을 상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두 사람을 공사관 밖으로 방축한 후에 일본 경찰에 체포시켰다고 보도했다.⁵⁰

4월 9일 위안스카이가 리홍장에게 보낸 보고서에는 “유기환 공사가 분개하여 국왕에게 전보를 보냈고, 그것을 받은 국왕이 매우 화를 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왕의 ‘화’는 조선 정부가 유기환 공사에게 지시를 내리기 전에 일본 경찰이 조선 관리인 권동수를 체포한 것에 대한 ‘화’일 가능성이 크다. 후술하겠지만, 이 사건에 국왕의 관여가 의심되었으므로, 조선 정부가 사건 처리를 주도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유기환 공사와 고종 모두 4월 2일 무쓰 외무대신이 주장한 “만국공법에 따라 외교관에 대해서는 주재국 경찰이 공사관에서 심문할 수 있는 예가 있지만, 이번과 같은 인물, 더욱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경찰이 조선 공사관에 가서 심문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중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총리아문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일본이 조선과의 외교적 마찰로 인해 조선에 출병하게 될 가능성이었다. 그러나 오토리 공사는 이를 웃으며 부인했다고 위안스카이가 리홍장에게 보고했다. 이로 인해 적어도 위안스카이에게는 일본의 조선 출병 우려는 해소되었다.⁵¹ 또한 일본 왕평자오 공사도 일본의 조선

49 1894년 5월 22일, 무쓰 외무대신이 본방 주차 김 판리공사에게, 「新公使任命通知受領並兪箕煥氏來書返戻の件」, 『日外書』 No. 358, 附屬書.

50 「잡보 二權의拘引」, 『東京朝日新聞』, 明治 7년 4월 5일 1면 4단.

51 총리아문에 보낸, 광서 20년 3월 초4일 申刻, “袁道支電: 頃派譯員往探大鳥詞

출병은 소문이라고 보고했다.⁵²

더욱이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5월 21일 일본 내무대신이 권동수와 권재수를 국외로 추방하는 형식으로 조선에 송환하면서 마무리되었다.⁵³ 즉, 일본 정부는 갑신정변의 주도자인 김옥균과 박영효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을 조약과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려 했지만, 두 사건 모두 결국 조약과 국제법의 엄밀한 적용을 회피하고 조선 정부의 뜻대로 마무리되었다. 총리아문에서 이 두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만이 조선 출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를 우려했을 정도로 일본의 외교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총리아문의 우려는 위안스카이와 왕평자오 공사의 대일 분석 결과로 사라졌으며, 당연히 조선 정부에서도 총리아문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조선 출병을 더 이상 우려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이 조선에 출병하기 약 2개월 전, 조선을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는 조중 관계와 이를 지지하는 열강의 사신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특히 갑신정변이 발생한 지 10년이 된 1894년에 갑신정변의 주도자인 김옥균과 박영효의 암살(미수) 사건이 일어난 일이 주목된다. 리홍장은 김옥균 암살 사건에 대해서는 국왕이 비밀리에 파견한 인물이 수행했다고 이해하여,⁵⁴ 일본 정부는 이일직의 자백으로 인해 국왕의 간여를 의심하고 조선 정부에게 문의했다.⁵⁵ 조선 정부는 간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갑신정변에서 10년이 지난

意, 毫無生事端倪, 並藉風聞有日兵船數隻, 將來韓詢以有無, 大鳥笑答無, 必係謠言等語, 似無生變事雲”, 『리홍장전집』 665쪽.

52 총리아문에 보냄, 광서 20년 3월 5일 巳刻, “支電轉袁道: 洪姓即戕金凶手, 由倭同赴滬遊歷者, 訊係韓王密遣刺殺, 然不在倭境, 倭不能過問. 汪電稱, 調兵事係訛傳, 似未弁不商會遽動兵, 自違前約. 鴻”, 『리홍장전집』 666쪽.

53 1894년 5월 21일, 소노다(園田) 경시총감이 무쓰 외무대신에게, 「權東壽等國外追放に關し上申の件」, 『日外書』 No. 357. 이일직은 10월 2일 국외추방 명령이 내려졌다[1894년 10월 2일, 소노다 경시총감이 무쓰 외무대신에게, 「李逸植に追放命令を傳達したる旨上申の件」, 『日外書』 No. 362].

54 총리아문에 보냄, 광서 20년 3월 5일 巳刻, “支電轉袁道: 洪姓即戕金凶手, 由倭同赴滬遊歷者, 訊係韓王密遣刺殺, 然不在倭境, 倭不能過問. 汪電稱, 調兵事係訛傳, 似未弁不商會遽動兵, 自違前約. 鴻”, 『리홍장전집』 666쪽.

이 시기에 당시의 긴밀한 조중 관계를 이용하면서 갑신정변의 사후 처리를 완벽하게 끝내고자 하는 의도가 조선 정부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일본 정부는 조약과 국제법을 명분으로 외교를 펼쳤으나 중화 질서에 의거한 조중 관계 앞에서 무력함을 드러냈다. 반면 조선 정부는 외교를 담당하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이 치외법권을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음에도, 자국의 의도대로 사건이 전개되는 경험을 했다. 이는 조약이나 국제법보다 리홍장과 위안스카이의 중재를 통해 대일외교를 수행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III.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청군 차용의 결정 과정

1. 청군 차용 의논의 전개

1) 선행연구 정리

조선 정부가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위해 청군을 차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김창수⁵⁶와 구선희⁵⁷가 이미 상세히 연구한 바 있다. 김창수는 외국 군대를 차용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상세히 다루었다. 그는 다보하시 기요시의 연구와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를 활용하여, 김병시 등 반대했던 대신들이 있었지만, “척신 민영준의 책동과 국왕의 적극론에 의하여 청나라 군대 청원을 일부 대신들의 반대론을 찬동론으로 유도함으로써 결국 청군 출동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국왕의 무력함과 외세에 의존함으로써 정치 권력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민씨 일파의

55 1894년 4월 4일, 조선국 주차 오토리 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전보), 「朝鮮國王の命令書は偽書なる旨回答の件」, 『日外書』 No. 354.

56 김창수, 1981, 「동학농민혁명과 외병차입문제」, 『동국사학』 15·16.

57 구선희, 1999, 『한국군대 대청정책사연구』, 해안, 219~220쪽.

책동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⁵⁸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구선희는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季中日韓關係史料)』와 『리홍장전집』 등 청나라 측 기록을 활용하여, 당시 조선에 주재했던 위안스카이, 리홍장, 그리고 총리아문 간의 교류를 추적하며, 민영준과 위안스카이에 의한 청군 차용 교섭의 내막을 밝혀냈다. 동학농민군의 진압 방안으로는 농민군이 요구한 내정 개혁을 시행하는 방법과 농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법이 있었으며, 이 중 민영준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군 차용을 고집한 것은, 민씨 척족에게 불리한 내정개혁에 대한 대안으로 청나라 군대를 차용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아닌 청에 의존한 이유는 ‘상국’과 ‘소국’의 관계라는 ‘속방’ 체제의 논리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⁵⁹ 또한 구선희는 고종이 최종적으로 민영준의 의견에 동의한 것은, 그동안의 반청 정책이 실패하여 왕권의 안정과 보호에만 관심이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⁶⁰

2) 선행연구의 과제

김창수와 구선희 모두 1893년 4월 말(음력 3월 중순)에 충청도에서 일어난 동학의 보은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차대(次對)에서 고종이 태평천국의 난 당시 중국이 영국군을 차용한 예를 들어 청군 차용을 논의한 것을 언급하며, 그 연장선에서 1894년 6월 청나라에 출병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했다.⁶¹ 이러한 해석은 다보하시 기요시의 연구 틀을 계승한 것이다.⁶²

하지만 1893년의 청군 차용 제안과 1894년의 청군 차용 요청을 단순히 같은 문맥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1893년의 경우, 고종이 직접 청군 차용을 제안

58 김창수, 1981, 앞의 글, 51쪽.

59 구선희, 1999, 앞의 책, 222, 224쪽.

60 구선희, 1999, 위의 책, 221쪽.

61 김창수, 1981, 앞의 글, 34쪽; 구선희, 1999, 위의 책, 219쪽.

62 田保橋潔, 1940, 앞의 책(下卷), 235쪽.

했으나 대신들이 반대하는 구도였다.⁶³ 그런데 1894년에는 초토사 홍계훈(洪啓薰)으로부터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커져 도저히 진압할 수 없으니 청군의 내조(內助)를 요청한다는 전보가 도착했으나, 고종은 청군 차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⁶⁴ 그리고 고종이 청군을 차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5월 31일 전주가 함락된 이후, 조선 정부가 주진독리 서상교에게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강하다는 전보를 처음 보낸 6월 1일,⁶⁵ 혹은 ‘국왕 전칙(國王電飭)’을 보낸 6월 2일 12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⁶⁶ 따라서 고종이 1894년 동학농민군 진압에 대해 1893년의 연장선에서 동일한 사고로 정책을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고종은 어떤 생각에서 청군 차용 정책을 결정했을까? 이하에서는 조선 정부 내에서 청나라 정부에 군대 차용 요청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을 재고찰하도록 하겠다.

2. 고종이 본 동학농민군 진압을 둘러싼 정책 결정 과정

1) 초토사 홍계훈에 의한 청군 내조 요청

1894년 5월 9일, 경군(京軍) 초토사는 전라도 군산포에 상륙해 11일 전주에 입성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전라감영의 군대가 황토현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대패하면서, 비로소 조선 정부는 초토사의 군대로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수 있을지

63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3월 25일, “敎曰, 借用他國兵, 亦有各國之例也, 然而何必借兵耶. 舜澤曰, 此則不可矣. 若用之, 則軍餉, 不得不自我國進排矣. 秉世曰, 不必借兵矣. 範朝曰, 借兵, 何必遽議乎. 上曰, 中國, 曾有借用英國兵之事矣. 範朝曰, 此豈可效中國事乎. 上曰, 非欲借各國也, 清兵可用, 故言之矣. 範朝曰, 清兵借用, 雖異於各國, 而曷若初不借之爲好乎. 上曰, 布諭後不散, 則可以剿討者剿討, 可以安集者安集, 廟堂會議, 而亦議於時原任將臣, 可也.”

64 1894년 5월 23일, 조선국 주차 스키무라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朝鮮國政府清國に援兵を乞う議中止したる旨報告の件」, 『日外書』 No.498.

65 『구한국정부외교문서첩』 「제십일책」 「제오십칠건」.

66 『구한국정부외교문서첩』 「제십일책」 「제육십일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5월 16일, 민영준은 초토사로부터 받은 ‘청병 내조(淸兵內助)’를 요구하는 전보를 근거로, 이미 위안스카이와 비밀 협정을 맺었다며 고종에게 청군 차용을 제안했다. 하지만 고종은 청군 차용은 ‘경거(輕擧)’이며, 대신들과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⁶⁷ 이를 뒤인 18일 열린 회의에서는 청군 차용에 대해 대신들이 세 가지 이유⁶⁸를 들어 반대했고 고종도 이에 동의했다. 이때 두 번째 반대 이유로 ‘외국 군대가 국내에 들어오면 여러 국가의 사절들이 반드시 출병하여 공관(公館)을 보호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기 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대신들이 청군 차용이 외국의 출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었다. 구선희는 대신들이 민영준보다 국제 정세를 더 객관적으로 읽고 있었다고 지적했다.⁶⁹ 그러나 대신들이 말한 외국 출병의 근거가 되는 조약이나 국제법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군을 차용할 경우 타국이 맞대응하여 출병하거나 대사관을 보호하기 위해 출병하는 것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고려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대신들은 내부 개혁과 자국의 병력에 의한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고종은 심영(沁營)에 병력 다섯 초(哨)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그 총제사(總制使)로 민응식(閔應植)을 임명해 병력을 출발시키고, 다음 날인 15일 강화도로 향하게 했다.⁷⁰

67 “請兵一款，不可輕擧，爛商於諸大臣，以爲辦決可也”，1894년 5월 23일, 조선국 주차 스키무라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朝鮮國政府淸國に援兵を乞う議中止したる旨報告の件」, 『日外書』 No. 498.

68 “一曰，有國以民爲本，而剿滅幾萬生靈，謂一難。外兵一入國內，京鄉弊端無所不及人心煽動矣。謂二難。外兵入國內，各國使客必有出兵各守公館，易致生變矣。謂之三難也”，1894년 5월 23일, 조선국 주차 스키무라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朝鮮國政府淸國に援兵を乞う議中止したる旨報告の件」, 『日外書』 No. 498.

69 구선희, 1999, 앞의 책, 224쪽.

70 “上曰，(略)卽爲命招總制使閔應植，使之調發沁營(江華營ヲ雲フ)，兵丁五哨往助可也。該總制使閔應植，調發兵丁次十五日下去江華”，1894년 5월 23일, 조

2) 고종의 피신 가능성

심영으로 병력을 추가 파견하는 것은 대신들과의 회의가 있던 전날인 5월 17일에 고종이 영국 총영사 힐리어(Sir Walter Caine Hillier)와 찰스 콜웰 중장(Sir Charles Edward Callwell KCB)을 궁궐로 초청해 콜웰 중장을 환대하며 언제 강화로 떠날 것인지 묻고, 가능한 한 빨리 강화로 가겠다는 약속을 확인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⁷¹ 이때 고종은 영국 정부가 콜웰을 조선에 파견한 우호 행위를 조선이 강해지고 번영하기를 바라는 영국 정부의 자비로운 마음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⁷² 사료 제약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영국과의 관계를 찾기 어려웠으나, 고종이 심영에 병력을 파견하기 전날에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는 일을 보면 그가 영국의 병력에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고종의 발언에서, 초토사 홍계훈이 청군의 지원을 요청하는 전

선국 주차 스키무라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朝鮮國政府清國に援兵を乞う議中止したる旨報告の件」, 『日外書』 No.498.

71 “His majesty then told Lieutenant Callwell that he proposed as a rule to convey his wishes to him through Admiral Min, and expressed a hope that he would find his quarters at Kanghai tolerably comfortable His Majesty also asked Lieal Callwall when he proposed to start for Kanghai. Mr. Callwell thanked His Majesty in lifting terms and stated he would start for Kanghai immediately Adm. Min directed him to do so. Adm Min and the President of the Home and Foreign office were present at the audience. and after the audience it was arranged between Admiral Min and Mr. Callwell that the letter should proceed to Chemulpo the day after tomorrow and should go then to Kanghai as soon an possible”. F. O.228/1168, Seoul, May 17th 1894, 서울 총영사 Walter C. Hillier로부터 베이징 공사 N.R.O’Conor에게.

72 “He said that his sense of this friendliness was increased after Leeuil Callwalls’ arrival at Her Majestys’ government selecting as officer of Mr. Callwell’s seniority and serviced. He said he accepted this act of friendship as an indication of the true desire of Her Majestys’ government for the prosperity of Corea and of the benevolent desire that Corea should be strong and flourish”, 同上史料, F.O.228/1168, Seoul, May 17th 1894, 서울 총영사 Walter C. Hillier로부터 베이징 공사 N.R.O’Conor에게.

보를 보내고, 게다가 민영준과 위안스카이 사이에 청군 차용에 대한 비밀 협정이 이루어진 5월 16일 당시, 고종은 자국 병력으로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수 있다고 인식했었다. 즉, 이 당시 고종은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국내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청군 차용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3. 전주 함락: 청군 차용의 결정

1) 주진독리에 대한 신속한 지시

고종의 태도가 크게 바뀐 것은 5월 31일 전주 함락 소식을 받은 직후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주 함락 다음 날인 6월 1일에 조선 정부는 처음으로 주진독리 서상교에게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강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전보를 보냈다. 이를 받은 서상교는 진해관도(津海關道) 성취안화이(盛宣懷)에게 보낸 편지에서, 동학농민군의 전주 지역에서의 격렬한 공격으로 서울도 위협에 처했으며, 위안스카이와 동학농민군 진압 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알 수 없다고 전하며 성취안화이에게 조안을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⁷³ 이를 받은 성취안화이는 서상교에게 조선의 지도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으며,⁷⁴ 서상교가 『환영지(寰瀛誌)』를 빌려주자⁷⁵ 성취안화이는 다음 날(6월 2일) 리홍장을 만나러 가

73 “杏蓀觀譽仁兄大人閣下，敬啓者，現奉本國電信雲，土匪東學黨尤熾於全州地方，即距漢城四五百裏，其形情若是緊急，惟本國無兵力可勦之，方則想必與袁慰庭大人妥商，而姑未聞如何設法極為憐，荷庸告訴務望閣下亟賜良策，是所至禱，為此專泐，敬頌，台安，諸維鑑照不莊，徐相喬頓首，四月廿八日”，『구한국정부외교문서철』「제십일책」「제오십칠건」.

74 “漢樵仁兄大人閣下，敬啓者，貴國輿地海疆全圖，想尊處，必有存本，尚祈賜借，一閱無任感職，一俟閱竣當奉還，專此敬請，台安，愚弟盛宣懷頓首，四月廿八日”，『구한국정부외교문서철』「제십일책」「제오십팔건」.

75 “杏蓀觀譽仁兄大人閣下，敬復者，敝邦輿地海疆全圖，載在此書內，故謹遵台諭，荷庸附呈，以備鑒閱，望即留下，勿庸還送切盼，肅此泐復，敬頌，台安，徐相喬頓首，四月廿八日，外附寰瀛誌一本”，『구한국정부외교문서철』「제십일책」「제오십구건」.

겠다고 답했다.⁷⁶

또한 6월 2일 12시에 주진독리에게 고종의 ‘국왕 전칙’이 도착했으며, 성취 안화이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⁷⁷ 6월 2일은 민영준과 위안스카이 사이에 청군 차용에 대한 협상이 이미 완료된 날이자 시원임대신회의(時原任大臣會議)가 열려 청군 차용에 대해 논의된 날이다. 이 회의에서 민영준은 “우리나라 군대가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수 없다면, 청군을 차용하면 한 번의 전투로 물리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신들은 “현재 상황에서 외국 군대를 불러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고종은 외국 군대를 불러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조정 내에서 초토의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자가 없다면, 위안스카이에게 전주로 가서 초토의 병력을 지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는 이를 거절해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⁷⁸

또한 6월 2일은 일본 정부가 조선 출병을 각의에서 결정한 날이기도 했다.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는 5월 중순부터 조선 출병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일본 단독으로 청보다 먼저 출병하는 ‘즉시선행출병(即時先行出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텐진조약에 따라 청의 출병에 ‘대항출병(對抗出兵)’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다. 6월 2일의 각의에서는 ‘즉시선행출병’으로 결정되었으나, 이토는

76 “漢樵仁兄大人閣下，接展復函，並承賜寶瀛誌一本拜領，謝，別函所示，東學黨一事，弟擬於明日走謁台端，統容面罄，先此布復敬頌，升安，愚弟盛宣懷頓首，四月廿八日”，『구한국정부외교문서철』「제십일책」「제육십일건」.

77 “杏蓀觀魯仁兄大人閣下，頃荷，枉駕，深感深感，諸般事要謹遵台諭，今日十二點鐘，電達本國，而未知今日，入鑿甚苑，所有國王電筋，辭意並荷呈，送望閣下，深燭此機，以運宏籌，是所切禱，為此專泐，敬請，台安，徐相喬頓首，四月廿九日”，『구한국정부외교문서철』「제십일책」「육십일건」.

78 “惠堂出班奏曰，賊勢浩大，以若我國之兵，不可剿滅，請借清兵則一戰可破。諸大臣曰今之時勢，不必招外兵也。姑觀動靜行此計爲好也。上曰外兵好不招來。而以我國之朝臣中，都無發號施令者。袁世凱不念一勞之行，下往全州等地，指揮巡邊招討之兵何幸々々。惠堂曰此事已與袁有相約矣，明日特傳上意使之下去矣。(中略)翌三日，袁氏聞此言冷笑曰，吾何輕身於此際乎。…” 1894년 6월 6일, 조선국 주차 스키무라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清兵派遣に至りたる顛末報告の件」, 『日外書』 No. 516.

이를 ‘대항출병’으로 수정했다. 그 이유는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명목으로 삼는 ‘즉시선행출병’이 ‘대병(大兵)’을 파견하는 명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⁷⁹ 이는 조약의 운용과 명분을 중시하는 일본 외교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토에게는 조선 출병과 청일전쟁은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았고, 6월 15일 시점에서도 청과의 전쟁을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다.⁸⁰

조선 정부 내 논의로 돌아가 보자. 6월 4일, 다시 열린 시원임대신회의에서 대신들은 청군을 차용하면 예전에 맺은 조약에 따라 일본군도 반드시 출병할 것이고, 보급도 어려워 후일에 큰 화(禍)가 될 것이라며 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것에 반대했다.⁸¹ 선행연구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이 조약은 청일 간의 텐진 조약을 의미한다.⁸² 바꿔 말하면, 1894년의 청군 차용 논의에서 청의 출병이 다른 국가의 조약 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책은 논의되지 않았다.

같은 날, 서상교는 성취안화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난밤 2시에 다시 ‘국왕 전칙’이 도착했다며, 그 내용은 대략 본국의 일은 위안스카이와 상의하고 위안스카이는 리홍장에게 전보로 상의할 것이니 리홍장이 위안스카이의 전보 내용을 잘 헤아려 처리해줄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국왕의 전보를 리홍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했다.⁸³ 즉, 조선 정부는 청군 차용 요청을

79 高橋秀直, 1995, 앞의 책, 317~325쪽.

80 佐々木雄一, 2017, 앞의 책, 22쪽.

81 “六月四日接受)清兵請來,果有自上處分,而再機能時原任大臣會議於政府,以爲清國兵若請來,則曾有約條,日本兵必又出來矣,且餉受難辦,後日之患,不可勝言,姑爲觀勢爲之而罷議矣”. 1894년 6월 6일, 조선국 주차 스키무라 임시대리 공사관 무쓰 외무대신에게, 「清兵派遣に至りたる顛末報告の件」, 『日外書』 No. 516.

82 田保橋潔, 1940, 앞의 책, 275쪽; 구선희, 1999, 앞의 책, 225쪽.

83 “杏蓀觀譽仁兄大人閣下,昨夜二點鐘時,奉有國王電飭,竊想電內辭意,本國凡事,必商議於袁大人,而袁大人必電議於台端,懋祈閣下准其袁大人已電之議,深酌辦理,並所切禱,國王電抄,理當面呈,而恐費多時,別錄奉呈,查收切盼,再今日上午十一點鐘時,趨詣轅下,恭當聆教,屆時可否,得祈示悉,為荷

청이 받아들여도록 하기 위해, 텐진 경로(주진독리-진해관도-북양대신)에서도 반복적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본의 ‘인의(隣誼)’에 대한 우려

6월 5일, 국왕은 몰래 성기운(成岐運)을 위안스카이에게 보내 청군 차용을 확정했다. 대신들은 이에 크게 놀랐으나, 민영준은 만국공법에 따라 청군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외국 군대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때 고종이 “만약 일본이 ‘인의(隣誼)’라는 명목으로 출병해 도와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묻자, 민영준은 위안스카이가 반드시 이를 처리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 또한 고종이 “위안스카이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기회를 보아 도움을 제안해 올 경우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고 묻자, 민영준은 답할 방법이 있다고 대답했다.⁸⁴

이처럼 고종은 청군 차용을 확정된 후 일본과 러시아의 출병을 우려하고 있었다. 즉, 청군 차용 정책을 결정한 후에야 비로소 일본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일본의 출병 이유로는 ‘인의’라는 명목으로 출병’을, 러시아의 출병 이유로는 ‘기회를 보아 도움 제안’을 상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고종은 청군 차용이 일본과 조선, 혹은 일본과 청, 그리고 조선과 러시아 간 조약의 운용 결과로 출병을 초래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先此, 肅泐敬請, 台安, 徐相喬頓首 五月初一日”, 『구한국정부외교문서첩』 「제십일책」 「제육십이건」.

84 “(六月五日探聞)清兵借來の事は諸大臣皆不同意なるのみならず, 實に其決議に與らざりしなり. 然るに國王は密に成岐運を以て袁世凱と相談を遂げさせ内議既に調ひし上發表なりたれば諸大臣大いに驚き果然たる様子なりと. 惠堂及督辦議奏曰, 都城二十裏内賊犯之前, 外國兵不得下陸. 公法所載則今雖清兵請來, 其他外兵不得揮入, 上曰, 若日本稱隣誼, 出兵來助, 以何對之, 惠堂曰此亦袁世凱, 必有塗末之策, 不必煩聖慮, 上曰日前袁氏之言, 不無俄兵見機稱助之意, 此則何以答之乎, 惠堂曰自有所答之道, 雲々”, 1894년 6월 6일, 조선국 주차스기무라 임시대리공사가 무쓰 외무대신에게, 「清兵派遣に至りたる顛末報告の件」, 『日外書』 No. 516.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6월 4일 열린 시원임대신회의에서 대신들이 텐진조약에 의거한 일본의 출병을 우려했으나,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이러한 조선 정부 내 청군 차용 논의를 분석한 구선희는 ① 청군 차용을 적극 주장한 민씨 척족의 대표자인 민영준, ② 왕권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청군 차용을 받아들인 고종, ③ 청군 차용에 반대했던 친일 개화파 안경수(安駟壽)와 김학우(金鶴羽), 그리고 ④ 차용보다는 내정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한 조병세를 비롯한 대신들의 구도를 그려냈다. 그는 이를 통해 민영준과 그에 따른 고종의 대응이 청의 압력에 굴복해 ‘속방’ 체제에 순응하게 된 결과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⁸⁵

물론, 이러한 정부 내 파벌 싸움이 청병 차용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글에서 논한 바와 같이 청병 차용 결정에 이르기까지 약 2개월 동안의 외교적 교섭을 돌아보면, 3월 말 김옥균 암살 사건의 사후 처리, 4월 초 박영효 암살 미수 사건에서 비롯된 유기환 공사의 귀국 문제에서도 조선 정부는 조약이나 국제법을 활용한 교섭이 아니라, 리홍장과 위안스카이와의 조중 관계를 축으로 삼고 외교교섭을 했다. 또한 조선 정부는 일본을 제외한 외국 사신들을 아군으로 삼아 자국의 뜻대로 상황을 이끌어어나가기도 했다. 이러한 시기적 흐름 속에서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강해지고 5월 말에 전주가 함락되면서 조선 정부가 청병 차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출병을 현실적인 문제로 예측하는 일은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일본 외교는 1894년 4월까지도 조선, 청, 일본 간의 외교교섭에서 열위에 있었고, 조중 관계의 긴밀함 앞에서 강하게 나설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 정부는 그 직후에 일어난 일본의 출병 가능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동학농민군의 진압 방법을 상의했다.

85 구선희, 1999, 앞의 책, 220쪽.

IV. 맺음말

이 글은 조선 정부 내에서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청군을 차용하는 요청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을 특히 고종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선행연구에서는 1893년 동학당의 보은집회 시 고종이 청군 차용을 제기한 구도와 비교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반해 이 글은 청군 차용 논의가 발생하기 약 2개월 전부터 있었던 조선, 청, 일본 삼국 간의 외교교섭에 주목하며, 그 흐름 속에서 왜 청군을 차용한 것인지, 그 정책 결정 과정을 파악하려 했다.

1894년 3월 28일 상하이에서 일어난 김옥균 암살 사건의 사후 처리에서는 조선인 자객 홍중우를 각국 영사도 참여하는 회심아문(會審衙門)에서 재판하지 않고 조선 정부에 신병을 인도했으며, 김옥균의 시신도 각국 사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 돌아온 후 조선의 관습에 따라 능지처사를 집행했다. 또한 거의 같은 시기 도쿄에서 발생한 박영효 암살 미수 사건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도 사건에 연루된 권동수와 권재수가 주일 조선 공사관으로 도피했는데, 이들의 신병 인도를 둘러싸고 일본 외무성과 조선 임시 대리공사 유기환 간의 교섭이 벌어졌다. 일본과 조선 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었고, 조선은 일본에서 영사 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일본 정부는 조약에 근거해 유기환과 교섭했지만, 유기환은 권동수가 ‘육군성’ 관리라는 이유로 신병 인도를 거부했으며, 결국 유기환 공사는 사실상 공사관 철수를 강행했다. 그러나 이 문제도 리홍장과 위안스카이의 중재하에 조일 단교 없이 조선의 뜻대로 해결되었다.

이러한 사건 직후, 동학농민군이 세력을 확장하며 북상해 전주가 함락되었다. 조선 정부 내에서는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내정개혁 혹은 청군 차용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으나, 위안스카이와 긴밀한 관계인 민씨 척족의 대표자 민영준이 주장한 청군 차용에 고종이 최종적으로 방향키를 잡았다. 하지만 당시 조선, 청, 일본 삼국 간 관계를 고려할 때, 조중 관계의 긴밀함 앞에서 일본 외교는 열세였고, 조선 정부는 일본의 조선 출병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청일전쟁 직전까지 조선과 청국은 매우 깊은 관계를 맺었으며,

구미 열강의 사신들도 이 관계를 수용할 정도였다.

조선 정부는 김옥균 암살 사건이나 박영효 암살 미수 사건의 외교교섭에서도 결코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고, 국제법이나 조약을 구사하지 않더라도 리홍장과 위안스카이의 중재로 바라던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청군 차용을 결정할 때에도 고종은 일본이 조약을 근거로 하여 출병할 가능성이 아니라 ‘인의’라는 명목으로 출병해 동학농민군의 문제를 도와줄 가능성을 고려했다. 이러한 고종의 사고방식은 약 2개월 전부터 벌어진 일본과의 외교교섭을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도를 뒤흔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1894년 6월 일본의 조선 출병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연구해야 할 이토 내각이 청일 연계를 마지막까지 바라고 있었다는 비개전론 논의뿐만 아니라, 왜 1894년 6월에 조선 출병을 결단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연장선상에 조중 관계를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청일전쟁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이다.

참고문헌

사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구한국외교문서편찬위원회 편, 1967, 『구한국외교문서』 제2권(일안 2), 고려대학교출판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한국은행 기탁도서), 2017, 『구한국정부외교문서철』, 「제십 일책」, 청구기호 한은84.

顧廷龍·葉亜廉 主編, 1986, 『李鴻章全集』 2, 上海人民出版社.

『東京朝日新聞』(朝日新聞クロスサーチ, 縮刷版~1999年).

『日本外交文書』第27卷 第1冊(日本外交文書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Embassy and consular archives-China: Correspondence series 1(British Foreign Office [collection]; F.O. 228).

단행본

구선희, 1999, 『한국근대 대청정책사연구』, 해안.

大澤博明, 2021, 『明治日本と日清開戦—東アジア秩序構想の展開』, 吉川弘文館.

森万佑子, 2017, 『朝鮮外交の近代—宗屬關係から大韓帝國へ』, 名古屋大學出版會.

_____, 2022, 「天津からみる朝鮮の『交隣』—事大における敵禮の模索」, 岡本隆司 編, 『交隣と東アジア—近世から近代へ』, 名古屋大學出版會.

_____, 2024, 「金玉均暗殺事件をめぐる中朝日英關係—中華秩序の崩壊の始まり」, 黒沢文貴 編, 『日本外交の近代史—秩序への順応と相剋2』, 東京大學出版會.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下巻, 朝鮮總督府樞密院.

_____, 1951, 『日清戰役外交史の研究』, 東洋文庫.

檜山幸夫, 2022·2023, 『日清戰爭の研究』上·中·下卷, ゆまに書房.

논문

- 권혁수, 1997, 「金玉均 暗殺事件과 淸政府의 關係에 對하여」, 『동아시아문화연구』 31.
- 金榮作, 1995, 「金玉均暗殺事件과 韓·淸·日 三國-既存學說에 對한 批判的再檢
討」,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 근대정치사의 쟁점』, 집문당.
- 김종학, 2018, 「일본의 근대 실증사학의 에토스(ethos)와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의 조선사 연구」, 『한국문화연구』 34.
- 김창수, 1981, 「동학농민혁명과 외병차입문제」, 『동국사학』 15·16.
- 金興秀, 2023, 「김옥균의 최후」, 『한국학연구』 68.
- 모리 마유코, 2020, 「駐津督理通商事務의 활동을 통해서 본 事大와 交隣의 교착-
『舊韓國政府外交文書綴』第三冊~第五冊의 分析」, 『한국사학보』 79.
- 韓成敏, 2018, 「망명자 김옥균(金玉均)에 대한 일본의 처우와 조선정책 1884~1890」,
『역사와 현실』 109.
- 森萬佑子, 2024,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による中朝關係の變容(一八八二~
一八九二年)」, 『東洋史研究』 82-4.

1894년 조선 정부의 청나라 군대 파병 요청에 이르게 된 정책 결정 과정 재고

모리 마유크(森万佑子)

청일전쟁은 세계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불린다. 일본에서 청일전쟁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으며, 특히 개전 과정에 큰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조선의 내정 문제였던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청일전쟁으로 귀결된 흐름에 대해 조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와 『리홍장전집(李鴻章全集)』을 기초자료로 삼고, 조선 정부의 관점에서 본 청일전쟁 개전 과정을 논하는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다루는 영국 외교 문서(F.O.228/1161 및 F.O.228/1168)와 주진독리통상사무(駐津督理通商事務)의 직무일지인 『구한국정부외교문서철(舊韓國政府外交文書綴)』 제11책을 이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된 1894년 3월에 일어난 김옥균 암살 사건과 동시에 발생한 박영효 암살 미수 사건에서 비롯된 주일공사 유기환의 이임 귀국 강행이, 조선 정부의 일본 인식 및 중국과의 관계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한다. 둘째, 동학농민군이 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조선 정부 내에서 청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차용론이 전개되는 정책 결정 과정을 정리하고 그 배경을 검토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1894년 5월 31일의 전주 함락을 계기로 고종의 청군 출병 요청에 대한 생각이 변화한 일에 주목한다.

청군 차용 결정에 이르기까지 약 2개월 동안의 외교적 교섭을 돌아보면, 조선 정부는 조약이나 국제법을 활용한 대응이 아니라, 리홍장과 위안스카이와의 조중(中朝) 관계를 축으로 삼고, 일본을 제외한 외국 사신들을 아군으로 삼아 자국의 뜻대로 상황을 이끌어나갔다. 이러한 시기적 흐름 속에서 일본 외교는 1894년 4월까지도 조선, 청, 조선과 중국의 긴밀한 관계 앞에서 강하게 나설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 정부가 그 직후에 일어날 일본의 출병 가능성을 고려하기는 어려웠다.

주제어: 고종, 주진독리통상사무(駐津督理通商事務), 김옥균 암살 사건, 주상하이 영국 영사관, 주일본 공사 유기환

ABSTRACT

A Re-examination of the Policy-Making Process That Led to the Chosun Government's Request for Chinese Troops in 1894

Mori Mayuko

There have been many previous studies published in Japan on the First Sino-Japanese War, particularly on the process leading up to the outbreak of war. However, there are still not enough studies that focus o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Korean government's request to dispatch Chinese Qing troops at the beginn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hich was an internal affair of Korea. It was this request for troop dispatch that led to the outbreak of the First Sino-Japanese War.

This study, while learning from previous research, will discuss the following two points by using new sources, namely the British diplomatic documents (F.O.228/1161 and F.O.228/1168) and the Trade Affairs of the Korean Consul to Tianjin's (hereby, "Jujin-Dongni") daily-affairs diaries in the Former Korean Government

Diplomatic Documents (舊韓國政府外交文書綴, Volume 11).

One is how the assassination of Kim Ok-gyun, which triggered the start of the Sino-Japanese War, the assassination attempt on Park Young-hyo that took place around the same time, and the subsequent return of Minister to Japan Yoo Ki-hwan, affected the Korean government's perception of Japan and Korea-China relations.

Another point of discussion is the background and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recruitment of Chinese troops to quash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Korean government. This paper, in particular, focuses on the Gojong's intention to recruit of Chinese troops have changed after the fall of Jongju on May 31, 1894.

Since the envoys of the great powers also provided a certain amount of support, it is though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understood that it could not negotiate too hard regarding the connec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refore, Korean government gave little thought to the possibility of a Japanese dispatch of troops to Korea, which would occur shortly after this.

Keywords: King Gojong, The Trade Affairs of the Korean Consul to Tianjin's (Jujin-Dongni), The assassination of Kim Ok-gyun, The British Consul in Shanghai, The Korean Minister to Japan Yoo Ki-hwan.

청일전쟁기 일본 제5사단의 한성 집결과 경부 병참선 설치

위신광(魏晨光) | 중국 산둥대학(山東大學) 역사학원(歷史學院) 박사후연구원

- I. 머리말
- II. 제5사단 병참부의 편성과 병참선로 선정
- III. 부산 병참주지 설치와 제5사단의 북상
- IV. 초기 경부 병참선의 운영 실태
- V. 맺음말



I. 머리말

청일전쟁 시기 일본군의 제5사단은 한반도에서 경북궁 점령부터 성환, 평양 전투 등 군사 작전을 수행한 주력이었다. 일본의 작전계획은 1894년 6월 21일에 작성된 육해군 공동 작전안을 기초로 하고 있었는데, 이 작전계획의 목적은 발해만 북안 지역에서 청나라와 결전하여 승리하는 것이었다.¹ 이 목표는 제해권을 놓고 청의 해군과 결전을 벌이기 전과 후의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제1단계는 제5사단을 한반도에 상륙시켜 청군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즉, 육군은 본토 방위를 강화하면서 조선으로의 출정 준비에 착수하고 동시에 해군은 이 사이에 청나라 함대를 격파함으로써 제해권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인천에 상륙한 혼성제9여단이 7월 말에 청군과 성환전투를 벌이던 시기에, 대본영은 1만 명의 청군이 평양에 집결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청군을 견제하기 위해 제5사단의 잔여 병력을 서둘러 한반도로 파견하기로 했다.²

제5사단의 잔여 병력을 한반도로 파견하는 제3차, 제4차 수송계획은 7월 중순에 작성했고 필요한 운송선도 준비된 상태였다. 하지만 일본 해군이 제해권을 충분히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상으로 인천항까지 직송하는 일은 위험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제3차로 수송된 부대는 대부분 부산에 상륙했고 그들 중 극히 일부 전투부대는 원산항으로 이동했다. 제5사단은 한성으로 병력을 집

* 투고: 2024년 10월 13일, 심사 완료: 2024년 11월 4일, 게재 확정: 2024년 11월 11일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근대 일본 병참체제의 성립과 운영 -청일전쟁 시기 한반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3년 8월)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1 參謀本部 編纂, 1904a, 『明治二十七八年日清戰史』(第1卷), 東京印刷, 177~180쪽.

2 參謀本部 編纂, 1904b, 『明治二十七八年日清戰史』(第2卷), 東京印刷, 8~11쪽.

중시키기 위해 경부, 경원, 경인 세 루트를 사용했다. 이 중에서 경인 간은 혼성 여단이 사용한 병참선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었고, 소규모 병력이 상륙한 원산은 한성까지의 거리도 짧았다. 이에 비해 경부 간의 병참선은 거리가 멀었을 뿐만 아니라 험한 산지와 고개도 많았기 때문에 이 구간의 병참선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제5사단과 대본영으로서는 난제였다.

실제로 제5사단 병참부(兵站部)는 대본영의 지시에 따라 경부 간의 중로(中路)를 육로 병참선으로 하되 동시에 낙동강과 남한강을 활용하는 수로 병참선도 계획하고 있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제5사단의 잔여 부대는 대부분 경부 병참선을 따라 북진해야 했으나, 대본영은 인천까지의 항로가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산에 남겨진 제3차의 일부와 제4차 수송병력은 부산에서 해로를 통해 인천항으로 직행했다. 결과적으로 경부 병참선은 제5사단의 지휘부와 일부 병력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통과해야 하는 힘로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경부 병참선은 일부 병력의 통과 후 사용 가치가 없어졌음에도 철거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일본군이 경부 병참선에 가설한 군용전신선 문제에 집중해왔다. 경부 전신선을 둘러싼 외교교섭과 가설과정에 관련하여 적지 않은 연구가 축적되었다.³ 특히 공사를 맡은 제1전신가설지대장의 일기가 발굴되면서 이 지대가 최종 가설한 노선이 당초 받은 명령보다 약간 동쪽으로 변경된 사실도 밝혀졌다.⁴ 즉, 부산에서 대구까지는 그대로였지만 대구에서 원래 청주 방향으로 가설하려던 계획이 충주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병참선로와 일치하

3 齋藤聖二, 2003, 『日清戦争の軍事戦略』, 芙蓉書房出版, 제3장; 이승희, 2004, 「청일·러일전쟁기 일본군의 군용전신선 강행가설 문제 -한국 파견 '臨時憲兵隊'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21권; 延廣壽一, 2011, 「日清戦争と朝鮮民衆-電線架設支隊長の日記から見た抵抗活動」, 『日本史研究』 通号584.

4 위의 延廣壽一의 논문에서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도서관에 소장된 제1전신선가설지대장의 일기(吉見精, 『入韓日誌一』, 防衛省防衛研究所図書館)를 탈초하여 사용했다. 이하 이 글은 延廣壽一의 논문에서 이 일기를 재인용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이하 『吉見日誌』로 표기).

게 되었지만 대본영이 지시를 변경한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제2차 동학농민운동의 봉기와 경부 전신선 가설과의 연관성도 주목받았다. 경부 간의 전신선과 병참지들이 농민군의 공격, 저항의 대상이 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군이 농민군을 진압하는 실체도 복원되었다.⁵ 물론 시기적으로는 경부 병참선이 가설된 이후였다.

하지만 경부 병참선이 설치되고 운영된 구체적인 과정에 관한 연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경부 간의 병참선로가 어떻게 선정되고, 육로와 수로 병참선을 결합해서 이용하는 병참선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일본군이 경부 병참선을 설치하고 운영한 과정에서 조선정부와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도쿄의 대본영과 현지의 사단 사이에 병참선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등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 측의 전사와 전역통계 등 기초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대본영 병참총감부와 제5사단 병참부의 기록, 제5사단장의 일기, 병참 장교의 회고록 등 다양한 공문서, 예고 도큐먼트 그리고 조선 측의 기록인 구한국외교문서도 활용했다.

II. 제5사단 병참부의 편성과 병참선로 선정

경부 간의 병참선은 거의 500km에 가까운 장거리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담당할 제5사단 병참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본영은 이미 1894년 6월 중순에 제5사단의 일부를 떼어 편성한 혼성제9여단과 이를 지원하는 병참부를 인천으로 파견했다. 이들은 제5사단 사령부가 한성에 도착하면 제5사단의 병참부에 흡수될 예정이었다.

제5사단 병참부는 「병참근무령(兵站勤務令)」에 규정된 병참감부(兵站監部), 병참사령부, 병참치중(兵站輜重) 등 삼대 요소를 완비한 조직이었다. 이를

5 강효숙, 2002, 「第2次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 『歷史學研究』 762.

구성하는 장교와 병사는 모두 육군에서 선임되었고 하사관 이하는 임시 고용한 인원으로 충원했다.⁶ 지휘부인 병참감부는 본부와 지부로 이루어져 있고 110명의 인력과 45필의 승마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본부는 지휘관인 병참감(대·중좌급)과 그의 부관 2명(포병과 공병 각 1명), 군리 1명, 하사 5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지부는 금궤부와 양향부(糧餉部)를 관리하는 감독부, 헌병, 군의부, 우편부로 이루어져 있고, 종졸·마졸·수졸도 배치되어 있었다.⁷ 병참감에는 공병 대좌 후루카와 노부요시(古川宣譽), 그의 부관에는 포병 대위 쓰루미 가즈마(鶴見數馬)와 공병 중위 마쓰이(松井庫之助)가 배속되었다.⁸

각 병참사령부에는 병참사령관(소좌급), 부관 1명(대·중위), 하사 2명, 그리고 마졸(2명)·수졸(4명) 등 10명의 인원과 승마 2필을 할당했다.⁹ 부산에서 한성까지의 거리가 대략 120리였기 때문에 6리(24km)마다 병참지를 설치한다는 「병참근무령」의 규정에 따르면 16개의 병참사령부가 필요했다. 그 결과 7월 중순에는 16개의 병참사령부를 담당할 지휘관(소좌급)과 부관(대·중위)이 선임되었다.¹⁰ 물론 이 32명의 장교는 모두 예비역과 후비역 중에서 선정되고, 군의관 8명, 수의사 2명, 군리 10명도 배치되었는데 이것은 애초의 계획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규모였다.¹¹

6 「第41号~第50号」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110351500, 臨時事變に関する書類綴(乙) 明治27年6月(防衛省防衛研究所), 제51호를 참조(이하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사료를 인용할 때 JACAR 뒤의 괄호 표시를 생략한다. 그리고 Ref. 뒤에 'C'로 시작한 사료는 모두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자료이므로 반복해서 표시하지 않겠다).

7 「第41号~第50号」 JACAR Ref.C13110351500, 臨時事變に関する書類綴(乙) 明治27年6月, 제28호의 제2를 참조.

8 「留守第5師団より兵站部並第3野戦病院等職員表進達の件」 JACAR Ref. C05121512900, 明治27年8月戰役日記.

9 「第41号~第50号」 JACAR Ref.C13110351500, 臨時事變に関する書類綴(乙) 明治27年6月, 제45호의 제4를 참조.

10 「留守第5師団より兵站部並第3野戦病院等職員表進達の件」 JACAR Ref. C05121512900, 明治27年8月戰役日記.

병참치중은 ① 야전포창(野戰砲廠, 23명·승마 1필), ② 포창감시대(砲廠監視隊, 66명·승마 7필), ③ 치중감시대(53명·승마 6필), ④ 위생예비원(衛生預備員, 87명·승마 1필), ⑤ 위생예비창(衛生預備廠, 92명·승마 1필), ⑥ 환자수송부(17명) 등 감독과 의료 관련 인력을 포함하고 있다.¹² 다만 제5사단의 병참부 편제표에는 ①~③번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들을 편제표의 590명과 85필의 승마와 합산하면 제5사단 병참부는 700명의 인원과 100필의 승마를 보유한 대규모의 조직이 된다.¹³

한편, 7월 5일 대본영의 병참총감을 겸하고 있던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 참모차장은 병참총감부 소속의 후지이 시게타(藤井茂太) 포병 소좌에게 부산-한성 간의 병참선을 정찰하라고 지시했다. 후지이는 육군대학교에서 독일 교관 맥켈로부터 직접 병참 교육과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독일 유학 경험도 있는 엘리트 장교였다. 그는 육군대학교 교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6월에 가와카미 참모차장의 명령으로 대본영 병참총감부에 배속되어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여러 가지 조언을 했고 정부 병참선 정찰도 그의 제안이었다.¹⁴

가와카미 병참총감은 조사해야 할 항목을 다음과 같이 매우 상세하게 지시했다.

-
- 11 원래의 계획에 따르면 사람과 우마의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 인력(52명), 즉 군의관 8명, 간호수(看護手) 24명, 수의사 2명, 蹄鍊工(下)長 6명, 蹄鍊工卒 12명. 그리고 군리(軍吏, 30명), 수졸(40명)·마졸(5명) 등 127명과 승마 5필(군리용)도 배치되었다. 「第41号~第50号」 JACAR Ref.C13110351500, 臨時事變に関する書類綴(乙) 明治 27年 6月, 제45호 제3을 참조.
 - 12 ①~③은 제29호 참조. 「第21号~第30号」 JACAR Ref.C13110351300, 臨時事變に関する書類綴(乙) 明治27年6月; ④~⑥은 제49호와 제51호 참조. 「第41号~第50号」 JACAR Ref.C13110351500, 臨時事變に関する書類綴(乙) 明治27年 6月.
 - 13 「留守第5師団より兵站部並第3野戰病院等職員表進達の件」 JACAR Ref. C05121512900, 明治27年8月戰役日記.
 - 14 秦郁彦 編, 2005, 『日本陸海軍総合事典』(第2版), 東京大学出版会, 137쪽; 藤井茂太, 1936, 『兩戰役回顧談』, 偕行社, 178~181, 194~195쪽.

1. 부산과 경성을 연결하는 병참선로를 정찰할 것. 단 병참선로는 중로(中路)로 가정할 것. 그렇지만 정찰의 결과에 따라 중로를 사용하기 매우 곤란할 경우 대구에서 성주, 청주를 거치는 도로를 정찰하고 그중 하나를 선정한다.
2. [도로는] 경편 짐수레(輕便荷車)가 사용 가능할 정도까지 수리되어야 하는데 도로의 수리는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도로의 상태, 짐수레의 통행이 어려우면 각 부분에는 다수의 인부를 준비하여 운반하는 것도 괜찮다. 인부(工夫) 및 재료를 현지에서 징집할 수 있는지, 단 징집할 수 있는 것으로 각 구간이 며칠 소요할 것인지, 각 교량 가설 혹은 수리에 필요한 인부와 재료의 수량 및 그 유무. 만약 이것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면 그 방법, 도로 중 짐을 운반하기 위해 경편철도를 부설할 수 있는 구간과 그 길이(里程)
3. 병참지와 창고, 혹은 임시 창고를 설치할 위치의 선정
4. 운반에 필요한 인부와 재료의 조사
5. 병참 근무의 보조로서 수리(水利)를 이용할 수 있는지의 조사
6. 병참선로 및 연도(沿道)에서 자원의 조사
7. 지시한 중로를 정찰하고 이 길이 병참선로의 목적에 적합할 경우, 경성을 통해 인천에서 배편으로 귀향한다. 단, 충주에 이르는 이 도로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대신 청주 및 성주를 지나는 도로를 정찰하고, 대구로 돌아와서 귀환한다.
8. 제2전신가설지대에서 사관, 하사, 병졸 각 1명을 보조로 제공한다. 단, 사관 이하의 분견에 대해서는 지대사령관과 협의해야 한다.
9. 통역관 약간 명을 고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부속자(附屬者)가 필요한 비용은 실비로 지불한다.¹⁵

15 이 중에서 1~6번은 「雜第一四〇号其一」 훈령의 내용이고 7~10번은 「雜第一四〇号其二」 훈령의 내용이다. 「兵站總監より藤井少佐宛訓令」 JACAR Ref.C06061941900, 明治27年6月12日~7月22日 「玉手箱 第4号」; 「7月5日兵站總監より藤井少佐宛訓令」 JACAR Ref.C06061942100, 明治27年6月12日~7月22日 「玉手箱第4号」; 「7月」 JACAR Ref.C06062203800, 明治27年6月 「陣中日誌

이처럼 가와카미 훈령의 핵심은 경부 병참선의 선정이었고 특히 중로 사용의 가능 여부였다. 가장 큰 관건은 문경새재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지였다. 이에 따라 중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성주와 청주로 이어지는 서로를 선택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그리고 정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노선에 대해 문경새재를 넘을 경우 인천을 통해 귀국하라고 지시한 부분을 보면 병참총감부는 충주에서 서울까지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경사가 심한 고개도 없고 조선의 전신선도 가설된 서로를 두고 굳이 중로를 선호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후지이의 회고록을 통해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서로가 아산에서 18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청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아산에 주둔하고 있는 청군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만약 흥성제9여단과의 전투에서 패할 경우 청의 패잔병들은 서해안 쪽으로 북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륙의 청주를 거쳐 평양으로 북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청주를 지나는 일본의 병참선이 크게 위협해질 가능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병참선은 남쪽에서 봉기하여 형세가 매우 창궐해진 동학농민군의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도 충분했다.¹⁶

대본영이 주의를 기울였던 또 다른 문제는 도로 정비였다. 당시 철도가 부설되지 않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교통수단은 짐수레였다. 따라서 군수품의 운반을 보장하기 위해 병참총감은 도로의 상태와 수리, 교량 가설 등에 대해 구간을 나누어 상세하게 조사하도록 했다. 이처럼 경부 간의 병참선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짐수레나 손수레를 가장 중요한 운반 수단으로 삼았고 이를 위해 도로의 상태와 정비에 집중했다. 실제로 병참총감은 제5사단 병참부에 무려 700여 개의 짐수레를 제공했다.¹⁷ 그 밖에 특이한 점은 경편철도에 대한 언급이다. 가와카미는 1892년에 이미 경부철도의 부설을 제안했으나 위에서 언급한 경편철도는 설치

7兵站總監部27自6, 5至9, 3」, 1894년 7월 5일 참조.

16 藤井茂太, 1936, 앞의 책, 195~196쪽.

17 「8月」 JACAR Ref.C06062203900, 明治27年6月 「陣中日誌7兵站總監部 27自6, 5至9, 3」, 1894년 8월 4일 참조.

와 철거가 모두 간편하고 비용이 훨씬 저렴한 임시군용철도를 의미한다.

육로 병참선과 관련된 지시사항에 비하면 수로에 대한 정찰 요구는 매우 간략했고 심지어 구간조차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후지이 일행이 정찰했던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로 수로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이미 6월 하순부터 한강 수로 병참선이 성공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보고가大本영에 올라가고 있었음에도,¹⁸ 당시 병참총감부는 수로 병참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大本영의 훈령을 받은 후지이 소좌는 7월 6일 도쿄 신바시(新橋)역에서 기차로 히로시마에 도착한 후 8일 우지나항을 출항하여 이틀 뒤인 10일 부산에 도착했다.¹⁹ 후지이 일행 12명 중 무려 7명이 통역 담당이었다.²⁰ 이처럼 정찰 임무에 많은 통역을 수행한 이유는 당시 부산에서 대구까지만 전신선이 가설되어 있었고 대구를 벗어나면 인편을 통한 연락만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7월 13일, 후지이 일행은 무더위 속에서 천막을 메고 부산을 출발했다. 시가지와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숙박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도로(本道)에서 8km 정도 떨어진 인적이 드문 숲속에서 야영했다.²¹ 더불어 후지이는 외무성 서기관의 신분을 사용했다.²² 부산을 지나 밀양(密陽)현에 도착했을 때 군수와 기타 관리들의 심문을 받아 입성하지 못했고 매우 당황하여 한밤중에 급하게 출발한 일도 있었다.

18일 대구에 도착하기 전에 후지이는 전신선을 이용하여 정찰한 상황을 병

18 위신광, 2024,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경인 병참선 구축」, 『동양사학연구』 제 168집.

19 「7月6日寺内大佐発山根少佐宛」 JACAR Ref.C06060697000, 明治27年自 7月1日至8月24日「発電綴(二)」.

20 藤井茂太, 1936, 앞의 책, 201쪽 참조.

21 藤井茂太, 1936, 위의 책, 202쪽 참조.

22 「7月12日藤井少佐発川上総監宛」 JACAR Ref.C06060786600, 明治27年7月~ 8月「着電綴(三)」.

참총감부에 충실하게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는 15일에 동래, 구포, 김해, 창원, 마산포, 웅천, 명호명 등 지방 도로의 상태와 짐수레 통행의 편리성을 보고했고 17일에는 부산포 거류지의 인구와 가구수 등을 보고했다.²³ 대구에 도착했을 때 입성을 거절당하여 이를 연속 감찰사의 면회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심지어 근처의 언덕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갑자기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몰려와서 우리 일행에게 돌을 던지”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그 후 후지이 일행은 한성에 도착한 후 오토리 일본공사를 통해 조선정부에 민중과 지방관의 단속 그리고 투석범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²⁴

이어서 조령 남쪽의 유곡촌(幽谷村)에 이르렀을 때도 현지 민중과 군수가 일행들에게 적의를 보였다. 7월 25일 문경현에 도착했고 결국 조령에 도달했는데 경사가 심한 조령의 산길을 병참로(兵站路)로 개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로써 후지이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완수되었다. 그 후 후지이는 육로로 이천을 거쳐 8월 1일에 경성에 도착했다.

하지만 후지이의 정찰 결과가 병참총감부의 중로 병참선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후지이는 전신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인편을 통해 두세 번 병참총감부에 보고했다고 하지만, 그가 대구를 떠난 7월 21일경부터 한성에 도착한 8월 1일까지 전신을 통한 대본영과의 통신은 불가능했다. 이처럼 후지이가 전보로 대본영에 보고할 수 없는 시기에 대본영은 제5사단의 부산 파견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기록에 남아 있는 7월 26일 자 병참총감부에 도착한 후지이의 정찰보고서는 내용은 남아 있지 않지만, 전신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인편을 통해 부산을 거쳐 대본영에 전달된 것으로 보

23 「7月」 JACAR Ref.C06062203800, 明治 27年 6月「陣中日誌」7兵站總監部 27自6, 5至9, 3, 1894년 7월 15일 및 17일 참조.

24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編, 1967, 『舊韓國外交文書』(第3卷 日案3),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高宗 31年 7월 7일(1894년 8월 7일), 大邱府民의 外務省官吏에 對한 投石事件과 行旅의 安全保護要求(문서번호 2965); 高宗 31年 7월 8일(1894년 8월 8일), 上件准飭與投石犯嚴懲回答(문서번호 2966).

아야 할 것이다.²⁵ 내용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시 병참총감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힘들다.

아울러 후지이 정찰과 무관하게 7월 6일 병참총감부는 경부 병참선 설치에 대략적인 밑그림을 갖고 있었다. 즉, 병참총감 밑에서 야전감독장관(野戰監督長官)을 맡고 있던 노다 히로미치(野田豁通)는 경부 병참선에 필요한 식량과 임시 숙소 등을 위해 적어도 24개의 병참지를 확보하고 각 병참지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막사를 설치할 재료를 시모노세키 집적장의 창고로 보내 달라고 육군대신에게 요청하고 있다.²⁶ 21일 병참총감부는 제1전신가설지대장에게 노다의 제안대로 낙동강을 이용하여 운반한 쌀을 저장할 창고를 대구와 상주에 설치하고 호위병을 배치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²⁷

Ⅲ. 부산 병참주지 설치와 제5사단의 복상

1894년 7월 27일, 경부 병참선 정찰에 나선 후지이 소좌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고 성환전투의 승패도 알 수 없던 상황에서 가와카미 병참총감은 제5사단의 병참선 설치에 관해 노즈 사단장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했다.²⁸

1. 인천-부산 간의 항로가 폐쇄되는 경우 육로로 부산에서 대구, 상주, 충주를 경유하는 도로를 병참선로로 채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도로는 매우 험악해서 미리 수리하지 않으면 도저히 병참선로로 쓸 수 없으므로 수리에 착수해야 한다. 전에 파견한 정찰관(후지이 시게타)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연도에서 군수물자,

25 「7月」 JACAR Ref. C06062203800, 明治27年6月「陣中日誌」7兵站總監部27自6, 5至9, 3, 1894년 7월 26일 참조.

26 위의 사료, 1894년 7월 6일 참조.

27 위의 사료, 1894년 7월 21일 참조.

28 위의 사료, 1894년 7월 27일 참조.

특히 쌀을 수집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미리 쌀을 수송하고 각 장소에 예비창고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설하고 있는 전선선을 보호하지 않으면 파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호위해야 한다.

2.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병참감 후루카와 대좌에게 다음과 같은 인원을 부속시키고 부산으로 파견해야 한다. 헌병·군의부(軍醫部)·우편부를 제외한 병참감부와 3개의 병참사령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 공병 제6대대 제1중대
3. 병참감 후루카와 공병 대좌는 (7월) 31일 오후 5시 이즈미호(和泉丸)로 우지나항(宇品港)에서 출항하고, 모지항(門司港)에서는 공병 제6대대 제1중대를 승선시켜야 한다. 단, 이 중대의 출발 명령과 모지항에서의 승선 명령은 제6사단장을 통해 하달해야 한다.
4. 후루카와 병참감은 도로 수리에 대해서는 병참총감의 지시를 따르고, 군수물자의 수집, 수송과 창고의 설치에 대해서는 야전감독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도로 수리에 필요한 인부(工夫)는 되도록 현지에서 구해야 한다. ...
6. 파견에 필요한 선박에 관해서는 우지나의 야마네 소좌[야마네 다케스케(山根武亮), 우지나 운수통신지부장(運輸通信支部長)]과 협의한다.

병참총감은 위와 유사한 명령을 후루카와 병참감에게도 하달했다.²⁹ 제5사단장에게 내린 위의 명령에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정부 간의 육로 병참선은 부산-인천 간의 해로를 이용할 수 없을 때의 대안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해상수송을 이용하여 군대를 인천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당시 벌어진 풍도 해전에서 승리했음에도 일본 해군이 서해의 제해권을 충분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본영은 해상수송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대본영은 거리가 멀고 길도 매우 험악했지만 정부 간의 육로 병참선을 설치하는 플랜 B를 들고 나왔다.

29 「7月」JACAR Ref.C06062203800, 明治27年6月「陣中日誌」7兵站總監部27自6, 5至9, 3, 1894년 7월 28일 참조.

둘째, 이 병참선은 물론 부대의 이동을 지원하는 ‘통과형’ 병참선이지만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는 도로의 수리와 전신선의 보호가 필수적이었다. 이를 위해 대본영은 제6사단의 공병 중대를 제5사단 병참감에게 배속시켜주었다. 그리고 도로 수리의 명령과 업무 보고는 가와카미 병참총감이 직접 챙긴 것으로 보아 육로 병참선에서 도로 정비의 중요성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조선 말기까지 도로는 대부분 폭이 좁고 자연적인 지형에 따라 형성되었기 때문에 소나 말이 겨우 지날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고정된 법정 도로가 드물고 통행자의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노선이 바뀔 수 있어서 대량 수송에 적합하지 않았다.³⁰

셋째, 병참총감이 지정한 부산-대구-상주-충주의 중로 병참선로는 조선시대 간선도로 중 한양과 동래를 연결하는 제4로의 노선과 일치했다. 조선시대의 지리서에 따르면 제4로의 경유지는 한강-용인-충주-문경-대구-청도-양산-동래로서 총 907리였다.³¹ 하지만 훗날 노즈 사단장이 평가했듯이 “도로의 대부분은 험악한 돌길이었고 도로라고 하기 어렵고 단지 논두렁길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매우 어려운 길”이었다.³² 동시에 이 노선은 제1전신가설지대가 가설하는 군용 전신선 루트와 완전히 일치했다. 사실 당초 받은 명령에 따르면 제1전신가설지대는 부산에서 대구-성주-추풍령을 거쳐서 청주까지 가설해야 하는데 병참선로가 동쪽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구-낙동-상주-충주 루트로 바

30 朴慶龍, 1995, 『開化期 漢城府 研究』, 一志社, 166쪽.

31 조선시대 전국적 도로망을 밝힌 대표전 지리서로는 『도로고(道路考)』(1770),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대동지지(大東地志)』(1860)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신경준이 편찬한 『도로고』에서는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에 6개의 간선도로가 뻗어 나가는 것으로 기록했다. 『증보문헌비고』의 9대로(大路), 『대동지지』의 10대로 더 상세하게 기술했다. 각 노선과 경유지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 1981, 『韓國道路史』, 韓國道路公社, 180쪽; 고동환, 2015, 『한국 전근대 교통사』, 들녘, 95~96쪽; 허우궁, 도도로키 히로시(藤博志), 2007, 『개항기 전후 경상도의 육상 교통』, 서울대학교출판부, 27~29쪽 참조.

32 「申報, 第5師團長野津中將から參謀總長宛, 8月24日」 JACAR Ref.C0606176 2600, 明治27年自6月至9月「混成第9旅團 第5師團 報告」.

뀌었다.³³ 따라서 대본영은 군대와 물자의 이동, 통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6사단의 공병 중대까지 충원하여 도로 정비와 전신선 설치 및 보호에 특별히 신경 썼다. 이처럼 경부 간의 육로 병참선이 중로로 결정됨에 따라 일본군의 전신가설 노선도 변경되었다.

7월 28일 가와카미 병참총감은 후루카와 제5사단 병참감에게 도로 정비에 관해 구체적인 명령을 하달했다.³⁴ 특히 도로 수리는 착수하기 전에 연도의 조선 지방 관리에게 통지하여 그들의 도움을 얻도록 하고 가능하면 영사의 손을 거처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리고 도로 수리에 필요한 재료는 육군대신으로부터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 제1전신가설지대의 대장 요시미 세이(吉見精) 소좌에게 보냈던 화약과 도구를 부산의 운수통신지부장 시바 중위로부터 수령하여 먼저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7월 31일 후루카와 병참감은 병참감부의 일부와 3개의 병참사령부, 그리고 공병 제6대대의 제1중대대장 히구치 세이자부로(樋口誠三郎) 대위를 이끌고 우지나항을 출항했다.³⁵ 육군성의 통계에 따르면 당시 제5사단 병참부의 규모는 병참치중의 앞의 ④~⑥과 인부를 제외한 인원 264명과 승마 29필, 여기에 제6사단 공병 중대 231명과 승마 4필을 합하면 전 인원은 495명과 승마 33필이었다. 그 밖에도 제5사단 소속의 인부 464명과 51명의 석공도 병참부에 배치되었다.³⁶ 이렇게 보면 제5사단 병참부는 무려 1,000명이 넘는 대규모의 조직이었다. 같은 날 제5사단장은 보병 1개 대대를 다른 배로 부산으로 보냈고, 8월 1일 선전포기가 발포되자 다음 날 제5사단장은 사단사령부와 지부를 포함

33 제1전신지대의 가설 노선이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는 延廣壽一, 2011, 앞의 글; 齋藤聖二, 2003, 앞의 책, 제3장 참조.

34 「7月」 JACAR Ref.C06062203800, 明治27年6月「陣中日誌7兵站總監部27自6, 5至9, 3」.

35 參謀本部 編纂, 1907, 『明治二十七八年日清戰史』(第8卷), 3~4쪽.

36 參謀本部, 1907, 위의 책, 3~4쪽; 陸軍省 編纂, 2005, 『日清戰爭統計集: 明治二十七・八年戰役統計』(下卷1), 海路書院複製, 26~28쪽.

한 제3차 수송부대를 이끌고 직접 부산으로 출항했다.³⁷

8월 2일 부산에 상륙한 후루카와 병참감 일행은 부산을 병참주지(兵站主地)로 정하고 거류지 상법회의소를 병참감부의 사무실로 쓰는 동시에 우마야바라(馬屋原) 소재를 부산 병참사령부의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앞서 도착한 제1전신 가설지대장에 따르면 당시 부산 거류지에는 일본인이 1,016가구에 4,481명이 살고 있어서 음식물과 약품을 얻는 데 불편함이 없었다.³⁸ 후루카와는 공병 중대에 거류지 부근의 도로부터 수리에 착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병참총감부는 후루카와에게 비어 있는 부산 운수통신지부장직을 겸임하되 부산을 떠날 때는 부산 담당 병참사령관에게 인수인계를 하도록 지시했다. 더불어 도로의 수리비는 군비에서 지급하고 병참선 설치를 위해 추가로 5개의 병참사령부를 증파하겠다고 통지했다.³⁹

8월 3일, 후루카와 병참감은 일본에서 모집한 인부 500명을 공병에게 나누어 주고 경부 간 도로 8곳을 동시에 수리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개시했다. 또 선두에 선 대대를 지원하기 위한 우마 70마리와 조선인 인부 500명을 부산에서 고용하여 한성까지 사용할 경우 더 이상 부산에서 후속 부대를 도울 인부를 고용하기 어려우니 신속하게 충분한 인부를 일본에서 충원해달라고 병참총감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가와가미 병참총감은 즉시 일본인 인부 300명을 모집

37 제5사단장이 7월 중순에 두 차례로 나누어 해로로 수송하는 계획을 작성했다. 이미 혼성여단을 두 차례로 운송했기 때문에 제5사단 잔여 부대의 수송은 제3차와 제4차 수송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① 제3차 수송부대: 사단사령부 및 지부, 보병 제12연대, 기병 제5대대 본부 및 제2중대의 2소대, 야전 포병 제5연대 본부 및 제1대대, 양식 중열 0.5, 탄약대대 본부와 보병 탄약 중열 0.5, 산포탄약 중열 1, 攻城廠 縱列, 치중감시대 1. ② 제4차 수송부대: 보병 제10여단 사령부, 보병 제22연대, 기병 제5연대 제2대대, 치중병 제5대대 본부 및 양식중열 0.5, 보병탄약 중열, 산포탄약 중열 1, 위생대 1, 야전병원 1, 야전 포창 1, 포창감시대 1, 위생예비원 1, 위생예비창 1. 그 후 여기에 임시 공병 중대와 병참부를 부속시켰다.

38 『吉見日誌』, 1894년 7월 7일 자.

39 「8月」 JACAR Ref.C06062203900, 明治27年6月 「陣中日誌」 7兵站總監部 27自 6, 5至9, 3」.

하여 부산으로 수송하는 사안을 육군대신에게 요청했고, 그 후 일륜차(猫車) 70대와 인부 300명을 6일 다도쓰항(多度津)에서 배로 수송하겠다는 통지를 후루카와에게 보냈다.⁴⁰

사실 이미 한 달 전부터 부산의 인부와 우마 고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었다. 일례로 7월 3일 요시미 제1전신가설지대장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 하루 40전의 임금으로 400명을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불과 이틀 뒤에는 “인부 모집이 매우 곤란”하여 일당을 70전 이상 내야만 했는데도 150~160명밖에 구할 수 없었다.⁴¹ 다음 날인 7월 6일에는 부산을 떠나기 전에 하루 20전이고 출발한 후에는 70전씩 주겠다고 하여 인부 310명을 모집했다.⁴² 이처럼 임금을 올려주더라도 현지의 조선 민중이 쉽게 모집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심지어 부산에서 출발한 7월 21일 새벽 5시 짐을 운반할 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오전 10시 선발대만 먼저 보내야 했다. 요시미 지대장은 120마리의 소를 계약했지만 그 수량만큼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모집한 인부들도 틈만 보이면 도망하기 일수여서 급히 대본영에게 인부 500~600명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⁴³ 이러한 전례가 있어서 8월 초 후루카와 병참감이 일본인 인부의 지원을 요청했을 때 병참총감부의 조치는 믿기 힘들 정도로 신속했다. 한 달 전 경인 병참선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혼성제9여단의 병참부가 조선인 인부의 부족을 호소하자 대본영은 식량과 인부를 현지조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질책한 바가 있었다.⁴⁴

8월 4일 아침 후루카와 병참감은 2개의 병참사령부를 대구와 상주로 파견하면서 부산에서 출발한 선발대 보병 제12연대 제2대대에게 우마 70마리와 인

40 위의 사료.

41 『吉見日誌』, 1894년 7월 5일 자.

42 『吉見日誌』, 1894년 7월 6일 자.

43 『吉見日誌』, 1894년 7월 21일 자.

44 위신광, 2024, 앞의 글.

부 642명을 배속시키고 13일간의 식량도 미리 대구로 보내주었다.⁴⁵ 물론 도로를 수리하는 공병도 이들과 함께 출발했다. 대구의 병참사령부는 마쓰무라(松村) 소좌가 9일에 개설했고 12일 상주에 도착한 이마바시(今橋) 소좌는 명령이 변경되어 수운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낙동진에 병참사령부를 설치하게 되었다.⁴⁶ 이처럼 제5사단의 병참부는 대본영의 적극적 지원 아래 부산을 출발한 지 일주일 만에 대구와 낙동진에 병참사령부를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었다. 더불어 병참지가 예정된 상주에서 낙동진으로 변경된 사실을 통해 제5사단 병참부가 낙동강의 수로 병참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8월 6일 오전 9시부터 노즈 제5사단장이 인솔하는 제3차 수송부대들이 속속 부산에 입항했고 순차적으로 상륙하기 시작했다.⁴⁷ 그러나 노즈 사단장은 중로 병참선로가 매우 험하고 인마 모집도 쉽지 않다는 보고를 받자 오후 1시에 보병 1개 대대만 중로를 이용하고 나머지 병력은 한성까지의 이동 거리가 짧은 원산으로 보내겠다고 대본영에 제안했다.⁴⁸ 따라서 노즈 사단장은 급히 나머지 병력의 상륙을 중지시키고 보병 제12연대 제3대대의 3개 중대에게 7일 아침에 중로를 따라 행군하도록 지시하고, 탄약대대와 보병 제12연대 제3대대의 1개 중대는 일단 부산에서 대기하고 나머지 병력은 모두 원산항으로 보내고자 했다. 하지만 대본영은 노즈 사단장의 결정을 무시하고 일부의 전투부대만 원산으로

45 「8月」 JACAR Ref.C06062203900, 明治27年6月 「陣中日誌7兵站總監部 27自6, 5至9, 3」.

46 參謀本部, 1907, 앞의 책, 4쪽; 陸軍省 編纂, 2005, 『日清戰爭統計集: 明治二十七・八年戰役統計』(上卷1), 509~513쪽.

47 「申報, 第5師團長野津中將から參謀總長宛, 8月24日」 JACAR Ref.C06061762600, 明治27年自6月至9月 「混成第9旅團第5師團報告」; 「意見書9月30日」 JACAR Ref.C06061765800, 明治27年自6月至9月 「混成第9旅團 第5師團報告」.

48 第五師團長野津道貫中將, 『明治二十七八年陣中日記』(1894.6.4.~1895.5.15.), 일본국외도서관 현정자료실 소장 『野津道貫關係文書』 28-1·28-2(이하 『野津日記』로 표기).

수송하고 사단장은 한성으로 급행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노즈 중장은 8월 7일 중로를 따라 북상할 부대들을 추가로 상륙시키는 한편 원산으로 갈 보병 제12연대 제1대대와 야전 포병 제5연대의 본부와 제1대대를 두 척의 수송선에 나누어 부산항을 출발시켰다.⁴⁹ 당시 수송선으로 부산에서 원산까지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1개의 병참사령부도 원산으로 보내 병참 업무를 처리하고 부대들이 원산에서 한성으로 출발하면 즉시 부산으로 철수하라고 명령했다.⁵⁰ 실제로 이 병참사령부는 8일 원산에서 업무를 개시했고 13일 부산으로 복귀했다.⁵¹ 한편, 노즈 일행이 출발한 당일 부산의 무로타 요시아야(室田義文) 총영사가 오토리 일본공사를 통해 조선 정부에 중로를 따라 행군하는 일본군대를 위해 인부와 마필의 모집, 조선 동진(한진)의 환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두었다.⁵² 이에 다음 날(8일) 김윤식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가 연도의 관리들에게 전보로 통지했다고 알려졌다.⁵³

IV. 초기 경부 병참선의 운영 실태

여기서는 제5사단장의 한성 행군을 중심으로 경부 병참선의 이용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8일 새벽 노즈 사단장은 참모부의 부관과 기병 1소대를 이끌고 부

49 이 중에서 보병 제12연대의 제1대대는 제1, 3, 4중대 각 1소대 부재, 야전 포병 제5연대의 제1대대는 제2중대 부재.

50 「8月」 JACAR Ref.C06062203900, 明治27年6月 「陣中日誌7兵站總監部27自6, 5至9, 3」.

51 陸軍省 編纂, 2005, 앞의 책(上卷1), 509~513쪽.

52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1967, 앞의 책, 고종 31년 7월 7일(1894.8.7.), 釜山發上京日軍에 對한 沿道各地方官의 協調依頼(문서번호 2964).

53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1967, 앞의 책, 고종 31년 7월 8일(1894.8.8.), 上京日軍에 對한 協調의 准飭回答(문서번호 2967).

〈표 1〉 1894년 8월 제5사단장 일행의 부산-한성 행군 궤적

날짜		출발		도착		비고
제1일	0808	4:50	부산	14:20	양산	• 부산 병참사령부 이미 설치됨(8월 2일) 도중 고개가 있어 짐수레와 마필 통행 곤란
제2일	0809	4:50	양산	18:30	밀양	병사의 배낭을 배를 이용하여 부산으로 회송
제3일	0810	5:30	밀양	14:05	청도	
제4일	0811	5:00	청도	16:30	대구	• 대구 병참사령부 이미 설치됨(8월 9일) 도중에 팔조령(八助嶺)을 넘어감 대구에서 한전(韓錢) 교환
제5일	0812	대구 체재				
제6일	0813	5:45	대구	19:20	인동	
제7일	0814	4:30	인동	19:40	상주	낙동에서 제1전신가설지대장 요시미 소좌를 만나 전신선의 가설 상황과 조선정부가 연도의 조선 관리에게 일본 군대에 편리를 제공하라는 공문을 수령
제8일	0815	5:00	상주	19:05	문경	
제9일	0816	4:35	문경	19:00	충주	문경새재를 넘어가면서 마필이 쓰러지는 일이 많이 발생함
제10일	0817	5:00	충주	10:00	가흥	
		13:00	가흥(수로 이동)			인마 모두 승선, 배 한 척에 3필, 기병과 마부도 함께 탑승. 한 척의 배로 이틀분의 양말을 준비함.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함.
제11일	0818	수로 이동		21:30	광진	
제12일	0819	광진 상륙		9:40	한성	

* 노즈 제5사단장이 참모총장에게 올린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작성. 54

산을 떠나 한성으로 향했다. 그의 행군 궤적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에서 제시한 것처럼, 노즈 사단장 일행은 부산에서 충주까지 육로를 이용했고 보통 새벽에 출발하여 해가 지기 전에 정박지에 도착한 후 다음 날 새

54 「申報, 第5師團長野津中將から參謀總長宛, 8月24日」 JACAR Ref.C06061762600, 明治27年自6月至9月 「混成第9旅團 第5師團 報告」; 「意見書 9月30日」 JACAR Ref.C06061765800, 明治27年自6月至9月 「混成第9旅團 第5師團 報告」.

벽 다시 출발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대구에서는 이례적으로 행군이 정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고용한 조선인 인부들의 도망”과 “한전과 식량의 부족”으로 인해 전진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⁵⁵ 그리고 문경새재를 넘어서 충주 근처의 가흥부터는 한강의 수운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광진 나무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제5사단장 일행은 육로와 수로를 이용하여 12일 후인 19일에 한성에 도착했다.

제5사단장 일행이 이용한 중로는 중간에 험한 고갯길과 도강을 해야 하는 구간도 있었고 게다가 도로 수리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길이 “모두 황폐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⁵⁶ 참고로 대마도 통사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 1755~1832)의 『상서기문(象胥記聞)』에 따르면, 이 도로의 주요 구간의 도로 폭은 9척이며 가로수가 이어져 있지 않아 한여름에는 걷기 힘들고, 보통 사람이 하루에 걷는 거리를 100리로 보았을 때 동래에서 서울까지 총 940리의 길은 대략 12일 정도 걸린다고 했다.⁵⁷ 조선 후기 상인과 여행객의 하루 이동 거리는 대략 70~80리였고 최대 100리를 넘기 어려웠는데 도보로는 한 시간에 약 10~15리를 갔다고 한다.⁵⁸ 어쨌든 당시의 기록과 비교해보았을 때 노즈 사단장 일행의 행군 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없다. 노즈 사단장도 이러한 사실을 의식한 듯 한성에 도착한 후에 참모총장에게 올린 보고서에 “도로의 험악함, 한전의 결핍, 인부와 마필의 부족 등으로 인해 군대의 행진이 매우 곤란했다”고 변명하고 있다.⁵⁹

55 『野津日記』, 1894년 8월 11일·13일 자.

56 「8月」 JACAR Ref.C06062203900, 明治27年6月 「陣中日誌7兵站總監部 27自6, 5至9, 3」.

57 小田幾五郎 저, 쿠리타 에이지(栗田英二) 역, 2005, 『상서기문』, 이회문화사, 44~45쪽.

58 김중혁, 2001a,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1770)에 나타난 한강 유역의 장시망과 교통망』, 『경제사학』 30권 0호, 16~17쪽; 김중혁, 2001b, 「朝鮮後期 漢江流域의 交通路와 市場」, 고려대학교 대학원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59 「申報, 第5師團長野津中將から參謀總長宛, 8月24日」 JACAR Ref.C0606176

노즈 사단장 일행은 출발 첫날부터 짐수레는 물론 마필의 통행도 곤란한 지형을 만났고 짐을 휴대하고는 행군할 수 없을 정도의 무더위에 직면하자, 다음 날(9일) 즉시 일행들의 배낭을 수로를 통해 부산으로 돌려보내고 해로로 인천까지 운송하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후루카와 병참감에게 같은 조치를 취하여 후발 부대의 짐도 줄이라고 지시했다.⁶⁰ 14일 낙동진을 거쳐 상주에 도착한 노즈 사단장은 도로의 험악한 상태, 한전과 식량의 부족, 조선인 인부의 고용난을 호소하면서 다시 한번 대본영에게 후속 부대들을 원산항이나 인천항으로 수송해달라고 요청했다.⁶¹

낙동진에서 요시미 소좌의 제1전신가설지대를 만난 노즈 사단장은 전신선의 가설 상황과 조선정부가 연도의 부사(府使)들에게 일본군에게 편의를 제공하라는 공문을 내렸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⁶² 실제로 오토리 일본공사는 노즈 사단장이 호소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정부에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의 관찰사에게 협조 공문을 내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다.⁶³ 일본공사가 조선정부에 여러 번 동일한 요청을 반복했다는 사실은 거꾸로 일본의 압박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방증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본의 요구는 일본 화폐의 교환에서 일본군의 이동을 도울 ‘방조원(幫助員)’의 파견까지 압박 수위가 올라

2600, 明治27年自6月至9月「混成第9旅団 第5師団 報告」; 「意見書 9月30日」 JACAR Ref.C06061765800, 明治27年自6月至9月「混成第9旅団 第5師団 報告」.

60 『野津日記』, 1894년 8월 8일 자.

61 『野津日記』, 1894년 8월 14일 자.

62 「申報, 第5師団長野津中將から參謀總長宛, 8月24日」 JACAR Ref.C06061762600, 明治27年自6月至9月「混成第9旅団 第5師団 報告」.

63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1967, 앞의 책, 고종 31년 7월 11일(1894.8.11.), 約束한 日軍所用銅錢准借關文의 速發要請 (문서번호 2983호); 고종 31년 7월 12일(1894.8.12.), 上京日軍에 對한 沿道便宜提供再飭要望 (문서번호 2987호); 고종 31년 7월 13일(1894.8.13.), 忠州等地日軍需用米·錢·人·馬의 供給 및 壘用飭令要請 (문서번호 2989호); 고종 31년 7월 14일(1894.8.14.), 同上驪州·楊根·廣州等地另飭關文의 繕交催促 (문서번호 2991호).

갔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⁶⁴

그 후에도 노즈 일행의 고난의 행군은 계속되어 문경새재에서는 암석들 사이를 어렵게 빠져나와야 했는데 경사가 심한 바위를 넘던 도중에 말이 쓰러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다급해진 노즈 사단장은 근처에 있던 제1전신가설지대에게 도로 수선을 지시하여 후발 부대의 안전을 꾀했다.⁶⁵ 17일 오전 남한강 상류의 가흥에 도착한 노즈 일행은 수운을 이용하기 위해 모두 승선했다. 배 한 척에 말 3필과 기병 그리고 마부를 태우고 장교 이하의 인원과 이틀분의 양말(糧糶)을 별도의 배에 선적한 후 오후 1시에 출발했다.⁶⁶ 노즈 사단장은 주야겸행의 강행군을 하기로 했지만 급할 것이 없는 조선인들이 밤에 쉬지 못하도록 각 배마다 당번을 정하여 독촉하게 하는 한편, 맨 끝의 배에는 하사와 통역을 태워 뒤처지는 배가 없도록 했다. 이처럼 노즈 일행은 밤낮 쉬지 않고 배로 한강을 내려온 끝에 다음 날 밤 9시 반 광진 나루에 도착했다. 이것은 가흥에서 광진까지 대략 33시간 만에 주파한 것으로 같은 거리를 2, 3일 걸린 조선시대의 조운선에 비하면 상당히 빨랐다.

노즈 사단장 일행의 이동 경로는 조선시대 경상도의 세곡이 용산의 경창(京倉)으로 운송되는 노선과 정확히 일치했다. 조선 태종 때 경상도 해운의 전면 중지 에 따라 경상도 남부 각 군·현은 세곡을 해당 군·현에서 가까운 남강과 낙동강까지 가져와 배에 싣고 북상하여 상주군 낙동면에 있는 낙동진으로 옮겼다.⁶⁷ 여기서부터는 인부와 말을 고용하여 세곡을 험준한 조령을 넘어 충주의 가흥창(可興倉)까지 육로로 운송하였는데 이 육로는 대략 40km에 지나지 않았지만 험준한 산길을 끼고 있어 보통 4일이 걸렸다고 한다.⁶⁸ 가흥창에 모인 세곡은

64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1967, 앞의 책, 고종 31년 7월 15일(1894.8.15.), 忠州大邱間日軍便宜提供飭令關文의 發給 및 幫助員 飭派要請(문서번호 2994호).

65 위의 사료.

66 「申報, 第5師團長野津中將から參謀總長宛, 8月24日」 JACAR Ref.C0606176 2600, 明治27年自6月至9月「混成第9旅團 第5師團 報告」.

67 吳浩成, 2007, 『朝鮮時代の米穀流通시스템』, 국학자료원, 72~74쪽.

한강의 수로로 경창까지 운송되었고 그 시간은 계절적인 수량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빠르면 하루 느려도 4일 정도였다고 한다.⁶⁹ 다만 남한강에서 사용된 선박의 크기에 따라 선적량의 차이가 나는데, 대선 250~300석, 중선 200~250석, 소선 130~200석 정도였다.⁷⁰

노즈 사단장과 함께 부산에 상륙한 보병 제12연대는 원산으로 올라간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로 병참선을 통해 용산까지 이동했다. 전체 일정을 정리하면 노즈 사단장에 앞서 1개 대대가 7일 출발했고, 뒤이어 하루 간격으로 노즈 사단장 일행, 제2차, 제3차 부대, 11일에 마지막 제4차 부대가 출발했다. 출발은 하루 간격이었지만 용산 도착은 8월 22~29일로 뒤로 갈수록 늦어졌다. 이것은 뒤에 출발한 부대들의 행군이 앞선 부대들에 비해 원활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이들 다섯 그룹의 행군을 지원한 병참 시스템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가동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산에서 병참 시스템을 지휘하고 있던 후루카와 병참감은 노즈 사단장 일행이 부산을 떠나자 다음 날(9일) 군대가 순차적으로 출발해야 하니 병참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보내 달라고 병참총감에게 요청했다. 그리고 8월 10일에는 상주에 설치 예정이었던 병참지를 수운이 용이한 낙동진으로 옮기라고 지시하고 삼랑진, 대구, 문경, 하담에 설치할 병참사령부의 병참사령관을 임명하고 다

68 상주에는 수백 마리의 말과 인부가 있었고 이들이 이용하는 馬房도 규모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말 등에 쌀을 싣고 조령을 넘어 충주까지 가는 데 보통 4일이 걸렸으므로 산속 중간에 인마의 숙식 장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9 『여지도서(輿地圖書)』 상, 여주, 충주, 단양, 영춘 전세조; 최영준, 1997, 『국토와 민족생활사: 한국역사지리학 논고』, 한길사, 124~126쪽.

70 『세종실록』 권113 28년 9월 신사조; 강선(江船)의 종류와 크기는 『경국대전』(工典 舟車, 造營尺 1尺=31.195cm)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측정법	대선		중선		소선	
	길이	넓이	길이	넓이	길이	넓이
조영척	50척	10척 3촌	46척	9척	41척	8척
미터법	16m	3.3m	14.7m	2.9m	13m	2.6m

음 날(11일) 즉시 출발하도록 지시했다.⁷¹ 13일에도 문경새재 이복의 안보(安保), 장호원, 이천, 조현 등 네 곳에 병참사령부를 설치할 요원을 파견하고 대구에는 위생예비원(衛生預備員)과 수의관(獸醫官)을 보내고 환자수송부를 하담에 두는 한편, 부산에서는 병참병원의 설치에 착수했다. 이처럼 후루카와 병참감은 부산-송파진 사이에 20개의 병참지와 9개의 병참 창고를 선정했다는 사실을 14일 병참총감에게 보고했다.⁷²

이어서 17일 후루카와는 송파진의 병참사령관으로 아마가타 소좌를 파견했다. 18일 오전에 4개의 병참사령부를 만들 수 있는 인원이 제4차 수송부대와 함께 부산에 도착하자 19일 후루카와는 군의관과 간호사 1명씩을 원산항으로 보냈고, 20일 청도, 다부, 해평 세 병참지로도 병참사령부를 구성할 인력을 파견했다.⁷³ 주목할 것은 제5사단장이 한성에 도착한 이후에도 후루카와 병참감은 부산에서 송파진까지 주요 병참지에 병참사령부를 계속 설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⁷⁴ 심지어 부산에 도착한 제4차 수송부대가 중로 병참선을 사용하지 않고 인천으로 직행했음에도 후루카와는 이미 제12연대의 병력이 통과한 노선을 따라가며 병참선 구축에 매진한 사실은 중로 병참선이 모양만 갖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병참선을 지향했음을 보여준다.

71 일차로 출발한 대대와 노즈 사단장 일행은 병참사령부 예정지인 하담 대신에 강의 맞은편에 위치한 가흥을 이용했다. 「8月」 JACAR Ref.C06062203900, 明治27年6月 「陣中日誌」7兵站總監部27自6, 5至9, 3, 1894년 8월 10일 참조.

72 「8月」 JACAR Ref.C06062203900, 明治27年6月 「陣中日誌」7兵站總監部27自6, 5至9, 3, 1894년 8월 14일 참조; 國史編纂委員會 編, 1987, 『駐韓日本公使館記錄』(2卷), 國史編纂委員會, 二(9) 참조. 병참지는 총 20개, 창고 위치는 별표 표시.

☆釜山	龜浦	勿禁店	☆三浪津	密陽	清道	☆大邱	多富	海平	☆洛東
台封	☆閔慶	安保	忠州	☆河潭	長湖院	☆利川	昆池岩	☆島硯	☆松坡鎮

73 竹内正策, 2017, 『韓地從征日記』, 竹内正策古文書研究会 編集・發行, 1894년 8월 19일 자.

74 參謀本部, 1907, 앞의 책, 4쪽; 陸軍省 編纂, 2005, 앞의 책(上卷1), 509~513쪽.

중로 병참선의 중요성에 대한 대본영의 인식은 후루카와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다. 일례로 부산에서 도로 수리를 위한 인부의 모집이 곤란해지자 가와카미 병참총감은 즉시 일본인 석공(石工) 300명과 우물을 파는 기술자 20명을 육군대신에게 요청했고 육군대신도 22일에 절반의 공병 중대와 석공 200명, 우물을 파는 기술자 20명을 보내주는 등 지나칠 정도로 신속하게 반응했다.⁷⁵ 또 후루카와 병참감이 부산 일대의 소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어 지금까지 소 24마리가 죽었고 앞으로 더 많이 죽을 것 같으니 수의사 여러 명을 급히 파견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때도 병참총감은 즉시 소 전염병 박멸을 위해 구로스(黒須) 일등 수의사를 부산으로 파견하면서 도착한 후에 후루카와 병참감의 지휘를 받도록 조치했다.⁷⁶ 이처럼 대본영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병참 관련 자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중로 병참선은 사실상 주요한 병참지에 병참 사령부만 설치해놓았을 뿐 병참지와 병참지를 연결시켜줄 중열(인부와 짐말로 구성)을 갖춘 완전한 병참선에는 이르지 못했다.

앞에서 보았듯이 노즈 사단장과 제5사단이 경부 병참선을 통해 이동하던 중에 지역사회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한 많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본은 오토리 공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조선정부에 편익 제공을 압박했다. 하지만 일본군과 지역사회의 불편한 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애로사항들은 노즈 사단장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에 돌입한 모든 일본 군대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 내에서 보다 자유로운 군사행동을 보장받기 위해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곧이어 체결되는 『조일공수동맹조약(朝日攻守同盟條約)』의 성립과 무관하지 않다고 사려된다.

75 「8月」JACAR Ref.C06062203900, 明治27年6月「陣中日誌7兵站總監部 27自6, 5至9, 3」, 1894년 8월 13일·19일 참조.

76 위의 사료, 1894년 8월 11일 참조.

V. 맺음말

청일전쟁 시기 정부 병참선은 일본군이 제해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부산-인천 간의 해로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수송로였다. 늦어도 1894년 7월 초까지 대본영의 병참총감부는 이미 청군과 동학농민군의 봉기 등 정세를 종합해서 중로를 병참선로로 선정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단지 경사가 심한 조령을 적절하게 개조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중로와 서로 중에 최종 선택을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가와카미 병참총감은 육군대학교 출신의 엘리트 장교 후지이 소좌를 현지로 보내 중로의 도로 상태를 3주간에 걸쳐 매우 상세하게 조사했다. 결국, 한반도로 먼저 파견된 혼성여단 병참부의 보고까지 고려하여 병참총감부는 중로의 육로 병참선과 낙동강, 남한강을 활용하는 병참선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제5사단에 내렸다.

정부 병참선은 제5사단의 한성 집결을 위해 설치되었지만 실제로 노즈 사단장을 비롯한 일부의 병력만 통과했다. 원래의 계획에 따르면 제5사단의 잔여 부대는 대부분 정부 병참선을 따라 이동해야 했으나 일본 육군은 안전한 육로의 병참선을 포기하고 위험 부담이 큰 해로수송을 선택했다. 이것은 육로 병참선이 단지 '통과형'일지라도 해상수송에 비하면 그만큼 어려움이 컸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본영이 정부 간의 병참선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전투의 전개 상황을 미리 모두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정부 간의 병참선은 유지해야만 했다. 이것은 제5사단의 병력이 모두 한성에 집결한 후에도 대본영의 병참총감이 직접 이 구간을 관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정부 병참선의 사용을 둘러싸고 현장의 노즈 제5사단장과 대본영의 의견 대립도 눈에 띈다. 길이 멀고 험준한 고개도 많은 중로 병참선을 통과해야 하는 사령관으로서 노즈는 되도록 해로를 이용하여 후속 부대를 인천이나 원산으로 직송하도록 거듭 요구했지만 안전성을 중시한 대본영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결과 노즈는 정부 병참선을 통과하는 부대들의 짐만 해로를 이용하여 인천으

로 수송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물론 경인 병참선을 설치할 때 국내 인부 파견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대본영이 부산에 파견한 사단 병참부의 요청에는 즉시 지원해준 것을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병참에 대한 대본영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병참선의 설치와 운영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타국에서 대규모의 병력이 장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설치된 병참선은 일괄성으로 통과하는 병력들과 달리 각 병참의 거점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만 원활하게 운영되는 체제이다. 즉, 각 병참지를 담당할 인력들은 그곳에 남아서 통과하는 병력들을 위해 숙소와 식량, 짐들의 운반을 책임져야만 했다. 이러한 병참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지역의 관리, 주민들과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부 병참선은 주변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반감과 저항까지를 초래했다. 이 부분은 동학농민운동과 연계하여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사료

『경국대전』(工典 舟車).

『세종실록』 권113.

『여지도서(輿地圖書)] 상.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編, 1967, 『舊韓國外交文書』(第3卷 日案3),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兵站總監より藤井少佐宛訓令」JACAR Ref.C06061941900, 明治27年6月12日~7月22日「玉手箱 第4号」.

「申報, 第5師団長野津中將から參謀總長宛, 8月24日」JACAR Ref.C06061762600, 明治27年自6月至9月「混成第9旅団 第5師団 報告」.

「留守第5師団より兵站部並第3野戰病院等職員表進達の件」JACAR Ref.C05121512900, 明治27年8月戦役日記.

「意見書9月30日」JACAR Ref.C06061765800, 明治27年自6月至9月「混成第9旅団 第5師団 報告」.

「第21号~第30号」JACAR Ref.C13110351300, 臨時事變に関する書類綴(乙)明治27年6月.

「第41号~第50号」JACAR Ref.C13110351500, 臨時事變に関する書類綴(乙)明治27年6月.

「7月」JACAR Ref.C06062203800, 明治27年6月「陣中日誌7兵站總監部27自6, 5至9, 3」.

「7月5日兵站總監より藤井少佐宛訓令」JACAR Ref.C06061942100, 明治27年6月12日~7月22日「玉手箱第4号」.

「7月12日藤井少佐発川上總監宛」JACAR Ref.C06060786600, 明治27年7月~8月「着電綴(三)」.

「8月」JACAR Ref.C06062203900, 明治27年6月 「陣中日誌7兵站總監部27自6, 5至9, 3」.

吉見精, 『入韓日誌一』, 防衛省防衛研究所図書館.

藤井茂太, 1936, 『兩戰役回顧談』, 偕行社.

小田幾五郎 著, 쿠리타 에이지(栗田英二) 역, 2005, 『상서기문』, 이회문화사.

野津道貫, 『野津道貫關係文書』 28-1·28-2, 日本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陸軍省 編纂, 2005a, 『日清戰爭統計集: 明治二十七·八年戰役統計』(上卷), 海路書院複製.

_____, 2005b, 『日清戰爭統計集: 明治二十七·八年戰役統計』(下卷1), 海路書院複製.

竹内正策, 2017, 『韓地從征日記』, 竹内正策古文書研究会 編集·發行.

泰郁彦 編, 2005, 『日本陸海軍總合事典』(第2版), 東京大学出版会.

參謀本部 編纂, 1904a, 『明治二十七八年日清戰史』(第1卷), 東京印刷.

_____, 1904b, 『明治二十七八年日清戰史』(第2卷), 東京印刷.

_____, 1907, 『明治二十七八年日清戰史』(第8卷), 東京印刷.

단행본

朴慶龍, 1995, 『開化期 漢城府 研究』, 一志社.

吳浩成, 2007, 『朝鮮時代の米穀流通システム』, 國학자료원.

최영준, 1997, 『국토와 민족생활사: 한국역사지리학 논고』, 한길사.

齋藤聖二, 2003, 『日清戰爭の軍事戰略』, 芙蓉書房出版.

논문

강효숙, 2002, 「第2次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 『歴史學研究』 762.

김중혁, 2001a,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1770)에 나타난 한강유역의 장시망과 교통망」, 『경제사학』 30권 0호.

_____, 2001b, 「朝鮮後期 漢江流域의 交通路와 市場」, 고려대학교 대학원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위신광, 2024,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경인 병참선 구축」, 『동양사학연구』 제168집.
- 이승희, 2004, 「청일·러일전쟁기 일본군의 군용전신선 강행가설 문제-한국 파견 '臨時憲兵隊'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21권.
- 延廣壽一, 2011, 「日清戦争と朝鮮民衆-電線架設支隊長の日記から見た抵抗活動」, 『日本史研究』 通号584.

청일전쟁기 일본 제5사단의 한성 집결과 경부 병참선 설치

위신광(魏晨光)

이 글에서는 청일전쟁 시기 일본 제5사단의 한성 집결을 위한 경부 병참선 설치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일본군은 한반도에서 청군을 견제하기 위해 제5사단을 상륙시키고, 이를 위해 세 가지 경로를 활용하여 병력을 집중하고자 했다. 그러나 제해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상수송의 위험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병력이 부산에 상륙하게 되었고 경부 간의 병참선 설치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경부 병참선은 험난한 지형과 긴 거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일본군은 중로를 육로 병참선으로 설정하고 수로 병참선도 계획했다. 결론적으로 경부 병참선은 제5사단의 한성 집결을 위해 필수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부 병력만 통과했다. 또한 병참선의 설치와 운영은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반감과 저항을 초래했다. 경부 병참선은 일본군이 청나라와의 전투와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복합적인 정세 속에서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향후 이와 관련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청일전쟁, 일본 제5사단, 경부 병참선, 병참부

ABSTRACT

The Japanese Fifth Division's Assembly in Seoul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eoul-Pusan Supply Line in the First Sino-Japanese War

Wei Chenguang

This paper analyses in-depth the process of the Japanese Fifth Division's assembly in Seoul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eoul-Pusan (Gyeongbu) supply line during the Sino-Japanese War. The Japanese army aimed to deter the Qing military on the Korean Peninsula by landing the Fifth Division. For this purpose, it utilised three routes to concentrate its forces. However, due to the dangers of maritime transport in the absence of sea control, most troops landed at Pusan, and establishing the Seoul-Pusan supply line became an important task. The Seoul-Pusan supply line faced many difficulties due to the rugged terrain and long distances, so the Japanese established the Middle Road (Jungro) as an overland supply line and also arranged a waterway supply. In conclusion, although the Gyeongbu Line was essential for the Fifth Division's

assembly at Seoul, only a small portion of the troops used it for passage. Furthermor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ine were closely linked to the local communities, and poor relations with the local populations led to resentment and resistance. The Seoul-Pusan supply line is an important example of how the Japanese military was set up and operated in a complex context of battles with the Qing dynasty and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Keywords: the First Sino-Japanese War, the Japanese Fifth Division, the Seoul-Pusan (Gyeongbu) supply line, Military Station Department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청일전쟁 시기 청 정부의 군비 조달 연구

쉬춘젠(許存健) | 중국 산둥대학(山東大學) 역사학원(歷史學院) 부연구원

- I. 머리말
- II. 청일전쟁 이전 청 정부의 재정 상황
- III. 중앙의 군비 조달 대응
- IV. 군비 조달에 대한 정치투쟁의 영향
- V. 청일전쟁 시기 국내 군비 조달액의 추산
- VI. 맺음말



I. 머리말

청일전쟁은 근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적 구도 변화에 영향을 준 중요한 전쟁이다. 중국 학계는 청 정부가 전쟁에 참패한 것에 대해 군사력, 정치투쟁, 군사적 결정 등의 측면에서 많은 분석을 도출한 데 반해 재정에 초점을 둔 논의는 현재 비교적 적은 편이며, 아직까지 청일전쟁 시기 군비 조달 문제에 대해 보다 거시적 층위의 연구를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¹

보급은 전쟁의 중요한 기초로서, 군대가 움직이기 전에 식량이 먼저 준비된다. 일본의 도발에 직면하여 청 정부의 재정 체계, 중앙-지방의 재정 관계, 각 성(省) 간 재정 관계의 제약을 받아 군비의 조달 과정은 순조롭지 못했고, 결국 재정적 요인은 청 정부의 청일전쟁 참패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 글은 청일전쟁 시기 청 정부의 국내 군비 조달을 위한 재정 정책 결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전체 역사의 맥락 속에서 청 조정 내부의 권력투쟁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또한 청일전쟁 시기 청 정부의 군비 조달액을 재집계함으로써, 청일전쟁 시기 청 정부의 권력 운용 및 이것이 전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아울러 보다 정확한 군비의 데이터를 학계에 제공하고자 한다.

II. 청일전쟁 이전 청 정부의 재정 상황

청 초기 국가재정은 수입에 따라 지출하는(量入爲出) 재정 체제를 견지하였고,

* 투고: 2024년 10월 15일, 심사 완료: 2024년 11월 5일, 게재 확정: 2024년 11월 11일

1 戚其璋, 1983, 「甲午戰爭失敗與清朝財政」, 『中日甲午戰爭史論叢』, 山東教育出版社, 270~284쪽; 梁義群, 1988, 「甲午戰爭與清廷財政」, 『學術月刊』, 第5期; 劉志堅, 1994, 「甲午戰爭清廷籌款考析」, 『福建論壇(文史哲版)』, 第4期.

재정 수입은 토지세(田賦), 염세(鹽課), 관세, 잡세 위주였으며, 지출은 주로 군비, 관원의 봉급, 황실 지출이었다. 그리고 그 밖의 군무(軍務), 치수(河工), 구휼(賑濟) 등 임시 지출 시에는 대개 연납(捐納)으로 대응했다. 청대 “원액주의(原額主義)” 재정에 의한 ‘수입에 따른 지출’ 재정 사상을 견지하면서 점차 정액(額定) 재정 체제가 형성되어, 가경-도광 시기 재정 수입은 4,000만 냥, 지출은 3,800만 냥을 유지하는 얼마간의 흑자 상태를 유지했다.²

함풍 초기, 태평천국운동이 발발하여 청 정부의 군비 지출이 급증하자, 호부(戶部)에서 대전(大錢)과 보초(寶鈔) 등을 발행하는 수단을 취하였으나 중앙의 재원으로는 충분한 군비를 공급할 수 없었다. 결국 여러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조달해야 했고, 이에 따라 각 성의 연수(捐輸: 기부금), 이금(厘金: 통과세) 등 새로운 재원이 출현하여 “당시의 정조(丁漕) 과세라는 본래의 세목 이외에도 이금과 연수(捐輸)라는 두 가지 항목이 더해졌다.”³ 이러한 재원은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았고, 그 징수 및 사용 모두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중앙-지방 재정 관계가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 방향으로의 전환을 초래하여 재정권의 하향 이전을 촉진했다.

동치 중기, 태평천국 전쟁이 종료되고 청조의 재정은 점차 안정기에 진입했다. 재정이 호전되면서 청불전쟁 발발 이전에는 약간의 잉여가 발생하기도 했다. 광서 10년 청불전쟁이 발발한 뒤, 전선이 먼 남부 국경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중앙 호부는 이에 대해 많은 지출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양광총독(兩廣總督) 장즈둥이 주로 조달을 담당했다. 청불전쟁 시기 차입금 또한 주로 양광(兩廣) 지역에서 상환하여 청조의 재정에 과다한 부담을 불러오지는 않았다. 청일전쟁 발발 이전, 청조의 재정 상황은 일정 수준 회복되었다. 청일전쟁 전 중앙 재정 지출은 <표 1>과 같다.

2 王慶雲, 1985, 『石渠餘紀』卷三, 北京古籍出版社, 144, 146쪽.

3 『議復條陳』, 同治13年11月初2日, 顧廷龍·戴逸 主編, 2008, 『李鴻章全集』第6冊, 安徽教育出版社, 164쪽.

〈표 1〉 청일전쟁 이전 청 정부의 세입세출액

(단위: 만 냥)

연도	수입	지출	잉여 금액
光緒十一年	7,708	7,286	422
光緒十二年	8,126	7,855	271
光緒十三年	8,421	8,128	293
光緒十四年	8,839	8,196	643
光緒十五年	8,076	7,307	769
光緒十六年	8,680	7,941	739
光緒十七年	8,968	7,935	1,033
光緒十八年	8,336	7,564	772
光緒十九年	8,311	7,343	968
光緒二十年	8,103	8,027	76

출처: 劉巖雲, 1901, 『光緒會計表』, 미국 컬럼비아대 도서관 소장.

재정에 잉여가 존재하여 예전에 청 정부가 빌린 외채는 청일전쟁 이전인 광서 13년 해군이 차입하여 상환하지 못한 액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환하였는데, “대체로 당시 세입이 세출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⁴

그러나 주로 새로 늘어난 재원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중앙에서는 주로 해관세와 아편세에 의존하였고, 지방의 주요 재원은 이금이였다. 일부 성에서는 광동의 도박세(賭稅), 푸젠의 찻잎 통과세(茶葉厘捐)와 같은 특수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다른 면에서는 자금 조달 수단이 여전히 강희제 때 제정된 “영구히 부세를 늘리지 않는(永不加賦)” 경세(輕稅) 제도의 제약을 받았고, 청일전쟁의 군비를 조달하는 긴급한 시기에도 여전히 “군비 수요가 아무리 긴급해도 백성

4 岑學呂 編, 1939, 『三水梁燕孫(士詒)先生年譜』, 沈雲龍 主編, 『近代中國史料叢刊』 第75輯 第743冊, 19쪽.

〈표 2〉 광서 18~20년 해관세, 양약(洋藥: 수입 아편) 이금 수입액

(단위: 만 냥)

연도	해관세	양약 이금	각 성의 이금	합계
光緒十八年	1,762	566	1,531	3,859
光緒十九年	1,680	536	1,427	3,643
光緒二十年	1,767	505	1,421	3,693

출처: 洋藥厘金은 翁萬戈 編, 2014, 『翁同龢文獻叢編之三』, 遠東出版社, 700쪽; 洋稅와 各省厘金은 劉嶽雲, 1901, 『光緒會計表』, 미국 컬럼비아대 도서관 소장.

들에게 털끝만큼의 누를 끼친 적이 없었다”는 선례를 고려해야 했다.⁵ 청 정부의 수입 증가는 〈표 2〉와 같다.

청 정부 재정 수입은 바로 신규 재원으로 인해 두 배로 증가할 수 있었다. 상품유통세를 징수하는 목적은 주로 상인에게 징세하는 것이었으므로, 일반 백성들에게 직접 부과되지 않아 여전히 세금을 거둘 여지가 많았다. 요컨대 양무운동 이후 청 정부의 재정 상황은 점차 호전되어 재정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양상이 나타나서 약간의 잉여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청일전쟁의 발발로 청 정부의 재정은 재차 수렁에 빠졌다.

Ⅲ. 중앙의 군비 조달 대응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형세는 거세게 변화하고 있었으나 청 정부는 여전히 전쟁 준비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광서 20년 5월 말, 총리아문은 전쟁을 막기 위한 협상이 “아직 결렬되지 않았다”고 여겼고, 영국은 줄곧 중간에서 청일 양측을 중재했다.⁶ 청 정부는 총체적인 수세에 처했다. 전쟁을 할 의

5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1996, 『光緒朝朱批奏摺』 第82冊, 中華書局, 248쪽.

6 「附驛署來電」, 光緒二十年五月二十九日戌刻到, 『李鴻章全集』 第24冊,

도도, 역량도 없었기에 수동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제대로 전쟁 준비를 할 수 없었다. 6월 13일, 이광(突勳)의 주청에 따라 자희태후는 왕통허와 리홍장에게 군기대신 및 총리아문과 조선 문제를 상의하라고 요구했다. 비록 당시의 청 조정은 적극적으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⁷ 그에 따르는 조달 전략 면에서 여전히 예전의 염세 증세, 상인의 기부(捐輸) 등의 방안에 계속 의존하고 있었고, 특히 외채 차입을 배척하고 내채 차입을 선택함으로써 군비 조달의 진도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

1. 군비 조달 전략

군대의 재배치가 지체되었기 때문에 군수품을 조달하는 일 역시 중시되지 못했다. 광서 20년 6월 6일, 해군아문(海軍衙門)은 호부와 청일전쟁 군비 조달을 논의하였는데, 왕통허의 기록에 따르면 양자가 각기 절반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보이나, 실제로 해군아문의 경비 자체가 호부에서 마련한 것이므로 이와 같이 분배한다면 “이는 호부가 전체를 담당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⁸ 이와 동시에 청 정부 내부에서는 조선에서 철군하는 일본에 대한 태도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예로 왕평원(王鵬運)은 “왜이가 조선에 잔혹한 짓을 함으로써 전쟁 국면이 이미 이루어졌다”⁹고 보았으나, 호부상서 왕통허는 “왜국은 각국의 권고를 받아 기한을 정해 철군하려 한다”고 여겼고, 청 조정은 “호부의 지출만 신용”하고자 하여 호부에게 텐진에서 북양해군을 위한 군비 조달 준비를 요구했다. 호부를 통

101쪽.

- 7 「預籌戰備摺」(光緒二十年六月二十一日), 謝俊美, 2005, 『翁同龢集(上冊)』, 中華書局, 118쪽.
- 8 中國科學院 近代史研究所 近代史資料編輯組 編輯, 1962, 『近代史資料』總 28號, 中華書局, 67쪽.
- 9 中國社會科學院 近代史研究所 近代史資料編輯室 編, 1987, 『近代史資料』總 65號, 中國社會科學出版社, 39쪽.

제하던 윙통허가 자금을 마련할 뜻을 표했으나, 열강의 중재에 희망을 걸고 “준비하나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¹⁰는 상황에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군비를 조달하기는 어려웠다.

호부가 부 금고에서 직접 지출하지 않으려던 것에 비해, 각 성에는 “전반적인 군비 조달 계획은 어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어떤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어떤 항목에 먼저 지출을 행할 것인지, 어떤 자금을 임시로 차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필히 마련된 자금을 분배하여 해상에서 군사를 부리는 수요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현지 군비 조달을 요구했다.¹¹ 이는 표면적으로 각 성이 군비 조달에 참여하도록 하는 독려로 보이나, 청말 재정권이 지방으로 옮겨간 뒤의 이러한 제의는 형식이 실질보다 분명히 컸다. 호부는 나아가 일부 구체적인 군비 조달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공사의 중단, 봉급의 공제, 염세와 통과세의 선납, 운송 원가 책정 기준 상향¹²의 네 가지 조항을 제시했다. 8월, 호부는 여러 방면으로 군비 조달을 지속하였는데, 안료와 직물을 포괄하는 두저장고의 구매 경비를 40% 지출하는 것으로 경비를 절약했다. 또 전당업자와 아편상인에게서 기부금을 받고 찻잎과 설탕류에 통과세를 추가했다.¹³

일본이 웨이하이웨이(威海衛)를 침공한 후, 산둥(山東)의 덩저우(登州), 자오저우(膠州), 라이저우(萊州) 등은 전쟁의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왜가 웨이하이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자 곧 남쪽으로 달아나 장쑤, 저장, 푸젠, 타이완도 지극히 게걸스레 요구했다.”¹⁴ 청 조정은 20년 7월 초 1일 연해의 성들에 전쟁 준비 유지(諭旨)를 반포하여 대부분 성의 방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중앙의 군비 조달 협조에 관해서는 대체로 회피·지연했다. 심지어 전시에 경비를

10 中國科學院 近代史研究所 近代史資料編輯組 編輯, 1962, 앞의 책, 68쪽.

11 朱壽鵬 編, 1960, 『光緒朝東華錄』 卷344, 光緒二十年七月戊子.

12 朱壽鵬 編, 1960, 『光緒朝東華錄』 卷344, 光緒二十年七月戊子.

13 「具奏籌餉緊要續擬數條請旨遵行」, 光緒二十年九月初三日, 中研院近代史所藏總理各國事務衙門檔案, 檔號: 01-25-036-01-020.

14 中國科學院 近代史研究所 近代史資料編輯組 編輯, 1962, 앞의 책, 72쪽.

유보시키기도 하였는데, 일례로 민절총독(閩浙總督) 탄중린(譚鍾麟)은 경험 각 군비 조달(京協各餉)의 완화를 요구했다.¹⁵ 청일전쟁 이후, 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불만을 표했다.

현재 각 성의 주문(奏文)과 자문(咨文)을 살펴보니, 차, 설탕, 소금, 담배, 술, 아편의 세금과 전당(典當), 양렴(養廉), 봉록 비용의 각 항목 중 실시된 것은 많아야 4~5가지를 넘지 않고, 적게는 한두 가지뿐이다. 작은 것들은 이미 완전히 행할 수 없게 되었고, 병사 편제를 감축하고, 봉록을 심사하며, 통과세를 정돈하는 가장 큰 일들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최근 산시(陝西)에서는 유명무실한 상주(上奏)가 만연하는데, 그 외 성들은 소식이 없는 데다 어떠한지도 알 수 없다.¹⁶

당시 관원들은 수많은 방안을 제기했다. 가령 어사(御史) 장바이시(張百熙)는 다음 여섯 가지 군비 조달 방법을 제안했다. 직관(職官)의 봉급과 양렴을 삭감하는 것, 내무부에서 90%를 지출하는 것, 1품·2품·3품 관원들이 군비 원조를 위해 기부하는 것, 부유한 신사층과 거상에게 기부를 독려하고 표창하는 것, 본래 직(直隸)에 속한 고유 자금을 수도로 군비 조달하는 것, (마지막으로) 쓰촨(四川), 후광(湖廣)에서는 한 근(斤)당 8문(文), 양회(兩淮)에서는 5문, 창루(長蘆)와 허난(河南) 등지에서는 4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염세와 통과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이었다.¹⁷ 앞의 두 가지 안은 전통적인 기부(捐輸)의 범주에 속하고, 세 번째 안은 기타 군비를 전용하는 것이며, 마지막 안은 염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모두 관행적인 군비 조달 방법에 속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염세와 통과세의

15 「閩浙總督譚鍾麟奏爲閩省防務緊要餉需告匱請緩解京協各餉由」, 光緒二十年八月十八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故機136008.

16 朱壽鵬 編, 1960, 『光緒朝東華錄』, 光緒二十一年十二月甲午, 中華書局, 3728쪽.

17 謝俊美 編著, 2018, 『翁同龢年譜長編』(中), 上海交通大學出版社, 1127~1128쪽.

추가 징수는 쓰촨 지역의 반대에 부딪혔다.¹⁸ 급사중(給事中) 후진장(胡俊章)이 제안한 다음 방안은 더 실현 가능성이 있었다. 첫째, 쌀(징수)을 삭감하고 (그만큼) 은량(銀兩)으로 환산하는 것이었다. 둘째, 상인의 자금을 차용하는 것이었다. 후진장은 이전에 제기되었던 기부(捐輸)와 염세 추가 징수가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민생에도 장애가 된다고 보았다.¹⁹ 이 외에도 어사 종덕상(鍾德祥)은 내무부 창고(淸法庫)에 존재하는, 여러 해 동안 몰수한 자금 800여만 냥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²⁰ 어사 안웨이진(安維峻)은 해안 방비 세금 또는 해군 경비를 전용할 수 있다고 제기하였으나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어 추진이 어려웠다.²¹

함풍·동치 시기와 비교해보면 당시에는 주로 중앙-지방의 재정 관계를 처리했지만, 이 시기에는 해군아문이 일부 재원을 장악하고 있어 호부가 전체를 총괄할 수 없었으므로, “해군이 자금을 다루면서 지출과 수입이 검토되지 않아 그중 부정이나 착복이 있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²² 광서 20년 7월까지 호부는 이미 400만 냥가량을 군비 조달했지만, 이때 전쟁이 급박해지면서 필요한 자금이 천만 냥 이상이었다. 이로 인해 호부는 아편세를 해군아문에서 호부로 임시 귀속시켜줄 것을 요청했다.²³

청일전쟁 시기에는 북양(北洋)에 의지한 것 외에도 양강(兩江), 호광(湖廣)에

18 朱孔彰 編, 1967, 『劉尚書(秉璋)奏議』, 『近代中國史料叢刊』第二十二輯 第214冊, 台北文海出版社, 797~799쪽.

19 「給事中胡俊章奏爲籌備冰箱宜維國體而杜流弊由」, 光緒二十年七月十五日, 軍機處當摺件, 檔號: 故機134616.

20 「御史鍾德祥奏爲內務臟法庫存銀八百餘萬兩請酌提成數」, 光緒二十年七月二十四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134076.

21 「御史安維峻奏爲慶親王奕劻總理海軍事務一味敷衍毫無整頓等由」, 光緒二十年九月二十九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135788.

22 「御史安維峻奏爲慶親王奕劻總理海軍事務一味敷衍毫無整頓等由」, 光緒二十年九月二十九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135788.

23 「御史易俊奏請諭令海軍衙門移緩就急嗣後土藥稅厘一項仍暫歸戶部收納」, 光緒二十年七月十七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133902.

서 복성한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중요한 군비 조달 원천이 되었다. 양강은 산동을 지원하는 주요 세력이었고, 청일전쟁 발발 이후 장쑤에서는 잇달아 북상하라는 명을 받들어 파견된 대대가 50여 개에 달하여, “군비 조달 품목과 무기 모두 강남이 원조하였고”, 군비 지출은 매월 20여만 냥에 이르렀다. 여기에 무기 구매비용을 더하면 지출이 막대해졌다. 게다가 이 시기 일본이 해상으로 장쑤를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쑤 본성에서는 70여 개 대대의 의용병을 모집했고, 매월 수십만 냥이 필요했다. 결국 총합 130여 개의 대대가 매월 44만 냥가량의 군비가 필요했다.²⁴ 류쿤이는 군비를 군비 조달하기 위해 주로 기부(捐資)를 장려하지는 생각을 했고, 이것이 유일하게 “전쟁에 유용하며 민생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그는 다음 세 가지 기부(捐資) 방안을 구상했다. 관원이 앞장서서 기부(捐輸)하고, 신사층과 부유층이 기부(捐資)하도록 권장하며, 상인들에게 기부(捐息)를 촉구하는 것이었다.²⁵ 그 이후 장녕(江寧), 쑤저우(蘇州) 두 곳의 번사(藩司)에서는 난징(南京)에 기부총국(勸捐總局)을 설치하였고, 아울러 각 성 총독과 순무에게 자문을 보내 파견된 위원들이 각 성으로 가서 장쑤 내 신사·부유층들이 기부(捐)하도록 권장했다.²⁶ 류쿤이는 기부(捐)로 얻은 금액의 절반을 호부에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본성의 지출을 위해 남겨둘 것을 보장했다.

청 조정의 재정 사상으로 인해 지방 군비 조달 수단은 여전히 제약을 받았다. 예컨대 재원 창출 과정 중, 지방에서는 함풍 시기와 같은 지세(畝捐)의 옛 관례를 도입하고, 토지를 겨냥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했다. 양강총독 류쿤이는 “매 쌀 한 석당 50문을 기부금(捐錢)으로” 추가 징수할 것을 상주하였고, 처음에는 청 조정의 비준을 받았다. 산시(山西) 등의 성에도 이 세금을 할당하여 토

24 翁萬戈 編, 2014, 『翁同龢文獻叢編之三』, 「內政·宮廷(下)」, 658쪽.

25 「擬議籌款濟餉摺」(光緒二十年八月二十八日), 劉坤一 著; 陳代湘 校點, 2018, 『劉坤一集』第2冊, 嶽麓書社, 313~314쪽.

26 翁萬戈 編, 2014, 『翁同龢文獻叢編之三』, 「內政·宮廷(下)」, 646쪽.

지(세)를 보충하고자 했다. 그러나 어사 장중신(張仲忻)의 반대로 결국 청 조정은 “성세에 늘어난 인구수에 대해서는 영원히 부세를 늘리지 않는다(盛世滋丁, 永不加賦)”라는 선대의 제도를 위반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지세와 인두세, 조량(漕糧)에 기부금(捐款)을 추가 징수하는 것을 불허했으며, 이미 추가 납부한 세금은 다음 해의 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²⁷

요컨대 청 정부가 전쟁 발발 후의 재정 수요를 인지했음에도 호부에서 제기한 군비 조달 방안은 새로운 구상이 없었고 지방 총독과 순무의 관여가 필요했기 때문에, 재정권이 지방으로 옮겨 가고 총독·순무의 권한이 증시되는 배경 속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간 내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2. 내채와 외채 차입

전통적인 세수에서 군비를 늘리는 것에 비해 외채 차입은 빠르게 경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청 정부의 최우선 선택이 되었다. 청불전쟁 시기, 양광총독 장즈둥은 외채 500만 냥을 차입해 청 정부가 전쟁에 대응할 중요 재원으로 삼았다. 청일전쟁이 긴박했던 시기에는 열강에게 차입하는 것이 군수품을 가장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청일전쟁 개전 초기 6월, 높은 이자율을 우려한 광서황제는 “외채 차입을 불허한다”고 언급했다.²⁸ 북양해군의 군비가 부족해지자, 리홍장은 외채 차입이 절실하여 “현재 (병사의) 급료 부족이 우려되어 소액의 기부(捐) 및 차입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데, 휘풍(匯豐) 은행과 덕화(德華) 은행 모두 파운드화(鎊)를 빌려주고자 합니다. 연이자는 6리에 불과하지만 은으로 빌려주려고 하지

27 「奏爲請飭各省不準於地丁漕糧項下加收捐款片」(光緒二十一年正月二十六日), 謝俊美, 2005, 『翁同龢集(上冊)』, 139~140쪽.

28 翁萬戈 編, 翁以鈞 校訂, 2012, 『翁同龢日記』第6冊, 光緒二十年六月十四日, 中西書局, 2753쪽.

않아 은을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파운드화 가치가 높으니 장래에 파운드화로 상환하여도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호부와 신중하게 논의하여 유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청했다.²⁹ 그러나 호부 상서 왕통허는 광서제의 책략을 지지하며 “외채를 차입하면 파운드화의 가치가 높아져 손해가 실로 클 것”이라 보았고,³⁰ 이에 호부는 국내에서 차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³¹ 리홍장은 왕통허가 외채 차입을 바라지 않아 대량의 자금 군비 조달이 어려워진 것을 불평하였고,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³² 8월에 이르러 전황은 이미 대단히 위급해졌고, 타이완 순무 사오여우렌(邵友濂)은 해안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 상하이(上海)의 양상(洋商)에게 150만 냥을 차입하고자 했으나, 광서황제의 “호부가 군인들의 봉급을 군비 조달하고 있으니 서양인의 자금을 차용할 필요는 없다”³³라는 반대에 부딪혔다.

광서제와 왕통허가 외채차입에 반대하는데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먼저 이자율이 높아 외채 차입으로 인해 상환할 막대한 액수의 이자는 국가 재원이 해외로 유출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었다. 그다음은 파운드화 손실로, 양행(洋行)은 영국 파운드화를 기준으로 차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파운드화와 백은의 환율이 끊임없이 변동되었다. 예컨대 푸젠에서 이전에 백은 800만을 차입하였고, 영국 파운드화의 환율에 따라 상환하던 시기에 10년간 파운드 가치로 200만가량의 손해를 더 보게 되어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³⁴

29 「彙報前敵緊要軍情摺·附清單」, 光緒二十年八月二十九日, 『李鴻章全集』第15冊, 430쪽.

30 「閩海遵旨籌防請添募營勇息借洋債等」, 光緒二十年八月初四日, 中研院近代史所藏總理各國事務衙門檔案, 檔號: 01-25-035-01-043.

31 외채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비교적 다수이며, 상인에 대한 차입과 관련해서는李文傑, 2018, 『息借商款與晚清財政』, 『歷史研究』, 2018年 第1期를 참조.

32 「復倫敦龔使」, 光緒二十年七月二十日, 『李鴻章全集』第24冊, 254쪽.

33 『光緒朝清實錄』卷346, 光緒二十年八月乙巳.

34 「閩浙總督譚鍾麟奏陳議覆息借商款情形」, 光緒二十年九月十二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故機136748.

호부는 비록 외채 차입을 지지하지는 않았으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호부가 처음 제안한 것은 부표(部票: 戶部官票) 발행이었다. 광서 20년 9월 12일, 왕통허는 “지폐(부표)로써 부의 자금 문제를 해소하면 국고 차원에서 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며 호부에서 부표를 발행하자고 제안했다. 호부는 실제로 지폐를 발행하고자 했으며, 목적은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부의 권한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업무의 귀속 여부가 확실화된다.” 둘째, 외채 차입과 비교하여 “1만을 받으면 1만에 해당하는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³⁵ 그러나 함풍 시기 대전(大錢)과 보초(寶鈔)의 발행 실패는 청 정부가 부표를 신임하기 어렵게 하여, 결국 추진되지 못했다.

실제로 이 시기에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군비 조달 방식은 상인의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었다. 이전의 화계에서는 청말에 주로 외채를 차입하여 전쟁 등의 상황에 대응하였다고 보았으나, 실제로 내채가 더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다. 함풍 4년, 산시(陝西) 순무 왕칭윈(王慶雲)은 현지 상인에게 차입받았으나, 결국 상환하지 않고 연납(捐納)의 각 항목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함풍 8년, 양광 총독 황종한(黃宗漢)도 13행 행상(行商) 우충야오(伍崇曜)에게 차입을 받았는데, 본래 연납을 받은 것으로 하여 상환을 회피·거절하였으나 우충야오가 영국에게 구원 요청을 함으로써 결국 이후 재입한 광둥순무 귀쑹타오(郭嵩燾)가 이를 상환했다. 중앙 정부는 조정의 위엄에 근거하여 상인에게 차입하려 하지 않았으나, 지방 차원에서는 조기에 전개되고 있었다.

광서 20년 8월, 해안 방어 긴박해지면서 리홍장은 은 250만 냥을 출자해달라는 상주를 올렸고, 뒤이어 군비 조달의 네 가지 방안을 제기하면서 호부에 은 400만 냥 할당을 요청했다.³⁶ 거액의 재정 수요는 청 정부가 새로운 군비 조달 방법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국내 상인에게 차입하는 결정을 내린다. 청 조정은 첫 내채 차입임을 고려하여, 백성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 호부를

35 中國科學院 近代史研究所 近代史資料編輯組 編輯, 1962, 앞의 책, 76쪽.

36 沈桐生 輯, 1982, 『光緒政要』, 台北文海出版社, 1057쪽.

통한 장정 6개 조를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상환 시기를 미리 결정하고, 적정 이자를 지급하며, 증서(印票)를 발급하고, 은의 기준과 가치(平色)를 확정하고, 지출 항목을 지정하며, 폐단을 엄격히 방지한다.³⁷ 화인의 자금을 빌리는 것은 중국의 새로운 풍조를 이끈 것으로, 지속되어온 폐단을 막기 위해 별도로 다음의 5개 조항, 즉 ‘억압 금지’, ‘원활한 의사소통’, ‘기한 설정’, ‘공정한 가치 책정’, ‘상계 허가’를 취급하고자 했다. 이들은 주로 신용 보호를 위함인데, 부표를 소지하면 관에 지세(地稅), 양세(糧稅), 관세(關稅)를 충당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³⁸ 또한 화인의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기부(捐輸)와 관련이 있는데, “1만냥 이상 자금을 모으면 이를 군비 조달한 자에게 먼저 상을 내린 뒤 직함(虛銜)과 작위(封典)를 줌으로써 격려토록 했다.”³⁹ 추가로 상인의 자금 차입은 할당 방식을 도입하여 베이징, 즈리, 장쑤, 산시(山西) 등의 성(省)에서 총합은 1,100여만 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⁴⁰

이 차입은 베이징에서 먼저 실시되어, 호부는 우선 염상(鹽商)들에게 차입을 요청하였고, 이후 수도 내 표호(票號)들에게도 차입을 요구했다.⁴¹ 예컨대 8월 11일, 호부시랑 나둥(那桐)은 텐푸탕(天福堂) 등 26가 표호와의 회담을 약정하고 차입 사안을 논의했다.⁴² 각 성 번고(藩庫)의 보증은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 어려웠으므로, 청조는 외채 차입을 모방한 방안으로써 해관이 보증하도록 허가

37 「息借華商款項辦法章程摺」(光緒二十年八月二十九日), 謝俊美, 2005, 『翁同龢集(上冊)』, 127~129쪽.

38 「大學士管理戶部事務福錕奏爲息借華款酌擬章程」, 光緒二十年八月二十三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故機135586.

39 「山東巡撫李秉衡奏爲遵旨分別籌款請免利借商本以濟餉需而遵國體由」, 光緒二十年九月初一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故機136064.

40 岑學呂 編, 1939, 『三水梁燕孫(士詒)先生年譜』, 沈雲龍 主編, 1971, 『近代中國史料叢刊』第75輯 第743冊, 文海出版社, 19쪽.

41 「山東巡撫李秉衡奏爲遵旨分別籌款請免利借商本以濟餉需而遵國體由」, 光緒二十年九月初一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故機136064.

42 北京市檔案館 編, 2006, 『那桐日記』, 光緒二十年八月十一日, 新華出版社, 153~154쪽.

했다. 일례로 광둥은 월해관(粵海關)을 보유하였으므로 여기에 할당된 차입금도 500만 냥에 달했다.⁴³

이 차입은 현대의 공채와 상당히 유사했다. 먼저 차입 금액이 명확해졌는데, 호부는 총액 500만 냥을 차입할 것을 분명히 했다. 다음으로 이자율과 상환 기한이 정해졌는데, 7리의 이자율에 따라 연리를 8.4%로 삼아 6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상환 자금의 재원은 주로 해관세(海關稅)와 양약세(洋藥稅)였고, 세수가 부족할 시 각 성의 번고에서 상환을 책임지고, 아울러 정부가 신용을 보증했다.⁴⁴

화인의 자금을 빌리는 것을 차입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전의 기부금 할당(攤捐)의 연장이었으므로 강제 분담이 존재한 정황을 면할 수 없었다. 어사 왕평원은 산시(山西)에서 실시된 차입에 호(戶)와 촌(村)에 따라 억압 및 강제 징수가 존재하였다는 정황이 있고, 아울러 구금과 협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장시(江西)에서는 주현(州縣)에 할당하고, 다시 주현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군비로 조달했는데, 왕평원은 상인과 백성들에게 차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⁴⁵

〈표 3〉에서 알 수 있듯 모든 성이 상인에게 차입한 것은 아니며, 비교적 부유한 저장성(浙江省)의 경우 차입액이 극히 적어, 해당 성의 경제적 지위와 부합

〈표 3〉 상인 차입 금액

(단위: 만 냥)

省份	廣東	江蘇	山西	直隸	京師	湖北	江西	陝西	四川	浙江	合計
攤派	500	184	130	100	100	14	23	38	13		1102
實收	271.45	231.135	147.2	100	100	29.235	23.92	38.44	13.05	21.33	975.66

출처: 羅玉東, 『光緒朝補救財政之方策』, 211쪽; 李文傑, 2018, 『息借商款與晚清財政』, 『歷史研究』, 第1期.

43 「戶部咨呈軍機處爲奉旨依議廣東息借華款辦法一案請知照」, 光緒二十年九月三十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故機137310.

44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 1995, 『光緒朝朱批奏摺』第82冊, 249쪽.

45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近代史資料編輯室編, 1987, 앞의 책, 48~50쪽.

하지 않는다. 상인에게 차입한 은량 대부분은 전후에서야 획득할 수 있었고, 그 이후 7년간 지속 상환되었다.

공친왕(恭親王) 이신(奕訢)은 재집권한 후 외채를 차입하지 않던 왕통허의 주장을 뒤집어 홍콩은행에서 1,000만 냥을 차입해 연해를 방비하는 데 사용할 준비를 했다.⁴⁶ 그러나 웨이하이웨이가 함락되고 북양수군 전군이 전멸한 뒤에야 이 차입금은 청 정부에 전달되었고, 결국 외채를 상환하는 출처가 되었다. 전 시 청 정부의 신용 문제로 인해 열강들은 무기 구매 시 총액의 2/3를 선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현금 부족으로 인해 청 정부는 무기 구매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⁴⁷ 청일전쟁 기간 전반에 걸쳐 “화인과 외국의 자금은 5,000만 냥 이상 차입되었고”⁴⁸ 이의 상환이 청 정부에 중대한 부담을 동반하였으며, 이후 2억 3,000만 냥에 달하는 전쟁 배상금은 청조의 재정을 파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IV. 군비 조달에 대한 정치투쟁의 영향

청 초기와 비교하여 청말의 정치적 형세는 더욱 복잡하였고, 재정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중앙-지방의 관계로 인한 청 조정 내 호부와 해군아문, 호부와 북양계 간의 갈등에 자회태후와 광서제 간의 갈등이 더해져 청일전쟁 군비 조달에 영향을 미쳤다.

46 「恭親王奕訢等奏報爲沿海防營所需擬請息借洋款事」, 光緒二十年十月十二日(朱批日期), 軍機處檔摺件, 檔號: 故機136903.

47 王彥威·王亮輯 編, 李育民 等 點校, 2015, 『清季外交史料』, 湖南師範大學出版社, 2024쪽.

48 中國人民銀行總行參事室, 1991, 『清代外債史資料(1853-1911)』, 中國金融出版社, 223쪽.

1. 신해방연(新海防捐)

청불전쟁 이전, 청 초기에는 긴급한 사건 발생 시 연납(捐納)을 개시하여 군비를 조달하곤 했다. 예를 들어 백련교(白蓮教) 봉기 진압 시 친초(川楚)를 개시한 사례나, 청불전쟁 시기 해방연(海防捐)을 개시한 일이 있다. 그러나 광서 15년부터 신해방연(新海防捐)이 개설되어 광서 27년까지 지속되었고, 이에 광서 20년 청일전쟁이 발발했을 때 별도의 연납 체계를 시작할 수 없었다. 통계에 따르면 신해방연은 광서 23년까지 약 1,368만 냥을 기부(捐)받았다.

〈표 4〉에서 드러나듯 신해방연은 광서 15년(1889)부터 23년(1897)까지 (운영되었고), 기부금 수령 상위 세 곳은 즈리(약 388만 냥), 산둥(약 324만 냥), 호부(약 184만 냥)였으며, 타이완은 약 120만 냥이었다. 나머지 각 성은 모두 100만 냥 이하로 상위 세 곳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총합 약 1,369만 냥이 수급되었고 매년 평균 약 156만 냥 이상 기부받았다. 총액으로 보면, 함풍 시기 군비 조달 사례에서 수급된 액수는 1억 5,100만 냥에 달했고, 광서 10년(1884)부터 13년(1887)까지의 해방연에 수급된 액수는 약 1,300만 냥으로,⁴⁹ 연간 평균으로 보면 신해방연을 크게 웃돌았다. 호부는 이것이 “정공(鄭工)과 해

〈표 4〉 광서 15~23년 각 성의 신해방연 기부금(捐) 모집 액수

(단위: 냥)

省份	數額	省份	數額	省份	數額	省份	數額
直隸	3880575.7	江西	227704.1	廣西	138689.8	新疆	61131.1
山東	3246051.9	安徽	236561.4	陝西	104524.9	吉林	9967.2
戶部	1844903.3	雲南	197857.8	甘肅	99243.3	黑龍江	136.8
台灣	1199275.4	河南	177782.5	四川	96661.5		
福建	605193.6	浙江	167448.4	江蘇	92825.5	合計	13689394.4
廣東	493700.9	江寧	161728.6	貴州	78345.6	-	-
湖北	346511.7	湖南	154641.4	山西	67932	-	-

출처: 翁萬戈 編, 2014, 『翁同龢文獻叢編之三: 內政·宮廷』, 771~773쪽.

방면 두 곳에 연납하는 인원들이 각 항목에 혼선을 겪어, 보조할 곳을 선택하는 데 기약이 없었고, 관망하며 진전이 없는 데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⁵⁰ 그러나 이와 같은 각 성의 소극적 대응은 실제로 당시의 재정 제도와 관련이 있다.

각 성을 보면 쓰리, 산둥, 타이완 세 곳이 비교적 많은 기부(捐)를 받았는데, 이는 세 성의 해방연이 해당 성의 군무 건설에 직접 사용된 것과 연관된다. 타이완은 청일전쟁 시기 방무연(防務捐)을 개설하고, 80%로 감액된 액수에 따른 기부금(捐)을 받도록 허가해주었기 때문에 더 많은 흡인력을 가졌고, 이에 수령한 기부금의 액수가 비교적 컸다.⁵¹ 나머지 성들은 해방연을 가로채 해당 성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부금의 액수를 보고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보고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일례로 사천총독 류빙장(劉秉璋)은 “쓰촨의 매해 기부금은 많으면 4,000~5,000냥, 적으면 1,000~2,000냥에 불과하고, 연간으로는 합계 4~5만 냥에 불과하여 백성들의 궁색함을 일견 알 수 있습니다”라고 상주했다.⁵² 그러나 실제로 이 성에서 8년 동안 10만 냥에는 못 미치는 기부금 액수를 상주하여, 류빙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적은 액수가 되었다. 장시성은 광서 23년(1897) 4월까지 총 27만 냥가량의 기부금을 모았으며, 초기에는 순톈(順天)으로 구휼은(賑濟銀) 9,544냥을 보내고, 해군아문 경비로 10만 6,000냥을 올렸으며,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서 빌린 7만 냥을 상환하고 남은 8만 7,000냥가량을 모두 호부(戶部)로 보냈다.⁵³ 장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출을 안배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기

49 「御史唐椿森奏爲庫款支絀鄉工捐例請展限事」, 光緒十四年十月二十二日, 錄副奏摺, 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 檔號: 03-9971-059, 본문에서 인용한 녹부주집(錄副奏摺)과 주비주집(朱批奏摺)은 모두 이곳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하의 주석에 명기하지 않음.

50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1995, 『光緒朝朱批奏摺』第80冊, 中華書局, 165쪽.
 51 陳旭麓 等 主編, 2016, 『甲午中日戰爭·盛宣懷檔案資料選輯之三』, 上海人民出版社, 260, 328쪽.
 52 朱壽鵬 編, 『光緒朝東華錄』, 光緒十六年七月庚寅, 總2773쪽.
 53 「江西巡撫德壽奏爲委解新海防捐銀由」, 光緒二十三年九月二十日, 軍機處檔

부에 참여케 할 원동력이 부족했다.

호부의 신해방연은 각 성에 비해 많지 않았는데, 184만 냥 정도였다. 그러나 호부의 은고(銀庫)에 직접 투입된 기부금은 이 액수보다 약간 더 많았다. 호부 은고 통계에 따르면, 광서 17년(1891) 호부 은고는 약 28만 냥의 신해방연 기부금을 수령했고, 23년(1897)에는 약 94만 냥, 24년(1898)에는 약 79만 냥, 25년(1899)에는 은량과 은원(銀元) 총합 약 49만 냥을 수령했다.⁵⁴ 청일전쟁 이후 호부 은고에 투입되어 할당된 해방연 액수는 분명한 증가를 보였는데, 전쟁 시기 재정권한 집중의 제고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호부 은고로 조기에 투입된 기부금은 급속하게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해방연의 기부금 수입은 한계가 있었으나 재정에는 도움이 되었다. “모금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재원이 나날이 줄어들지만, 수입액이 얼마가 되었든 결국 도움은 된다”는 것이었다.”⁵⁵

2. 자희태후 및 이화원(頤和園) 공정과 청일전쟁 군비 조달

북양해군의 경비는 주로 두 가지 측면의 영향을 받았다. 첫째, 이화원 공정으로의 전용, 둘째, 호부와 북양 간의 갈등이었다. 광서황제가 성장하여 1889년 친정을 시작한 후, 제당(帝黨: 광서제를 지지하는 파벌)과 후당(后黨: 자희태후를 지지하는 파벌) 간의 갈등이 점차 두드러졌다. 제당의 대표 인물은 왕통허, 리홍장이었으며 후당의 대표 인물은 쉬용이(徐用儀)로, 특히 쌍방의 모순은 청일전쟁의 주전(主戰)과 주화(主和) 논쟁으로 표출되었다.

기세등등한 일본을 맞아 자희태후는 자신의 60세 회갑을 맞아 태평을 가장 하며, 전쟁을 피하자는 주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제당은 전쟁을 견지하였으며,

摺件, 檔號: 141880.

54 史志宏, 2009, 『清代戶部銀庫收支和庫存統計』, 福建人民出版社, 94, 267~269, 272쪽.

55 戚其璋 輯校, 2013, 『李秉衡集』 下冊, 中華書局, 1048쪽.

왕통허와 리홍장은 조선에 대한 병력 증원을 수차례 요청했다. 쌍방의 의견 충돌은 청일전쟁의 군비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화원 공정과 회갑연은 이의 중심에 있었다.

이화원 건설 초기에는 많은 사람이 이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사실은 고위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광서 15년, 광서황제의 친정을 앞두고 자희태후는 막후로 물러났고, 이에 베이징 교구(郊區)에 자희태후를 위한 이화원을 건설하여 말년을 편안히 보내도록 했다. 또한 비교적 먼 곳으로 거리를 두어 정치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화원 공사를 맡은 이는 총리 해군사무아문대신 이환(奕讓)으로, 그는 광서황제의 생부이기도 했다. 게다가 제당을 이끄는 왕통허도 자희태후가 자금성(紫禁城)에서 멀리 떨어지기를 원하여, 두 사람 모두가 이화원 건설을 지지했다. 왕통허는 “곤명호(昆明湖)로 발해(渤海)를 대신하고 만수산(萬壽山)으로 난양(瀋陽)을 대신한다”는 뜻을 보였다.⁵⁶ 실제로 동치 시기에도 황제와 태후 관계의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당시 이미 이화원 건설 작업이 시작되었다.

청일전쟁은 자희태후의 60세 회갑과 시기가 겹쳤다. 20년 7월, 어사 가오세(高燮)는 장식용 건축물과 많은 의식에 대한 공정을 중지하자고 건의했다. 이들 모두 아직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회갑 예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었다.⁵⁷ 그러나 자희태후가 이를 알고 대노하니 왕통허는 즉시 말을 바꾸어 “공정을 중단하라는 언급을 알아보니, 이후의 일반적인 공정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착공한 공정은 중지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청군이 계속 패퇴함에 따라, 자희태후는 8월 말에 이르러 연회를 위해 임시로 세울 정자와 누각 등의 장식용 건축물 공정, 제단과 연극 무대 등의 건축을 중단하라는 의지(懿旨)를

56 翁萬戈 編, 2020, 『翁同龢日記』, 光緒十二年十月二十四日, 上海中西書局, 2100쪽.

57 「御史高燮奏爲軍務孔棘請停止點景事宜由」, 光緒二十年七月二十五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故機134865.

내렸다.⁵⁸

당시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연회에 큰 불만을 가졌고, 자희태후가 군비 원조에 출자할 것을 강력히 바랐다. “자금 군비 조달 논의에서 이른바 최선의 것은 연회 자금을 전용하는 의지를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면 명성과 위엄을 떨쳐 병졸들이 크게 고무될 것이다. 또 듣자 하니 자희태후가 아직 2,000만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하니 만약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요청할 만하다.”⁵⁹ 이는 사람들이 자희태후가 연회용(예산)을 군비로 전용하길 바란 것이다. 급사중(給事中) 위련위안(余聯沅) 등의 건의에 따라, 연회는 이화원에서 자녕궁(慈寧宮)으로 옮겨졌다.⁶⁰ 이로써 먼 길을 가는 수고는 피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최종적인 연회는 그 규모가 성대하였고, 리허설조차 “북소리와 음악이 웅장하고 의장대가 많아, 진정 천년에 한 번 나올법한 성대한 의식이었다.”⁶¹

3. 호부와 청일전쟁 군비 조달

북양해군의 경비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호부였다. 호부상서 왕통허와 북양대신 리홍장 간의 갈등은 뿌리가 깊었다. 북양해군 창설 초기, 왕통허는 “해군은 절대 높은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수많은 병폐를 일으킬 것이며, 적을 조우했을 때 몇 배의 급여를 주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여,⁶² 과도하게 높은 대우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했다. 광서 17년, 호부는 부의 금고(部庫)가 비어 있고 해안 국경이 무사하다는 이유로 해군의 총포, 함

58 翁萬戈 編, 2020, 앞의 책, 第6冊, 2763, 2777쪽.

59 近代史資料編輯部 編, 1996, 『近代史資料』總87號,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93쪽.

60 「給事中余聯沅奏爲外患未平民情倣擾懇請皇太后六旬萬壽在慈寧宮慶賀暫緩臨幸頤和園事」, 光緒二十年, 錄副奏摺, 檔號: 03-5559-087.

61 北京市檔案館 編, 2006, 앞의 책, 光緒二十年十月初二日, 159쪽.

62 翁萬戈 編, 2020, 앞의 책, 光緒十一年七月十九日, 1998쪽.

선, 기계 구매를 2년간 중단할 것을 상주했다. 그 이후에는 북양 측에서 다시 무기 구매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호부 측에서 경비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⁶³

청일전쟁 당시 왕통허는 전쟁을 주장했고, 장젠(張謇)도 이에 동조하며 “갑오년의 일은 위안스카이(袁世凱)로부터 시작하여 장젠이 이루었으며, 주도한 사람은 왕통허이다.”⁶⁴ 왕통허와 리홍장은 군기처(軍機處)에서 모두 전쟁을 주장했다. 전쟁 초기 동삼성(東三省)과 뤼순(旅順)의 병력을 조선으로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⁶⁵ 왕통허의 주전론은 리홍장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리홍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께서는 재정을 총괄하면서 평시에 (해군) 경비를 요청하면 늘 질책하셨는데, 일이 닥쳐서야 군함에 대해 물으시니, 군함이 과연 믿을 만하겠습니까?” 왕통허는 “재정을 담당하는 신하는 절약을 직무로 삼고 있는데, 만약 사안이 시급했다면 왜 다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답했다. 리홍장은 “정부에서는 내가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의심하고, 대간(臺諫)들은 내가 탐욕스럽다고 보는데, 내가 계속 자금을 요구했으면 오늘 저 리홍장이 살아 있었습니까?”라고 탄식했다.⁶⁶ 당시의 정국에서는 리홍장이 대권을 독점한다는 의심을 피하느라 북양해군을 발전시킬 자금을 요청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해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주장했던 왕통허 역시 비판하였다. 그들은 왕통허가 일찍이 “15년 내에는 총 한 자루, 대포 한 문도 더 구입할 수 없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고 여겼다.⁶⁷ 실제로 이 말의 유래는 광서 13년

63 邵循正等編, 1957, 『中日戰爭』第3冊, 上海人民出版社, 177~178쪽.

64 王伯恭, 1912, 『蜷廬隨筆』, 沈雲龍主編, 1985, 『近代中國史料叢刊』第24輯第235冊, 文海出版社, 95쪽. 항성은 위안스카이, 통저우는 장지엔, 상숙은 왕통허를 가리킨다. 장지엔은 왕통허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경인전시(庚寅殿試)에서 왕통허가 문정식(文廷式)을 일갑(第一甲) 중 2등으로 선발하였고, 갑오년에도 장지엔을 일갑(第一甲) 중 1등으로 선발했다.” 胡思敬, 2007, 『國聞備乘』, 中華書局, 43쪽을 참조.

65 翁萬戈編, 2020, 앞의 책, 第6冊, 光緒二十年六月十四日, 2753쪽.

66 胡思敬, 2007, 『國聞備乘』, 中華書局, 36~37쪽.

황허 치수 공사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왕통허가 제기한 다음 여섯 가지 방안에서 비롯되었다. 외성의 영을 방비하는 인력을 폐지하고, 외국의 총포와 함선 구매 등과 포대 건설을 잠정 중단하며, 수도의 쌀을 변통하여 은으로 환산하고, 허난성 부근을 방비하는 군 배치를 조정하며, 염상에게 기부금을 받고, 전당업자의 어음을 은으로 교환하는 것이었다.⁶⁸ 그러나 청조는 장부 폐지, 염상의 기부, 전당 어음의 은 교환 세 가지 방안만 비준하였고 그 밖의 쌀의 환산, 군 배치 조정, 구매 중단의 세 가지 항목은 비준을 얻을 수 없었다.⁶⁹ 장기간 신식 군함을 구매하지 못한 결과 북양해군은 쾌속선이 부족하였고, “왜를 살펴보니 신식 쾌속선의 힘으로 시간당 23마일을 갈 수 있는데, 우리 해군이 이전에 구매한 쾌속선은 시속 13~14마일에 불과했다.”⁷⁰ 풍도해전이 발발한 후 리홍장은 해군아문과 호부에 자금을 요청하여 쾌속선 세 척을 구매하고자 했다.⁷¹ 청조는 그때 서야 꺾에서 깨어나서 해군아문과 호부가 200만 냥을 투입하여 리홍장이 쾌속선을 구매토록 허락했다.⁷² 그러나 어사 장중신(張仲旻)과 안웨이쥘(安維峻)은 리홍장이 군함 구매 과정 중 부패를 저질렀다고 상주하였는데,⁷³ 이때는 이미 심각한 위기를 맞아 구매해도 이미 늦어 소용이 없었으며(緩不濟急), 새로 구매한 쾌속선은 결국 청일전쟁의 해전에 참가할 수 없었다.

67 王伯恭, 1912, 앞의 책, 32쪽.

68 沈桐生 輯, 1991, 『光緒政要』, 江蘇廣陵古籍刻印社, 696~699쪽.

69 翁萬戈 編, 2020, 앞의 책, 光緒十三年九月二十日, 2187쪽.

70 「寄譯署」, 光緒二十年七月初二日, 『李鴻章全集』 第24冊, 194쪽.

71 「寄譯署」, 光緒二十年七月初一日; 初二日, 『李鴻章全集』 第24冊, 190, 194쪽.

72 「附譯署來電」, 光緒二十年七月初二日, 『李鴻章全集』 第24冊, 194쪽.

73 「御史張仲旻奏報瀝陳北洋地方情事請旨密查事」, 光緒二十年八月初九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故機135308; 「御史安維峻奏報北洋大臣訂購快船事宜加慎重而免虛糜公款」, 光緒二十年八月十一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故機135078.

4. 총독·순무와 청일전쟁 군비 조달

리홍장이 전쟁 중 주장한 타협안은 어사의 반대에 부딪혀, 그 후 청조는 남방으로부터 고관(大員)을 파견해 전선에 나아가 군무를 감독하기로 결정했다. 처음 쉬스창(徐世昌)의 건의에 따라 청조는 호광총독 장즈등을 파견한다는 유지를 내려 수도로 오게 하였으나, 그는 군무가 번잡하고 병을 얻어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복상을 미루었다.⁷⁴ 이후 청조는 양강총독 류쿤이에게 복상을 지시하고 흠차대신(欽差大臣)직을 맡겨, 리홍장과와 균형 관계를 마련하고자 했다.⁷⁵ 아울러 장즈등이 양강총독 대리를 맡도록 했다.

류쿤이는 도착한 뒤 명을 받들어 관내외의 각 군대를 통솔하였는데, 실제로 리홍장과 더불어 육지와 해상 양측의 전선을 형성했다. 군비 측면에서 청조는 천바오천(陳寶琛)을 직례포정사(直隸布政使)로 임명하여 상군(湘軍)이 동정군량대(東征糧臺)를 관리토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때 류쿤이는 전반적인 국면을 장악하기 어려웠고, 그가 개시한 동정병참 역시 모든 육군의 군비를 담당하기 어려웠다. “사실 상군에서 당(唐), 유(劉), 위(魏), 여웅(餘熊)과 같은 각 영(營)의 자금 대부분은 병참에 귀속되지 않았다. 병참이 관리하는 회군(淮軍)인 정(程), 진(陳), 송(宋) 등의 영도 이 안에 포함되는데, 어느 때에 이 전부를 상군이 라 할 수 있었겠는가?”⁷⁶

상군 계열(湘系)과 회군 계열(淮系) 이외에도 다른 군대에서는 군비 조달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 다방면으로 전가하고 있었다. 청조는 공친왕 이신이 군무를 감독하고 대국을 주관하며, 아울러 경친왕(慶親王) 이광(奕劻)이 군무를 보조하고 윙통허, 리홍장, 롱루(榮祿), 창린(長麟)이 공동으로 군무를 논의하도록 했으

74 趙德馨 主編, 2009, 『張之洞全集』 第4冊, 武漢出版社, 409쪽.

75 「請收回欽差大臣成命摺」(光緒二十年十二月初二日), 『劉坤一集』 第2冊, 332쪽.

76 「劉欽差來電」, 『近代史所藏名人稿本抄本』 第2輯 第72冊, 642~643쪽.

나,⁷⁷ 다른 각 성에서는 호부와 북양 관계에 대한 구분이 사실상 어려웠다. 예컨대 흑룡강장군(黑龍江將軍) 익탕가(依克唐阿)는 북양의 리홍장에게 지원을 요청했으나, 리홍장은 자신의 재정적 곤란을 강조하며 자신의 일만으로도 벅차니 익탕가가 스스로 호부를 찾아가게 하였으며, “이전에 전보를 보내 요청하신 귀하의 상주는 부에서 상의하여, 군을 일으키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농(司農)에서 반드시 주지할 것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⁷⁸라고 했다.

이로써 중앙-지방의 재정관계 외에도 제당과 후당 관계의 불화, 자희태후가 이화원을 건설하고 회갑연회를 개최한 것 모두가 청일전쟁 군비 조달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조가 상군계 류쿤이를 이용하여 전쟁을 지원하고 회군계와 함께 육지와 해상 포석(布局)을 형성하고자 했으나, 류쿤이가 전반적인 국면을 통제하기 어려웠다. 양강총독은 장즈동이 말았으나 장즈동과 류쿤이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점도 양강의 전쟁 지원에 영향을 주었다.

V. 청일전쟁 시기 국내 군비 조달액의 추산

청일전쟁 시기 군비 조달과 지출에 관한 현재 학계의 확정된 결론은 아직 없다. 우廷燮(吳廷燮)의 저서 『청재정고략(淸財政考略)』에서는 “중일 간 전역에서 약 5,000~6,000만 비용”이라 추산하고 있으며,⁷⁹ 이후 학계에서는 이 수치를 근거로 인용하여 서술하고 있다.⁸⁰ 류즈젠(劉志堅)은 각종 수입 출처에 대해 추산

77 太平天國歷史博物館 編, 2005, 『淸季名人稟牘奏稿函劄-甲午中日戰爭新史料』, 江蘇人民出版社, 10쪽.

78 「復黑龍江將軍依」, 光緒二十年七月二十三日, 『李鴻章全集』 第36冊, 44쪽.

79 吳廷燮, 2007, 『淸財政考略』, 『淸末民國財政史料輯刊』 第20冊, 北京圖書館出版社, 375~376쪽. 그는 기부금 수입이 “해방정공(海防鄭工)은 연간으로 따졌을 때 함봉영지(銜封翎枝)를 제외하고 수천만 이상”으로 집계했으나, 실제로 이때의 기부금은 매년 약 100만 냥에 불과했다.

80 예를 들어 王開鑾, 2006, 『晚淸政治新論』, 北京師範大學出版社, 347쪽.

하였는데, 다양한 경로로 확보한 은 1,900만 냥에 외채 차입을 더해 함께 6,009만 냥으로 보았다. 이 수치는 적지 않은 오차가 있다. 예를 들어 이자를 내고 상인에게 빌린 액수를 200만 냥 높게 계산했다.⁸¹ 저우위민(周育民)은 각 성의 자체 군비 조달 및 유보금을 더한다면 청일전쟁 지출은 1억 냥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수치로 추산한 근거 사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⁸² 최근 새로운 사료가 발굴됨에 따라 청 정부의 청일전쟁 지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몇 가지 중요한 수입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중앙의 지출은 호부, 해군아문, 내무부를 포함한다. 광서 20년 5월, 리홍장은 일본이 조선에 주둔하며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주목하면서, 리홍장은 전쟁 예비 자금을 위해 “호부에 선행 예비 자금 200~300만 냥을 요청했다.” 이 요청은 자희태후의 인가를 받아 호부와 총리아문이 일임하여 합의되었다.⁸³ 이후 리홍장은 그의 형인 양광총독 리한장(李瀚章)에게 자금을 빌리고, 광동 해방연 자금 내에서 60만 냥을 빌려 군수자금으로 삼았다.⁸⁴ 군기대신 왕통허도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인정하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전쟁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⁸⁵ 논의 끝에 호부는 북양생식자금(北洋生息款)에서 은 150만 냥을 지출하고자 했으며, 동북 변방의 경비 및 주비 자금에서 150만 냥을 군비로 조달했다.⁸⁶ 이른바 북양생식자금은 해군이 가진 거액의 자금을 칭하는데, 광서 14년 해군아문이 해군경비가 여러 해 동안 연체된 것을 이유로 각 성에서 은 260만 냥을 군비로 조달하여, 북양에 그 이자를 보냄으로

81 劉志堅, 1994, 「甲午戰爭清廷籌款考析」, 『福建論壇(文史哲版)』, 34쪽.

82 周育民, 2000, 『晚清財政與社會變遷』, 上海人民出版社, 318쪽.

83 「復陳陸海兵數請爲倭事籌備的餉摺」(光緒二十六年六月初二日), 『李鴻章全集』第15冊, 373~374쪽.

84 「籌款購備新械片」(光緒二十年八月初三日), 『李鴻章全集』第15冊, 411쪽.

85 「復陳會議朝鮮事宜摺」(光緒二十年六月十六日), 謝俊美, 2005, 『翁同龢集(上冊)』, 117쪽.

86 『光緒朝清實錄』卷342, 光緒二十六年六月甲寅.

써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었다.⁸⁷ 청일전쟁이 발발했을 때, 해군아문은 리홍장에 게 이 거액의 자금을 회수하여 전쟁 준비에 사용 가능한지를 문의했으나,⁸⁸ 해당 자금은 리홍장이 양행(洋行)에 저축하여 만기일이 정해져 있었고, 홍콩은행에 저축중인 18만 7,000냥만 빠른 시일 내에 회수가 가능하여 나머지 자금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⁸⁹ 광동의 60만 냥에 더해 즈이에서는 이미 360만 냥의 군비를 확보했다. (또한) 창위(長蘆) 염정(鹽政)에서 정세(正課)와 복가은(復價銀) 20만 냥, 대출 이자인 탕리은(幣利銀) 40만 냥을 더해 총합은 420만 냥이 되었다.⁹⁰

내무부 측면에서는 자희태후가 표면상 병졸들이 전쟁에서 겪는 고통을 동정하였으나, 실제로는 60세 회갑연을 꾸미는 것이었다. 8월 24일, 자희태후는 군수 지원을 위해 내탕(內帑) 300만 냥, 제전(制錢) 2만 관(串)을 발행했다.⁹¹ 전쟁이 나날이 심각해지자, 자희태후는 이신을 재등용하여 그 은량을 직접 이신에게 주어 통제토록 하고 “북양에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⁹²

지방 군비 조달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은 비교적 적다. 먼저 (장즈둥은) 청일전쟁 발발 시기에 팔기(八旗)와 녹영(綠營)은 이미 쇠퇴하였고, 경진(京津)에 주둔한 주요 병력은 이홍장의 회군이였다. 병력을 증강하기 위해 청 조정은 장강 유역 상군과 초군(楚軍)을 북상시켜 증원했다. 지방 군대가 북상한 후, 식량과 군수품은 모두 출신 성에서 보급했다. 후베이(湖北)성을 예로 들면 본성과 경계를 넘는 군대가 40여 대대(營)에 이르렀고, 임무는 번잡하고 자금은 긴급하여

87 「海軍衙門奏爲籌集巨款用備海軍要續摺」, 光緒十四年十二月十五日, 張俠編, 1982, 『清末海軍史料』, 641~642쪽.

88 「附海署來電」, 光緒二十年六月初五日, 『李鴻章全集』第24冊, 113쪽.

89 「復海署呈慶邸」, 光緒二十年六月初六日, 『李鴻章全集』第24冊, 117쪽.

90 「請添撥備倭餉需摺」(光緒二十年九月二十三日), 『李鴻章全集』第15冊, 464쪽.

91 北京市檔案館編, 2006, 앞의 책 上冊, 光緒二十年八月二十四日, 155쪽.

92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近代史資料編輯室編, 1987, 앞의 책, 42쪽.

군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⁹³ 결국 장즈둥은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첫째, 염상에게 기부를 권하여 은 100만 냥을 획득했다. 둘째, 상인에게 이자를 지불하고 차입하여 약 은 230만 냥을 확보했다. 셋째, 안홀드&카버그 은행(Arnhold & Karberg & Co., 德商瑞記洋行)에서 100만 파운드를 빌려 은 660만 냥가량과 합하여 총합 은 약 1,000만 냥을 확보했다.⁹⁴

이 외에도 산둥성 염상에게 20만 냥, 임시로 융통하여 모은 은 10만 냥이 있었다.⁹⁵ 후난에서도 군대를 파견해 복상시켰으며, 순무 우다청(吳大澂)은 외국 의 총포를 구입하기 위해 은 30만 냥을 지급해줄 것을 상주하였고, 결국 호부는 강해관(江海關)에 보관된 광동의 상인 차입금을 지출했다.⁹⁶

호부는 각 성에 대한 분담액을 부과하여, 광서 20년 10월, 호부는 재차 쓰촨에 40만 냥을 군비 조달하라고 요구했다. 이전의 쓰촨 염정에서는 이미 은 100만 냥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므로, 쓰촨에서는 총합 140만 냥의 군비를 내야 했다.⁹⁷ 총독 류빙장(劉秉璋)은 백성들의 재산을 이자를 주고 차입하는 것보다 전상(典商)들에게 차입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낫다고 보았다. 이때 쓰촨성 전역에는 전상 140여 가가 있었으며, 매년 대략 13~14만 냥을 차입할 수 있었다. 자금의 상환은 이자를 내고 차입하는 식으로 처리했다.⁹⁸ 신장(新疆) 지역은 벽원한 곳에 위치하여 20만 냥을 할당받았으나, 신장순무 타오모(陶模)는 이 지역이 변경에 위치하여 운반과 배분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이유로, 호부가 직

93 趙德馨 主編, 2009, 앞의 책, 409쪽.

94 吳劍傑, 2017, 『張之洞散論』, 90쪽.

95 「山東巡撫李秉衡奏爲遵旨分別籌款請免利借商本以濟餉需而遵國體由」, 光緒二十年九月初一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故機136064.

96 「遵旨復議湘鄂各軍添購外洋槍炮請撥部款摺」(光緒二十年十二月十七日), 謝俊美, 2005, 『翁同龢集(上冊)』, 137쪽.

97 黃鑒暉 等編, 2002, 『山西票號史料』, 山西經濟出版社, 219쪽.

98 朱孔彰 編, 1968, 『劉尚書(秉璋)奏議』, 『近代中國史料叢刊』第二十二輯 第214冊, 825~826쪽.

집 신장의 협향(協餉)에서 지출하는 식의 대응을 요청했다.⁹⁹ 청말에는 협향제도가 점차 무너지면서 납입이 심각하게 지연되었고, 이와 같은 처리 방식은 실질적으로 책임을 피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일부 수입은 제시된 <표 5>로 설명하고자 한다.

<표 5> 청일전쟁 시기 군비 조달액 통계(부분)

來源	數額
長蘆鹽政	運庫正課及復價項20萬兩, 眾商先行借墊銀40萬兩抵交從前積欠帑利, 專備軍務急用, 合計60萬兩
廣東	海防捐暫借60萬兩
戶部	150萬兩
海軍衙門	存津巨款150萬兩
戶部, 海軍衙門	添購快船, 戶部, 海軍衙門各100萬兩, 合計200萬兩
戶部	備倭經費從天津息商借款撥銀14萬兩, 匯豐洋行借款下撥銀104萬兩, 合計120萬兩
慈禧	銀300萬兩, 錢2萬串
典當各商捐輸	30萬兩
息借商款	975.66萬兩
張之洞	100萬兩
山東	30萬兩
湖南	30萬兩
貴州	6.3萬兩
以上合計	2155.66萬兩+錢2萬串

출처: 中研院近代史所藏, 總理各國事務衙門檔案, 檔號: 01-25-036-02-018; 檔號: 01-25-037-02-032; 北京市檔案館編, 2006, 『那桐日記』, 光緒二十年八月十一日, 新華出版社, 153~154쪽; 『清季外交史料』第5冊, 1993쪽.

99 「奏爲遵旨籌餉請由戶部於應解新疆協餉省分就近指提二十萬兩各緣由」, 光緒二十年九月初二日, 宮中檔奏摺, 檔號: 408002892.

이상의 초보적인 추산에 따라, 외채를 제외한 청 정부의 군비 조달은 약 2,157만 냥에 달했다. 국내 인접한 시기의 대사건들과 비교해보면, 청불전쟁 시기 추산된 경비 지출은 3,000만 냥이었고,¹⁰⁰ 광서황제의 혼례에는 호부, 각성, 내무부가 총합은 500만 냥을 지출했다.¹⁰¹ 일본 군비의 주요 출처는 공채 수입 1,168억 냥이었다. 일본 역시 내채 차입을 시도하였는데, 주로 일본은행의 신용을 이용한 단기차입을 진행하여 과다 지출된 군비를 신속하게 보충했다.¹⁰² 특히 청 정부는 전후 2억 3,000만 냥을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했는데, 다방면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청 정부가 전시에 국내에서 조달한 금액은 2,000만 냥가량에 불과해 실제로 그리 많지 않았다. 전후 청 정부는 국가 공채인 “조신주식(昭信股票)”을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나, 대청은행(大清銀行)은 광서 24년(1908)에 이르러서야 설립되어 당시 재정 및 금융 수단은 부족했다. 이로써 청일전쟁 시기 군비 조달된 자금은 극히 유한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청일전쟁 패전의 중요한 재정적 원인이 되었다.

VI. 맺음말

청 정부의 청일전쟁 참패는 중국에 중대한 대가를 안겼다. 전시 군비 조달 능력의 부족은 청 정부의 재정 능력 결함을 드러냈다. 청 초기 장기간의 평화로 인해 청 정부의 총체적 재정 상황이 호전되었고, 재정 수입과 지출은 약간의 잉여를 유지했다. 그러나 종합하자면 위기 대응 능력은 빈번한 결핍을 보였다. 특히 부고(部庫)의 은이 부족해지고 청 초기 연납으로 얻은 재원을 잃게 된 후, 광서황제가 외채 차입 반대를 고수한 점은 군수품을 구매할 최적의 시기를 놓치는 결

100 吳廷燮, 1914, 『淸財政考略』, 372쪽.

101 金梁, 1998, 『光宣小記』, 上海書店出版社, 133쪽.

102 崔金柱, 2015, 『甲午戰爭期間日本的軍費籌支』, 『世界歷史』, 第2期.

과를 낳았다. 청일전쟁 시기는 청 초기에 비해 사람들이 외국의 기물과 제도에 더 익숙해졌지만, 군비 조달 측면에서는 어사들이 이자율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외채 차입에 반대하였고, 이는 군비 조달을 어렵게 하여, 도리어 전후에 더 많은 전쟁배상금을 상환해야 했다.

정치투쟁은 북양해군의 발전과 청일전쟁 준비에 영향을 준 중요한 요소였다. 특히 군비 조달 측면에서 왕통허를 필두로 한 호부의 견제와, 자희태후와 광서제 간 모순 해결을 위해 이화원을 건설한 점은 북양해군의 발전에 엄중한 장애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정치투쟁은 리홍장과 류쿤이의 전쟁 작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청일전쟁 개전 이전, 광서 이전 비교적 간단했던 중앙-지방의 재정 관계와 비교하였을 때, 청일전쟁 시기에는 이미 자희태후, 호부, 해군아문, 북양해군, 각 성 총독과 순무 등 다방면의 세력이 각자의 생각을 품은 채 제각기 행동하면서 군비 조달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 행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청일전쟁 이후 청일전쟁 배상금을 상환하기 위해 가져온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의 차관 등과 신식 군대 편성을 위한 지출을 합하면 총 2,000만 냥 이상에 이르러¹⁰³ 청 정부의 재정은 붕괴에 가까운 상태로 나아갔다.

103 黃鑾暉 等 編, 2002, 앞의 책, 221쪽.

참고문헌

자료

1. 당안관 미간사료

- 「江西巡撫德壽奏爲委解新海防捐銀由」, 光緒二十三年九月二十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141880.
- 「恭親王奕訢等奏報爲沿海防營所需擬請息借洋款事」, 光緒二十年十月十二日(朱批日期), 軍機處檔摺件, 檔號: 故機136903.
- 「具奏籌餉緊要續擬數條請旨遵行」, 光緒二十年九月初三日, 中研院近代史所藏總理各國事務衙門檔案, 檔號: 01-25-036-01-020.
- 「給事中余聯沅奏爲外患未平民情倣擾懇請皇太后六旬萬壽在慈寧宮慶賀暫緩臨幸頤和園事」, 光緒二十年, 錄副奏摺, 檔號: 03-5559-087.
- 「給事中胡俊章奏爲籌備冰箱宜維國體而杜流弊由」, 光緒二十年七月十五日, 軍機處當摺件, 檔號: 故機134616.
- 「大學士管理戶部事務福錕奏爲息借華款酌擬章程」, 光緒二十年八月二十三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故機135586.
- 「閩浙總督譚鍾麟奏爲閩省防務緊要餉需告匱請緩解京協各餉由」, 光緒二十年八月十八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故機136008.
- 「閩浙總督譚鍾麟奏陳議覆息借商款情形」, 光緒二十年九月十二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故機136748.
- 「閩海遵旨籌防請添募營勇息借洋債等」, 光緒二十年八月初四日, 中研院近代史所藏總理各國事務衙門檔案, 檔號: 01-25-035-01-043.
- 「山東巡撫李秉衡奏爲遵旨分別籌款請免利借商本以濟餉需而遵國體由」, 光緒二十年九月初一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故機136064.
- 「山東巡撫李秉衡奏爲遵旨分別籌款請免利借商本以濟餉需而遵國體由」, 光緒二十年九月初一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故機136064.
- 「御史高燮曾奏爲軍務孔棘請停止點景事宜由」, 光緒二十年七月二十五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故機134865.

- 「御史唐椿森奏爲庫款支絀鄭工捐例請展限事」, 光緒十四年十月二十二日, 錄副奏摺, 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 檔號: 03-9971-059.
- 「御史安維峻奏報北洋大臣訂購快船事宜加慎重而免虛糜公款」, 光緒二十年八月十一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故機135078.
- 「御史安維峻奏爲慶親王奕劻總理海軍事務一味敷衍毫無整頓等由」, 光緒二十年九月二十九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135788.
- 「御史易俊奏請諭令海軍衙門移緩就急嗣後土藥稅厘一項仍暫歸戶部收納」, 光緒二十年七月十七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133902.
- 「御史張仲炘奏報瀝陳北洋地方情事請旨密查事」, 光緒二十年八月初九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故機135308
- 「御史鍾德祥奏爲內務臟法庫存銀八百餘萬兩請酌提成數」, 光緒二十年七月二十四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134076.
- 「奏爲遵旨籌餉請由戶部於應解新疆協餉省分就近指提二十萬兩各緣由」, 光緒二十年九月初二日, 宮中檔奏摺, 檔號: 408002892.
- 「戶部咨呈軍機處爲奉旨依議廣東息借華款辦法一案請知照」, 光緒二十年九月三十日, 軍機處檔摺件, 檔號: 故機137310.

2. 출판 자료

- 『清實錄光緒朝實錄』.
- 顧廷龍183戴逸 主編, 2008, 『李鴻章全集』, 安徽教育出版社.
- 北京市檔案館 編, 2006, 『那桐日記』, 新華出版社.
- 謝俊美, 2005, 『翁同龢集』, 中華書局.
- 謝俊美 編著, 2018, 『翁同龢年譜長編』(中), 上海交通大學出版社.
- 邵循正 等 編, 1957, 『中日戰爭』, 上海人民出版社.
- 沈桐生 輯, 1991, 『光緒政要』, 江蘇廣陵古籍刻印社.
- 翁萬戈 編, 2014, 『翁同龢文獻叢編之三: 內政·宮廷』, 上海遠東出版社.
- _____, 2020, 『翁同龢日記』, 上海中西書局.
- 翁萬戈 編, 翁以鈞 校訂, 2012, 『翁同龢日記』, 中西書局.
- 王伯恭, 1912, 『蝸廬隨筆』, 沈雲龍 主編, 1985, 『近代中國史料叢刊』第24輯 第235冊, 文海出版社.

- 王彥威·王亮輯 編, 李育民 等 點校, 2015, 『清季外交史料』, 湖南師範大學出版社.
- 劉坤一 著, 陳代湘 校點, 2018, 『劉坤一集』, 嶽麓書社.
- 岑學呂 編, 1939, 『三水梁燕孫(士詒)先生年譜』, 沈雲龍 主編, 1971, 『近代中國史料叢刊』第75輯, 第743冊, 文海出版社.
- 張俠 編, 1982, 『清末海軍史料』, 海洋出版社.
- 趙德馨 主編, 2009, 『張之洞全集』, 武漢出版社.
- 朱孔彰 編, 1967, 『劉尚書(秉璋)奏議』, 『近代中國史料叢刊』第22輯 第214冊, 文海出版社.
- 朱壽鵬 編, 1960, 『光緒朝東華錄』, 中華書局.
- 中國人民銀行總行參事室, 1991, 『清代外債史資料(1853-1911)』, 中國金融出版社.
-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1995, 『光緒朝朱批奏摺』, 中華書局.
- 陳旭麓 等 主編, 2016, 『甲午中日戰爭·盛宣懷檔案資料選輯之三』, 上海人民出版社.
- 戚其璋 輯校, 2013, 『李秉衡集』下冊, 中華書局.
- 太平天國歷史博物館 編, 2005, 『清季名人稟牘奏稿函劄-甲午中日戰爭新史料』, 江蘇人民出版社.

단행본

- 金梁, 1998, 『光宣小記』, 上海書店出版社.
- 史志宏, 2009, 『清代戶部銀庫收支和庫存統計』, 福建人民出版社.
- 吳劍傑, 2017, 『張之洞散論』, 湖北人民出版社.
- 吳廷燮, 1914, 『清財政考略』, 北京圖書館出版社影印室, 2007, 『清末民國財政史料輯刊』第20冊, 北京圖書館出版社.
- 王開璽, 2006, 『晚清政治新論』, 北京師範大學出版社.
- 王慶雲, 1985, 『石渠餘紀』卷三, 北京古籍出版社.
- 周育民, 2000, 『晚清財政與社會變遷』, 上海人民出版社.
- 中國科學院 近代史研究所 近代史資料編輯組 編輯, 1962, 『近代史資料』總28號, 中華書局.
- 中國社會科學院 近代史研究所 近代史資料編輯部 編, 1996, 『近代史資料』總87號,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 近代史研究所 近代史資料編輯室 編, 1987, 『近代史資料』總65

號, 中國社會科學出版社.

胡思敬, 2007, 『國聞備乘』, 中華書局.

黃鑒暉 等 編, 2002, 『山西票號史料』, 山西經濟出版社.

논문

梁義群, 1988, 「甲午戰爭與清廷財政」, 『學術月刊』, 第5期

劉志堅, 1994, 「甲午戰爭清廷籌款考析」, 『福建論壇(文史哲版)』, 第4期.

李文傑, 2018, 『息借商款與晚清財政』, 『歷史研究』, 2018年 第1期.

戚其璋, 1983, 「甲午戰爭失敗與清朝財政」, 『中日甲午戰爭史論叢』, 山東教育出版社.

崔金柱, 2015, 『甲午戰爭期間日本的軍費籌支』, 『世界歷史』, 第2期.

청일전쟁 시기 청 정부의 군비 조달 연구

쉬춘젠(許存健)

청일전쟁의 참패는 청 정부의 전시 군비 조달 실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쟁 이전, 청 정부의 전체 재정 수지는 흑자였다. 전쟁 초기에는 직례총독(直隸總督) 리홍장(李鴻章)이 다방면에 걸쳐 군비를 조달했으나, 여전히 여러 모순이 겹쳤다. 자희태후(慈禧太后, 서태후)는 회갑연에 힘을 쏟았으며, 광서(光緒)황제는 외채 차입에 반대하였고, 왕통허(翁同龢)는 북양(北洋)계 파벌의 강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청 조정은 양강총독(兩江總督) 류쿤이(劉坤一)를 북상시켜 상계(湘系, 상군 계열) 세력의 힘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되려 장즈둥(張之洞)을 양강총독으로 임명하여 파견함으로써 상계를 견제했다. 다시 통계를 낸 것에 따르면 청일전쟁 시기 청 조정의 국내 조달 군비는 2,000여 만 냥(兩), 차입한 외채는 5,000여 만 냥에 달했다. 그러나 권력 분산과 정치투쟁은 청 정부의 작전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시 조달에 장애가 되었다. 많은 군비 조달 방안들이 전후에 이르러서야 실효를 거두었으며, 이 실패는 청 정부 재정(정책) 고유의 결함과 청말의 변화를 드러냈다.

주제어: 청일전쟁, 청 정부, 재정, 조달

ABSTRACT

A Study on the Financing of Qing Government's Military Expenditure during the Sino-Japanese War

Xu Cunjian

The Qing government's disastrous defeat in the First Sino-Japanese War was closely linked to its inability to effectively finance the war effort. Prior to the war, the Qing government had enjoyed a fiscal surplus. At the outset of the conflict, the bulk of the war funding was raised by Li Hongzhang, the governor-general of Zhili, through various means. However, internal divisions within the Qing court hindered these efforts. The Empress Dowager Cixi was preoccupied with her 60th birthday celebrations, while the Guangxu Emperor opposed foreign borrowing. Moreover, Yuheng, a conservative official, feared the growing power of the Beiyang faction, led by Li Hongzhang. Subsequently, the Qing court dispatched Liu Kunyi, the governor-general of Liangjiang, to the north to seek assistance from the Xiang Army, but appointed Zhang Zhidong as his successor, effectively undermining the Xiang Army's influence. A re-evaluation

of the Qing government's wartime finances reveals that it raised over 20 million taels of silver domestically and borrowed more than 50 million taels from foreign powers. Nevertheless, the dispersion of power and intense political infighting not only hampered the Qing government's military decision-making but also impeded its ability to secure adequate funding. Many of the proposed financing measures were not implemented until after the war.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in raising funds were a primary factor contributing to the Qing government's crushing defeat in the First Sino-Japanese War.

Keywords: First Sino-Japanese War, Qing government, Finance, Raise funds for military purposes

청일전쟁

– 중국 남방의 한 사인(士人)의 관찰과 사고

리짜이취엔(李在允) | 중국사회과학원대학(中國社會科學院大學) 교수,
근대사연구소(近代史研究所) 연구원

- I. 머리말
- II. 청일전쟁을 처음 알게 되다
- III. 전쟁 소식을 얻다: 인적 네트워크와 간행물
- IV. 청일전쟁 중의 상인(商人)과 상군(湘軍), 회군(淮軍)
- V. 패전의 고통과 성찰
- VI. 맺음말



I. 머리말

1894년부터 1895년까지의 청일전쟁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 정치 구도에 극심한 영향을 주었다. 청일전쟁의 결과로 중화민족은 전례 없이 중대한 민족적 위기를 맞았고, 중국의 반식민지화 정도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열강의 분할이라는 엄중한 위기에 처했다. 이와 반대로 일본은 국력이 한층 더 강대해졌으며, 식민 확장의 노선을 따라 구미 ‘문명국가’의 대열로 진입하여 세계적인 열강 중 하나가 되었다. 청일전쟁은 중국학자들에게 엄중한 역사적 화제이자 다수가 주목하는 학술적 문제이다. 청일전쟁 연구는 100여 년에 걸친 풍부한 학술적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¹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시 영역인 개인의 시야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보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 글에서는 『피시루이일기(皮錫瑠日記)』를 바탕으로, 당시 한 중국 남부 사인(士人)의 관점에서 역사적 인물이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보를 얻었으며, 이 전쟁을 어떻게 관찰하고 사고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개인이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탐구한다.

피시루이(1850~1908)의 자는 녹운(麓雲)인데 후에 녹문(鹿門)으로 고쳤고, 후난(湖南) 산화(善化) 출신이다. 거처를 ‘사복당(師伏堂)’이라고 명명해서 다른 이들은 그를 ‘사복선생(師伏先生)’이라고 불렀다. 그는 청 동치 12년(1873) 공생(貢生)으로 선발되어 국자감에 입학하고, 광서 8년(1882) 순천향시(順天鄉試)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그 후 네 차례 예부(禮部)의 위시(闈試)에서 모두 불합격하

* 투고: 2024년 10월 15일, 심사 완료: 2024년 11월 6일, 게재 확정: 2024년 11월 11일

1 戚其章, 2014, 『甲午戰爭史』, 上海人民出版社; 戚其章, 1984, 「建國以來中日甲午戰爭研究述評」, 『近代史研究』, 1984年 第4期; 戚其章, 1994, 「甲午戰爭研究一百年的回顧」, 『歷史教學』 1994年 第7期; 戚其章, 2000, 「中日甲午戰爭研究的世紀回顧」, 『歷史研究』, 2000年 第1期 등.

여(1883, 1889, 1892, 1894) 강의 및 저술 활동에만 종사하였다. 광서 16년(1890) 후난성 구이양주(桂陽州) 용담서원(龍潭書院)에서 약 7년간 강의했으며, 광서 24년(1898) 창사(長沙) 남학회(南學會)의 학장으로 초빙되어 유신변법(維新變法)을 선전하였다. 그는 무술변법(戊戌變法)이 실패하자 구급되었다가 개인 교습으로 생계를 도모하였다. 광서 28년(1902) 산화소학당(善化小學堂) 창립에 초빙되었으며 그 후 후난 고등학당(湖南高等學堂), 후난 사범관(湖南師範館), 창사부 중학교(長沙府中學校)에서 경학, 역사학, 윤리학 등을 강의하였다. 그는 경학에 해박하고 그 문장이 정밀하였으며 『상서대전소증(尚書大傳疏證)』, 『금문상서고증(今文尚書考證)』, 『효경정주소(孝經鄭注疏)』, 『정지소증(鄭志疏證)』, 『박오경이의소증(駁五經異義疏證)』, 『경학역사(經學歷史)』, 『경학통론(經學通論)』 등 풍부한 저술을 남겨 학계에서 명성을 얻었다.²

- 2 피시루이는 청말의 명망 있는 호남 사인으로서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관련 연구 성과도 비교적 많은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학술사 방면의 중요한 논저로는 吳仰湘, 2002, 『通經致用一代師: 皮錫瑞生平和思想研究』, 嶽麓書社; 吳仰湘, 楊豔萍, 2004, 「〈師伏堂日記〉所見皮錫瑞之經學觀」, 『湖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4年 第6期; 吳仰湘, 2007, 「皮錫瑞〈經學歷史〉並非經學史著作」, 『史學月刊』, 2007年 第3期; 潘斌, 2011a, 「論皮錫瑞鄭學研究」, 『社會科學輯刊』, 2011年 第3期; 潘斌, 2011b, 「皮錫瑞之易學觀」, 『周易研究』, 2011年 第3期; 吳仰湘, 2013, 『皮錫瑞的經學成就與經學思想』, 湖南大學出版社; 井澤耕一, 橋本昭典, 2020, 「從〈經學歷史〉的創作過程看皮錫瑞的經學史觀—手稿本和通行本的比較」, 『中國經學』, 2020年 第1期; 吳仰湘, 2022, 「皮錫瑞〈經學通論〉成書過程及初稿本述略」, 『古典文獻研究』, 2022年 第2期; 劉嶽兵, 2023, 「近代湘學與京都中國學—從皮錫瑞到狩野直喜」, 『南開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23年 第3期 등이 있다. 둘째, 독서사, 생활사, 인물사 방면의 주요 성과로는 姜晨, 2015, 「晚清士人的報刊閱讀—以孫寶瑄〈忘山廬日記〉和皮錫瑞〈師伏堂日記〉爲例」, 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 蔣建國, 2018, 「二十世紀初鄉紳的報刊閱讀與觀念世界—以張綱, 皮錫瑞, 劉大鵬爲例」, 『高效圖書館工作』, 2018年 第1期; 程彥霞, 2018, 「晚清民初湘籍士人的日記與私人閱讀」, 『圖書館』, 2018年 第11期; 丁利, 2020, 「皮錫瑞山長的書院生活」, 湖南大學碩士學位論文; 王然怡, 2022, 「晚清士紳皮錫瑞研究(1892-1908)」, 河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등이 있다. 특히 후난 출신 학자 우양상(吳仰湘) 교수는 피시루이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연구논저 외에도 吳仰湘, 2012, 『湖湘文庫·皮錫瑞集』, 嶽麓書社; 2013, 『中國近代思想家文庫·皮錫瑞卷』, 中國人

피시루이는 광서 18년(1892) 정월 초하루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여 광서 34년(1908) 2월 4일 사망할 때까지 16년 동안 총 100만 자가 넘는 일기를 남겼다. 그는 광범위하게 교류하며 듣고 본 것을 일기에 기록했기에, 일기의 내용이 풍부하다. 그의 일기는 위로는 청일전쟁, 무술변법, 의화단사건(庚子事變), 청말 신정(新政), 아래로는 향간의 풍경, 혼례와 장례, 도박과 음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귀중한 사료이며 학술적 가치도 매우 크다. 청일전쟁 전후 피시루이는 장시(江西) 난창(南昌)에서 강의하며 후난과 장시 사이를 오갔다. 그는 상당히 명망 있는 지방의 사인으로서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은 그의 일기에서도 드러난다. 이 글에서 주요 근거로 삼는 사료가 바로 청일전쟁 전후의 『피시루이일기』이다.

II. 청일전쟁을 처음 알게 되다

피시루이의 일기에서 청일전쟁과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그해 7월 15일(음력 6월 14일)로,³ 그는 친구에게서 “일본이 조선을 노리고 있어 류명찬(劉銘傳)을 전권 대신(全權大臣)으로 삼았는데 아마 전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⁴는 말을 전해 들었다. 당시 정보 전파 기술의 한계로 인해 조선의 전쟁이 남방 사람들의 귀에 전해졌을 때는 이미 2~3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였다. 사실상 이때 중일 쌍방의 조선을 둘러싼 쟁탈 상황이 이미 긴박해져 전쟁은 일촉즉발의 상태였다.

民大學出版社; 2014, 『皮錫瑞全集』, 中華書局 등 피시루이 문헌 자료를 정리하여 출판하기도 하였다.

- 3 이 글에서는 시간을 양력으로 표기하고, 일부는 그 뒤에 괄호를 사용한 음력을 표기하였다.
- 4 皮錫瑞 著, 吳仰湘 點校, 2020, 『皮錫瑞日記』 第1冊, 中華書局, 204쪽. 이 글에 인용된 『피시루이일기』는 모두 이 판본으로, 주석으로 다시 표기하지 않는다. 만약 본문 내 날짜가 있는 경우 주석으로 남기지 않는다. 날짜가 없을 경우에는 문장 뒤 괄호로 표기한다.

피시루이는 전쟁의 배경을 전혀 기술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일전쟁의 도화선은 청일전쟁 1~2년 전부터 배태되었던 조선의 동학당(東學黨) 봉기(동학농민운동)로, 이는 갑오년(1894) 4월 발발하였고, 동학당은 곧 전주를 함락하며 세력을 키워갔다. 조선은 즉시 중국에 구원을 요청했으며, 중국이 출병하자 일본도 이를 따랐다. 동학당의 봉기는 곧 평정되었으나 일본군은 계속 머물며 중국 측이 제안한 동시 철군을 거절하였다. 6월 16일, 일본은 조선 정권을 개혁할 중일 공동 방안을 제기하였으나, 중국은 이를 거절하고 일본의 철군을 촉구하였다. 22일에 일본 측이 철군을 거절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뒤에야 중국 측은 상황이 엄중함을 깨달았다. 7월 상순과 중순에 러시아와 영국이 중일 대립을 중재하려 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한 전쟁을 결의하고, 중국의 증원 병력을 차단하려 하면서 7월 25일(6월 23일) 풍도 해전이 발발하였다.

7월 26일(6월 24일), 친구 짜우링한(鄒凌瀚)⁵이 피시루이에게 와서 양무를 논하며 “영국이 중재에 나설지도 모른다고 들었으니, 조선에서 큰 분쟁이 터지는 않을 듯하다”라고 하였다. 이는 이미 10여 일 전의 일이었다. 당시 많은 중국인이 조선과 전쟁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중일 양국이 전쟁에 이르는 않을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7월 30일(6월 30일), 피시루이는 일기에 “일본이 이미 전쟁을 시작했고, 전황은 치열하며, 중국군의 보급선이 기뢰에 폭파되어 2,000여 명이 희생되었으니 매우 슬프다”라고 작성하였다. 8월 1일(7월 초하루) 저녁, 그가 저우링한의 집을 찾아갔을 때 저우링한은 “몇 척의

5 짜우링한(鄒凌瀚)의 자는 전서(殿書)로, 장시(江西) 가오안(高安) 출신 사람이다. 생몰년은 미상이며, 1차 과거에 합격하여(貢生), 원외랑(員外郎) 후보였다. 『시무보(時務報)』 창간을 위해 기부하였고, 광서 24년 장시 지역에서 여지학회(勵志學會)를 설립하였으며, 무술정변(戊戌政變) 이후 장시의 경제공학당(經濟公學堂)을 운영하였다. 저서로는 『결경심실경설(挾經心室經說)』, 『독설문찰기(讀說文割記)』, 『아라사국지(俄羅斯國志)』, 『아국고략(俄國考略)』, 『격치신리(格致新理)』 등이 있다. 上海圖書館 編, 1989, 『汪康年師友書割』 第四冊, 上海古籍出版社, 4166쪽.

바로 일본의 항구를 봉쇄하여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상책(上策)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연해 도처를 침범할까 우려된다”라고 하였다. 이는 일본 측의 정세를 이해하지 못한 단순한 생각이었다. 사실 당시의 많은 중국 사대부는 세계정세와 일본의 상황에 대해 무지하였다. 사대부들뿐만 아니라 상군(湘軍)의 원로이자 오랫동안 군무를 맡았던 양강총독 류쿤이(劉坤一)도 전쟁 초기에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작고 백성들은 빈곤하니, 그들이 힘을 모아 공격해 온다 해도 그 기세가 끊어지고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그 곤경을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이 견해를 바탕으로 “호되게 처벌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⁶ 며칠 뒤 중일 양국은 정식으로 선전포고하였다.

8월 상순에서 중순 사이, 웨이루구이(衛汝貴), 마위쿤(馬玉崑), 쥐바오구이(左寶貴), 평성아(豐升阿)가 이끄는 4군이 조선으로 건너가 차례로 평양에 도달하였는데, 병력은 약 1만 4,000명이었다. 8월 하순, 아산에서 전투를 치르던 예즈차오(葉志超)와 네스칭(聶士成)의 군대도 평양으로 철수하여 부대의 총합은 35개 영(營), 1만 5,000명 이상이 되었다. 이 시기 조선에서 중국과 일본의 병력은 중국이 열세였는데, 일본군의 숫자가 더 많고 무기와 전술 또한 더욱 최신이었다. 청군은 전선에서 통솔자가 없었으며 지휘는 혼란스러웠다. 9월 중순, 일본군이 대대적으로 평양을 공격하여 9월 15일(8월 16일) 함락되었다. 이때 북양해군이 청군을 수송하여 압록강 하구에 상륙시켰으나, 9월 17일 일본군 함이 기습하여 황해에서 양측이 몇 시간 동안 격전을 벌였다. 중국 함대는 과반이 침몰하여 그 후 감히 출전하지 못했고, 일본 측이 제해권을 획득하였다.

6 『交涉史料』卷17, 22쪽 上(1431), 부록 1; 石泉, 2023, 『甲午戰爭前後之晚清政局』, 三聯書店, 15쪽에서 재인용.

Ⅲ. 전쟁 소식을 얻다: 인적 네트워크와 간행물

피시루이의 일기를 종합해보면, 그가 전쟁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다음 두 가지임을 알 수 있다. 첫째, 친구와의 인적 네트워크, 둘째, 간행물, 주로 『신보(申報)』를 열람하는 것이었다. 경우에 따라 두 방식은 상호작용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일기에서는 피시루이가 자주 상강(湘贛) 두 지역의 관리, 사대부, 학자들과 함께 학문과 시국에 대한 토론을 벌였고, 이 역시 정보 교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황에 대한 정보도 이러한 토론 및 교류로부터 획득하였다. 피시루이는 상당히 명망 있는 지역 사인으로서 “조정에 (정보를 줄) 사람이 있었다.” 일기 내용 중 피시루이는 청말의 증신 왕원사오(王文韶, 1830~1908, 자는 기석(夔石), 저장(浙江) 런허(仁和) 출신)를 “기선생님(夔師)”이라 불렀는데, 이는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1894년을 전후로 장시(江西)의 명사(名流) 원팅스(文廷式)는 피시루이와 활발한 교류를 나누었다. 원팅스[1856~1904, 자는 도희(道希)]는 장시 핑샹(萍鄉) 출신으로 광둥(廣東) 차오저우(潮州)에서 태어나 관리 집안에서 성장하였다. 천리(陳澧)가 그를 제자로 삼았으며, 청일전쟁의 주전파로 강화에 반대하였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원팅스는 이전에 광둥에서 진비(珍妃)와 근비(瑾妃)에게 독서를 가르쳤고, 두 비의 오빠인 즈루이(志銳)와도 깊은 교류를 맺었다. 이후 그는 왕통허(翁同龢)의 눈에 들어 광서 16년(1890)의 은과(恩科)에서 2등으로 급제하는 영광을 얻었고, 갑오년의 한첨대고(翰詹大考)에서 광서제에게 발탁되어 최종 1등(一等第一名, 특정 분야 등과 최종 순위 모두 1위)으로 급제하였으며, 곧이어 한림원(翰林院) 시독학사(侍讀學士) 직을 받으며 광서제의 큰 신임을 받았다.⁷

피시루이의 일기 중 다양한 곳에 원팅스와의 교류가 기재되어 있다. 1894년 7월 15일(6월 14일), “원다오시(文道希, 원팅스를 일컫는다)가 부(府)와 도(道)에

7 石泉, 2023, 위의 책, 79쪽.

서 연납(捐納)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상주하였는데, 이 일은 일찍이 베이징에 있을 때 말한 바 있다.” 7월 26일, “원다오시가 강관(講官)으로 승진하여 서길사(庶吉士)를 교습하는 일을 맡았는데, 대한림(大翰林)임에 분명하다.” 9월 1일, “듣자 하니 원다오시가 북양(北洋)을 돕고자 한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닌 듯하다.” 9월 2일, 피시루이가 친구의 집에 이르러 “원다오시의 일을 물었으나 믿을만한 소식은 듣지 못하였다.” 9월 7일, “원다오시에게 편지를 보내 승진을 축하하고 시국의 일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9월 9일, “원다오시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시국의 일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1895년 원팅스가 장시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교류하였다. 7월 14일, “오후에 원다오시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는 타오화평(陶華封), 장단밍(張丹銘), 메이쯔자오(梅子肇)가 있었다. 원다오시는 또 그의 외조카 즈윈(執贄)을 나에게 소개시켜주었다. 베이징에 붙어 있는 대련(對聯) 이야기가 나왔다. ‘랴오둥과 타이완과 2억 금, 엄청난 선물이네, 늙은이와 손자와 열여덟 명의 아들, 삼대가 한집에 있네[역자주: 랴오둥반도와 타이완 할양, 배상금 2억 량의 강화조건과 조정의 고관대신인 왕통허(翁同龢), 쑤위원(孫毓汶), 리홍장(李鴻章)을 성토하는 내용으로 ‘늙은이와 손자와 열여덟 명의 아들(翁孫十八子)’은 세 대신의 성을 파자(破子)한 것임]’. 이는 이전에 들었던 것보다 더 격렬하게 성토하는 것이다. … 대청문(大清門)에 투서가 붙었는데, ‘자희태후가 만수무강(萬壽無疆)하셔서 온 천하가 함께 축하할 때, 이와 동시에 삼군이 전멸하고, 영토를 할양하며 화친을 구했다’고 큰 글자로 쓰여 있었다. 실로 통곡할 만하다!” 수일 뒤인 7월 19일, 원팅스는 피시루이에게 “랴오둥에 병력을 증원하여 화의(和議)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듯하다”고 말하였다. 피시루이에게 온 상당한 양의 전쟁과 정치 고위층에 관한 소식은 원팅스 등의 친구로부터 온 것임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일기를 보면 1894년 8월 이후 피시루이는 『신보』를 자주 열람했으며, 이로써 전쟁의 진행 상황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⁸ 『신보』는 1872년 영국 상인

8 학계에서는 청일전쟁 전후의 『신보』로 대표되는 사회여론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성

어네스트 메이저(Ernest Major)가 상하이(上海)에서 창간하였다. 그는 처음부터 『신보』를 중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발간하였다. 이 신문은 중국인들이 흥미를 느낄 소식 및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중국 매판(買辦)이 경영을 주관하게 하고, 중국인 편집자가 보도 항목을 선정하고 사실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신보』는 동시대 상하이 신문과의 경쟁 속에서 우위를 유지하였다. 『신보』는 1880년대에 전보 보도를 빠르게, 광범위하게, 영리하게 이용하면서 상하이 신문의 선두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1884년 베이징(北京)에 전보가 개통된 후, 황제의 유지는 반포된 지 이틀이면 『신보』에 실릴 수 있었다. 1882년부터 1905년의 기간 동안, 『신보』는 특정 분량을 할애하여 조정에 관련된 보도를 전문적으로 게재하였다. 그 후 전보로 발송된 다른 유형의 정치 소식도 실었는데 예를 들어 황제가 특정 관원을 접견한 일이 수시로 보도되었고, 주요 관원의 동향도 일련의 전보를 통해 추적·보도되었다.⁹ 이에 『신보』는 당시 중국에서 시장을 확보하고 많은 독자층을 가질 수 있었다.

상하이 『신보』의 발행 공간은 점차 확장되었다. 1880년대에 『신보』는 전국의 수많은 도시에 발행망을 설치하였으며, 1882년에는 장시의 장시 난창(南昌)과 후난의 창사에 모두 판매망이 존재하였다.¹⁰ 이는 피시루이가 전황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는 주요 경로가 되었다. 1894년 8월 12일(7월 12일), 피시루이는 “『신보』에서 해전 소식을 보았는데, 육상전은 대체로 승리했으나 해전은 승패가 엇갈렸다. 제원호(濟遠)와 나니와호(浪泊, ‘浪速’이라 불러야 한다)가 부딪쳤는

과를 거두었다. 그 예로 龔書鐸, 1994, 「甲午戰爭期間的社會輿論」, 『北京師範大學學報』, 1994年 第5期; 李堅, 1997, 「甲午戰爭時期報刊輿論與社會變遷」, 『華東師範大學學報』, 1997年 第2期; 陳鵬, 2004, 「甲午戰爭期間的〈申報〉輿論」, 華東師範大學碩士論文; 李慧, 2005, 「〈申報〉對中日甲午戰爭的回應」, 四川大學碩士論文 등이 있다. 갑오중일전쟁에 대한 구미 간행물 내 여론 연구로는 劉文明, 2024, 『全球性公共空間中的甲午戰爭: 以英美報刊輿論爲中心的考察』, 商務印書館을 참조.

9 周永明 著, 尹松波·石琳 譯, 2013, 『中國網絡政治的歷史考察: 電報與清末時政』, 商務印書館, 69~72쪽.

10 「外埠售報處」, 『申報』, 1882年7月1日, 第1版.

데 적합이 버티지 못하고 깃발을 내린 후 하선하였으며 적의 원병이 와서 견인해갔다. 우리 군대도 적의 공격을 받아 갑판이 파손되고, 20여 명이 사망하였다. 고승호(高升船)가 바로 이 폭격을 받아 침몰하였다. 이 배는 화물선이어서 병기가 없었다. 왜 군함을 사용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교전 가능성이 있는데도 화물선으로 병력을 지원하여 1,000여 명이 속수무책으로 죽는데 이르렀으니, 책략이 좋았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것은 바로 1개월 전 발생하여 중국과 외국을 놀라게 한 ‘고승호’ 사건이었다.

1894년 7월, 조선의 형세가 나날이 긴박해지자, 중국은 아산에 긴급히 병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었다. 리홍장은 자딘 매티슨 상회(Jardine Matheson, 怡和洋行)에서 ‘고승호(高升號)’, ‘인애호(仁愛號)’, ‘비경호(飛鯨號)’ 세 척의 상선을 임대하여 군대를 수송하는 데 사용하였다. 7월 23일, 상선 ‘고승호’는 1,100여 명의 청군을 태우고 대구커우(大沽口)를 출발하여 아산으로 향했다. 25일, 항해 중 풍도(豐島) 부근에서 일본 군함 ‘나니와호’와 마주쳤다. ‘나니와호’의 함장이었던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는 ‘고승호’와 선상의 청군들을 포로로 잡아 일본으로 데려가려 했으나, 청군이 이를 거부하자 ‘고승호’를 포격하고 어뢰를 발사하여 격침시켰다. 선상의 청군 중 생존한 24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871명은 전사하였다. 이것이 바로 세계를 놀라게 한 ‘고승호’ 사건이다. ‘고승호’가 영국 해운회사 소유이고 선상에는 영국인과 독일인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국제적인 주목을 불러일으켰다.

전선의 전쟁 소식이 전해질 때는 오랜 시간 여러 지역을 거쳐 다층적으로 전달되었으므로, 때때로 앞뒤가 안 맞아 사람들이 진실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1894년 8월 20일, 피시루이는 오전에 “조선에서 승리 소식을 알려왔다”라고 들었으나, 오후에는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는데, 아산이 함락되고 사망자가 심히 많았다고 한다. 어찌 관가에서 이 사실을 숨기는가?”라고 들었다. 앞뒤의 소식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1895년 1월 5일, 피시루이는 『신보』를 열람한 뒤, 일기에 “전쟁의 승패를 말하는 것이 꼭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만약 대승을 거두었다면 어찌서 푸저우(復州)가 함락되었는가?”라고 썼다. 그는 『신

보』에 기재된 신문 보도에도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는 대체로 일기에 “확실히 않다”고 작성하였다. 이는 당시 신문의 전문성이 높지 않고 보도의 진실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근대의 저명한 실업가 무어우추(穆藕初)는 갑오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그해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일어났다. 당시에는 신문이 거의 없었고, 소문도 사실이 아닌 것이 많았으며 대부분 중국의 전과를 과장하고 추켜세우는 내용이었다. 나중에 우리나라가 대패하여 성하(城下)의 맹약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았는데, 마음속의 고통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¹¹ 피시루이는 다른 정보 획득 경로가 없는 상황에서 『신보』를 열람하며 전황 소식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신문 읽기는 사인의 기존 지식을 바꾸었고, 새로운 지식은 사인의 사상을 바꾸었다. 청일전쟁 전까지 피시루이는 신문을 거의 읽지 않았다. 청일전쟁은 그의 독서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피시루이는 이때부터 자주 『신보』를 읽고 국난에 대한 울분을 신문 읽기, 친구들과의 토론 및 시사(詩詞) 창작과 결합시켰다. 청일전쟁 기간에 피시루이의 일기는 전쟁 이전에 과거 답안이나 전적(典籍) 읽기를 주로 기술하던 번잡한 일기와는 크게 달라졌다. 그는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며 부단히 신문을 읽고 뉴스 동태에 주목했으며, 이는 그의 사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청일전쟁 이후, 피시루이는 신문의 가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졌으며, 『신보』 외에도 『시무보(時務報)』, 『지신보(知新報)』, 『상보(湘報)』, 『중외일보(中外日報)』 등의 신문도 그의 일기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¹²

11 穆藕初 著, 文明國 編, 2013, 『穆藕初自述』, 安徽文藝出版社, 9~10쪽.

12 蔣建國 著, 2024, 『中國報刊閱讀史』第1卷, 復旦大學出版社, 186~187쪽.

IV. 청일전쟁 중의 상인(湘人)과 상군(湘軍), 회군(淮軍)

청말 태평천국(太平天國)과 염군(揜軍) 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상군(湘軍)과 회군(淮軍)이 조직된 이래, 상군과 회군은 사실상 청군의 주력이 되었다. 이 두 군대 외에도 전국에는 몇몇 계파의 군대가 존재했는데 유명한 것으로는 송칭(宋慶)의 의군(毅軍), 장야오(張曜)의 승무군(嵩武軍), 동푸샹(董福祥)의 간군(甘軍), 천위잉(岑毓英)의 진군(滇軍) 등이 있었다. 그러나 전국적 범위로 본다면 상군과 회군이 청군의 주력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상군은 처음에 인물을 따라 군대가 형성되어 계통(系統)이 본래 하나에 기원을 두지 않았고, 이후 세력이 커지면서 파벌이 자연스럽게 두드러졌다. 쩡궈관(曾國藩) 시대에 궈쑹탕(左宗棠)은 이미 따로 세력을 형성하여 서로 소속되려 하지 않았다. 리홍장의 회군은 처음 상군에서 유래하였으나, 이후 규모가 커지자 지역·병영 제도·장비 모두 별도의 체계를 만들어 상군과 갈라졌다. 역사학자 천인커(陳寅恪)의 견해에 따르면, 청 조정의 최고 통치자 자희태후(慈禧太后)는 “상군 계통에서 나온 회군을 중용하여 상군을 견제하였다.”¹³ 쩡궈관 사후, 상군과 회군 장수들은 점점 더 서로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다. 특히 궈쑹탕과 리홍장 간의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다. 리홍장의 오랜 양무 경험으로 인해 회군 계열에서는 서양을 본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견해도 비교적 신식이었다. 상군 계열 지휘관들은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고 견해도 청류(淸流) 사대부들에 가까웠다. 상군과 회군의 수장이 공동으로 업무를 볼 때도 양보하려 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다. 리홍장은 동치 9년부터 청일전쟁 시기까지 20여 년간 수도 부근에 주둔하며 북양을 호위하였으나, 동남의 부유한 지구와 서북의 요충지인 산시(陝西)·간쑤(甘肅)에는 항상 상군이 주둔하였고, 상군의 지휘관 내지 상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인물이 총독(總督)을 담당하였다.¹⁴

13 陳寅恪, 2001, 「寒柳堂記夢未定稿(補)」, 『寒柳堂集』, 三聯書店, 218쪽.

14 石泉, 2023, 앞의 책, 25~26쪽.

정치적으로 보면 리홍장은 당시 양무운동의 핵심 인물로, 청류 사대부들과 가장 많은 충돌을 일으켜 거의 모든 사안에서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청류 사대부들은 리홍장의 모든 조치가 지닌 의의를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추측만 무성했고 리홍장은 “30년간 매일 비방 속에 있었다.” 청일전쟁 전후로 청류 주전파 사대부들이 리홍장을 더욱 믿지 않아 전력으로 공격하며 반드시 그를 제거해야만 후련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 되었다. 청류 사대부들은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과 기풍을 대표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과거 합격자들이었고, 고전과 구학문에 숙달하였으며, 국가에서 여러 해 동안 교육하고 선발하였다. 수가 상당히 많아서 전국의 관료와 신사 다수가 이 청류 사대부 출신이었다. 그들은 중국의 전통적인 정치와 교육의 근본, 통치술(治術)의 정수(精華)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사상과 교양 역시 선철(先哲)을 스승으로 삼고 본받아 스스로 그 풍채와 경지를 갖추어서 사림(士林)으로부터 존경받으며 전국적으로 막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¹⁵ 피시루이 또한 그중 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는 후난 출신으로, 리홍장을 필두로 한 회계 세력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편견’을 가졌다.

일기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피시루이는 리홍장과 회계(淮系) 세력에 대해 크게 경시하는 언사를 쓰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1894년 10월 19일(9월 21일) 피시루이는 “평양의 함락은 북양에서 탄약을 보내지 않고 군비 200만을 일본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 늙은이(리홍장)가 나라를 팔았으니 능지처참(寸磔)으로도 죄를 묻기에 부족하다!”라고 기록하며 리홍장에 대한 그의 분노를 드러냈다. 11월 9일, 피시루이는 친구에게서 “평텐(奉天)에는 병력이 없고, 패잔병 수천 명뿐이다. 허페이(合肥, 리홍장)가 가지 않으니, 만회할 길이 없다. 패잔병, 투항한 장수, 한간(漢奸)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분발할 수 있겠는가? 한림원에서는 두 차례 연명으로 허페이를 공격하고 화의 운운하는 것을 질책하였다”라는 말을 들어 알게 되었다. 11월 22일, “리홍장의 무리(黨)는 이처럼 가증스러우니 뭘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12월 2일, 피시루이는

15 石泉, 2023, 위의 책, 10쪽.

“딩리쥘(丁立鈞) 등이 허페이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하며, ‘만약 그를 즉시 파면하지 않으면 장래에 성경(盛京)이 위태로워져 경사(京師)가 떨게 될 것이다. 리홍장의 살을 먹는다 한들 어찌 나라에 보탬이 되겠는가?’라고 말하였다고 들었다. 공양취(龔仰籛), 장페이룬(張佩綸), 성쉬안화이(盛宣懷), 딩위창(丁禹昌), 웨이위구이(衛興貴) 등의 인물도 마찬가지이다. 웨이위구이는 이미 사형당했고, 나머지도 끝내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위의 인물들은 모두 리홍장의 측근들이다. 12월 31일, 피시루이는 “이 사람(리홍장)의 살을 먹어도 죄를 덮기에 부족하다”라고 하며, 원한의 마음을 언사로 드러냈다.

상술한 내용은 주전 청류파의 공격으로 불거진 전국적 반(反)리홍장 여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리홍장과 회계 세력에게 옳은 점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다. 청류 주전파와 리홍장이 상반된 관점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중·일간 실력 비교에 대한 계산법이 근본적으로 달랐으며, 주전파 사인들은 중국의 약함과 일본의 강함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을 경시하는 마음은 중국의 유구한 전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전파의 눈에 리홍장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다.”¹⁶

1894년 5월, 조선이 파병을 요청한 이후, 청 조정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리홍장의 의사에 따라 처리되었다. 일본이 조선에 대규모로 파병하며 점차 야심을 드러내자, 6월 하순 청 중앙 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6월 25일 상유(上諭)를 내려 리홍장에게 적절한 계획을 세워 만일을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때가 청 중앙 정부와 리홍장이 분열된 시점이었다. 이후 청류 주전파가 점차 기세등등해졌는데 주전파 사대부들은 리홍장의 주화(主和) 책략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9월 평양 전투에서 패한 뒤 주전파는 리홍장을 처벌하라고 요구하였다. 청일전쟁 초기 주전파는 리홍장과 그의 측근들을 대대적으로 공격했으며, 이와 동시에 회군 이외의 지방 대신과 장군, 특히 상군 장령들을 끌어들이고

16 石泉, 2023, 위의 책, 63쪽.

자 하였다.

회군이 패퇴하던 때, 청 조정과 주전파 사대부들은 상군에게 기대를 걸었다. 후난(湘) 출신으로 상당한 명망이 있던 사인 피시루이는 여기에 주목하였다. 1894년 10월 4일(9월 6일), 피시루이는 “우칭칭(吳淸卿)이 북양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아 웨이하이웨이(威海衛)를 방어하도록 파견되었는데, 웨이우장(魏午庄)은 10개 영(營), 천팡셴(陳舫仙)은 6개 영, 리젠자이(李健齋)는 5개 영을 이끌도록 명령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우칭칭”은 바로 후난 순무(湖南巡撫)를 맡던 우다칭(吳大澂)이다. 그는 비록 후난 사람이 아니었으나 전쟁 발발 후 상군을 통솔해 산하이관(山海關)을 나가 동베이 지역으로 출전하였다. “웨이우장”은 상군 장령 웨이광타오(魏光燾, 1837~1916)이며, 후난 사오양(邵陽) 출신이다. 함풍 6년(1856) 상군 쩡궈취안(曾國荃)의 부대에 들어가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데 참여한 후, 공을 쌓아 신장(新疆) 포정사(布政使)까지 승진하였다. 광서 18년(1892), 웨이광타오는 부모상으로 인해 고향인 사오양으로 돌아가 있었다.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청군이 차례로 패배하자, 청 조정은 웨이광타오에게 출관하여 전투를 도우라는 특지(特旨)를 내렸다. 그는 후난 출신 자체 수천 명을 모아 북상하여 랴오둥 하이청(海城) 전선에 진입하였다. ‘천팡셴’은 상군 장령 천스(陳澍)로 후난 상샹(湘鄉) 출신이다. 함풍 6년(1856) 쩡궈취안의 초빙으로 상군에 합류하여 태평천국군과의 전투에 참여했으며, 그 후 장쑤(江蘇) 안찰사(按察使) 관직을 받았다. 그는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상군의 옛 부하들을 통솔하여 산하이관(山海關) 일대에 주둔하였으며, 이후 모텐링(摩天嶺) 등지에서 수비를 맡았다. 상군 장병들은 이처럼 청일전쟁 전선에 파견되었다.

청일전쟁 전후 상군의 최고 지도자는 당시 양강총독을 맡고 있던 류쿤이(劉坤一)였다. 전쟁 발발 후 청군이 각 전선에서 끊임없이 패하자, 청 조정과 주전파는 상군 지도자 류쿤이에게 희망을 걸었다. 청 조정은 류쿤이를 베이징으로 소환하여 극히 불리한 전세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1894년 12월 27일 류쿤이는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자희태후와 광서황제를 알현하였다. 다음 날, 청 조정은 류쿤이에게 흠차대신(欽差大臣) 직을 수여하고 산하이관 내외의 모든 군대를

그의 휘하로 귀속시켰다. 조정과 민간의 기대를 고려하면 류쿤이의 지위는 매우 중요하였고, 북쪽으로 온 상군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었는데 그의 자격과 명망으로 통솔하기에 충분하였다. 피시루이는 이 시기 류쿤이의 행보를 일기에 자주 기록하였는데, 이는 상군에 대한 후난 사람들의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1894년 11월 19일(10월 22일), 피시루이는 “류진위(劉振愚)와 왕수밍(汪叔明)이 와서 말하길, 류장군(劉峴帥, 류쿤이)께서 직례총독을 대리하고 리홍장은 내각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러한 처리는 괜찮은 듯하다”라고 기록하였다. 11월 21일, “류장군께서 초월혈에 출발하셨으니 아직 산하이관에 도착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상군도 아직 모이지 않았을 텐데, 방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12월 3일, 피시루이는 친구와 시국을 논하며 “류장군께서 직례총독을 대리하는 것이 이미 명문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2월 26일, 피시루이가 친구로부터 “장군(류쿤이)께서 이 일을 맡는 것을 꺼리시는데 스스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또한 노련한 대신의 식견이다. 다만 나라의 일을 의지할 곳이 없어 걱정이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1895년 1월 4일, 피시루이는 『신보』를 열람하고, “류장군께서 24일에도 아직 톈진(天津)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어찌 이리 지연되는가?”라고 썼다. 2월 8일, 『신보』를 읽고 “장군께서 아직 어디에 주둔하는지 알지 못하니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썼다.

그러나 류쿤이도 전세를 역전시킬 수는 없었다. 군사 방면에서 류쿤이에게는 즉각적으로 패배한 전국을 전환시킬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수도에 머물며 병사와 무기의 신속한 집결을 기다렸다. 인사 방면에서는 그가 여전히 옛 방식을 답습하여서, 주전파는 다소 실망하였다. 1895년 1월 19일, 류쿤이는 베이징을 떠났으나, 이는 병기가 전혀 준비되지 않아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마지못해 길을 나선 것이었다. 2월 7일 류쿤이가 산하이관에 도달하였으나, 24일에는 쑹칭(宋慶)의 부대가 다핑산(大平山)에서 재차 패배하였다. 3월 4일 우다청 등 여러 부대의 상군이 뉴좡(牛莊)에서 크게 패하여 매우 큰 손실을 입었다. 3월 8일에는 잉커우(營口)가 함락되었고, 9일 쑹칭의 군대는 톈좡타이(田莊台)에서 또 대패하며 전군이 서쪽으로 퇴각하여 진저우(錦州) 외곽에 이르렀다. 상군의 명성

은 크게 실추되었으며, 주전과의 희망도 점차 어두워졌다. 사실상 1894년 9월 평양전투의 패배 이후, 전쟁의 규모가 나날이 커지면서 중국 군대의 운용이 비효율적이어서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작전에 나선 장령들은 두 가지 난관에 봉착하였다. 먼저 군대 내부의 복잡성으로 인해 책임자가 뜻대로 통솔하기가 극히 어려웠다. 다음으로 병기의 공급 부족으로 제2선 병력의 보충이 매우 곤란하였다.¹⁷

V. 패전의 고통과 성찰

전선의 패배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지는 가운데 1895년 3월 1일(음미년 2월 초 5일), 피시루이는 『신보』를 읽고 “딩루창(丁汝昌)이 류공다오(劉公島)에서 전군과 함께 왜에 항복했고, 이후 중국에 한 척의 군함도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북양해군이 전멸한 것이었다. 육상전에서도 여지없이 패배하였다. 청 조정은 이전에 장인환(張蔭桓)과 사오여우롄(邵友濂)을 일본으로 보내 화의를 요청했으나, 일본은 두 사람의 전권 자격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였다. 청 조정은 부득이하게 리홍장을 일본으로 파견하여 화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3월 19일, 리홍장은 시모노세키에 도착했고 다음 날 협상이 시작되었다. 4월 1일 일본은 강화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조선의 독립, 랴오둥반도·타이완·펑후(澎湖)의 할양, 배상금 3억과 일본의 상무(商務) 이익의 허가였으며, 4일 내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4월 3일 전보가 베이징에 도착하여 청 조정 내 화친과 주전 두 파가 화의 조건에 대하여 대대적인 논쟁을 벌였다. 4월 12일, 리홍장은 일본이 제시한 최후의 조건을 전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라오둥의 할양지를 축소하고 배상금을 2억 냥으로 조정하며, 일본이 통상 관련 조항을 조금 양보하는 것이었다. 청 조정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13일과

17 石泉, 2023, 위의 책, 141쪽.

14일에 리홍장에게 전보를 보내었다. 그는 15일에 일본과 협상을 체결하였으며, 17일에 조약에 서명하였다. 쌍방은 5월 8일 옌타이(煙台)에서 조약 문서를 교환하기로 규정하였다. 18일, 리홍장은 일본을 떠나 귀국하였고, 20일에 텐진에 도착하여 조약의 정본(正本) 및 관련 문서를 베이징으로 보냈다. 아울러 주접(摺片)을 덧붙여 교섭의 경과를 보고하면서 휴식과 요양을 위한 20일의 휴가를 요청하였다.

이 기간 국내 각 방면의 인사들은 강화회담을 둘러싼 온갖 추측을 쏟아내었는데, 이에는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었다. 1895년 4월 17일(음미년 3월 23일) 피시루이는 “중승(中丞)을 찾아보니 전보로 화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셨다. 이미 서명하였는데 어떤 내용으로 화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모른다.” 강화조약이 이미 체결되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식은 빠르게 전파되었다. 4월 20일, 피시루이는 “군비(兵費) 3천만 (냥) 외에도 랴오양(遼陽) 이남이 모두 상대에게 귀속되었고, 평후, 타이완도 포함되었으며, 창장(長江)의 수군(水師)과 포대조차 저들의 간섭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가혹한 화의의 대가를 마주한 피시루이는 상심해 마지않았으며 일기에 “전해 들은 바대로라면 대사가 이미 우리 손에서 떠나갔으니 천하를 다시 논할 수 없을 것이다. 200여 년간 완전무결(金甌無缺)했던 천하가 음험한 자들과 간신들의 손에 훼손되었으니, 아프고 아프도다!”라고 썼다. 4월 23일, 피시루이는 친구의 전보로부터 화의가 “모두 10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일본이 점령한 땅은 모두 일본에 귀속되고, 랴오양 동쪽과 타이완을 전부 포기하며, 고평은(庫秤銀) 100 조(兆)를 지불하는데 은으로는 1억 냥(兩)이다. 베이징(北京), 허난(河南), 쓰촨(四川), 우저우(梧州), 자오칭(肇慶) 다섯 곳을 추가로 개방하고 왜의 물품을 수입할 때 2%를 감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월 28일, 피시루이는 친구에게 받은 또 다른 전보에서 약간 다른 화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배상금 은(銀) 2억 냥, 5할의 이자, 타이완, 평후, 평텐 7개 성을 저들에게 귀속시키고, 웨이하이는 6년 안으로 청에게 돌려주며 일본군은 철수하고, 그때까지 매년 군비로 50만을 지불한다. 추가 개방지는 쑤저우(蘇州), 항

저우(杭州), 사스(沙市), 충칭(重慶)이다.” 친구는 피시루이에게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전하였다.

‘시모노세키조약’에 따라 타이완과 평후는 일본에 할양되었다. 이 소식이 타이완에 전해지자, 민중들은 크게 분노하였다. 1895년 5월 25일, 『신보』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전보문이 등재되었다.

삼가 아뢰입니다. 타이완이 왜에 속하게 되었으나 만민이 불복하여, 탕정쑹(唐景崧) 순무의 관서에 타이완 백성들의 사정을 대신 상주해주기를 누차 청하였으나, 일을 돌이키기는 어려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은 것과 같이 비참함의 극치입니다. 바라건대, 타이완은 조정의 버림받은 땅으로 백성은 의지할 곳이 없고, 오직 죽음으로 지킬 뿐이라, 섬나라에 머물며 멀리서 황령(皇靈)을 받들어 남양(南洋)의 방파제(屏蔽)가 되고자 합니다. 다만 누군가가 반드시 통솔해야 하니, 민중들의 중론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는데 탕 순무께 잠시 타이완의 사무를 맡기고, 아울러 류용푸(劉永福)가 타이난(臺南)에 주둔하며 지키도록 하는 한편, 각국에 간청하여 할양한 지역의 신민(紳民)이 만국공법(公法)에 불복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타이완이 어디에 속하여야 하는지 공정하게 판단하게 하고, 재차 탕 순무를 입경(入京)시키고 류용푸가 임무에 복귀하도록 해야 합니다. 타이완 백성들의 이러한 바람은 청조(淸朝)를 흠모하여 굳게 지키면서 호전의 기회를 기다리고자 하는 것이니, 조급한 마음으로 바라건대 상주를 대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21일 타이완의 신민(紳民) 전체가 함께 눈물 흘리며 절을 올립니다.¹⁸

발신자는 ‘전 타이완 신민’ 명의로 이 전보를 발송하였고, 지정된 수신인은 총리아문(總理衙門), 남양대신(南洋大臣), 민절총독(閩浙總督), 푸젠(福建) 포정사(藩台), 그리고 모든 타이완 관헌(官憲)이었다. 이 전보는 5월 13일 발송된 지

18 「錄臺灣紳民電稟原文」, 『申報』 1895年5月25日(光緒二十一年五月初二日), 第1版.

12일 뒤 『신보』에 게재되었다. 편자(編者)가 드러낸 바에 따르면, 이는 푸저우에서 『신보』로 부친 한 통의 편지로, 서명이 “외로운 충성을 홀로 품은 자(孤忠獨抱人)”로 되어 있어 편지를 보낸 사람이 타이완을 지키려는 지사임을 암시한다. 발신자는 가능한 한 많은 독자에게 이 전보문을 보여주고자 했을 것이다. 비록 전보문 ‘일부 글자의 배치가 부득이하게 과격하지만’ 이는 확실히 타이완 인민의 충성을 반영하였기에 『신보』에서는 전문을 게재하기로 결정하였다.

1895년 6월 2일(음미년 5월 초 10일), 피시루이는 “『신보』에 실린 타이완 백성들의 포고(布告)를 보니 매우 가여웠다.” 그가 본 것은 상술한 전문임이 분명하다. 청일전쟁의 큰 상처로 국토가 분리되고, 백성들이 애통해하며, 패전한 고통이 지면에 생생하게 드러난다. 그 후 탕징송(唐景崧), 류용푸(劉永福)의 지도하에 타이완 군민은 저항 투쟁을 일으켰다. 많은 신문이 탕징송과 류용푸 등이 타이완에서 군중을 이끌고 펼친 저항운동을 추적하여 보도했으며, 여러 차례 류용푸가 계책을 세워 일본군을 크게 물리친 소식을 보도했으나, 그 내용은 과장된 것이 많았다. 선동성을 띤 이러한 뉴스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인이 처음에는 의심하고 염려했으나, 여러 번 뉴스를 접한 뒤에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이러한 보도가 당시 사람들의 민족감정의 수요를 만족시켜줬기 때문이었다.¹⁹ 피시루이 역시 타이완 군민들의 할양 반대 투쟁을 지속적으로 일기에 기술하였다. 6월 18일, 피시루이가 소식을 접하고 “타이베이(臺北)가 함락되었고 한간(漢奸)이 가득하며, 관아에 불을 지르니 타이완을 지킬 수 없을까 우려된다. 모두가 말하길, 멸망은 스스로 불러오는 것이라고 한다.” 9월 9일, “듣자하니 타이완 소식이 좋지 않다. 타이중(臺中)도 다시 함락되었으며, 타이완의 3분의 2를 잃었다. 류 대장(류용푸)은 장차 전횡(田橫, 기원전 250~202년의 인물)이 될 것인가?” 10월 19일, 류용푸 등 여러 인물이 타이난 최후의 거점인 안핑(安平) 포대에서 독일 상선에 올라 샤먼(廈門)으로 향하였다. 타이완 전역은 함락되었고, 청일전쟁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19 蔣建國, 2024, 앞의 책, 185~186쪽.

청일전쟁 참패는 중국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으며, 중국인들이 일본과 세계를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기도 하였다. 피시루이 역시 일본과 관련된 사리를 이해하게 되었다. 1895년 6월 23일, 피시루이가 “『일본외사(日本外史)』를 보고 그 나라에 법황(法皇), 상황(上皇), 제(帝)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천자가 동시에 이렇게 여러 명이라니, 기이하였다. 그리고 겐지(源氏)와 헤이지(平氏)가 병권을 쥔 채 서로 싸우던 이래 황제를 두고 다투었는데 이는 중국의 조조(曹操)와 사마의(司馬懿) 시기 국면과 같았으나, 황제를 죽이거나 폐위시키지만 찬탈은 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다른 점이다.” 다음 날, 피시루이는 『일본외사』를 다 읽고 나서 일기에 “국풍은 춘추 시대와 유사한데, 황제가 여러 명이나 유명무실하였고, 후지와라(藤原)가 외척 세력으로서 국정을 장악하여 재상의 가문(相門)이라 불렸고, 겐지와 헤이지 두 가문은 병권을 맡아 장군의 가문(將門)이라 불렸다”고 썼다. 7월 30일, 친구가 “일본의 오카 로쿠몬(岡千仞)이 쓴 『존양기사보유(尊攘紀事補遺)』”를 보내왔다. 피시루이는 일기에 “이 책은 미국과 러시아 군함이 무고하게 압박한 뒤, 낭인(浪人)들이 존양양이(尊攘)를 말하며 강국이 될 수 없는 것을 쇼군의 탓으로 보고, 각 번(藩)에서 의거를 일으켜 막부의 권력을 빼앗아 국왕에게 귀속시키고 변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라고 작성하였다. 8월 11일, 피시루이는 『만국공법(萬國公法)』을 읽고 이 책이 “이론과 실재를 모두 갖추었기에, 여러 강대국과 약소국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이 법에 의지하기 때문인 것을 비로소 알았다. 중국은 이 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저들이 꼭 배제한 것만은 아니고 중국이 스스로를 크다고 여겨서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법을 활용할 수 있다면, 현재(의 문제)를 조금은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았다. 일찍이 1864년에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마틴(William A. Martin, 중국명 丁韞良)이 미국의 외교관이자 국제법학자인 헨리 휘튼(Henry Wheaton)의 『국제법의 원리(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번역하여 『만국공법』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바 있다. 이 책은 청말 지식인 엘리트 사이에서 비교적 널리 전파되었다.²⁰ 그러나 남방의 사인인 피시루이가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책이 간행된 지 30년 뒤의 일이

었다. 한 연구는 피시루이가 1890년대가 되어서야 중국인의 서양 여행기와 서양 서적 번역본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²¹ 이로써 알 수 있듯, 서양의 신식 지식이 청말 중국에서 유통되고 전파되는 과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빠르지 않았다. 10월 10일, 피시루이는 친구와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지금 중국은 자립할 수 없다. 만약 외국의 공법(公法: 국제법) 체계 안에 들어간다면 잠시나마 평안할 수 있을까?” 친구는 “민주(民主)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답하였다. 피시루이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민주’라는 단어는 전통시대 중국에서는 대체로 ‘백성의 주인(民之主)’을 뜻했으나, 근대 중국에서는 서양의 신식 학설의 수입과 전파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었다. 예를 들어 『만국공법』에서 여러 차례 ‘민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에서 ‘민주’는 ‘백성이 주인(民是主)’이라는 의미였다. 이처럼 ‘민주’의 의미는 점차 서양식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의미하게 되었다.²²

VI. 맺음말

상감변계에서 생활하던 만청 사인 피시루이(皮錫瑞)가 남긴 일기 사료를 통해, 중국 남방 한 사인이 이해하고 느낀 청일전쟁을 고찰해볼 수 있었다. 피시루이가 청일전쟁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조선에서 전쟁이 발발한 지 2~3개월이 지난 뒤였다. 그는 전쟁 관련 배경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는 당시의 많은 중국 사대부들이 세계정세와 일본의 상황에 대해 무지하였음을 반영한다. 그의 일기

20 賴駿楠, 2015, 『國際法與晚清中國: 文本, 事件與政治』, 上海人民出版社, 99~102쪽; 123쪽.

21 吳仰湘, 2002, 앞의 책, 97쪽.

22 熊月之, 2002, 『中國近代民主思想史』,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8~9쪽; 狹間直樹, 2002, 「對中國近代“民主”與“共和”觀念的考察」, 中國史學會編, 『辛亥革命與20世紀的中國』下冊, 中央文獻出版社.

를 종합해보면 전쟁 소식을 접한 경로는 주로 두 가지로, 친구와의 인적 네트워크와 간행물 『신보』를 읽는 것이었으며, 때로는 두 경로를 번갈아가며 접하였다. 청일전쟁 초기에는 청류파가 주도하는 주전파 사대부들이 리홍장과 회계(淮系) 세력을 대대적으로 공격하였다. 전선에 있던 회군이 패배할 때, 청 조정과 주전 사대부들은 상군에게 기대를 걸었다. 그들은 회군 이외의 지방 대신과 장군들, 특히 상군(湘軍) 장령들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는 전국적 여론에 영향을 주었는데 피시루이 또한 이 영향을 받은 인물 중 하나였다. 이에 더해 피시루이는 후난 출신 사인으로서 리홍장을 필두로 한 회계 세력에 대하여 자연스레 ‘편견’을 가졌다. 피시루이의 일기에서 리홍장과 회계 세력에 대해 경시하는 언사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상군 장령, 특히 류쿤이 등의 인물에게 기대를 걸고 그들의 행군과 전황에 주목하였다. 청일전쟁 중 청 조정은 군대를 잃고 영토를 빼앗겨 강제로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하면서 영토를 할양하고 배상금을 지불했으며, 주권을 상실하여 국가의 권위가 침해되었다. 전후 국토의 분할, 백성의 애통함, 패전의 고통이 그의 일기 속에 심도 깊게 드러난다. 청일전쟁 참패는 중국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으며, 중국인들이 일본과 세계를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기도 하였다. 피시루이는 이후 『일본외사』, 『존양기사보유』, 『만국공법』 등의 서적을 열람하며 중국이 “민주(民主)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의 문제를 고찰하고, 일본과 세계 관련 사건들을 다방면으로 이해하였다.

청일전쟁 패배로부터 3년 뒤, 량치차오(梁啟超)는 『무술정변기(戊戌政變記)』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중국이 “4,000여 년의 큰 꿈에서 깨어난 것은 실로 청일전쟁 패배, 타이완 할양, 2억 냥의 배상 이후 비로소 시작되었다.”²³ 당시의 많은 중국 사인을 살펴보면, 확실히 그러했다. 피시루이는 그중 한 명이었다. 청일전쟁의 참패를 계기로 피시루이는 “강렬한 경세(經世) 경향의 구식 사인으로

23 『戊戌政變記』, 湯志鈞·湯仁澤 編, 2018, 『梁啟超全集』第1集, 中國人民大學出版社, 478쪽.

부터 열린 사상을 가진 유신운동의 선전가 및 활동가로 변화하였다.”²⁴ 청일전쟁의 참패가 불러일으킨 중국 사인들의 심리적 격변은 이후 중국에서 일련의 변혁을 촉발하게 되었다.

24 吳仰湘, 2002, 앞의 책, 95쪽.

참고문헌

자료

- 上海圖書館 編, 1989, 『汪康年師友書劄』 第四冊, 上海古籍出版社.
- 梁啟超·未詳, 「戊戌政變記」, 湯志鈞·湯仁澤 編, 2018, 『梁啟超全集』 第1集,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吳仰湘, 2012, 『湖湘文庫·皮錫瑞集』, 嶽麓書社.
- _____, 2013, 『中國近代思想家文庫·皮錫瑞卷』,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_____, 2014, 『皮錫瑞全集』, 中華書局.
- 皮錫瑞 著, 吳仰湘 點校, 2020, 『皮錫瑞日記』 第1冊, 中華書局.
- 「錄臺灣紳民電稟原文」, 『申報』 1895年5月25日(光緒二十一年五月初二日), 第1版.
- 「外埠售報處」, 『申報』, 1882年7月1日, 第1版.

단행본

- 賴駿楠, 2015, 『國際法與晚清中國: 文本, 事件與政治』, 上海人民出版社.
- 穆藕初 著, 文明國 編, 2013, 『穆藕初自述』, 安徽文藝出版社.
- 石泉, 2023, 『甲午戰爭前後之晚清政局』, 三聯書店.
- 吳仰湘, 2002, 『通經致用一代師: 皮錫瑞生平和思想研究』, 嶽麓書社.
- _____, 2013, 『皮錫瑞的經學成就與經學思想』, 湖南大學出版社.
- 熊月之, 2002, 『中國近代民主思想史』,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 劉文明, 2024, 『全球性公共空間中的甲午戰爭: 以英美報刊輿論為中心的考察』, 商務印書館.
- 蔣建國, 2024, 『中國報刊閱讀史』 第1卷, 復旦大學出版社.
- 周永明 著, 尹松波·石琳 譯, 2013, 『中國網絡政治的歷史考察: 電報與清末時政』, 商務印書館.
- 陳寅恪, 2001, 「寒柳堂記夢未定稿(補)」, 『寒柳堂集』, 三聯書店.
- 戚其章, 2014, 『甲午戰爭史』, 上海人民出版社.

논문

- 姜晨, 2015, 「晚清士人的報刊閱讀-以孫寶瑄〈忘山廬日記〉和皮錫瑞〈師伏堂日記〉爲例」, 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
- 龔書鐸, 1994, 「甲午戰爭期間的社會輿論」, 『北京師範大學學報』, 1994年 第5期.
- 潘斌, 2011a, 「論皮錫瑞鄭學研究」, 『社會科學輯刊』, 2011年 第3期.
- _____, 2011b, 「皮錫瑞之易學觀」, 『周易研究』, 2011年 第3期.
- 吳仰湘·楊豔萍, 2004, 「〈師伏堂日記〉所見皮錫瑞之經學觀」, 『湖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4年 第6期.
- _____, 2007, 「皮錫瑞〈經學歷史〉並非經學史著作」, 『史學月刊』, 2007年 第3期.
- _____, 2022, 「皮錫瑞〈經學通論〉成書過程及初稿本述略」, 『古典文獻研究』, 2022年 第2期.
- 王然怡, 2022, 「晚清士紳皮錫瑞研究(1892-1908)」, 河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劉嶽兵, 2023, 「近代湘學與京都中國學-從皮錫瑞到狩野直喜, 小島祐馬」, 『南開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23年 第3期.
- 李堅, 1997, 「甲午戰爭時期報刊輿論與社會變遷」, 『華東師範大學學報』, 1997年 第2期.
- 李慧, 2005, 「〈申報〉對中日甲午戰爭的回應」, 四川大學碩士論文.
- 蔣建國, 2018, 「二十世紀初鄉紳的報刊閱讀與觀念世界-以張綱, 皮錫瑞, 劉大鵬爲例」, 『高效圖書館工作』, 2018年 第1期.
- 丁利, 2020, 「皮錫瑞山長的書院生活」, 湖南大學碩士學位論文.
- 程彥霞, 2018, 「晚清民初湘籍士人的日記與私人閱讀」, 『圖書館』, 2018年 第11期.
- 井澤耕一·橋本昭典, 2020, 「從〈經學歷史〉的創作過程看皮錫瑞的經學史觀-手稿本和通行本的比較」, 『中國經學』, 2020年 第1期.
- 陳鵬, 2004, 「甲午戰爭期間的〈申報〉輿論」, 華東師範大學碩士論文.
- 戚其章, 1984, 「建國以來中日甲午戰爭研究述評」, 『近代史研究』, 1984年 第4期.
- _____, 1994, 「甲午戰爭研究一百年的回顧」, 『歷史教學』, 1994年 第7期.
- _____, 2000, 「中日甲午戰爭研究的世紀回顧」, 『歷史研究』, 2000年 第1期.
- 狹間直樹, 2002, 「對中國近代“民主”與“共和”觀念的考察」, 中國史學會 編, 『辛亥革命與20世紀的中國』下冊, 中央文獻出版社.

청일전쟁

- 중국 남방의 한 사인(士人)의 관찰과 사고 -

리짜이취엔(李在奎)

상감변계(湘贛邊境, 후난·장시 접경 지역)에서 생활하던 청말의 사인(士人) 피시루이(皮錫瑞)의 일기를 통해서 중국 남방의 한 사인이 이해하고 느꼈던 청일전쟁을 고찰해볼 수 있다. 피시루이가 처음 청일전쟁을 알게 된 것은 조선에서 전쟁이 발발한 지 2~3개월이 지난 후였다. 그는 전쟁의 배경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이는 당시 중국 사대부(士大夫)들이 세계정세 및 일본의 상황에 대해 무지하였음을 반영한다. 피시루이가 전쟁 소식을 접한 경로는 두 가지였다. 첫째, 친구와의 인적 네트워크이고, 둘째, 『신보(申報)』와 같은 간행물의 열람이었다. 전쟁 초기, 청류파(清流派)를 중심으로 한 주전파 사대부들은 리홍장(李鴻章)과 회계(淮系)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그들은 회군(淮軍)이 패배하자 회군 계열 이외의 지방 대신과 장군들, 특히 상군(湘軍)의 장령들에게 희망을 걸고 그들에게 의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는 여론에 영향을 주었고 피시루이 또한 이 영향을 받은 인물 중 하나였다. 피시루이는 후난(湘) 출신 사인으로 자연스럽게 리홍장을 필두로 한 회계 세력에 대한 ‘편견’을 가졌으며,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상군 장령들, 특히 류쿤이(劉坤一) 등 인

물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으며, 그들의 행군과 진황에 주목하였다. 청일전쟁 패배, 영토 할양, 전쟁배상금과 백성들의 통곡 등 패전의 고통은 피시루이의 일기 속에서 심도 깊게 드러나는데, 이는 그가 일본과 세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청일전쟁 참패로 인해 촉발된 중국 사인들의 심리적 격변은 이후 중국에서 일련의 변혁을 불러일으켰다.

주제어: 청일전쟁, 청말 정국, 상군(湘軍), 회군(淮軍), 인적 네트워크(人際網絡), 『신보(申報)』, 피시루이(皮錫瑞)

ABSTRACT

The Sino Japanese War of 1894~1895: Observation and Reflection of a Scholar in Southern China

Li Zaiquan

Through the diary of Pi Xirui(皮錫瑞), a late Qing scholar living between Hunan(湖南) and Jiangxi(江西), we can examine the understanding and feelings of a scholar in southern China about the Sino Japanese War of 1894-1895. Pi Xirui first learned about the Sino Japanese War two to three months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He was not familiar with the background of the war, which also reflected the ignorance of Chinese literati about the world situation and the situation in Japan at that time. There are two main channels for Pi Xirui to obtain war information: friendship and interpersonal networks; Read newspapers and magazines, mainly 'Shenbao'(『申報』). In the early stages of the war, Officials of the main battle faction launched a massive attack on Li Hongzhang(李鴻章) and the Huai clique forces. As the Huai army(淮軍) was defeated, they made every effort to win over the generals and

officials outside the Huai army, especially the Hunan army(湘軍) generals, placing their hopes on the Hunan army. This political atmosphere has influenced Chinese public opinion, and Pi Xirui is one of the people affected by it. Pi Xirui, a scholar from Hunan, naturally had a strong prejudice against the Huai clique led by Li Hongzhang and expressed strong dissatisfaction. At the same time, Pi Xirui also hoped that the generals of the Hunan Army, especially Liu Kunyi(劉坤一) and others, would pay attention to their marching and battle situation. The defeat in the Sino Japanese War of 1894-1895, the cession of land and compensation, and the cries of the people deeply reflected the pain of defeat in Pi Xirui's diary, which also prompted Pi Xirui to learn more about Japan and the world. The psychological upheaval among Chinese scholars triggered by the defeat in the Sino Japanese War of 1894-1895 triggered a series of changes in China thereafter.

Keywords: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political situation in late Qing Dynasty, Hunan Army(湘軍), Huai Army(淮軍), interpersonal network, 'Shen Bao(申報)', Pi Xirui(皮錫瑞)

청일전쟁기 조선 진하사

— 최초의 성수절 경하와 최후의 대청사행

손성욱 | 창원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 I. 머리말
- II. 성수절 진하사의 기원
- III. 선전포고 전야의 사행
- IV. 공로의 변경: 의주에서 천진까지
- V. 존호 가상과 육순 대경 의식
- VI. 진하사의 삼절연공사 겸행
- VII. 귀국: 사신에서 '표류민'으로
- VIII. 맺음말



I. 머리말

19세기 말, 동아시아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1882년 중국과 조선이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한 이후 1895년 청일전쟁이 끝날 때까지, 양국 관계는 전통적 책봉-조공 관계와 근대적 조약 관계가 병존했다. 유길준이 ‘양절체제’라¹ 부른 이 체제하에서 조선을 둘러싼 청과 서구 열강 및 일본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심화되었다. 결국 1894년에 청일전쟁이 발발했다.

1895년 4월 청과 일본이 체결한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청일전쟁은 막을 내렸다. 이 조약의 제1조는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자주독립을 훼손하는 청국에 대한 조선국의 공헌(貢獻)·전례(典禮) 등은 장래에 완전히 폐지한다”²고 명시하여, 조청 간 책봉-조공 관계를 종식시켰다. 그러나 이 역사적 전환점에 조선의 마지막 사신단은 여전히 청나라 땅을 밟고 있었다. 1894년, 자희태후의 육순 대경을 경하하기 위해 파견된 진하사가 바로 그들이었다. 전쟁 발발 직전 출발한 그들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자희태후의 성대한 육순 대경과 대조적으로, 그들은 청나라의 연이은 패배와 중화질서의 붕괴를 목도하며 전통적 조청관계의 종식을 경험했다. 청과 조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 진하사는 조청관계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존재가 되었다.

임준철의 「대청 사행의 종결과 마지막 연행록」이 최후의 진하사에 주목

* 투고: 2024년 10월 15일, 심사 완료: 2024년 11월 6일, 게재 확정: 2024년 11월 11일

** 2024년 11월 30일~12월 1일 중국 산둥대학에서 개최된 ‘甲午戰爭與近代國際秩序的嬗變-紀念甲午戰爭130周年 國際學術研討會’(濟南)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俞吉浚, 1995, 『俞吉浚全書』 第4冊, 一潮閣, 117쪽.

2 최덕수 외, 2010,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328쪽.

했다. 이 글은 문학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부사의 수행원으로 사행에 참여한 김동호(1860~1921)의 『연행록』³을 중심으로 저자를 고증하고, 사행 여정을 간략히 서술했다. 그리고 김동호의 『연행록』과 이전의 연행록의 차이점을 논하고, 최후의 연행록이 갖는 세계 인식의 한계와 글쓰기의 취약성을 지적하면서도 당대 문학적·문화적 변화 속에서 동아시아 질서 변화에 대한 사실적 기록으로서의 의의를 짚었다.⁴ 필자는 2014년 중국 『역사당안(歷史檔案)』에 발표한 「清代朝鮮最後赴京使團考」에서 임준철의 연구를 기반으로 관찬사료를 적극 활용하여 사신단의 공적 임무를 고찰하고, 기존 사행과 공로의 변경, 진하사의 삼절연공사 겸행, 회동관 거주 부분 등에서 차이점을 밝혀 전통적 초청관계에서 최후의 사신단이 갖는 의미를 밝혔다.

이 글에서는 전작의 바탕 위에 주목하지 못했던 최초의 성수절(聖壽節) 경하라는 측면을 확장해 접근하고자 한다. 1894년에 파견된 진하사는 전통적 조공관계에서 파견된 ‘최후’의 사신단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 하지만 그 사행은 청대 황태후의 성수절에 파견된 최초의 사행이기도 했다. 초청관계에서 유사한 최초의 사례는 건륭제 칠순 성절에 맞춰 파견된 진하사가 있다. 삼절연공행을 보내기에 조선은 황제의 성절에 맞춰 사신을 보낼 의무가 없으나, 정조는 특별히 진하사를 파견했다. 이에 건륭제는 기꺼워하며 그들을 열하로 불러들였다. 이는 당시 초청 간 우호적 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자희태후 성수절 진하사는 정반대 상황에서 파견되었다. 조선은 진하사 파견 얼마 전 청에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원군을 요청했지만, 이전 10년간

3 김동호(金東浩, 1860~1921), 자는 진종(振宗), 호는 하일(荷一)이며, 본적은 안동(安東)이다. 그는 1894년 7월, 진하 겸 사은 부사의 수행원으로 사행에 참여하였으며, 사행 기록으로 『연행록』을 남겼다. 이 『연행록』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며, 부산대 윤용출 선생이 『부대사학』에 영인하여 소개하였으나, 당시에는 이 책의 저자를 밝히지 못했다. 윤용출, 1983, 「〈연행록〉 解題」, 『부대사학』 7, 267~297쪽. 저자 고증에 관해서는 임준철의 「대청 사행의 종결과 마지막 연행록」 참조.

4 임준철, 2008, 「對淸使行之 종결과 마지막 연행록」, 『민족문화연구』 49, 141~172쪽.

원세개의 간섭으로 양국 관계는 원만하지 못했다. 이런 시기에 조선의 성수절 진하사 파견은 1882년 이후 전통적 조청 관계의 변동 시기에 변하지 않고 지속된 조공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 글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사대’의 영역인 진하사에 관여하게 되는 주진공관의 역할에 주목한다. 주진공관은 1882년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을 통해 변동된 조청 간 근대적 사무를 담당하는 공간이었다. 주진공관은 조선이 사대하는 공간인 청국에 설치되었지만, 그 사무는 사대의 사무와 거의 무관했다.⁵ 주진공관이 사대를 구현하는 사신의 사무에 관여하게 된 것은 위급한 시기의 임시방편을 넘어, 변동으로 구분하고 지키고자 했던 전통적 관계와 근대적 관계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었다. 청의 조선을 향한 의례 영역에서는 이미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지만,⁶ 조선의 청을 향한 영역에서는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이는 ‘양절체제’기 근대적 사무의 비중이 늘어나고 전통적 사무가 점차 형해화되면서 전통적 관계를 근근이 유지해 주던 축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에서는 「清代朝鮮最後赴京使團考」를 대폭 확장하여 성수절 진하사 파견 논의로부터 시작하여 전쟁 발발 직전의 사행, 공로의 변경, 자희태후 존호 가상과 육순 대경 의식, 진하사의 삼절연공사 겸행, 사

-
- 5 森万佑子は 주진공관 연구를 통해 “친진은 조선과 중국의 관계로 보면 사대의 현상이며, 조선과 각국의 관계로 보면 교린 혹은 외교의 현상이었다”고 주장한다. 森万佑子, 2020, 「駐津督理通商事務의 활동을 통해서 본 事大와 交隣의 교착 - 『舊韓國政府外交文書綴』第三冊~第五冊의 分析-」, 『韓國史學報』 79, 251쪽. 하지만 필자는 주진공관의 사무를 사대의 영역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전통적 관계의 ‘변동’으로 만들어진 근대적 사무 영역으로, 의례를 통해 친하질서를 구현하는 메커니즘인 사대와는 다른 영역에 존재하며, 주진공관은 청이 제공하여 북경에서 조선 사신이 머무는 ‘회동관’과 병립하는 공간으로, 유길준의 용어를 빌려 얘기하면 공간적 ‘양절체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손성욱, 2016, 「清代 朝鮮使館으로 본 淸·朝관계 -會同館에서 駐淸公使館으로-」, 『동국사학』 60, 237~246쪽 참조.
 - 6 손성욱, 2022, 「19세기 지속된 전통적 朝·淸 관계의 의미」, 『중국근현대사연구』 93, 15~16쪽.

신이 아닌 표류민 신분으로 귀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한·중·일의 사료를 적극 활용하여 세세하게 밝혀내고, 청일전쟁기 전통적 조공 관계가 종식에 이르는 과정의 일면을 최후의 진하사를 통해 조망할 것이다.

II. 성수절 진하사의 기원

1894년 2월 조선은 자희태후 육순 대경과 존호 가상을 축하하기 위해 진하사 파견을 결정했다. 조선이 청대 황태후 성수절에 보낸 최초의 별사였다. 하지만 황태후의 성수절 진하사 파견 논의가 처음은 아니었다.

1874년은 자희태후의 사순이 되는 해였다. 1874년 5월 15일, 청에서 돌아온 삼절연공사가 고종에게 복명했다. 서장관 이호익은 문견별단에서 금년 “시월 십일일(음력)” 자희황태후의 사순 성수절을 맞아 존호를 가상하고 의식을 올릴 것이며 여러 외번 사신이 진하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⁷ 이에 고종은 정사 정진조에게 진하사를 파견해야 한다며, 청의 자문을 기다려야 하는지 상관 없이 파견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정진조는 “대략 조정 인사의 말을 들으니, ‘황상이 친정한 뒤로 황태후에게 처음 있는 경사이니, 의식이 의당 굉장할 듯합니다. 정해진 사안에 대해 자문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귀국(조선)은 마땅히 진하를 표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예부의 통지를 기다려 전례에 따라 행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⁸라고 답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예부에서 관련 자문은 오지 않았다. 고종은 6월 18일 일강 때 이 문제를 다시 꺼냈다. 영의정 이유원은 “경축에 관한 글들이 경보(京報)에 상세히 실렸는데, 종전에는 이와 같은 때에 자문에 의한 통보를 기다리지

7 『日省錄』, 고종 11년 3월 30일 壬申.

8 『承政院日記』, 고종 11년 3월 30일 壬申, “略聞朝士之言, 皇上親摠後, 爲皇太后初有之慶, 則儀節似當張大, 而姑無頒咨議定之事, 然貴國當有進賀之舉云, 故臣以待禮部知會, 而按例行之爲言矣.”

않고 진하사를 차송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신을 차송하여 때늦지 않게 하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⁹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종은 진하사 파견을 위한 표문과 방물 준비를 명했고, 실제로 작업이 진행되었다.¹⁰ 그러나 표문의 문구는 의식과 표식에 대한 예부의 통보가 있어야만 정할 수 있었다. 사신이 파견된 이후에는 표문의 수정이 어렵기에, 예부의 통지가 늦어지면 자희태후 성수절 의식에 맞춰 참석하기 어려웠다. 7월 21일에 이르러 조선 조정은 청 예부에 경하 표식을 요청하는 자문을 보냈다.¹¹ 이에 예부는 존호 가상이 없다며 회자문을 조선에 발송했으며,¹² 결국 조선의 진하사 파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은 청의 통보를 기다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진하사 파견을 준비했다. 사신들의 활동으로 정보를 입수한 후 선제적으로 준비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존호 가상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은 부정확한 정보였다. 자안태후가 있는 상황에서 자희태후에게만 존호를 가상하기 어려웠다.¹³ 그럼에도 조선이 진하사 파견을

9 『承政院日記』, 고종 11년 5월 5일 丙午, “稱慶文蹟詳載於京報, 而從前如此之時, 不待咨通, 差送賀使, 多有已例, 今亦差出使臣, 趁賀班入去, 果好矣.”

10 『承政院日記』, 고종 11년 5월 8일 己酉, 5월 25일 丙寅, 5월 30일 辛未.

11 『同文彙考』三 原編續, 進賀 五, 「[甲戌]請慈禧皇太后四旬慶賀表式頒示咨(同治十三年六月初八日)」.

12 『同文彙考』三 原編續, 進賀 五, 「禮部回咨(同治十三年七月二十三日)」.

13 자희태후가 존호를 받은 것은 총 7차례이며, 모두 자안태후와 함께 받았다. 동치 원년, 새 황제가 즉위하면서 처음 ‘자희’(慈禧)라는 존호를 받았으며, 동치 11년, 동치제가 대혼례를 올리면서 ‘단유’(端佑)라는 존호를 받았다. 동치 12년, 동치제가 친정을 시작하면서 ‘강의’(康頤)라는 존호를 받았다. 동치 13년, 동치제가 ‘천화(天花: 천연두)’에 걸렸을 때 황태후가 세심하게 보살펴주었기에 존호를 올리려 했으나, 동치제가 곧 붕어하면서 의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광서제 즉위 때 함께 이루어졌다. 광서 2년, 새 황제가 즉위하면서 동치 13년 가상하려 했던 존호와 합쳐 ‘소예장성(昭豫莊誠)’이 가상되었다. 광서 15년, 광서제가 대혼례를 올리면서 여섯 번째로 ‘수공’(壽恭)이라는 존호가 가상되었다. 같은 해 광서제가 친정을 시작하면서 일곱 번째로 ‘흠헌’(欽獻)이라는 존호를 받았다. 자희태후의 존호에 관해서는 萬依, 1986, 「關於慈禧太後的稱號」, 『文獻』 1986年 第2期 참조.

시도했다는 사실은 자희태후의 권력이 그만큼 강력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서양 세력이 북경까지 침투한 후 조선에 대한 압박이 점점 강해지는 상황에서 조선이 그만큼 청과의 관계를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진하사 파견에 의견을 제시한 이유원이 다음 해 1875년 주청사로 청에 사행을 갔을 때 이홍장과의 접촉을 시도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¹⁴

20년 전 논의됐던 성수절 진하사 파견은 자희태후 육순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자희태후의 육순 대경과 존호 가상에서 청 황실의 상황은 1874년과 달랐다. 1893년에 들어서 광서제는 황태후의 환갑을 맞아 황제가 백성과 함께 축하하며 대경을 신중히 준비하도록 명했고, 1893년 2월 1일 자희태후는 대경 의식을 전례에 따라 준비하라고 명을 내렸다. 광서제 역시 내무부에 건륭 연간 황태후의 칠순 및 팔순 성수절 전례와 건륭제의 칠순과 팔순 만수절 전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예부는 황태후의 성수절을 맞아 존호를 가상한 기록을 찾아냈고, 건륭 16년에 황태후의 육순, 건륭 26년에 황태후의 칠순, 건륭 36년에 황태후의 팔순 성수절에 모두 존호를 가상하는 의식을 거행했다고 보고했다. 자희태후의 육순 대경은 이와 같은 전례가 있기에 명분을 갖추어 진행되었다.¹⁵

청 황실과 조정은 자희태후의 육순 대경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청 예부는 1893년 4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조선에 수차례 자문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다.¹⁶ 광서제가 조서를 반포한 것은 아니었다. 예부가 조선에 진하사 파견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조선은 예부의 자문만으로도 청이 얼마나 자희태후의 육순 대경을 중시하는지 알 수 있었다. 청은 명시적으로 조선에 진하사 파견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1894년 2월 조선은 진하사 파견을 결정했다.

14 鄭埜謨, 2012, 「李裕元の 乙亥燕行과 江華島條約」, 『동방한문학』 52, 100~112쪽.

15 자희태후의 육순 대경과 존호 가상 의식 거행 결정에 대해서는 翟金懿, 2016, 「甲午年慈禧太後崇上徽號儀式」, 『歷史檔案』 2016年 第2期, 131~132쪽 참조.

16 『承政院日記』 고종 30년 3월 5일 丁亥, 4월 3일 乙卯, 6월 5일 乙卯, 12월 4일 壬子; 고종 31년 1월 12일 庚寅.

조선의 파견 결정은 20년 전 논의된 전례(前例)가 있었기에 이례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1890년 청의 신정왕후 문상을 위한 칙사 파견과 조선이 르젠드르를 외국인 고문으로 고용하여 외국 차관을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조선은 청과 갈등을 빚었다. 이는 일시적 마찰이 아니라 갑신정변 이후 원세개가 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에 임명되어 간섭을 강화하면서 심화된 갈등이었다. 1890년대 초 고종의 외국 차관 도입 시도가 무산되고 청으로부터 추가 차관을 도입하며 조선은 청에 더욱 ‘중속’되었다. 조선의 입장에서 청과의 마찰만 능사가 아니었다.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이전에 비해 조공 의식은 점차 허례화되었지만, 사신은 우호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매개였다.

최초의 성수절 진하사의 정사로는 이승순, 부사로는 조병우, 서장관으로는 권연이 임명되었다.¹⁷ 9월 4일 존호 가상 의식이 열리고 11월 7일에 육순 성수절 의식이 열린다고 통보받았기에, 조선 조정은 5월 중순에 7월 초 진하사 출발을 결정하고 아직 받지 못한 표식을 예부에 요청했다.¹⁸ 5월 28일 조선은 부사를 민영철로, 서장관을 이유재로 교체했다.¹⁹

당시 동학농민전쟁이 한창으로 조선 조정은 동학농민군의 기세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5월 들어 고종은 청에 원병 요청의 의지를 내비쳤다.²⁰ 조정에서 논의가 분분했지만, 5월 하순 구원 요청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²¹ 결국 원세개에 적극적으로 출병 요청을 하였으며,²² 원세개는 진주성이 동학농민군에 함

17 『高宗實錄』, 高宗 三十一年, 正月 十二日 庚寅 條.

18 『承政院日記』, 高宗 31년 4월 13일 己未;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72, 『清季中日韓關係史料』 6,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3311쪽.

19 『承政院日記』, 高宗 31년 4월 24일 庚午.

20 『高宗實錄』, 高宗 30년 3월 25일 丁未.

2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7~18, 345~346쪽.

2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59~260, 532쪽, “惠堂曰 上國小國ト(清·朝兩國) 痛痒一體ノ間ナリ 危急ノ端アリト雖モ全ク大人助援ノ厚意ヲ恃ムノミ.”

락된 다음 날인 6월 1일 이홍장에게 전보를 보내 출병을 요청했다.²³

고종의 요청은 그가 예상치 못한 사태를 초래했다. 청 정부는 조선에 원군 파견을 결정하고, 1885년 중일 ‘친진조약’에 따라 일본 정부에 파병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일본도 즉각 움직였다. 일본 정부는 6월 2일 자국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조선 파병을 결정했다. 6월 8일 청군이 아산만에 도착했고, 다음 날인 6월 9일 일본군 혼성 제9여단 선발대 400여 명이 인천에 상륙했다.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는 해군 육전대와 경시청 순사를 이끌고 한성에 입성하여 용산 만리창에 주둔했다.²⁴ 순식간에 조선은 청일 양국 군대가 대치하는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었다. 청과 일본 정부가 철병 문제를 협의하고, 러시아와 영국이 중재를 시도했으나, 일본은 전쟁을 불사하고 출병하였기에 양국 간의 갈등은 격화되었다.

1894년 6월, 고종은 불안정한 조선의 정세를 우려하며 친진을 통해 청에 의지하고자 했다. 주진공관의 서상교를 통해 이홍장에게 보낸 전보에서, 고종은 일본의 군사적 압박을 상세히 전달했다. 전보에서 고종은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가 8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서울로 진입했으며, 인천에 정박한 병선 또한 많습니다”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일본은 “남쪽의 도적이 평정되면 곧 철수할 것”이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동학농민군 진압 후에도 철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도리어 일본 공사는 아산에 주둔한 화병(華兵)은 왜 철수하지 않았으며느냐고 물으며 매우 이상하게 여깁니다”라며 청군 주둔을 문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²⁵

23 駱寶善·劉路生 主編, 2013, 「致北洋大臣李鴻章電(光緒二十年四月二十八日, 1894年6月1日)」, 『袁世凱全集』第9卷, 河南大學出版社; 顧廷龍·戴逸 主編, 2008,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一日辰刻)」, 『李鴻章全集』15, 安徽教育出版社, 44쪽.

24 檜山幸夫, 2022, 『日清戰爭の研究』上卷, ゆまに書房, 337~350쪽.

25 王爾敏·吳倫霓霞 合編, 1993, 『清季外交因應函電資料』,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217쪽, “日本聞我請援中國之事, 藉托保護公館, 保護商民, 日本公使大鳥帶兵八百, 入來都下, 且仁港到泊兵船亦眾, 故照詰以無名, 則日本公使答

성선회는 이홍장에게 보고하여 논의한 후 서상교를 만나 이홍장의 뜻을 전했다. 이홍장의 답변은 신중했다. 전주가 수복되었기에 청군의 철수가 가능하다면서도 일본이 한성과 인천에 각각 2,000명, 4,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조선의 내정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홍장은 일본 정부에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광서 11년 조약(천진조약)’에 따라 양국에 동시에 철군하자고 요청했으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은 조선의 태도를 예의주시했다. 성선회는 서상교에게 조선 국왕의 전보를 읽어보니 청군이 먼저 철군하길 바라는 거 같으면서 청은 조선을 형제처럼 여기며 다툼을 일으킬 생각이 없지만, 청이 먼저 철병하면 일본이 원하는 바대로 되는 것이니 그럴 수 없다고 밝혔다. 원세개가 이미 수차례 파병을 요청했으나, 철군 협상으로 파병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만약 일본이 철군을 거부하면 청은 군사를 더 파병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왜(倭)와 병력을 비교하면 결코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의 명분에 대해서도 각국은 공론이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즉시 귀국 국왕에게 전신을 보내 진정하시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이 평정되었으니 보호가 필요 없다고만 말하고, 중국과 왜 양국 군대가 동시에 철수하도록 요청해 상민과 백성을 안정시키십시오. 그들이 듣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답해야만 합니다.²⁶

以「南匪剿平當撤還」云，今匪已魁戮黨逃，日本終不撤歸，且問駐牙山華兵何不撤歸？日本公使意甚訝怪，中堂想聞派兵，中堂若詰問日本政府，必無可答，而駐牙葉帥未渡，日本公使帶兵即欲上京，故結為挽止而告急，葉帥率兵駐牙，日兵尤無意撤歸，慮無所不到，民情大騷，後細述。”

- 26 王爾敏·吳倫霓霞 合編，1993，「盛宣懷致徐相喬筆談」，『清季外交因應函電資料』，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219쪽，“清季外交因應函電資料 219쪽。”倭比較兵力，決不我弱；且彼之理由，各國亦自有公論。閣下可即電復貴國王鎮靜爲要，只說匪平，無須保護，中倭兩國之兵請同時撤回，以安商民。彼亦未必聽從，但總須如此回復。”

고종이 청의 우선 철군을 원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청은 고종이 일본의 압박에 못 이겨 일본의 뜻대로 움직일까 크게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의 입장을 파악한 고종은 6월 25일 이홍장에게 서신을 보냈다. 고종은 청의 도움으로 전주를 수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남은 도적 수는 1,000명도 되지 않고 여러 고을로 도망가 지방 관리들이 회유하면 되니 청군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며 완곡하게 청군이 더 이상 진압에 나서지 말 것을 청했다. 그리고 일본군이 명분 없이 출병하여 조선 백성들이 크게 놀랐으며, 조선은 힘이 약해 일본군을 물리칠 수 없으니 신속히 방안을 마련해 주길 청했다.²⁷

사태는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일본은 집요하게 조선이 청의 속방인지를 외아문에 물었고, 7월 3일에는 오토리 게이스케가 조선 정부에 ‘내정 개혁방안강령’ 5조를 제출하여 조선을 압박했다.²⁸ 고종은 이날 다시 이홍장에게 전보를 보내 이 문제에 대해 원세개와 긴밀히 논의해왔으나 일본 서기관 스기무라 후카시가 찾아와 계속해서 일본의 요구에 답할 것을 다그쳤고,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선을 위협해 매우 분통하다는 내용을 전했다.²⁹ 이후 고종은 오토리의 압박이 점점 강해진다면서 이홍장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7월 11일에는 “어제 각국 공사들이 협의를 하고자 했으나, 일본 공사는 함께 모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본국(조선)이 위원을 파견해 회의할 것을 요청하여, 다시 오늘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이나 재촉하니,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제 회담을 했는데, 그들이 말한 수십 조항은 모두 내정에 관한 것이어서 통탄스럽습니다”³⁰라고 밝혔다.

27 王爾敏·吳倫霓霞 合編, 1993, 「朝鮮國王致李鴻章函(光緒二十年五月二十二日)」, 『清季外交因應函電資料』,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221쪽.

28 戚其章 主編, 1994, 「駐朝鮮國大鳥公使致陸奧外務大臣函」(1894년 7월), 『中日戰爭』第9冊, 北京: 中華書局, 61쪽.

29 王爾敏·吳倫霓霞 合編, 1993, 「徐相喬致盛宣懷函(光緒二十年六月初一日)」, 『清季外交因應函電資料』,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228쪽.

30 王爾敏·吳倫霓霞 合編, 1993, 「徐相喬致盛宣懷函(光緒二十年六月初十日)」, 『清季外交因應函電資料』,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235쪽, “昨日各國公使

진하사 파견을 결정한 1894년 2월부터 실제 출발일인 7월 13일까지, 조선을 둘러싼 정세는 급변했다. 동학농민전쟁의 발발과 이에 따른 청일 양국의 군사 개입은 전통적인 조공질서가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음을 알렸다. 청과 일본 양국의 군사력이 한반도에서 대치하는 가운데, 조선은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희태후 육순 진하사의 파견은 청과의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조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였다. 그러나 이미 조선을 둘러싼 청일 간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III. 선전포고 전야의 사행

7월 12일 삼사는 고종에게 사폐했다. 고종은 삼사에게 “지금 일본인이 한양에 와 머무르고 있다. 중국의 관리를 마주치면 의문을 풀고, 상황을 말하도록 하라”³¹고 명을 내렸다. 일본군이 한성에 주둔하고 일본의 압박이 점점 강해졌지만, 고종은 원세개와 협의하고 주진공관에 전보를 보내 이홍장과 소통하고 있었다.

진하사는 북경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리 유용한 외교 수단은 아니었다. 게다가 은밀한 사행도 아니었다. 오토리 게이스케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본국에 진하점사은사 이승순, 부사 민영철, 서장관 이유재가 자희태후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은 10만 냥을 가지고 육로로 북경에 간다고 보고하면서, “이번에 청나라에 사신을 파견하는 것은 비밀 서신을 북경 정부에 전달하여 조선이 상국에 대한 예를 변치 않겠다는

欲其會商矣，日本公使不願同會，請本國派員會議，更以今日爲約矣。日三督促，見困益甚，故不得已昨日會商，而彼言數十條，無非內政，甚可痛。”

31 『日省錄』, 高宗三十一年, 六月 十日乙卯 條, “見今日人, 來留京城矣. 若逢中州朝士, 釋然言其情形也.”

결의를 보여주려는 것이다”³²라고 설명했다. 진하사의 파견은 일본이 조선에 청과의 전통적 관계 단절과 ‘자주독립국’ 선언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청의 ‘속방’임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행위였다.

사신단의 출발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통상 사신은 국왕에게 사패하고 당일 출발하지만, 이번 사행은 다음 날 출발했다. 부사 민영철은 출발 전 용산의 묘소를 방문하였고, 이후 홍제원으로 가는 길을 잃어 용산창을 지나 만리창에 이르렀다. 하지만 일본군의 제지로 기영(畿營)으로 돌아가 영은문에 도착할 수 있었다. 더욱 위험한 순간은 영은문에서였다. 4~5명의 일본군이 사신단을 검문했고, 민영철은 왕명으로 평안도 등지에 간다고 답했다. 진하사 파견은 일본 공사가 알 정도로 ‘비밀’이 아니었지만, 검문 순간 사실을 숨겨야 할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일본군은 답변을 듣고 물러났다.³³

한성을 벗어난 후 사신단의 여정은 의외로 평화로웠다. 주요 거점인 황주, 평양, 숙천에서 방물을 점검하고, 전통적인 영접 의례가 이어졌다. 전쟁의 징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³⁴

그러나 철산에서 상황이 급변했다. 7월 29일 철산에 이르러 평양으로 진군하는 청군을 마주친 것이다. 6월 말 광서제는 일본의 출병과 조선 정부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다른 국가들의 중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거라 판단하고 이홍장에게 조선에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도록 명했다.³⁵

이홍장은 남로와 북로로 나누어 군대를 증파했다. 남로는 엽지초(葉志超)의

32 戚其章 主編, 1994, 「駐朝鮮國大鳥公使致陸奧外務大臣函」(1894년 7월), 『中日戰爭』, 中華書局, 71쪽.

33 金東浩, 1983, 『燕行錄』影印, 『金大史學』第7號, 296쪽.

34 金東浩, 1983, 위의 책, 296쪽.

35 顧廷龍·戴逸 主編, 2008, 『李鴻章全集』15, 安徽教育出版社, 372쪽;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2005, 「奉旨派兵往韓助剿是否足敷如需厚集兵力著酌量添調事」, 『清代軍機處電報檔彙編』第1冊,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6쪽.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산으로, 북로는 평양으로 향했다. 사신단이 마주친 청군은 북로의 마옥곤(馬玉崑)과 위여귀(衛汝貴) 부대였다. 위여귀의 성군(盛軍) 6,000명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7월 21일과 23일 당고(塘沽)에서 출발했다. 마옥곤은 의군(毅軍) 2,000명을 이끌고 7월 21일 여순에서 출발했다. 모두 대동구(大東溝)에 상륙한 뒤 구련성(九連城)으로 집결했다.³⁶ 7월 26일 마옥곤이 먼저 압록강을 건넜고, 위여귀는 7월 20일 봉천에서 출발한 좌보귀(左寶貴)의 3,500명 부대와 합류하여 7월 29일 도강했다.³⁷

삼사가 마옥곤의 진영에 통사를 보내 상황을 물어보니, “원세개는 남양 마산포에서 배를 타고 이미 연대로 돌아갔다. 나는 천진에서 병력을 이끌고 밤낮을 쉬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며, 곧 상황을 봐 평양으로 진군하여 (일본군을) 소탕할 것이다”³⁸라고 했다. 이것이 사신단이 한성 출발 후 들은 첫 전쟁 소식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더 큰 변화를 알지 못했다.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7월 25일 풍도해전이 있었으며, 7월 28일 성환전투가 있었으나 사신단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7월 30일, 진하사는 도착하자마자 청마랑(淸馬廊) 옆 전보국을 통해 상황을 알아봤다.³⁹ 의주전보국은 1885년 ‘조청전선조약’으로 제물포-서울-평양-의주를 잇는 서로전선이 가설되면서 세워진 것으로, 청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모두 불길했다. 8월 1일, 김동호가 삼사의 지시로 전보국에 가보니 이미 한성과의 통신이 끊겨 전보를 보낼 수 없었다. 통신이 가능한 곳은

36 顧廷龍·戴逸 主編, 2008, 「寄盛京軍督裕(祿)電(光緒二十年六月十五日)」, 『李鴻章全集』 24, 安徽教育出版社, 139쪽; 趙爾巽 等 撰, 1977, 『清史稿』 42(列傳第二百四十八), 中華書局, 12721쪽.

37 關捷 等 主編, 2005, 『中日甲午戰爭全史』 第2卷 戰爭篇 上, 吉林人民出版社, 330~351쪽 참조.

38 金東浩, 1983, 앞의 책, 295쪽, “袁世凱自南陽馬山浦承輪船已歸煙臺, 我自天津率兵晝夜兼程到此, 將轉向平壤觀機進剿云云.”

39 金東浩, 1983, 위의 책, 295쪽.

평양뿐이었다.⁴⁰ 8월 2일, 전주(電主) 장정계(張廷桂)는 러시아말 정보라며 섭사성이 아산포에서 왜군을 격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⁴¹ 그러나 다음 날에는 승패를 가리지 못했다는 소식으로 바뀌었다.⁴² 8월 5일, 김동호가 경성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보국에 갔으며, 천진에 있는 주진독리에게 전보를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다. 8월 16일에는 압록강 강변에 주둔 중인 청군 위가기가 김동호에게 “평양에서 청군이 대승을 거두고 일본군이 30리 물러났다”⁴³는 소식을 전했으나, 이는 전보국도 확인해주지 않은 정보였다. 진하사는 사실상 의주에 ‘고립’된 채 제한된 정보만 접할 수 있었다.

반면 평양과 천진의 조선 관원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김동호는 주진독리로부터 회신이 없다고 했지만, 주진독리 이면상은 진하사의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7월 말 진해관도 성선회에게 일본군이 이미 평양에 도착해 있으나 청군은 아직 수백 리나 떨어져 있는 위급한 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성절진하’는 군주를 섬기는 큰 의례인데 지금 의주에 도착한 진하사가 북경에 가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천명을 거스르는 계략으로 역적을 용납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⁴⁴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었다. 평양감사 민병석 역시 하루에 몇 번씩 전보를

40 金東浩, 1983, 앞의 책, 295쪽; 陳旭麓·顧廷龍·江熙 編, 1982, 「李毓森致盛宣懷函(光緒二十年六月十三日)」, 『甲午中日戰爭』上冊, 上海人民出版社, 41~42쪽.

41 金東浩, 1983, 위의 책, 295쪽; 陳旭麓·顧廷龍·江熙 編, 1982, 『甲午中日戰爭』上冊, 上海人民出版社, 45쪽, “平壤倭兵離平廿里撤回, 想因葉軍門打勝仗之故, 望再派聽差前探, 現有緊要電報, 平局萬勿撤.宜.”(六月二十八日去電, 1894.7.30.).

42 金東浩, 1983, 위의 책, 295쪽, “往於電局, 更問牙山事, 則答曰: 聶芝超統領與倭再戰, 未分勝負; 乘勝乘逐北, 趕至水原等地云.”

43 金東浩, 1983, 위의 책, 294쪽, “魏君言曰: ‘昨暮信報, 自平壤來清兵, 與倭兵交戰, 有大捷, 倭兵退陣三十里. 我亦有公事, 明曉業向平壤’云耳.”

44 陳旭麓·顧廷龍·江熙 主編, 2016, 『盛宣懷檔案資料』第一卷 甲午中日戰爭(下), 上海人民出版社, 488쪽.

보내며 청의 빠른 지원을 요청했다. 7월 29일 그는 “왜적의 상황은 그다지 우려할 것은 아니나, 그들이 이곳에 군대가 없다는 것을 안다면, 군함을 보산(保山)에 정박시키고 평양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긴급히 대비해야 합니다. 세 번의 전보를 읽지 않으셨는지 매우 의아하며, 답신을 기다리겠습니다”⁴⁵라며 전보를 보냈다. 이면상은 “어제와 오늘 일곱 통의 전보를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중당(이홍장)께서는 각 군에 엄중히 명령하여 신속히 전진하도록 지시했으며, 곧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산에서 엽군(葉軍)이 23일에 승리를 거두었으며, 수원으로 진격하려고 합니다. 큰 행운입니다. 원군(袁軍)은 아직 출발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빠른 출발을 도모 중입니다. 한성의 상황은 매우 참담하다는 소식을 듣고 깊이 가슴 아파합니다”⁴⁶라고 답했다.

이면상은 이홍장의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끌어내고자 노력했다. 그는 진해관도 성선회와의 면담에서 끊임없이 조선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성선회는 미온적이었다. 한성 수복을 위한 병력이 부족하고 일본 함선이 정박중이어서 해전이 힘들다는 이유였다.⁴⁷ 이는 광서제의 증병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홍장이 신중하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8월 1일 성선회와의 회의에서 이면상은 “주공(周公: 주북)은 가려 하지 않고, 원공(袁公: 원세개)도 서둘러 가지 않습니다. 대군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란이 점점 심각해지니 어찌 하오리까, 어찌 하오리까. 각하께서 가없이 여기서길 바라오니, 동국을 보호하는 것이 곧 상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선이 없다면 울타리를 치우는 것과 같고,

45 陳旭麓·顧廷龍·汪熙 主編, 2016, 위의 책, 484쪽, “倭情不過俄電所報而已, 須(雖)不足為慮, 然但彼探知此地無兵, 則泊輪船於保山二平壤亦難保矣. 此急機克圖預防. 至視三電禾覽否? 甚訝, 立候回示.”

46 陳旭麓·顧廷龍·汪熙 主編, 2016, 위의 책, 485쪽, “昨今七電並覽. 現奉中堂嚴傷各軍迅速前進, 似當不日到平. 刻閣牙山葉軍廿三已獲勝, 擬進紫水原, 萬幸. 袁軍姑未定期, 第圖速發. 京奇弟亦聞寒心痛哭, 各倉俱空, 甚悶.”

47 陳旭麓·顧廷龍·汪熙 主編, 2016, 위의 책, 486쪽.

입술과 이가 끊어질 것입니다. 이는 문병(門屏)을 해제하고 도적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살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⁴⁸라며 읊소했다.

평양과 천진에서 조선 관원들이 전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에서 의주의 진하사 일행은 뚜렷한 활동을 하지 못했다. 8월 1일 민병성이 이면상에게 보낸 전보에 따르면, 진하사는 의주 도착 후 청으로의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체류해야 했다.⁴⁹ 진하사는 언제 압록강을 건널 수 있을지 몰랐다. 전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으나, 의주에서는 예전처럼 영접이 이뤄졌다. 8월 17일 청군 40~50여 명이 기녀를 찾아 처소를 침범하여 기강이 해이한 청군을 목도하기도 했다. 의주에서의 일상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IV. 공로의 변경: 의주에서 천진까지

8월 19일, 진하사 일행이 마침내 압록강을 건넜다. 이면상은 8월 하순 성선회와 나눈 필담에서 8월 19일 진하사가 도강해 “우리 군주의 사대의 정성을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어”⁵⁰ 기쁘다고 전하면서, 예전처럼 출발한 사신단이 여러 차례의 검문과 지연을 겪은 끝에 가까스로 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의주에 막혀 있던 진하사는 도강 후 구련성⁵¹에 이틀을 머문 후 책문으로 갔다. 이후 산해

48 陳旭麓·顧廷龍·汪熙 主編, 2016, 위의 책, 486쪽, “周公不欲行, 袁公亦不趕緊去, 大師如未到, 而倭亂漸劇, 奈何, 奈何, 閣下俯憐也, 且保東即保上國也, 如無朝鮮, 殆同撤藩離而缺唇齒, 開門屏而防賊人也, 並此諒燭.”

49 陳旭麓·顧廷龍·汪熙 主編, 2016, 위의 책, 486쪽.

50 陳旭麓·顧廷龍·汪熙 主編, 2016, 위의 책, 175쪽.

51 청으로 입경하는 곳은 책문이었다. 일반적으로 사신단은 압록강 도강 후 책문에 들어가기 전 구련성 부근에서 노숙했다. 하지만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이후 상인들의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유민들이 압록강과 책문 사이에서 개간과 경작을 하면서 구련성은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책문의 역할도 구련성으로 옮겨졌다. 關亞新, 2014, 「清代鳳凰城邊門考」, 『北京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4年 第2期, 160쪽. 19세기 말 구련성의 변화한 모습은 陸軍參謀本部陸地測

관까지의 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⁵²

사신단은 9월 5일 산해관에 도착하여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산해관에서 북경으로 바로 가지 않고 기차를 갈아타고 천진으로 향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로 변경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이후 전통적 조청 관계의 변동이 이루어졌음에도, 조공 사무와 관련된 전례만큼은 철저히 유지되었다. 1883년 삼절연공행 부사 민중묵이 천진과 연대의 해관 사무를 조사하고 해로 귀국을 청했으나, 예부는 전례에 어긋난다며 거부했다.⁵³ 이후 모든 조공 사신은 변함없이 정해진 공로를 이용했다. 주진독리 남정철도 1884년 삼절연공행 부사로 파견되었을 때 북경 체류 중 천진을 방문해 주진독리 업무를 수행하고 이홍장과 회담까지 했으나, 귀국은 삼절연공행 부사로서 육로로 귀국했다.⁵⁴ 이처럼 근대적 조약 관계와 전통적 책봉-조공 관계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후자는 기존의 영역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조선에 ‘강요’되었다.

이번 공로 변경 결정은 긴박한 전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9월 6일 주진독리 이면상은 진하사에 보낸 전보에서 급히 답신을 보낸다며, 진하사가 요청한 공로 변경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앞길이 물에 막혀 경하 조회(賀班)에 참여할 수 없다면, 중조(中朝)는 틀림없이 이해할 것입니다. 300년 동안 이어져온 조공로 변경은 전례(典禮)와 큰 관계가 있으며 어찌하여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례인데 어찌 깊이 헤아리지 않고 매번 천진으로 향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까. 성경 군현이 왜 사신단을 도강하게 했

量部, 1895, 「九連城」, 『日清戰爭寫真帖』, 博文堂.

52 陳旭麓·顧廷龍·汪熙 主編, 2016, 앞의 책, 545쪽

53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11월 6일 戊子;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72, 「朝鮮副使閔種默請由海道回國考察天津煙臺稅務與定制不合礙難准行(光緒九年 二月十六日)」, 『清季中日韓關係史料』 3,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133쪽.

54 손성욱, 2016, 「清代 朝鮮使館으로 본 淸·朝관계」, 『동국사학』 60, 245쪽.

는지,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북양에 전보를 보낸 바 있습니다.⁵⁵

이면상은 공로 변경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사신단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다음 날 기차를 타고 천진으로 향했다. 사신단은 다음 날 기차를 타고 안산(安山)역, 난주(溇州)역, 도야(道冶)역을 거쳐 오후 1시경 천진에 도착했다.

이홍장은 전례 없는 상황을 기존 규정을 차용해 해결하고자 했다. 1884년 재자관 이학구(李鶴圭)가 임오군란의 공을 세운 오장경의 죽음을 위문하기 위해 해로로 천진에 왔을 때⁵⁶의 사례를 적용한 것이다. 당시 이홍장은 예부에 재자관 도착을 알리고 노인(路引)을 발급받았으며, 이후 조선의 각 관원이 해로를 통해 주자문(奏咨文)을 소지하고 천진으로 와 북경으로 갈 때는 예부에 통지하여 노인을 발급받고 배원(陪員)을 파견해 호송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⁵⁷ 비록 이번 진하사는 해로가 아닌 육로로 왔지만, 이홍장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총리아문에 보고했다.⁵⁸

진하사는 천진 도착 후 주진공관에 머물렀다. 이곳에서 전쟁 상황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당시 주진공관에는 고종의 밀사 민상호도 있었다. 그는 8월 5일경 영국 상선을 타고 천진에 도착하여 이홍장에게 신속

55 陳旭麓·顧廷龍·江熙 編, 1982, 「李冕相致朝鮮遣華別使電(二通)」, 『甲午中日戰爭』 下冊,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496쪽. “俄急答電, 以前路水阻未參賀班, 中朝想必體諒, 欲改三百年由來貢路, 大關典禮, 何不深諒, 每有向津之說耶. 盛京軍憲何以使行渡江, 照章辦理, 有電於北洋. 冕痛一句, 今僅蘇. 初九晚與袁公同發.”

56 『承政院日記』, 高宗二十一年六月二十一日癸巳條;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編, 1996,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3(統署日記1),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96쪽.

57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72, 『清季中日韓關係史料』 3,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476쪽.

58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72, 『清季中日韓關係史料』 6,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3568쪽.

한 지원을 요청했다.⁵⁹ 김동호는 도착 다음 날 주진공관 관리와 함께 원세개 진영을 방문했다. 원세개는 9월 8일 병력을 이끌고 산해관으로 간 뒤 평양으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 사신의 천진 체류는 단순한 임시 조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만, 이 시기 사신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김동호의 『연행록』이 유일한 사료이며, 그 내용도 매우 소략해 구체적 활동을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특기할 만한 것은 전황에 대한 큰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청군의 성환전투와 풍도해전 패배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원세개가 원군을 이끌고 조선으로 향한다는 소식은 사신단에게 희망적으로 받아들여졌다.

V. 존호 가상과 육순 대경 의식

청일전쟁이 한창이던 1894년 9월 자희태후 존호 가상 의식이 다가오고 있었다. 9월 8일 원세개와 이면상이 조선으로 향하던 바로 그날, 진하사도 북경을 향해 출발했다. 삼사를 비롯한 80명은 수로를, 나머지 119명은 육로를 이용했다. 9월 11일 수로를 이용한 진하사 일행이 북경에 도착했다.

사신단의 북경 도착은 순탄치 않았다. 회동관은 청이 사신에게 제공하는 관소였으나, 임시 사용 공간이라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통상 조선 사신은 산해관 입관 후 흥화점을 지날 때 서자(書者)를 보내 관소를 수리했고, 청의 인삼국 상인들도 도움을 주었다. 이번에도 천진에서 정사의 서자를 보냈으나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통 사신단은 산해관에서 북경까지 육로로 7~10일이 걸렸으나, 이번에는 수로로 4일 만에 도착하여 준비가 미비했다. 삼사는 화풍호객상(和豐號客商)에, 김동호는 천혜상전(天惠商纒)에 임시로 머물

59 권혁수, 2000, 『19世紀末 韓中 關係史 研究-李鴻章의 朝鮮認識과 政策을 中心으로』, 백산자료원, 327쪽.

리아 했다. 전례 없는 일이었다. 9월 13일 저녁에야 회동관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뜰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벽돌과 자갈이 쌓여 있었다.⁶⁰

다음 날 자희태후 존호 가상 의식이 거행되었다. 조선 사신이 황태후 존호 가상 의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건륭제 칠순 성절일에 맞춰 진하사를 파견한 이후, 조선은 의식 당일에 경하를 드리는 ‘진하외교’를 지속했으나, 가경제 육순 경하(1819)를 마지막으로 청의 내우외환으로 약 60년간 중단되었다. 그러나 1872년 황후 책립과 태후 존호 가상을 경하하기 위해 ‘진하외교’가 재개되었으며, 이후 조선의 ‘진하외교’는 황태후 존호 가상을 경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자희태후가 19세기 후반 청의 정치권력 중심에 있었던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⁶¹

통상 외국 사신은 황제가 주관하는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습례를 해야 했으나, 정사 이승순과 부사 민영철은 이를 거치지 않고 참석했다. 광서제의 스승이자 호부상서겸 군기대신인 옹동화는 일기에서 당시 의식을 상세히 기록했다. 새벽 6시에 다다라 태화전에서 광서제가 책보를 열람한 후 자녕문(慈寧門)으로 이동했다. 신하들도 뒤따라 들어가 장신문(長信門) 밖에서 대기했다. 자희태후가 자녕궁(慈寧宮)의 보좌에 올랐고, 광서제가 금전(金殿)에서 동쪽 계단을 올라 서쪽을 향해 섰다. 문이 열리자 광서제가 중문 북쪽에서 무릎을 꿇었고, 신하들 모두가 함께 무릎을 꿇었다. 책보가 선독되었고, 광서제가 공손히 책보를 황색 탁자에 올렸다. 내관이 책보를 들고 궁으로 들어갔고, 광서제가 직접 표문을 들고 중문으로 들어가 자희태후 앞에 바쳤다. 광서제가 중문에서 나와 삼궐구고두례를 행했고, 신하들도 함께 예를 행한 후 물러났다. 광서제는 의식을 마친 후 경운문(景運門)으로 나가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곧장 구룡비(九龍碑)를 지나 영수궁(寧壽宮) 동쪽의 출입문인 보태문(保泰門)으로 향했다. 오전

60 金東浩, 1983, 앞의 책, 294쪽.

61 김창수, 2023, 『조선·청 관계와 사신외교』,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9~213, 244~246쪽.

7시에 자리에 앉아 연극을 관람했고, 오전 11시에 끝났다.⁶²

이승순과 민영철은 이 모든 과정에 참석했다. 존호 가상 의식 후 연회가 있었다. 조선 사신은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 자희태후가 특별히 명을 내려 의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신들을 불러들여 참석하도록 했다. 예부 관원의 인도로 입장한 사신들은 광서제에게 삼궤구고두를 올리고 자리에 앉았다. 자희태후의 ‘은택’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으나, 황태후는 조공 사신이 예를 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다. 옹동화는 일기에서 조선 사신의 연회 참석에 대해 황제가 특별히 ‘회유(懷柔)’의 뜻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⁶³ 김동호가 황궁에서 돌아온 부사에게 의식이 어땠는지 묻자, “하루 종일 꿇어 앉아 있었고, 먹은 거라곤 하사받은 음식뿐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새벽 3시경에 나가 정오가 되어서야 돌아온 정사와 부사에게는 피로만 남았을 뿐, 고국이 위급한 상황에서 연회로 ‘회유’의 뜻을 느낄 만한 여유는 없었던 것이다.

청일전쟁 중임에도 거행된 존호 가상 의식은 자희태후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전례(典例)와 전례(前例)에 따라 이루어진 의식이었으며, 조선 사신은 다음 날 조서 반포와 경하를 드리는 조회에도 참석했다.⁶⁴ 가장 ‘공순한’ 조공국인 조선의 사신은 사대의 정성을 다했다. 그러나 특별한 의례 이면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조선 사신이 오문에서 하사품을 받은 바로 그날, 일본군의 대대적인 평양 공격이 시작되었다. 선교리 전투에서 청군이 승리했으나, 다음 날 평양이 함락되었다. 옹동화는 전보로 이 소식을 즉각 접하고 두통과 치통으로 며칠을 앓았다. 그러나 조선 사신단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동호의 『연행록』에서 평양전투 관련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2주가 지난 10월 2일의 일이었다.⁶⁵

62 翁同龢 著, 翁萬戈 編, 翁以鈞 校訂, 2012, 『翁同龢日記』 第6卷, 中西書局, 2773~2774쪽.

63 翁同龢 著, 翁萬戈 編, 翁以鈞 校訂, 2012, 위의 책, 2773쪽.

64 翁同龢 著, 翁萬戈 編, 翁以鈞 校訂, 2012, 위의 책, 2774쪽.

65 金東浩, 1983, 앞의 책, 291쪽.

북경에서는 또 다른 위기가 사신단을 덮쳤다. 9월 17일 부사의 하인 김봉근이 구토와 설사로 사망했고, 19일에는 주방의 매반(買飯)도 같은 증세로 목숨을 잃었다. 수해⁶⁶로 인한 콜레라(疹氣)의 창궐이었다. 9월 26일에는 부사의 군졸마저 사망했다. 김동호는 『연행록』에서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가 태반이라고 기록했다.

10월 2일 주진공관의 한용복(韓用福)은 진하사에게 서신을 보내 “지난달 16일, 평양이 함락되었고, 천장(天將) 좌보귀가 전사했다. 그가 이끌던 군병만 여 명이 전멸했다. 평양감사가 순절했는지 아직 알 수 없고, 나머지 천병(天兵)은 안주성으로 퇴각하여 방어했으나, 이마저 지키지 못하고 의주로 다시 후퇴했다고 한다”⁶⁷라며 참담한 소식을 전했다. 김동호는 다음 날 의주전보국과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보국이 책문으로 이전했다는 소식만 들었다.

전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10월 5일에는 의주성이 일본군 공격으로 함락되어 청군이 구련성으로 퇴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원세개는 요양역(堯陽驛)에 주둔 중이었고, 의주 감세소(監稅所)에 보관 중이던 홍삼 300근과 대내삼 1,000근마저 일본군에게 빼앗겼다. 진하사는 정보 수집에 주력했으나, 의주전보국이 폐쇄되어 조선과의 직접 연락은 불가능했고, 주진공관을 통한 연락만 가능했다. 해로를 통한 서신 교환도 전황이 악화되면서 점차 어려워졌다.⁶⁸

이러한 상황에서 진하사가 주목한 것은 청의 여론이었으며, ‘경보(京報)’, 『신보(申報)』, 『자림호보(字林滬報)』, 『한보(漢報)』 등의 신문이 주요 정보원이었다. 김동호는 『연행록』 말미에 수집한 기사들을 정리해두었다. 특히 그중 두 편의 사설은 당시 청 내부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첫 번째 사설은 10월 10일 『신보』에 실린 「승시설(乘時說)」이다. 이 글은 조선에서 벌어지는 전투 상황을 분석하고 중국이 취해야 할 전략을 제시했다. 저

66 于德源, 2008, 『北京災害史』下, 同心出版社, 994~995쪽.

67 金東浩, 1983, 앞의 책, 291쪽.

68 金東浩, 1983, 위의 책, 290쪽.

자는 청은 평양 전투에서 패배하여 조선 내 청군이 한 명도 없지만, 황해해전에서 중국 해군이 일부 손실만 입고 승리하여 일본 함선 12척 중 5척이 도망쳤고, 현재 양국 해군은 함선 수리를 위해 전투를 잠시 중단한 상태로, 청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이 국가 병력을 총 동원하고 있지만 자국 내 방어를 취약하므로, 일본 본토를 기습 공격해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오보에 기반한 잘못된 주장이었다.⁶⁹ 『신보』는 황해해전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첫 보도는 9월 22일 「승왜속전(勝倭續電)」(대해 승리 후속 전보)라는 기사로 청군의 대승을 알렸다.⁷⁰ 이후 다른 기사들도 청군의 손실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보도되었다. 외국에서 전해오는 실제 소식에 대해서 믿기 어렵다는 반응도 보였다. 9월 27일 「왜노휘패(倭奴諱敗)」(패배를 숨기려는 왜노)라는 기사에서는 일본에서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이번 전투에서 일본이 대승을 거두었고, 한 척의 손실도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갓난아이를 속이려는 것인가? 어찌 이토록 부끄러움을 모를 수 있던 말인가?”⁷¹라며 일본을 비판했다. 이와 같은 보도 속에서 때를 타 공격해야 한다는 글이 나온 것이다.

두 번째 사설은 10월 23일 『한보』에 실린 「논왜사위중국지복(論倭事爲中國之福)」(왜의 문제는 중국의 복임을 논함)이다.⁷² 이 글에서 저자는 청이 평양전투와 황해해전에서 패해 변경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쟁이 중국에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왜노(倭奴)는 이치의 순리를 고려하지 않고, 세력의 강약을 따지지 않으며, 전 세계의 비난을 무릅쓰고 중국과 맞서려 한다. 그 패배는 자명한 일이다”라고 했다. 또한 중일 양국의 정치적·군사적 측면을 봤을 때, “일본은 삼도(三島)에 불과한 작은 나라로, 동해에

69 金東浩, 1983, 위의 책, 277~278쪽; 「乘時說」, 『申報』, 1894.10.10.

70 「勝倭續電」, 『申報』, 1894.9.22.

71 「勝倭續電」, 『申報』, 1894.9.27, “嘻, 是真欲欺乳臭之小孩乎? 何不知愧恥若此也.”

72 金東浩, 1983, 앞의 책, 276~277쪽; 「論倭事爲中國之福」, 『漢報』, 1894.10.23.

떠다니는 좁은 영토이며, 군사력은 중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세력 차이를 고려할 때, 일본이 강하다 할 수 있는가? 이치에도 어긋나고, 세력도 약하다면, 중국이 일본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일본이 ‘작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것은 “병법에서 말하는 ‘큰 패배의 조짐’”이라고 보았다. 그동안 중국을 호시탐탐 노리던 러시아의 국력이 태산이라면 일본은 달갈에 불과한데, 이조차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중국의 형편은 중국인들이 개혁하도록 자각시킬 것이기에 이 전쟁을 복이라고 본 것이다. 첫 번째 사실이 잘못된 정보에 의한 오판이었다면, 이는 국제 정세와 일본의 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의한 오판이었다.

이러한 강경론의 정점에는 이홍장 탄핵 주장이 있었다. 김동호는 감숙성 진안(秦安) 출신 안유준(安維峻)의 「청주이홍장소(請誅李鴻章疏)」(이홍장을 처벌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특별히 기록했다.⁷³ 안유준은 1893년 독찰원 복건도감찰어사 직을 맡고 있었으며, 사적으로 청류파와 밀접하게 교류하며, 청일전쟁 직전부터 적극적으로 국내외 정치 문제와 전쟁에 관해 간언했던 인물이다. 그는 「청주이홍장소」에서 이홍장이 일본과의 전쟁을 회피하고 오히려 물자를 제공했으며, 이연영(李蓮英)과 결탁해 평화협상을 추진했다고 비난했다. 이는 자희태후의 간여를 암시한 것으로 당시의 정치적 금기를 건드린 것이었다.

김동호는 이러한 강경론과 궤를 같이했다. 그를 비롯한 진하사는 청의 더 적극적인 공세를 기대했다. 김동호는 12월 25일 서량병(西涼兵) 수만 명이 연일 정양문을 지나 산해관과 요동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미 주둔 중인 10만 명의 병력과 요충지를 지키는 몽골 병사들을 합치면 수십만 명에 이른다며, “천하가 병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조선의 상황이 이토록 불투명하여 죽음을 각오해야 할지 모른다”며 비장한 심정을 토로했다.⁷⁴

73 陶興華·易多明·安維峻, 2022, 「‘隴上鐵漢’的形象與晚清清流政治」, 『學術月刊』 54(7), 212쪽.

74 金東浩, 1983, 앞의 책, 284쪽.

전황은 사신단의 기대와 다르게 전개되었다. 이미 압록강 전선이 무너지고 여순까지 함락된 상황이었다. 청 내부의 문제도 심각했다. 안유준의 상소문이 보여주듯 전쟁 수행을 둘러싼 청 조정의 갈등은 깊어져갔다. 조선 사신들은 신문과 중앙 관료와의 접촉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파악했고, 자연스럽게 강경책을 주장하는 청류파에 공감했다.

VI. 진하사의 삼절연공사 겸행

얇은 비단같이 세월이 틈으로 지나가니,
 나그네의 마음엔 집 생각이 나지 않는 날이 없구나.
 우수수 매서운 바람이 말을 웅크리게 하고,
 바스락 눈기운은 까마귀를 돌아가라 재촉하네.
 책방과 화루는 모두 부질없고,
 채봉(彩棚)과 기각(綺閣)도 그저 걸치레일 뿐.
 임시 주방에서 만든 국과 밥만이 우리의 풍습이며,
 향이 짙은 고기 요리가 더해지네.
 수놓은 문과 무늬 창은 초록 비단에 비치고,
 정양문 밖엔 기생집이 있네.
 분홍빛으로 물든 볼에 봉황 장식을 꽂고,
 얼굴에 흰 분을 바르고 머리에 장식을 더했네.
 고국의 전쟁터에는 먼지와 연기가 가시지 않고,
 중원 사람들은 여전히 부화하네.
 추위가 무서워 여관에서 이불을 두르고 앉아 있고,
 뜰 난간엔 얼어붙은 눈과 세월만 두터이 쌓이네.⁷⁵

75 金東浩, 1983, 앞의 책, 285쪽, “過隙光陰似薄紗, 羈懷無日不思家. 風威逼竦蕭

12월 7일 정사의 수행원 정창묵(鄭昌默)이 김동호에게 보낸 시로, 당시 북경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책방과 화루는 모두 부질없고, 채붕과 기각도 그저 걸치레일 뿐”이라 읊은 그의 시선은 북경의 허상을 꿰뚫고 있었다. “고국의 전쟁터에는 먼지와 연기가 가시지 않고, 중원 사람들은 여전히 부화하네”라는 구절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걸치레를 유지하려 했던 청의 민낯을 드러냈다.

황해해전의 패배는 자희태후의 육순 대경 의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의식 준비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이화원 경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자희태후는 결국 성수절 경하 의식을 이화원에서 자금성 자녕궁으로 옮기고, 진행 중이던 이화원 공사를 중단했다. 10월 30일 자희태후는 이화원에서 황궁으로 거처를 옮겼다.⁷⁶ 11월 7일에는 성수절 경하 의식이 열렸고 삼사에 참석했다.⁷⁷ 그렇다고 조용히 성수절 경하가 이루어진 건 아니었다. 북경 곳곳이 사람들로 붐비고 시끌벅적했다.⁷⁸ 이날 포성으로 시끄러웠던 대련이 함락당했다.

천황 악화는 진하사의 귀국에도 영향을 끼쳤다. 11월 15일, 친진 조선공관의 서리주사(署理主事) 서상교는 삼사에 서신을 보내 일본군이 청나라 영토의 경계인 마천령(摩天嶺)과 금주 대련만을 점령하여 수로와 육로 모두 차단되었다며 사행 임무는 마무리됐으나 돌아갈 길이 없다고 전했다.⁷⁹

蕭馬，雪意催歸策策鴉，書肆畫樓渾設興，彩棚綺閣總浮華，行廚湯飯惟吾俗，香臭騰騰爨加，繡戶紋窗映綠紗，正陽門外妓娥家，染頰桃紅交簪鳳，搓顏粉白飾髻鴉，故國煙塵無快霧，中州人物尙浮華，怕寒旅館擁衾坐，凍雪庭欄霜厚加。”

76 翟金懿, 2021, 「慈禧萬壽慶典與甲午戰敗關聯性政治記憶的塑造與詮釋-從慈禧太后六旬萬壽慶典經費談起」, 『中國國家博物館館刊』2021年 第1期, 126쪽.

77 金東浩, 1983, 앞의 책, 286쪽.

78 「金闕曉鐘」, 『新聞報』, 1894年11月7日, 第1版; 金東浩, 1983, 위의 책, 286쪽.

79 金東浩, 1983, 위의 책, 286쪽.

11월 20일 예부상서 이홍조(李鴻藻)의 명을 받은 예부 관원 두 명이 회동관을 찾아와 삼사와 필담을 나눴다. 삼사는 사신으로 임무를 다했기에 귀국해야 하지만 수로와 육로가 막혀 돌아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 관원은 이미 황제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회유’의 뜻으로 진하사의 거취를 사신의 뜻에 맡긴다고 전했다. 더 머물고자 한다면 삼절연공사 때까지 머물 수 있으며 표문이나 공물이 없어도 전례대로 대우하겠다고 밝혔다.⁸⁰ 이는 청이 전시 상황에서 전례의 변통을 주동적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이에 정사는 예부에 정문을 보내, “절박한 사적 사정을 아뢰니 허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살펴보건대 사신의 일이 마무리되었으니 어찌 더 머무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왕을 뵈는 것이 급선무이니 어찌 빨리 돌아가려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재앙이 겹치고 전란이 이어져 물길이 험하고 육로가 막힌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우리 황상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대부(大部: 예부)가 여러 차례 거취를 물으니 소방(小邦)의 미천한 직분으로 한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격하여 눈물을 금할 수 없습니다”⁸¹라며 감사함을 밝히고, 진하사가 삼절연공행의 임무를 수행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청했다. 설사 진하사가 귀국하더라도 삼절연공행이 올 수 없는 상황이니 “300년 동안 지켜온 의(義)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겸행의 명분을 강조했다.⁸²

진하사의 삼절연공사 겸행은 청의 제안이 아니었다. 삼사가 국왕의 사대에 대한 성심을 강조하며 명분을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한 예부의 답은 신속하게 나오지 않았다.⁸³ 오히려 12월 6일 오문 밖에서 영상(領賞)이 이루어지고, 12월

80 金東浩, 1983, 위의 책, 286쪽.

81 金東浩, 1983, 위의 책, 279쪽. “爲仰陳切迫之私, 冀蒙允許, 竊惟使事已竣, 豈有可留之端? 覲王爲急, 敢無遄歸之心. 然而值茲禍結兵連之時, 實有水險汗塞之歎, 特蒙我皇上格外優卹之德, 有此大部屢問去留之舉, 顧以職等小邦賤價, 蒙此曠絕之恩, 不勝感泣之地, 現今事勢, 實難前進, 伏乞閣下俯諒下情, 乞蒙轉奏, 俾免中路顛連之患, 幸甚云云.”

82 金東浩, 1983, 위의 책, 279쪽.

83 金東浩, 1983, 위의 책, 285쪽.

7일 상마연인 예부연이 열렸다. 이로써 진하사신의 공식적인 의례 활동이 완전히 끝났다.

다음 날 김동호는 “지난달 이십칠일” 『신보』의 기사 내용을 옮겨 적었다. 그 내용은 동학군은 일본군을 여러 차례 공격하여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에 곤란해진 일본군이 중국을 비난하는 고시문을 게시하자 동학군이 이를 분노하여 찢어 버렸다는 것이었다. 이에 김동호는 중국인들은 이 소식을 보고 “조선은 예로부터 절의와 의리가 있는 선비였는데,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⁸⁴ 정사가 예부에 보낸 정문에서 “300년 동안 지켜온 의(義)”를 강조했듯, 김동호 역시 이를 드러내고 중국인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예부의 답은 여전히 없었다. 삼사는 12월 9일 예부에 재차 정문을 보내, 교통과 통신이 끊겨 조선에서 삼절연공사 파견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진하사의 삼절연공사 겸행을 요청했다. 특히 “현재 조선에는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어 국가와 사직이 위태롭고, 국왕이 황제에게 호소할 수도 없는 상황”⁸⁵임을 강조하며 청군의 추가 출병을 간청했다. 진하사는 삼절연공사 겸행이라는 전례 없는 요청을 통해 청과의 전통적 관계를 지속하면서도,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내려 했던 것이다.

12월 20일야 진하사의 동지사 겸행을 허한다는 광서제의 윤허가 전해졌다.⁸⁶ 삼사는 이 사실을 조정에 알리기 위해 선래군관을 파견하려 했으나, 육로는 통행이 불가했고 수로도 여의치 않았다.⁸⁷ 1895년 1월 12일야 선래군관 이희원(李喜元)이 천진을 거쳐 연대에서 영국 선박을 타고 조선으로 갈 수 있었다.⁸⁸

84 金東浩, 1983, 위의 책, 284~285쪽. “朝鮮自古有節義理之士, 尙今有之云耳.”

85 金東浩, 1983, 위의 책, 279쪽.

86 金東浩, 1983, 위의 책, 284쪽

87 金東浩, 1983, 위의 책, 284쪽

88 金東浩, 1983, 위의 책, 283쪽.

전쟁으로 인해 전례가 깨지고 있었지만, 진하사가 북경 체류를 위해 삼절연공행을 명분으로 내세울 만큼 양국 관계에서 전통적 언설과 관념은 상당히 공고했으며, 전시 북경이라는 공간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었다. 광서제도 ‘회유’의 뜻을 밝히며 조선 사신을 우대했다.⁸⁹

VII. 귀국: 사신에서 ‘표류민’으로

해를 넘기고 진하사의 삼절연공행 곁행 임무도 끝났다. 1895년 3월부터 사신단의 귀국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3월 1일 예부는 진하사에 3월 13일 출발을 통보했다. 이날은 이홍장이 강화협상을 위해 시모노세키로 출발하는 날이기도 했다. 3월 7일 삼사는 여전히 길이 막혀 출발이 어렵다는 내용의 정문을 예부에 보냈으나 예부는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⁹⁰ 결국 3월 14일 100여 명이 먼저 출발했고, 나머지 80여 명은 언제 귀국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⁹¹

3월 23일, 주진독리 이면상이 천진에서 삼사를 만나기 위해 북경에 왔다. 그는 천진을 떠나기 전 대리 진해관도 황건원(黃建筦)에게 북경에 5~6일 정도 머물겠다고 얘기했으나,⁹² 감기를 이유로 15일간 북경에 더 머물며,⁹³ 삼사와 자주 접촉했다. 당시 진하사의 삼절연공행 임무는 끝났고, 예부는 이전과 달리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3월 초 사신단은 회동관에서 정양문 밖 길상(吉祥)과 일

89 金東浩, 1983, 위의 책, 284쪽.

90 金東浩, 1983, 위의 책, 281쪽.

91 金東浩, 1983, 위의 책, 281쪽.

92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72, 「朝鮮駐津督理商務李冕相請照赴京已發給護照」(光緒二十一年二月二十六日), 『清季中日韓關係史料』第7卷,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4196쪽.

93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72, 「朝鮮督理商務李冕相已由京返津」(光緒二十一年三月二十五日), 『清季中日韓關係史料』第7卷,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4238쪽.

승(日升) 두 객잔으로 거처를 옮겨야 할 정도였다.⁹⁴

4월 9일 예부는 의제사장인(儀制司掌印) 덕령(德齡) 등 관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삼사에게 4월 23일 해로 귀국을 공식 통보했다.⁹⁵ 그러나 4월 23일이 되자, 통관 계분(桂芬)이 정사와 부사에게 서신을 보내어 예부중당(禮部中堂)이 귀국 일자를 5~6일 정도 기다렸다가 ‘공로(空路)’로 호송하라고 명령했다는 말을 전해왔다. ‘공로’는 평탄한 길로 당시 사정이 여의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김동호는 이날 『연행록』에 이를 기록하며 “화의(和議)가 조금 진전되었으나, 지금 듣자니 동남 각 성(省)의 사류(士類)가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보이며, 실로 화의를 배격하려 한다고 한다. 그러나 화의가 성사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⁹⁶라고 당시 상황을 덧붙였다.

5월 1일, 정사가 귀국 준비를 마치고 군령을 내렸다. 5월 7일, 이면상이 정사와 부사에게 보낸 서신에서 “현재 수로에는 장애가 없으니 이번 보름에 연대로 가는 배를 타고 귀국할 예정이며, 제가 동행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⁹⁷ 다음날, 정사와 부사는 5월 11일 출발하기로 결정하고 예부에 정문을 보내 통지했다. 이면상에게도 전보로 알렸다. 5월 10일 예부가 수로공문(水路公文)을 발급했다.⁹⁸

진하사가 드디어 귀국길에 올랐다. 5월 11일 북경에서 출발한 일행은 통주에서 배를 타고 천진으로 갔으며, 14일 천진 도착 후 19일 청군의 병선 진해호

94 『申報』, 1895.4.13, 第2版.

95 金東浩, 1983, 앞의 책, 281쪽.

96 金東浩, 1983, 위의 책, 281쪽.

97 金東浩, 1983, 위의 책, 281쪽. 1895년 4월 26일 이면상은 代理津海矣道 黃建筓에게 조회를 보내 자신은 왕명을 받아 다시 천진에 왔으나,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서기관 서상교와 함께 적당한 배를 기다려 돌아갈 것이라고 알렸다.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72, 「朝鮮駐津督理商務李冕相帶同從事官等搭輪回國」(光緒二十一年四月十四日), 『清季中日韓關係史料』第7卷,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4270쪽.

98 金東浩, 1983, 위의 책, 281쪽.

(鎭海號)에 승선했다. 이면상과 서상교도 함께 배에 올랐다. 5월 26일 인천 제물항에 도착했고, 다음날 한성에 입성했다.

그들의 귀국은 ‘시모노세키 조약’의 제1조가 현실로 구현되는 순간이었다. 1895년 6월 15일, 주조선 일본 임시대리공사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濤)는 조선 외무대신 김윤식에게 진하사의 귀국 경위를 물었다. 청나라 체류 중 어떤 접대를 받았으며, 어떤 교섭이 있었는지, 특히 청 정부가 군함을 보내 송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다.⁹⁹ 5일이나 걸린 김윤식의 답변은 신중했다.

어제 귀하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작년 청에 파견된 경하사와 주친진독리의 귀국 시 상황에 대해 문의하셔서, 사신단 일원을 직접 만나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작년에 연경에 갔었을 때 전쟁 중이어서 사신 관소에 머문 후에는 고국의 소식이 두절되고 북경의 조정 인사들과 왕래가 끊겨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폐약(廢約) 소식을 들은 후 관소와 음식 제공도 끊겨 100여 명이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북경의 인삼상 화풍국(華豐局)에서 은화를 빌려 근근이 입에 풀칠하였으며, 빛이 수만 원(元)에 이르렀습니다. 연태환약(煙台換約) 이후 즉시 귀국할 것을 도모하였으나 탈 배가 없었습니다. 청 정부 역시 (우리의) 오랜 객지 생활을 불쌍히 여겼지만, 패전으로 인해 모든 선박이 파괴되고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병선 진해호 한 척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진해호를 보내 태워 보낸 것은 후의를 보인 것이며, 이는 표류민을 호송하는 예와 같았습니다. 배를 보낼 때 청 정부와 진해관과의 왕복 문서가 있을 텐데, 사신단 일원은 그것을 볼 수 없었고, 오직 통역의 말로만 배의 일정이 급박하다는 것을 알고 작별 인사도 없이 배에 탔다고 합니다. 주친독리 이면상은 오랫동안 진문(津門)에 있으면서 친진 관원들과 왕래하여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패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 이곳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패전하

99 國史編纂委員會 編, 198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第6卷, 國史編纂委員會, 235~236쪽.

고 화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저들 역시 물어야 할 것을 묻지 않았고, 사신단 일원이 답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1년 같았고, 배를 만나자 귀국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¹⁰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조선은 ‘자주독립국’이 되었다. 청과의 관계가 이미 청산된 상황에서 ‘진하사’의 귀국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일으킬 수 있었다. 김윤식은 청일전쟁 기간 진하사와 주진도독리의 대청 외교 활동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폐약(廢約)’ 소식 이후 청이 사신에게 제공하는 음식도 끊겼다며 북경에서 진하사가 겪은 어려움을 강조했다. 김동호의 『연행록』과 청 측 사료에서 관소와 음식 제공이 중단된 연유를 찾기 어렵지만, 그것은 더 이상 진하사가 사신 신분이 아님을 의미했고, 김윤식은 그 배경으로 ‘폐약’이란 말도 넣었다. 이 표현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조약을 폐지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불분명하다. 진하사 일행은 3월 1일 예부로부터 귀국일을 통보받았고, 얼마 안 있어 관소를 나와 객잔으로 숙소를 옮겼다. 이 시점은 3월 2일 청 정부가 강화 교섭 장소를 시모노세키로 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주청 미국 공사 찰스 덴비로부터 전달받고, 이홍장이 교섭에 대해 광서제에게 상주하여 운허를 받은 시점과 맞물려 있다.¹⁰¹

100 國史編纂委員會 編, 1986, 위의 책, 237쪽, “昨接大函, 詢及去年清國慶賀使及駐津督理回國時事狀, 刻已面叩該使員等. 據該使等所言, 在去年入燕時間, 關於戎馬之中, 留館以後, 故國聲息不通, 北京朝士絕無往來之人, 應對行事, 原無可言. 自聞廢約之報, 館籩仍絕, 一行百餘人, 殆濱餓死, 向北京蔘商華豐局, 貸用銀貨, 僅僅糊口, 債銀積至數萬餘元. 逮芝罘換約之後, 卽謀歸國, 亦無船可搭. 清政府亦閱其久客, 而喪敗之餘, 船隻全數破失, 所存者惟鎮海兵船一艘而止耳. 特派載送, 蓋示其厚意, 如護送漂民之例而已. 派船之際, 必有清政府與津海關往復文字, 而該使等不可得見, 只憑譯舌, 聞其船期忙迫, 趁船并無辭還送別之節. 至駐津督理李冕相, 久在津門, 與天津官員往來熟諳者也. 而方其勝敗未分之際, 與其時此間人物情無異, 其如何應對, 不須追究. 至事敗和成以後, 彼亦無辭可問, 該使亦無辭可對. 度日如年, 見船搭歸, 云云.”

‘연태환약’은 1895년 5월 8일 연태에서 ‘시모노세키 조약’ 비준서 교환을 의미한다. 그 이전 예부는 ‘진하사’에 귀국 일자를 통보했는데, 날짜가 미뤄진 것은 강화 조약이 체결됐지만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아 황해 바닷길이 확보되지 않아서였다. ‘연태환약’으로 ‘시모노세키 조약’이 효력을 발휘했고, 조선은 자주독립국이 되었다. 막혀 있던 귀국 길도 열렸다. 하지만 전쟁의 여파로 타고 갈 배가 없었다. 청은 ‘호의’를 베풀어 병선을 제공해 그들을 조선에 귀환시켰다.

김윤식은 청의 ‘진하사’ 송환을 ‘표류민을 호송하는 예와 같다’고 했다. 이는 청의 설명이 아닌, 김윤식의 ‘해석’이다. 그는 1881년 영선사로 청에 갔었고, 1880년대 청과 조선의 전통적 관계의 변통에서 속국자주를 내세우며, 전통적 책봉-조공 관계와 근대적 통상 관계에서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양득(兩得)’을 주장했었다.¹⁰² 하지만 이제 진하사로 갔던 사신을 표류민으로 설명해야 했고, 진하사는 ‘시모노세키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며 자주 독립국의 지위를 구현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VIII. 맺음말

1894년 청일전쟁 발발 직전, 조선은 자희태후의 육순 성수절을 경하하기 위해 최초의 성수절 진하사를 파견했다. 이는 전례 없는 특별한 사행으로, 일본이 내정 개혁안을 통해 청과의 전통적 관계 단절과 자주독립국 수립을 요구하던 시점에서 조선이 청과의 전통적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청일전쟁의 결과로 이들은 최후의 조공 사신이 되었다.

진하사 파견의 특수성은 당시의 정치적 맥락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건륭제

101 關捷等主編, 2005, 앞의 책, 419~423쪽.

102 김성배, 2009, 『유교적 사유와 근대 국제정치 상상력: 구한말 김윤식의 유교적 근대 수용』, 창비, 178~183쪽.

칠순 성절 진하사가 조청 간 우호관계를 상징했다면, 자희태후 육순 진하사는 정반대의 상황에서 파견되었다. 1882년 변통 이후, 특히 갑신정변 이후 조선 내에서 청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커졌지만, 조선은 전례 없는 성수절 진하사를 파견했다. 1890년대 초, 조선은 르젠드르를 외국인 고문으로 고용하여 외국 차관 도입을 시도했으나 청의 간섭으로 실패했고, 결국 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고, 진하사 파견이 결정되었다. 청일전쟁 전야 일본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파견을 강행한 것은 청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으며, 이는 1882년 이후 ‘양절 체제’기에도 변하지 않고 지속된 조공의 유효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쟁의 전개는 조선의 이러한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진하사단은 자희태후의 성대한 의례에 참여하면서도 청의 패전과 중화 질서의 붕괴를 목격해야 했다. ‘폐약’ 이후 관소 공급이 중단되고 ‘연태환약’으로 귀로가 열리기까지, 그들의 경험은 무력에 의한 전통 질서 해체의 현장이었다. 청 군함 진해 호로 ‘표류민’이 되어 돌아온 진하사단의 신분 변화는 ‘시모노세키 조약’이 강제한 새로운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참고문헌

자료

『高宗實錄』, 『同文彙考』, 『承政院日記』, 『日省錄』.

『駐韓日本公使館記錄』.

『申報』, 『漢報』, 『新聞報』.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編, 1996,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3(統署日記

1),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國史編纂委員會 編, 198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國史編纂委員會.

金東浩, 1983, 『《燕行錄》影印』, 『釜大史學』 第7號.

俞吉浚, 1995, 『俞吉浚全書』, 一潮閣.

顧廷龍·戴逸 主編, 2008, 『李鴻章全集』, 安徽教育出版社.

駱寶善·劉路生 主編, 2013, 『袁世凱全集』, 河南大學出版社.

翁同龢 著, 翁萬戈 編, 翁以鈞 校訂, 2012, 『翁同龢日記』, 中西書局.

王爾敏·吳倫霓霞 合編, 1993, 『清季外交因應函電資料』,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趙爾巽 等 撰, 1977, 『清史稿』, 中華書局.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2005, 『清代軍機處電報檔彙編』, 中國人民大學出版社.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72, 『清季中日韓關係史料』,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陳旭麓·顧廷龍·江熙 編, 1982, 『甲午中日戰爭』, 上海人民出版社.

陳旭麓·顧廷龍·汪熙 主編, 2016, 『盛宣懷檔案資料』, 上海人民出版社.

戚其章 主編, 1994, 『中日戰爭』, 中華書局.

陸軍參謀本部陸地測量部, 1895, 『九連城』, 『日清戰爭寫真帖』, 博文堂.

단행본

- 권혁수, 2000, 『19世紀末 韓中 關係史 研究 - 李鴻章의 朝鮮認識과 政策을 中心으로』, 백산자료원.
- 김성배, 2009, 『유교적 사유와 근대 국제정치의 상상력 : 구한말 김윤식의 유교적 근대 수용』, 창비.
- 김창수, 2023, 『조선·청 관계와 사신외교』,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최덕수 외, 2010,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 關捷 等 主編, 2005, 『中日甲午戰爭全史』, 吉林人民出版社.
- 于德源, 2008, 『北京災害史』, 同心出版社.
- 檜山幸夫, 2022, 『日清戰爭の研究(上卷)』, ゆまに書房.

논문

- 森万佑子, 2020, 「駐津督理通商事務의 활동을 통해서 본 事大와 交隣의 교착 - 『舊韓國政府外交文書綴』 第三冊~第五冊의 分析 - 」, 『韓國史學報』 79.
- 손성욱, 2016, 「清代 朝鮮使館으로 본 淸·朝관계」, 『동국사학』 60.
- _____, 2022, 「19세기 지속된 전통적 朝·淸 관계의 의미」, 『중국근현대사연구』 93.
- 윤용출, 1983, 「〈연행록〉 解題」, 『부대사학』 7.
- 임준철, 2008, 「對淸使行의 종결과 마지막 연행록」, 『민족문화연구』 49.
- 鄭塏謨, 2012, 「李裕元의 乙亥燕行과 江華島條約」, 『동방한문학』 52.
- 孫成旭, 2014, 「清代朝鮮最後赴京使團考」, 『歷史檔案』 2014年 第4期.
- 關亞新, 2014, 「清代鳳凰城邊門考」, 『北京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4年 第2期.
- 陶興華·易多明·安維峻, 2022, 「隴上鐵漢」의 形象與晚淸淸流政治」, 『學術月刊』 54(7).
- 萬依, 1986, 「關於慈禧太後的稱號」, 『文獻』 1986年 第2期.
- 翟金懿, 2016, 「甲午年慈禧太后崇上徽号儀式」, 『歷史檔案』 2016年 第2期.
- _____, 2021, 「慈禧萬壽慶典與甲午戰敗關聯性政治記憶의 塑造與詮釋 - 從慈禧太后六旬萬壽慶典經費談起」, 『中國國家博物館館刊』 2021年 第1期.

청일전쟁기 조선 진하사

— 최초의 성수절 경하와 최후의 대청사행 —

손성욱

이 글에서는 1894년 청일전쟁 발발 직전, 조선이 자희태후의 육순 성수절을 경하하기 위해 파견한 마지막 진하사를 통해 조청 간 전통적 책봉-조공 관계의 와해 과정을 고찰한다. 이 진하사는 조선의 최후 대청사행이자 최초의 황태후 성수절 경하 사신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건륭제 칠순 성절에 전례 없이 파견된 진하사가 양국 간 우호를 상징했던 것과 달리, 1894년 진하사는 청의 강화된 간섭과 악화된 조청 관계를 개선하려는 외교적 시도로 이루어졌다. 청일전쟁 발발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진하사 파견이 강행된 것은 조선이 청과의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진하사는 자희태후 존호 가상 의식에 참석하며 조공 사신으로서 전례 없는 의례를 수행했으나, 청군의 패전과 일본군의 평양 점령이라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중화 질서의 몰락을 목격했다.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이후, 진하사는 공식 사신이 아닌 ‘표류민’ 신분으로 청 군함을 통해 귀국해야 했다. 이는 전통 외교 질서가 새로운 국제 관계의 압력 속에서 종식되는 과정이자, 조선을 자주독립국으로 규정할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의 실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주제어: 조선 조공 사신, 청일전쟁, 책봉-조공 관계, 자희태후, 동아시아 외교

ABSTRACT

Joseon's Tribute Missions for Imperial Celebrations during the Sino-Japanese War: The First Envoy Celebrating the Emperor's Birthday and the Final Mission to Qing

Son Sungw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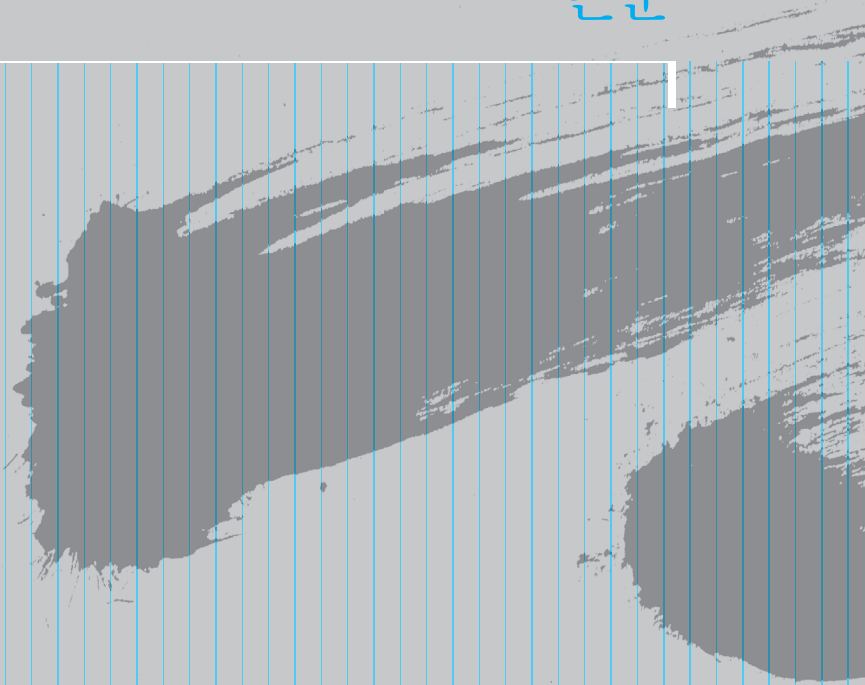
This study explores the disintegration of the traditional tributary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Qing through the final Joseon envoy dispatched in 1894 to celebrate Empress Dowager Cixi's 60th birthday. This mission embodies dual historical significance: it was both Joseon's last tribute mission to Qing and its first diplomatic mission honoring an empress dowager. Unlike the 70th-birthday mission for Emperor Qianlong, which symbolized harmonious relations, the 1894 envoy represented Joseon's effort to repair increasingly strained ties under growing Qing interference. Amid escalating tensions preceding the Sino-Japanese War, Joseon's decision to dispatch the mission demonstrated its commitment to preserving traditional ties while simultaneously seeking diplomatic

and military support from Qing.

As representatives of a tributary state, the envoy participated in unprecedented ceremonies conferring an honorific title on Empress Dowager Cixi. However, they also witnessed the collapse of the Sinocentric order, as Qing faced military defeats and Pyongyang fell to Japanese forces. Following the Treaty of Shimonoseki, which formally ended Joseon's tributary obligations and recognized its independence, the envoy returned not as official representatives but as "displaced persons," repatriated aboard a Qing warship. This transformation symbolized the final dissolution of traditional diplomatic structures under the pressures of a shifting international order and underscored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Article 1 of the Treaty of Shimonoseki.

Keywords: Choson tributary mission, First Sino-Japanese War, Tribute system, Empress Dowager Cixi, East Asian diplomacy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3세기 말~14세기 중반 원과의 관계에서 추진된 고려의 역사 편찬

김성환 |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성종 테무르의 즉위와 『선제사적(先帝事跡)』
- III. 태정제 이순테무르의 집권과 『김공행군기(金公行軍記)』
- IV. 해중 토곤테무르의 삼사(三史) 편찬과 삼국사적(三國事跡), 『대요사적(大遼事跡)』
- V. 맺음말



I. 머리말

원 간섭기의 고려는 원에 복속되었으면서도 독립국 체제로 운영되어 원으로부터 많은 간섭을 받았다. 13세기 말부터 14세기 중반도 마찬가지였다. 고려 전·중기의 다원적 천하관 아래¹ 황제국과² 비교될 수 있는 국가 운영은 실질적인 제후국 체제로 철저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전례가 없었던 국왕의 친조와 망궐례, 원의 관계(官階)에서의 관직 체계, 정동(征東)의 목표였던 일본 원정 참여, 개체변발로 대표되는 풍속의 변화 등 그 사례는 헤아릴 수 없다. 원의 실질적인 통제와 간섭에 따를 수밖에 없던 현실이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고려는

* 투고: 2024년 10월 13일, 심사 완료: 2024년 11월 2일, 게재 확정: 2024년 11월 11일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B5A16026522).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필자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과 부주의함을 지적하여주었다.

- 1 노명호, 1999,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한국사연구』 105, 한국사연구회; 채용석, 2017, 「고려전기의 다원적 국제관계와 문화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0, 한국중세사학회; 이승민, 2017, 「10세기 국제정세와 고려의 외교 자세」, 『한국중세사연구』 51; 최봉준, 2018, 「고려시대 사회 성격론과 다원사회의 구조적 이해」, 『역사와 실학』 67, 역사실학회 참조. 한편, 1110년(예종 5) 제작된 「鄭僅妻金氏墓誌銘」에서는 송과 요의 연호를 太宋과 本朝로 지칭했는데, 이 또한 다원적 천하관과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다. 「鄭僅妻金氏墓誌銘」, “… 太君年甫七十二 於丁亥十一月二十二日 以疾卒 屬纊不亂 殯于京北山地藏寺 後三年 太宋大觀四年 本朝乾統十年 庚寅二月 壬寅 葬于京東朝陽山南岳之南麓東蓮寺之東原 …”(https://db.history.go.kr/).
- 2 「王演妻福寧宮主王氏墓誌銘」, “… 銘曰 天子之女兮 如月在望 乘彼白雲兮 至于帝鄉…”(https://db.history.go.kr/). 福寧宮主 王氏는 숙종의 4녀이다. 황제국 체제에 관한 최근의 비판에 대해서는 최종석, 2021, 「왜 고려전기의 國制는 황제국 체제로 보일까?—후대 감각과 지식의 소급 적용으로 탄생한 고려전기 황제국 체제—」, 『역사학보』 251, 역사학회; 최종석, 2024, 「고려전기 다중심적 국제질서는 ‘황제국 체제’의 성립·운용과 상관관계가 있었을까?—베트남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문화』 10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참조.

국체(國體)와 정체성을 위한 조치를 원에 요청하고, 때로는 이를 위한 논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당대사(當代史) 편찬으로 성격이 규정되는 이 시기의 역사편찬 동향 또한 마찬가지였다. 원의 역사편찬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체 보존을 위한 편찬 방향과 서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원의 제국사(帝國史) 편찬은 세조 쿠빌라이의 대일통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요·금·송의 삼사(三史) 편찬은 앞선 왕조를 계승했다는 정통성의 측면에서, 선대 황제의 재위 때 사적(事跡)을 정리한 실록 또한 같은 측면에서의 성격을 지닌다. 또 1313년(황경 2)에는 인종의 명으로 칭기즈칸 이래 원 제국의 역사로 추정되는 국사(國史)가 편찬된 바 있다.³ 이와 달리 『제국신복전기(諸國臣服傳記)』같이⁴ 특별한 목적에서 편찬된 사서가 있는데, 원에 속한 제국(諸國)에 역사편찬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당대사 편찬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제국(帝國)의 판도와 영향력을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등에는 세조 이후 원과의 관계에서 편찬되어 진상된 사서들이 단편적으로 확인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사서들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276년 1월 남송의 항복을 받아 비로소 대일통을 이룬 원은 역사편찬을 통해 이를 확인하려고 그해 6월 『평금록』·『평송록』과 함께 『제국신복전기』의 편찬을 시작했다. 1278년(충렬왕 4) 7월 본국누조사적(本國累朝事跡)과 신복(臣服)한 날짜, 세조 황제 등극 이래의 사신 명단, 국왕의 친조 연월을 날날이 기록해서 바치라는 중서성의 요구는⁵ 국사원에서의 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이었고,

3 『원사』 권24, 인종1, 황경 2년 4월 갑신, “詔遴選賢士, 纂修國史.” 國史 편찬이 언제 완료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1330년(지순 1) 완성된 『經世大典』을 國史의 예에 따라 監修했음이 확인된다. 『원사』 권34, 문종3, 지순 원년 정월 경인, “以修經世大典久无成功, 专命奎章閣阿邻帖木儿, 忽都鲁都儿迷失等译国言所纪典章为汉语, 纂修则赵世延, 虞集等, 而燕铁木儿如国史例監修.”

4 『원사』 권9, 세조6, 지원 13년 6월 무인; 김성환, 2023, 「원의 『제국신복전기(諸國臣服傳記)』와 고려의 역사 편찬」, 『東北亞歷史論叢』 81,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5 『고려사』 권28, 충렬왕 4년 7월 정해(6일) “中書省令具錄本國累朝事跡 及臣服

역사편찬 요구의 시작이었다. 충렬왕과 충선왕 때 편찬된 『친추금경록』·『금경록(국사)』, 『세대편년절요』, 『고금록』 등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물이거나 이와 관련한 사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⁶ 이때의 조치는 원의 입장에서 고려가 원과 관계를 맺기 이전인 전대사(前代史)와 이후인 당대사로 나누어 요구된 것이지만, 고려의 입장에서는 당대(當代)의 역사를 편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실록 또는 왕실세보의 편찬 등을 제외하면 전례가 거의 없던 일이었다.

이 글에서는 원의 『제국신복전기』 편찬과 관련한 고려의 역사편찬 이후 원과의 관계에서 편찬된 사서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고려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선제사적(先帝事跡)』(1295, 충렬왕 21), 칭기즈칸 이래의 개인 전기(傳記)(1325, 충숙왕 12), 삼국사적(三國事跡)(1343, 충혜왕 후 4)의 편찬 또는 이에 대한 조사 기록이 확인된다. 이 사서들이 13세기 말~14세기 중반까지 원의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고려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어 원에 보내졌거나, 원 국사원의 요구와 관련하여 고려에서 편찬된 결과였음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의 요구 또는 원을 의식한 고려에서의 역사편찬 작업이 원 간섭기 내내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려 한다.⁷

日月 與帝登極已來 使介名目 國王親朝年月 以呈 因國史院報也.”

- 6 『친추금경록』과 『금경록(국사)』에 대해서는 김성환, 2024, 「고려 후기 鄭可臣(1224~1298)의 『千秋金鑑錄』 찬술과 역사 논쟁」, 『대동문화연구』 12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참조. 『세대편년절요』에 대해서는 별고인 「고려 후기 민지(閔漬, 1248~1326)의 역사 논쟁과 『세대편년절요(世代編年節要)』의 편찬」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 7 이 글의 검토 대상인 『선제사적』과 『김공행군기』, 三國事跡은 편찬 배경과 史書로서의 성격 등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이들이 세조 쿠빌라이와 송·요·금에 관한 事跡의 정리와 개인 傳記의 성격이어서 史書로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자료들은 고려의 史館(춘추관) 또는 사관직을 지닌 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김공행군기』, 三國事跡은 원 국사원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史書로서 파악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원의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사서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으로, 史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 三國事跡은 고려와 관련된 송·요·금의 사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원 간섭기의 當代史 편

이를 위해 원에서의 역사편찬 동향을 살펴 고려에 해당 사서의 편찬을 요구한 배경에 유의하고자 하며, 고려가 이들 사서를 편찬하면서 자국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했는지의 문제를 가능한 범위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하지만 자료가 워낙 부족하고, 단편적이어서 추론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 가운데 잘못 파악되는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이를 통해 이 시기 역사편찬의 성격에 대한 보다 진전된 이해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질정을 빈다.

II. 성종 테무르의 즉위와 『선제사적(先帝事跡)』

- A-1. 同修國史로 치사한 任翊과 史館修撰官 金聃에게 명해 『先帝事跡』을 찬수하게 하였다[『고려사』 권31, 충렬왕 21년 3월 정사(13일)].
- A-2. 장군 柳溫을 원에 파견하여 『선제사적』을 바쳤다[『고려사』 권31, 충렬왕 21년 10월 임술(22일)].
- A-3. 任翊은 아는 것이 많고 기억력이 좋아 典禮와 故事에 매우 익숙했고, 묻는 게 있으면 분명하게 답하는 것이 메아리처럼 자연스러웠다. 일찍이 왕명을 받들어 『濬源錄』을 편찬했고, 또 『元世祖事跡』을 편찬하였다(『고려사』 권95, 열전8, 임익).
- A-4. (金聃은) 여러 차례 옮겨 判秘書寺사가 되었고, 同修國史 任翊과 더불어 『元世祖事跡』을 편찬하였다(『고려사』 권103, 열전16, 김취려 附 김번).
- A-5. 장군 柳溫을 원에 보내 『世祖皇帝事跡』을 올렸다. 왕이 일찍이 任翊과

찬과 일정한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그 요구가 원 국사원에서 비롯한 것이고, 고려에서는 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當代史의 범위에서 검토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金賸에게 이를 찬술하라고 명하였다(『고려사절요』 권21, 충렬왕 21년 10월).

자료 A-1·2는 1295년 3월 동수국사로 치사한 임익(任翊, ?~1301)과 사관 수찬관 김변(金賸, 1246~1301)에게 『선제사적』을 찬수하라는 왕명이 내려져 6개월의 편찬 끝에 마무리하여 그해 10월 장군 유온(柳溫)을 보내 원에 진상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선제(先帝)는 다른 아님 세조 쿠빌라이를 가리킨다. 그런데 『고려사』 임익과 김변의 열전에는 『원세조사적(元世祖事跡)』으로(자료 A-3·4), 『고려사절요』에서는 『세조황제사적(世祖皇帝事跡)』으로(자료 A-5)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원래 제목은 『선제사적』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선제’는 당시의 황제인 성종 테무르에 앞선 황제라는 뜻이겠지만, 여기서는 황제와 제후라는 공식적인 관계는 물론 장인-사위라는 인친으로 맺어진 쿠빌라이와 충렬왕의 관계에 따라 “돌아가신 황제” 정도의 뜻도 담겨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측면에서 『원세조사적』 또는 『세조황제사적』은 당대의 역사 편찬자 또는 후에 『고려사』 편찬자들이 붙인 명칭으로 짐작된다.

이 자료의 체제나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다. 다만 고려에서는 앞서 역대사적과 원 세조 이후 사신 명단, 국왕 친조 날짜 등까지 날짜이 정리한 『천추금경록』·『금경록(국사)』, 『고금록』을 편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편찬에 자료적인 어려움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문제는 쿠빌라이를 추모하는 가운데 고려와 원의 친연성과 특수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그것을 성종 테무르 정권에 이어질 수 있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편찬의 방향과 성격은 여기에 맞춰졌을 것이다. 『선제사적』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원에서 『세조실록』의 편찬 과정을 살펴보고, 『선제사적』이 이와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선제사적』은 고려에서 쿠빌라이의 사적을 정리한 책일 것이다. 따라서 수록 범위는 고려 태자 왕전이 중국 양주(梁州)와 초주(楚州) 교외에서 쿠빌라이를 처음 대면했던 1259년부터 사망하는 1294년까지 약 35년이었을 것이다. 원종

의 즉위와 복위 및 친조, 고려 세자 왕십의 숙위와 원 황실과의 혼인, 충렬왕의 즉위와 친조, 일본 원정에서 고려의 역할 등이 대표적인 사적이었을 것이다. 이 사서의 성격을 검토하기에 앞서 원에서 『세조실록』의 편찬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쿠빌라이는 고려에서 『선제사적』을 편찬하라는 왕명이 있기 1년 전인 1294년 정월 사망하고, 4월 황손인 성종이 즉위했다.⁸ 5월에는 조부인 선황제와 부친 친김의 시호와 묘호를 올렸는데, 선황제의 묘호는 세조, 부친의 묘호는 유종(裕宗)이었다. 그리고 6월에 세조와 유종의 시호를 반포했고,⁹ 곧 『세조실록』을 편찬하라는 조서가 한림국사원에 내려졌다.¹⁰ 이때 완택(完澤)이 감수국사를 맡아 1년이 채 되지 않은 11개월 만에 한림승지 동문용(董文用) 등은 『세조실록』을 1차로 마무리했다.¹¹ 1296년 11월에는 올도대(兀都帶) 등이 몽골어로 번역된 『태조실록』·『현종실록』·『세조실록』을 성종에게 바쳤다. 진독(進讀)을 위해서였다.¹² 그리고 1304년 한림학사승지 살리만(撒里蠻)이 금서(金書)로 된 『세조실록절문(世祖實錄節文)』 1책과 한문으로 된 『세조실록』 80책을 진상하면서 마무리되었다.¹³ 10년간의 사업이었다. 1295년 5월 진헌된 한문본 『세조실록』을 대상으로 1년 6개월간의 축약 번역으로 이루어진 몽골어본 『세조실록』이 이후 8년이 넘는 기간을 거쳐 완료된 것이다.¹⁴ 진독 과정에서 제시된 황제

8 『원사』 권17, 세조14, 지원 31년 정월 계유 및 4월 갑오.

9 『원사』 권18, 성종1, 지원 31년 5월 무오 및 6월 을미.

10 『원사』 권18, 성종1, 지원 31년 6월 갑진, “詔翰林國史院修世祖實錄 以完澤監修國史.”

11 『원사』 권18, 성종1, 원정 원년 5월 갑인, “翰林承旨董文用等進世祖實錄.”

12 『원사』 권19, 성종2, 원정 2년 11월 기사, “兀都帶等進所譯太宗, 憲宗, 世祖實錄 帝曰 忽都魯迷失非昭睿順聖太後所生 何爲亦曰公主 順聖太後崩時 裕宗已還自軍中 所計月日先後差錯 又別馬裏思丹炮手亦思馬因, 泉府司 皆小事 何足書耶.”

13 『원사』 권21, 성종4, 대덕 8년 2월 갑진, “翰林學士承旨撒里蠻進金書世祖實錄節文一冊, 漢字實錄八十冊.”

14 원의 실록편찬에 대해서는 김호동, 2009, 「元代の 漢文實錄과 蒙文實錄-『元

의 지적 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간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세조실록』의 편찬은 1294년 6월 시작된 후 10년에 걸친 작업 끝에 몽골어본 『세조실록절문』 1책과 한문본 『세조실록』 80책으로 마무리되었지만, 1295년 5월 1차 마무리된 한문본 『세조실록』은 커다란 범위에서 볼 때, 완성본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런데 고려에서 『선제사적』 편찬의 명이 내려진 것은 1295년 3월이었다. 원에서 『세조실록』 편찬이 시작된 것보다 9개월이나 늦은 때였고, 한문본 『세조실록』(1차본)이 완성되기 불과 2개월 전이었다. 원에서 『세조실록』 편찬에 대한 상황을 직접 파악한 충렬왕이 귀국 후 세조에 관한 사적을 편찬하라는 명을 내린 것이다. 물론 고려에서도 편찬을 서둘러 6개월 만에 마무리하여 10월에 원에 진상했지만, 이때는 원에서 한문본 『세조실록』의 편찬이 마무리된 지 5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이것은 『세조실록』의 편찬에 『선제사적』이 참조되지 못했고, 참조될 성격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¹⁵

이런 측면에서 고려의 『선제사적』 편찬을 원의 『세조실록』 편찬과 직접 관련한 사업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먼저 실록은 국사원에서 당대의 시정기(時政記)와 기거주(起居注) 등을 참고해서 편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에 속한 제국(諸國)에까지 자료 요청을 확대해서 편찬할 성격이 아니었다. 따라서 원에서 『세조실록』 편찬을 위해 고려에 자료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자료 A에서 원과 관련한 어떤 언급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할 수 있다. 물론 『선제사적』 편찬을 『세조실록』 편찬과 관련해서 추측하면서 국사원의 자료 요구가 고려에 늦게 도착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도 있다. 앞서 『제국신복전기』를 편찬하라는 황제의 명이 있는 지 2년 만에 중서성에서 그에 대한 조치를 고려에

史』 「本紀」의 中國中心의 一面性의 解明을 위하여, 『동양사학연구』 109, 동양사학회 참조.

- 15 『선제사적』과 『세조실록』을 史草와 史書의 관계에서 파악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고려에서 『선제사적』의 편찬 시기가 너무 늦다. 충렬왕의 『선제사적』 편찬 명령이 한문본 『세조실록』 편찬이 완료된 2개 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요구하고 있는 데서 검토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선제사적』의 편찬은 원의 요구와 관계없이 고려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세조는 고려 국왕이 친조한 첫 황제로 고려와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로서는 이전의 다른 황제들과 달리 친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쿠빌라이 즉위와 함께 고려가 원의 동방왕가사업에서 쿠빌라이의 독자적인 사업 영역으로 재편되었다는 견해를 고려할 때,¹⁷ 그 관계는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세조를 이어 황제에 오른 성종은 충렬왕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세조의 장례에서 충렬왕을 비롯한 고려 신료의 빈전(殯殿) 출입이 허용되었고, 제국(帝國)의 제왕과 부마의 서열에서 충렬왕이 7위였다.¹⁸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조의 영향력에 따른 것이었을 뿐, 새로 즉위한 황제와의 관계는 다시 설정되어야 했다. 성종이 한림학사를 시켜 고려의 신복(臣服)한 날짜를 확인하고,¹⁹ 몽골어본 『세조실록』을 진독하면서 충렬왕비인 제국대장공주가 세조의 정비인 소예순성태후의 소생이 아닌데 공주의 칭호를 주는 것이 적정한지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²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²¹ 충렬왕의 『선제사적』 편찬과 진상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세조를 추모하는 가운데 고려와의 특별한 관계를 드러내어 그 관계가 이후 지속될 것을 기대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를 담당했던 동수국사 임익은 신종 때 수태부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내고 무인집권기에 문병으로 명성이 높았던 임유의 손자로, 아버지 임경렴도 동지추

16 원의 요청에 의해 편찬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박종기, 2011, 「원 간섭기 역사학의 새 경향-당대사(當代史)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31, 한국중세사학회, 401쪽.

17 정동훈, 2020, 「동방왕가의 사업에서 쿠빌라이의 사업으로-쿠빌라이의 즉위와 고려~몽골관계의 큰 전환-」, 『한국사연구』 191, 한국사연구회.

18 『고려사』 권31, 충렬왕 20년 1월 계유(22일) 및 4월 갑오(14일)..

19 『고려사』 권31, 충렬왕 20년 5월 갑인(5일) 및 권105, 열전18, 정가신.

20 『원사』 권19, 성종2, 원정 2년 11월 기사.

21 원 성종과 충렬왕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동훈, 2017, 「고려 元宗·忠烈王대의 親朝 외교」, 『한국사연구』 177, 한국사연구회, 170~182쪽 참조.

밀사 한림학사승지를 지냈다.²² 그는 고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대제로 무인집정자 최항의 아들인 최의에게 글과 정사(政事)를 가르쳤다.²³ 그가 희종 때 직사관으로 사고를 작성하면서 비평한 사론(史論)이 1267년(원종 8) 편찬된 『희종실록』에 실렸고, 1273년에는 한림시독학사로 국자시를 주관했다.²⁴ 1277년(충렬왕 3) 동궁에 배속되어 좌찬덕이 되었고, 1279년에 밀직부사를²⁵ 거쳐 대사성에 올랐다. 예도(禮度)에 밝고 익숙했기 때문에 판합문사로 임명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집안의 가풍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동수국사에 올랐고, 첨의시랑찬성사로 치사했다.²⁶ 아는 것이 많고 기억력이 좋았으며, 전례(典禮)와 고사(故事)에 아주 익숙해서 묻는 것이 있으면 분명하게 답하는 것이 메아리처럼 자연스러웠다는 평을 들었다.²⁷

그는 일찍이 왕명으로 왕실세보인 『선원록』을 찬술했는데, 이 역시 이름만 전해진다. 그런데 그의 백부였던 임경숙은²⁸ 또 다른 왕실세보인 『경원록(瓊源

-
- 22 임유는 16년간 制誥를 맡아 당시의 문장과 중요한 저술이 모두 그에게서 나왔고, 4차례나 과거를 주관하여 趙冲·李奎報·金敞·俞承묘 등을 선발했다. 《고려사》 권95, 열전8, 임의 附 임유. 임경렴 또한 1231년(고종 18) 국자감시를 주관한 바 있고, 이규보 등과 교유했다.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과목2, 고종 18년 4월: 『보한집』 권중, 「文順公與俞尹諸同年席上和任副樞景謙寢屏六詠列子御風云」.
- 23 『고려사』 권129, 열전42, 반역, 최충헌 附 최항.
- 24 『고려사절요』에는 희종 5년 9월에 최충헌의 관직 남발과 전횡을 비판하는 史臣 任翊의 평이 실려 있다. 그가 이때 직사관으로 史藁를 작성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고려사절요』 권14, 희종 5년 9월 및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과목2, 원종 14년 9월. 무인집권기의 실록 편찬과 왜곡 양상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고자 한다.
- 25 『고려사』 권28, 충렬왕 3년 1월 갑오(4일) 및 5년 2월 병오(29일).
- 26 『고려사』 권32, 충렬왕 27년 7월 을묘(18일). 任翊의 최종 관직으로 1295년의 동수국사와 1301년의 첨의시랑찬성사가 확인된다. 1295년 3월 이전에 동수국사로 치사했다가 『선제사적』을 편찬한 공으로 첨의시랑찬성사로 올려 다시 치사한 것으로 추측된다.
- 27 『고려사』 권95, 열전8, 임의 附 임익; 『고려사절요』 권22, 충렬왕 27년 7월.
- 28 『고려사』 권95, 열전8, 임의 附 임유. 임경숙은 감수국사 평장사 崔甫淳, 수찬관 金良鏡 등과 함께 『명종실록』을 편찬했고(『고려사』 권22, 고종 14년 9월 경진

鐵)』을 찬술한 바 있다.²⁹ 임익이 왕명으로 『선원록』을 찬술한 것은 『경원록』을 찬술한 집안의 경험을 이은 것으로, 거기에서도 왕실세계는 『경원록』 등을 따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관수찬관으로 『선제사적』의 편찬에 참여했던 김변은 1218년 몽골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 열었던 김취려의 손자이자 문하시랑평장사 김전의 아들이다. 1263년(원종 4) 문음으로 관직에 나간 그는 1268년 과거에 급제한 뒤 이듬해 국자박사가 되었고, 1270년 합문지후를 지냈다. 1290년 정가신과 함께 동지공거로 과거를 주관하였고, 1295년 판비서시사, 우승지 등을 거쳐 1298년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동지자정원사 의조판서 동수국사가 되었으며, 1300년 첨의참리 집현전대학사 동수국사를 지냈다.³⁰

이때 감수국사가 누구였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편찬 도중인 1295년 8월 감수국사가 홍군상으로 교체되었다. 그는 부원세력으로 원에서 활동했던 홍복원의 아들이자 홍차구의 동생이다. 충렬왕은 원에 입조했을 때 그의 집에 머물곤 했다. 감수국사를 원에 가까운 인물로 교체한 것은 『선제사적』의 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그가 세자와 가까운 인물이었지만, 이때 그는 원에서 집현전대학사로 있었다. 따라서 충렬왕 입장에서 새로운 황제와의 관계를 적극 모색할 필요에 따라 편찬하던 『선제사적』의 책임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 성종

(4일), 4차례의 과거를 주관하여 柳璣 등을 선발한 바 있으며(『보한집』 권상, 「門生之於宗伯 執父子禮」), 최자·김구 등과 함께 문명을 떨쳤다(『고려사』 권102, 열전15, 최자). 최종 관직은 동중서문하평장사 수문전대학사 판이부사였다.

29 여기에서는 宗子만 기록한 『고려사』 「종실전」과 달리 김관의의 『王代宗錄』과 마찬가지로 宗女나 宗子를 병렬로 기록하여(『익재난고』 권9하 및 『동문선』 권85, 서, 「宗室傳序」) 고려시대 친족제도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또 김관의의 『왕대종록』, 민지의 『본조편년강목』과 같이 현종의 할머니이자 안종의 어머니를 대량원부인 이씨인 태위 이정언의 딸로 기록했다(『고려사절요』 권1, 태조 18년 12월, 李齊賢曰). 이 역시 경순왕의 백부인 잡간 김억렴의 딸로 기록한 『고려사』(『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 태조후비 신성왕태후김씨)와 차이가 있다.

30 이익주, 2006, 「墓誌銘 자료를 통해 본 고려후기 官人의 생애: 金賸(1248~1301)의 사례」, 『한국사학보』 23, 고려사학회.

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홍군상이 이때 원의 집현전대학사였기 때문에 감수국사를 배수했다는 『고려사절요』의 서술은 유의할 만하다.³¹

임익과 김변 역시 『선계사적』을 편찬하는 데 책임자였다. 임익은 조부 때부터 조정에서 문한을 대표하고 있었고, 백부인 임경숙이 찬술한 왕실세보인 『경원록』에 이어 그 역시 『선원록』을 편찬하여 왕실을 비롯한 조정의 제반 상황과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전례와 고사에 밝았다는 평은 이를 의미한다. 특히 그가 동수국사로 치사했다는 점에서 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당대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주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김변의 경우에도 조부인 김취려는 원과의 관계에서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부친인 김전은 원종이 태자 신분으로 몽골에 입조했을 때인 1260년(원종 1) 충렬왕이 태손으로 왕위를 대리하면서 내린 인사에서 추밀원부사에 제수되었다. 1263년에는 수사도 지문하성사 태자소부에 임명되었고, 참지정사로 단련조병도감판사가 되어 일본정벌을 준비하기도 했다.³² 또 1270년 5월에는 평장사로 폐위되었다가 세조의 지원으로 복위되어 고려로 돌아오면서 개경으로 들어간 원종을 알현하기 위해 조정을 대표하여 류경과 함께 강화에서 개경으로 오기도 했다.³³

특히 김변은 1270년부터 세자인 왕십을 따라 원에 가서 4년을 모셨고, 국왕으로 귀국하는 충렬왕을 호종한 바 있다. 이때 충렬왕은 김변을 이등공신으로 녹훈하며, “네 공은 큰데 나의 상은 작다. 네게 비록 죄가 있더라도 열 번 범하면

31 『고려사절요』 권21, 충렬왕 21년 8월, “以世子判都僉議密直監察司事 洪子藩知都僉議司事 洪君祥爲都僉議中贊修文殿大學士監修國史世子師臨安公 國制非出身科第 不得爲文翰官 崔瑀擅政 自爲監修國史 猶不得兼修文殿 君祥時爲元朝集賢大學士 故得拜焉.”

32 『고려사』 권25, 원종 원년 1월 무인(10일) 및 원종 4년 12월 병인(20일); 권26, 원종 9년 11월 을축(18일).

33 『고려사』 권26, 원종 11년 5월 갑자(25일).

아홉 번은 용서할 것이고, 자손들에게도 같이 할 것”이라는 서권(誓券)을 주었다.³⁴ 이것은 세자 신분으로 원에서 보낸 4년의 숙위를 함께 한 김변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겠지만, 그 배경에는 원과의 관계에서 김취려-김전을 이은 그의 집안에서의 역할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는 원의 사정에도 밝았고, 집안 또한 원과의 관계에서 잘 알려져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선제사적』의 편찬에 참여한 감수국사 홍군상, 동수국사 임익, 사관수찬관 김변은 당시 고려 조정에서 이를 담당할 최선의 책임자였다.³⁵

『선제사적』을 원에 진상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장군 유온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원에서 고려에 요구한 미곡의 양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6개월 전에도 원에 파견되어 2만 석을 줄이라는 성종의 허락을 받은 바 있다. 또 조비무고사건에 연루되어 황제의 명으로 최충소와 함께 순마소에 갇히기도 했다.³⁶ 이로 미루어 유온 또한 원과의 관계에서 일익을 담당했던 인물로 『선제사적』을 진상하며 고려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책임자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선제사적』 편찬의 명을 내린 직후 충렬왕은 찬성사 인후를 원에 보내 세자의 혼인을 요청하고, 좌승지 류비(류청신)를 보내 자신에게 태사 중서령의 관직을 덧붙여 줄 것, 1년 전 안평공주로 책봉한 계국대장공주에게 인장(印章)을 내려줄 것, 세자 왕장의 인장을 고쳐줄 것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모두 거절되었다.³⁷ 그런데 『선제사적』의 진상 이후 분위기는 다소 변화가 감지된다. 1296년 정월 다시 부지밀직사사 류비를 원에 보내 세자의 혼인을 청하고 입조도 요청

34 『고려사』 권103, 열전16, 김취려 附 김변.

35 김변은 『선제사적』을 편찬한 이후 동수국사를 역임했다. 『고려사』 권33, 충선왕 즉위년 7월 무술(14일); 「김변묘지명」(<http://db.history.go.kr/>).

36 『고려사』 권31, 충렬왕 21년 4월 계묘(21일); 권89, 열전2, 후비, 충선왕후비 계국대장공주 및 『고려사절요』 권22, 충렬왕 24년 5월.

37 『고려사』 권31, 충렬왕 21년 5월 정해(14일); 『원사』 권18, 성종 1, 원정 원년 6월 임자 “高麗王王暉乞爲太師中書令，不允.”

했다.³⁸ 이에 원에서는 세자의 혼인 날짜를 알리는 한편 황제가 직접 충렬왕의 입조를 재촉하여 충렬왕은 공주와 함께 성종 즉위 후 첫 번째 입조를 했다.³⁹ 세자의 혼인을 위한 것이었다.

A-6. 원 황제가 성의 남쪽에 행차하여 觀獵했는데, (충렬)왕이 황제를 扈從하다 가 아뢰기를 “臣의 선왕인 王禎은 몽케 황제 때인 기미년(1259)에 세자로서 入朝했습니다. 그때 세조 황제께서 南征에서 돌아오시던 길이었는데, 선왕이 도포를 입고 홀을 들고 汴梁의 빈터에서 영접했더니 세조께서 가상히 여겨 충애가 날로 융숭해졌습니다. 小臣에 이르러 공주를 시집보내주시고 대대로 東藩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청컨대 기미년 이래의 포로나 流民 중에서 遼陽과 瀋陽에 있는 자들은 모두 귀국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였다. 황제가 이를 허락하자 왕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사례하였다 [『고려사』 권31, 충렬왕 23년 2월 기해(6일)].

1297년(충렬왕 23) 2월 성종이 성 남쪽에서 관렵하는 것을 호종하던 충렬왕은 1259년(고종 46) 고려 태자였던 원종이 쿠빌라이에게 술선귀부하여 원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끌려온 포로와 유민 중에서 요양과 심양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귀국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허락받았다. 그런 가운데 충렬왕은 세조와 원종, 자신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선제사적』에 실린 내용을 토대로 했을 것이다. 물론 이때 성종이 충렬왕의 요청을 수용한 것은 진왕 감말라(甘麻剌)의 딸인 계국대장공주와 고려 세자 왕장의 혼인을 축하하는 선물의 성격이 있다. 그렇지만 고려는 이를 위해 쿠빌라이 시대 원과 고려의 관계를 정리한 『선제사적』을 편찬·진상하여 선제(先帝)를 추모하는 한편, 제국(諸國)과는 다른 두 나라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여 세자의 혼인과 원이 고려 유민을 쇠환시

38 『고려사』 권31, 충렬왕 22년 1월 임신(3일) 및 7월 을미(28일).

39 『고려사』 권31, 충렬왕 22년 8월 무오(22일) 및 9월 정해.

키는 국익을 챙길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쿠빌라이 사망 이후 고려 자체적으로 편찬하여 원에 진상한 『선제사적』의 성격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세조실록』 편찬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원의 편찬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충렬왕이 고려의 국익을 위해 세조를 이은 성종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능동적인 측면에서 추진된 것이다.⁴⁰

Ⅲ. 태정제 이순테무르의 집권과 『김공행군기(金公行軍記)』

B-1. 원나라 중서성에서 牒文을 보내 이르기를 “成吉思皇帝(칭기즈칸) 이후 능력을 발휘해서 공을 세운 사람을 史策에서 抄錄하여 바치라고 했는데, 國史院의 건의를 따른 것이다[『고려사』 권35, 충숙왕 12년 12월 계미(7일)].

자료 B-1은 1325년(충숙왕 12) 12월에 시행된 원 중서성 첩문의 일부이다. 국사원의 요청에 따라 칭기즈칸 이후 능력을 발휘해서 공을 세운 사람을 사책(史策)에서 초록해서 바치라는 것이다. 이때는 1325년(태정제 2)으로, 국사원에서 이와 같이 조치한 배경과 결과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는 『원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태정제 이순테무르는 세조 이후 성종 → 무종·인종 → 영종으로 이어지던 계보와는 다른 갈래였다. 그는 세조의 황태자였던 친김(眞金, 유종)의 아들인 진왕 감말라(甘麻剌, 현종)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감말라가 성종 테무르와의 경쟁에서 패해 그의 일가는 황제위를 다시는 넘보지 않겠다는 맹세를 해야만 했다.⁴¹

40 1287년 충렬왕에게 봉진되었다가 元貞 연간(1295~1297) 改撰과 開刊이 이루어진 이승휴의 『제왕운기』도 『선제실록』과 함께 함께 원에 진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41 『원사』 권29, 태정제1, 지치 3년 9월 기사, “卽皇帝位於龍居河 大赦天下 詔曰 … 我累朝皇帝根底 不謀異心 不圖位次 依本分與國家出氣力行來 ….”

태정제는 즉위 후 인종과 영종이 한법(漢法)을 추진하며 생겨난 갈등과 내분의 수습, 영종의 피살로 야기된 각종 의혹의 무마 등을 위해 제왕·종척에 대한 대우를 대대적으로 제고했다고 한다.⁴²

아울러 태조부터 내려온 황제위의 적통이 자신에게 이어졌다는 정통성 또한 다시 세워야 했다. 즉위 조서에서 세조-유종-감말라로 이어지는 적통임과 성길사(成吉思) 황제의 대오르도(大斡耳朵里)에서 즉위하였음을 천명한 것은⁴³ 단적인 사례이다. 1324년(태정 1) 태묘에 신전(新殿)을 새로 짓고 열성(列聖)의 신주를 옮겼다.⁴⁴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지만, 감말라를 태묘에 안치하여 태정제의 가계를 중심으로 태묘를 정비한 것으로 짐작된다.⁴⁵ 또 태조신어전(太祖神饗殿)을 수리하고,⁴⁶ 국사원을 통해 보경사(普慶寺)에서 태조·태종·예종을 제사했다.⁴⁷ 1325년에는 역대황제의 훈요를 모은 『제훈(帝訓)』과 몽골어본인 『황도대훈(皇圖大訓)』을 간행하여 경연에서 진강(進講)한 바 있고, 몽골어본 『세조성훈(世祖聖訓)』도 별도로 간행하여 역시 경연에서 진강하도록 했다.⁴⁸ 이들은 모

42 태정제 즉위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최윤정, 2014, 「元代 兩都內戰(1328)과 동북지역-요양행성과 동도제왕 세력의 향배 및 세력 浮沈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6, 동북아역사재단, 123~142쪽; 권용철, 2019, 「權臣 권력의 성장과 갈등의 고조」, 『원 중후기 정치사 연구』, 도서출판 온샘, 193~207쪽 참조.

43 『원사』 권29, 태정제1, 지치 3년 9월.

44 『원사』 권29 태정제1, 태정 원년 4월 신사 및 5월 무술.

45 1307년 황제에 오른 무종은 태묘를 정비하여 성종과 함께 同母兄弟인 타르마발라(答刺麻八剌)를 順宗으로 추존하고 태조를 중심으로 西室에는 예종(틀루이, 1실)-세조(2실)-유종(3실), 東室에는 순종(1실)-성종(2실)을 모셨다. 『원사』 권22, 무종1, 대덕 11년 6월 정유. 이런 태묘의 昭穆이 태정제 즉위 후 그 가계를 중심으로 재정비되었고, 태묘의 神主를 옮겼다는 것은 이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46 『원사』 권29 태정제1, 태정 원년 9월 병신.

47 『원사』 권29 태정제1, 태정 원년 8월 신해; 권30 태정제2, 태정 3년 2월 갑신 및 4년 2월 갑술. 국사원에서 태조·태종·예종의 御容을 모시는 봄가을의 제사는 인종이 즉위한 1311년(지대 4)에 처음 열려 이후 상례가 되었다. 『원사』 권24 인종1, 지대 4년 6월 정사. 예종은 태조의 말자로 이후 쿠빌라이로 이어진 황제 계승의 정통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두 태정제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⁴⁹

자료 B-1 또한 이런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1311년(지대 4) 인종 이후에는 실록 편찬과 함께 역대 황후 및 공신 열전도 함께 편찬되었다.⁵⁰ 자료 B-1은 이런 분위기에서 제국(諸國)에 요구된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그렇다고 이 자료를 실록 편찬에 활용하려고 요구한 것은 아닐 것이다. 역대 황후와 공신 열전의 편찬이 태조를 중심으로 제국(帝國)의 정통성과 결속력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면, 그 범위에 자리한 고려를 포함한 각국에 그에 준하는 자료 편찬을 요구한 것 역시 각국의 국왕뿐만 아니라 신료들 또한 대원 제국의 신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이에 앞서 원에서 정치 활동을 했던 충선왕은 인종의 사후 새로 황제에 오른 영종 세력에게 밀려 1320년(충숙왕 7) 12월에 티베트로 유배되었고, 곧바로 충숙왕에게도 입조의 명이 내려지고 국새를 빼앗겼다. 이후 충숙왕은 심왕 왕고와의 갈등으로 대도(大都)에 억류될 수밖에 없었다. 1323년 9월 원에서 태정제가 즉위하고 충선왕이 대도로 소환되면서 1324년 정월 충숙왕에게도 환국의 명이 내려지고 국새를 돌려받았다.⁵¹ 이런 상황에서 자료 B-1의 첩문이 도착한 것이다. 고려에서는 태정제 정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기(傳記)를 편찬할 필요가 있었다.

48 『원사』 권29 태정제1, 태정 2년 7월 갑인; 권30 태정제2, 태정 3년 2월 병인; 권30 태정제2, 태정 3년 7월 을묘 및 4년 7월 무술.

49 원에서 태조는 무공으로 천하를 평정한 황제로, 세조는 文德으로 海內를 아우른 황제로 평가되어(『원사』 권22, 무종1, 대덕 11년 5월 갑신) 동지에 남교에서 설행되는 祭天(鬪丘)에서는 태조가, 하지에 북교에서 설행되는 제천(方丘)에서는 세조가 배향되었다. 『원사』 권23, 무종2, 지대 2년 11월 을유 및 지대 3년 10월 병오. 태조는 開創에, 세조는 混一에 공이 있는 황제로 원 황실의 두 축이었다. 『원사』 권29 태정제1, 태정 2년 정월 경술.

50 『원사』 권24 인종1, 지대 4년 5월 병자, “命翰林國史院纂修先帝實錄及累朝皇後, 功臣列傳 俾百司悉上事跡”; 권27 영종1, 지치 원년 3월 갑신, “敕纂修仁宗實錄, 後妃, 功臣傳.”

51 『원사』 권29 태정제1, 태정 원년 정월 갑인.

고려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대상이 되어 전기가 편찬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칭기즈칸 이후 공을 세운 사람을 선정하는 데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고려의 신료로서 그 공이 원에서도 인정할 만한 것이어야 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그것으로 원에서 고려의 현안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입성책동을 저지할 만한 것이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두 나라 간에 첫 번째 접촉이었던 강동성 전투는 조건에 부합했다. 그 시기가 칭기즈칸 때의 일이어서 고려의 솔선귀부를 내세울 수 있었고, 이때의 형제맹약으로 고려는 속국이지만 독립국으로서 존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입성책동이 있을 때마다 고려에서 거론한 첫 번째 역사가 충헌왕이 조충과 김취려를 보내 몽골(원)의 군대를 원조하고 군량을 조달하여 거란병을 공격해 대파했고, 이런 연유로 두 나라의 관계를 인정하는 칭기즈칸으로 조서를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국사원의 요청에 대해 고려에서는 강동성 전투에서 활약했던 조충과 김취려를 대상으로 공적을 찬술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의논되었는데, 배경에는 그 주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입성책동에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 역시 고려되었을 것이다.⁵²

강동성 전투에서 몽골과 연합군의 형식으로 참전했던 김취려(1172~1234)의 활약상을 담은 이제현의 『김공행군기』가 그것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⁵³ 일단 그 시기가 칭기즈칸과 같은 시기였다는 점에서 칭기즈칸 이래 황실의 정통성을 재확립하려는 태정제 정권의 요구에 부합했다. 이를 계기로 양국의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인식된 점은 더욱 그러했다. 그의 평생을 범위로 하지 않고 1216년(고종 3) 8월부터 1220년 5월까지의 강동성 전투로⁵⁴ 국한했다는 것도 원의 편찬

52 이런 측면에서 1330년(충혜왕 즉위) 윤7월경 전 정동행성 좌우사랑중 蔣伯祥에 의해 제기된 입성책동에 대해 충혜왕이 원의 엘테무르(燕帖木兒) 우승상에게 보낸 편지 또한 마찬가지이다. 『고려사』 권36, 충혜왕 즉위년 윤7월 무자(9일) 및 경인(11일). 이 조치로 이때의 입성책동은 중단되었는데, 그 배경으로는 우승상 엘테무르가 충혜왕 정권을 지지하고 있었던 것을 지적할 수 있다.

53 자료 B-1의 중서성 첩문이 고려에 접수되기 10여 일 전에 이제현은 추성양질공신 정당문학을 제수했다. 『고려사』 권35, 충숙왕 12년 11월 경오(24일).

54 『동문선』에는 李奎報가 지은 「忠憲王謝聖朝遣師臣討平遼賊表」가 전해진다.

지침과 관련한 것이었다고 짐작된다. 고려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서 ‘술선귀부’라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주제와 인물이었다. 원에서 제국(帝國)의 판도에 들어와 있는 여러 제국(諸國)의 서열을 자진해서 귀부한 순서로 정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특히 세조가 그 사실을 고려 원종에게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⁵⁵ 고려에서는 이를 증명해야만 했다. 그것은 국익에 민감한 것으로, 특히 지속해서 거론되었던 입성책동에 대응할 유일한 방패이기도 했다.⁵⁶ 이런 측면에서 『김공행군기』의 편찬 배경은 술선귀부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었다고 할 것이다.⁵⁷

『김공행군기』에 대한 검토는 이미 상세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⁵⁸ 그렇지만

-
- 내용은 거란의 침입을 몽골 大聖이 보내준 神兵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를 표하고, 신하의 직분으로 복종하겠다는 것이다. 강동성 전투와 관련해서 고려에서 몽골에 보낸 謝表이다. 특히 고려가 箕子之封을 이었다고 밝히고 있음은 중국과 사대관계의 연원을 나타내려는 목적이었다. 주체가 충현왕으로 밝혀져 있는데, 이것은 후대에 改書된 것이다. 『동문선』 권37, 表箋, 「忠憲王謝聖朝遣帥臣討平遼賊表」, “小邦無罪 久罹強寇之侵凌 大聖應期 特出神兵而汎掃 恩靈所暨 疲瘵同蘇【中謝】 伏念臣世承箕子之封 舊接契丹之壤 曾未有與我釋憾之故 迺今舉如此無名之兵 闖入封疆 大殘人物 顧蜂毒之滋甚 出虎旅以莫除 豈謂義篤恤隣 仁深字小 勅降鷹揚之衆 就平蟻聚之徒 僞王自斃於城中 殘孽悉降於鉞下 函生再活 舉國歡呼 臣敢不祝天壽之無疆 少酬萬一 迷臣職而嚮內 罔有二三.”
- 55 『원사』 권7, 세조4, 지원 7년 2월 을미, “高麗國王王禎來朝 求見皇子燕王 詔曰 汝一國主也 見朕足矣 禎請以子懽見 從之 詔諭禎曰 汝內附在後 故班諸王下 我太祖時亦都護先附 卽令齒諸王上 阿思蘭後附 故班其下 卿宜知之.”
- 56 고려는 세조 사후 칭기즈칸 때 몽골에 제일 먼저 복속했다는 ‘술선귀부’ 기억을 생산하여 이를 적극 활용했다. 이를 앞세운 고려의 외교활동은 몽골 지배층의 인식을 변화시켜 외교 분쟁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고려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고명수, 2014, 「몽골의 ‘복속’ 인식과 蒙麗관계」, 『한국사학보』 55, 고려사학회.
- 57 『김공행군기』가 我軍의 戰功만 기록하고 손실과 피해는 대부분 은폐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전투기라고 할 수 없고, 戰勝 원인에 대한 설명도 지리와 상황에 대해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정구복, 1981, 「李齊賢의 歷史意識」, 『진단학보』 51, 진단학회, 251쪽. 그런데 그것은 “칭기즈칸 이후 능력을 발휘해서 공을 세운 사람”에 찬술 목적이 맞추어져 있었던 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 58 박종기, 2011, 앞의 글; 박종기, 2012, 「월 간섭기 김취려상(金就礪像)의 형성과

풀어야 할 몇 가지 궁금증이 있다. 우선 왜 조충(趙沖, 1171~1220)이 배제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강동성 전투에서 고려의 사령관은 조충이었고,⁵⁹ 김취려는 부사령관이었다.⁶⁰ 그런데도 조충을 제치고 김취려가 전기 편찬의 대상으로 선택되었다. 1294년(충렬왕 5) 5월 고려의 귀부 연월에 대한 원 한림학사 살라만의 질문에 대한 정가신의 대답에서도 확인되듯이 고려의 강동성 전투에 대한 공적은 조충과 김취려에 맞춰져 있었다.⁶¹ 그것은 원에서도 인정하는 바였다. 고려의 입장에서는 솔신귀부의 사례를 증명하는 확실한 사례였기 때문에 그 공적에서 조충을 배제할 필요가 없었다.⁶² 그럼에도 조충이 제외되고, 김취려만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때 참전했던 장수들과 달리 김취려만 자신해서 몽골군 진영에 가서 접촉하는 등 연합작전에 적극적이었던 반면에 조충의 역할은 크지 않았기 때문이

당대사(當代史) 연구, 『韓國思想史學』 41, 한국사상사학회.

- 59 『동문선』 권116, 誄, 「金紫光祿大夫 守太尉門下侍郎 同中書門下平章事 上將軍 修文殿大學士 修國史 判禮部事 趙公誄書」(李奎報). 趙沖은 交州 橫川郡에 적을 두었고, 이규보와 동년이다. 형인 趙準은 1184년(명종 14) 琴克儀와 함께 과거에 급제했다. 그는 우승선으로 동지공거가 되어 1202년(신종 5) 추밀원사 지공거 金平과 과거를 주관했다. 『동인지문오칠』 권7, 「趙準小傳」.
- 60 조충과 김취려는 후에 李杭과 함께 고종 묘정에 배향되었다. 『고려사』 권60, 지14, 예2, 길례대사, 태묘, 締祫功臣配享於庭.
- 61 『고려사』 권31, 충렬왕 20년 5월 갑인(5일), “帝嘗使翰林學士撒刺蠻 問高麗歸附年月 王使鄭可臣 上書以對曰 太祖聖武皇帝 肇興朔方時 則有大勢國 助征金國 恃功而驕 不用帝命 有金山王子者 改其國號 自稱大遼 奪掠中都等處子女玉帛 東走江東城拒守 朝廷遣哈眞·扎刺追討 時方雪深道險 糧餉不繼 高王聞之 遣趙沖·金就勳 濟兵犒師 殲其醜虜 因奉表 請爲東藩 太祖遣慶都虎思 優詔答之 大加稱賞 于今七十有六年矣.” 이것은 이후 입성책동과 관련한 고려의 대응이나, 충혜왕 복위를 청하기 위해 정동행성에 올린 上書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고려사』 권36, 충혜왕 즉위년 윤7월 경인(11일) 및 충혜왕(후) 즉위년 6월 임진(5일).
- 62 『元高麗紀事』에서는 趙沖만 언급되어 있다. 『元高麗紀事』, 太祖皇帝, “十三年 戊寅 上遣哈只吉 割刺等領兵征之 高麗人洪大宣詣軍降 與哈只吉等一同圍攻 高麗王 獻奉牛酒出迎王師 始行歸行之禮 且遣樞密院使吏部尚書上將軍翰林學士承旨趙沖來助 併力攻滅六哥 割刺與沖約爲兄弟 以結世好 請歲輸貢賦 割刺曰 爾國道遠 難于往來 每年可遣使十人 賫特赴上.”

었다는 견해가 있다.⁶³ 하지만 그 배경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와 관련해서 조충과 김취려 이후 그 자손들의 정치 활동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충은 강동성 전투가 마무리된 직후인 1220년 9월 사망하여⁶⁴ 이후 몽골과의 관계에서 김취려와 달리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들로 조속창과 조계순을 두었는데, 조계순은 문하시랑평장사에 이르렀고 광정(光定)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조계순의 아들은 조변인데, 김방경의 사위로 장인을 따라 삼별초 토벌과 일본정벌에 참여한 바 있다.⁶⁵

그런데 조속창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그는 몽골과의 전쟁 기간에 장군으로 살리타이 진영과 교섭하는 역할을 하였고, 1231년(고종 18)과 1232년에는 대장군과 상장군으로 몽골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⁶⁶ 그런데 그는 필현보의 반란에 연루되어 1234년 3월 참수되었다.⁶⁷ 1233년 5월 서경에서 필현보와 홍복원이 반란을 일으켜 필현보는 저자에서 참수되었지만, 홍복원은 몽골로 도망가(원의 입장에서는 귀부) 이후 부원세력으로 고려의 골칫거리가 되었다.⁶⁸ 조충의 아들 조속창이 이에 연루된 것이다.

반면에 김취려와 그 자손들의 경우는 달랐다.⁶⁹ 김취려는 1227년(고종 14)

63 박종기, 2011, 앞의 글; 박종기, 2012, 앞의 글. 조충을 애도하며 지은 俞升旦의 시에서는 “위대한 공적을 이미 나라의 깃발에 드날렸고 더욱 강직한 절개는 눈과 서리를 능가했다”고 읊었다. 『동인지문오칠』 권7, 「次韻孫綸院朴哭趙平章冲」(俞升旦) “已將偉績揭旗常 更把剛腸傲雪霜 一代黑頭名宰相 當年緣髮少賢良 橫流鎮俗如山嶽 儉歲傾人似稻梁 社稷安危方繫望 乘雲何忽去堂堂.”

64 『고려사』 권22, 고종 7년 9월 기축(3일).

65 『고려사』 권103, 열전16, 조충.

66 『고려사』 권23, 고종 18년 12월 갑술(23일) 및 경진(29일); 고종 19년 4월 임술(12일).

67 『고려사』 권23, 고종 21년 3월 갑진(6일); 권130, 열전43, 반역, 조속창.

68 『고려사』 권23, 고종 20년 5월; 권130, 열전43, 반역, 홍복원.

69 고려와 몽골의 초기 교섭에서 김취려의 공을 이색은 다음과 같이 읊은 바 있다. 『목은시고』 권19, 「金漁友求銘乃祖幽堂 因吟」(四首) “(一) 大元天子撫桑墟 貞烈公家奉詔初 諸將無功終不問 百年熙治此權輿.”

태자부가 세워지자 참지정사로 문하시중 이연수와 함께 국왕이 하사한 책(冊)과 인(印)을 전달한 바 있다.⁷⁰ 이듬해에 수태위 중서시랑평장사 판병부사에 임명되었고, 이후 1234년 5월 죽을 때까지 수재(首宰)로 국정을 통괄했다.⁷¹ 아들 김진은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내 가문을 이었고, 손자로 김양감·김군·김중보·김변을 두었다. 그중 김양감의 딸은 숙창원비로 충렬왕의 총애를 얻었고, 아들은 김문연으로 어려서 승려가 되었다가 나중에 환속하여 숙창원비를 뒷배로 원에서 신무장군 진변만호를 제수했고 고려에서는 언양군에 봉해졌다.⁷² 특히 손자 중 한 사람이 앞서 살펴본 김변이다.

조충의 경우에는 아들 조숙창이 필현보·홍복원의 반란에서 참수되어 왕실과의 관계가 어긋났다. 물론 손자인 조변이 삼별초 토벌과 일본정벌에 장군으로 참여한 공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인인 김방경의 영향력에 따른 것이었다. 반면에 김취려의 경우에는 자손들이 고려와 원의 관계에서 충렬왕의 측근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배경 역시 자료 B-1에 대한 원의 요구에 조충이 배제되고 김취려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당시 원에서는 홍복원의 아버지인 홍대선의 술선귀부가 강조된 이해가 존재하고 있었다.

B-2. 本朝(元)의 『經世大典』은 규장각학사 虞集 등이 지은 책인데, 우리나라 사실에 이르기를 “태조황제 13년에 天兵(몽골병)이 거란의 반란을 토벌하며 고려에 이르렀는데, 고려국 사람인 洪大宣이 항복하여 嚮導가 되어 함께 그 나라를 치니 그 主가 항복했다”고 하였다. 이른바 반역자는 金山王子이다. 참람하게 河朔(黃河 이북)의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天成이라 하였다. 이어 천하를 석권하려는 기세로 동쪽으로 달려 우리의 북쪽 국경으로

70 『고려사』 권22, 고종 14년 1월 무오(8일).

71 『고려사』 권22, 고종 15년 12월 무진(29일); 권23, 고종 19년 1월 임진(11일) 및 21년 5월 기미(21일).

72 『고려사』 권103, 열전16, 김취려 附 김문연.

들어왔다. 태조는 哈眞과 札臘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토벌하게 했으니, 이때는 충현왕 5년 무인년 겨울 12월이었다. 날씨가 몹시 춥고 눈이 내려 군량을 운반하는 길이 끊기고, 적은 깊숙이 성에 숨어 괴롭혔다. 충현왕이 출병하고 곡식으로 王師를 도와 金山을 사로잡고 그 무리를 무찔렀다. 이때 두 나라는 兄弟之國을 맺었다. 지금 虞公의 기록에는 마치 王師가 우리나라를 공격하여 우리가 부득이 항복한 것처럼 되어 있고, 犄角之功과 交歡之約은 빠뜨리고 쓰지 않았다. 그리고 洪大宣은 변방 고을의 한낱 아전으로서 몸을 빼어 도망가 항복했으니 어찌 한 부대의 군사들을 임시로 모아 함께 그 나라(거란)를 공격했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역옹패설』, 전집1)

자료 B-2는 1218년 거란 토벌을 위해 고려에 왔던 몽골군에 흥대선이 항복하고 함께 공격하여 거란이 항복했다는 원의 『경세대전』(1331년) 기록에 대한 이재현의 비판이다. 『경세대전』에서 흥대선의 기록은 원에서 흥복원의 영향력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즉, 원에서 흥복원의 입지는 술선귀부했다는 것을 앞세워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⁷³ 이것은 고려의 출병과 군량 조달 및 두 나라의 형제맹약에 대한 사실을 왜곡한 것이었고, 그것은 원에서 고려의 입지와

73 『원사』 권154, 열전41, 흥복원, “戊寅冬十二月 太祖命哈赤吉, 扎刺將兵追討 大宣迎降 與哈赤吉等共擊之 降其元帥趙沖…辛卯秋九月 太宗命將撒里答討之 福源率先附州縣之民 與撒禮塔併力攻未附者 又與阿兒禿等進至王京”; 권208, 열전95, 외이1, 고려, “(太祖)十三年 帝遣哈只吉, 割刺等領兵征之 國人洪大宣詣軍中降 與哈只吉等同攻圍之 高麗王名缺奉牛酒出迎王師 且遣其樞密院使吏部尙書上將軍翰林學士承旨趙沖共討滅六哥 割刺與沖約爲兄弟 沖請歲輸貢賦 割刺曰 爾國道遠 難於往來 每歲可遣使十人入貢.” 『원사』에서 흥복원 열전은 실록 편찬 과정에서 累朝의 황후와 공신 열전을 함께 편찬하기 시작한 1311년 이후일 것으로 추측된다. 『원사』 권24 인종1, 지대 4년 5월 병자. 공신 열전의 편찬에 대한 기록은 이후 몇 차례 확인된다. 『원사』 권38, 순제1, 지원 원년 4월 기묘; 권41, 순제4, 지정 8년 정월 정미. Oleg Pirozhenko, 2005, Political Trends of Hong Bog Won Clan in the Period of Mongol Do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 9, pp. 237~256.

직결되어 있었다. 자료 B-2에서 이제현은 이를 바로잡으려 했다.⁷⁴

다음은 편찬 시기에 대한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자료 B-1의 원 증서성 첩문이 고려에 접수된 1325년 무렵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첩문이 접수된 때는 12월 7일이다. 당시에는 『친추금경록』·『세대편년절요』·『고금록』·『고종실록』·『충헌왕실록』 등 편찬에 활용되었거나 활용될 자료가 마련되어 있었고, 『김공행군기』가 많지 않은 분량이었다는 점에서 편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첩문을 접수한 즉시 편찬을 마무리했을 것 같지는 않다. 첩문에 근거한 편찬 대상자와 담당자를 선정할 시간이 필요했고, 편찬 자체에 필요한 시간도 있어야 했다. 이런 점에서 1326년 상반기 정도에 편찬이 완료되어 원에 제출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⁷⁵ 다만 『고려사』 세가와 『고려사절요』에서 충숙왕 13~14년의 기록이 거의 공백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⁷⁶

74 이에 『김공행군기』의 저술 동기 중의 하나를 『경세대전』 등과 같이 왜곡된 원의 기록을 바로잡기 위한 데서 찾기도 했다. 정구복, 1981, 앞의 글, 250~251쪽.

75 『김공행군기』를 편찬한 이제현은 이에 앞서 1323년 정월 원에 있으면서 승상 拜往에게 상왕인 충선왕의 소환을 요청한 바 있고, 國王印을 빼앗긴 채 원에 억류되어 있다가 태정제의 즉위와 함께 풀려나면서 실행된 1324년 2월 충숙왕의 첫인사에서 밀직사사에 임명되었다. 1325년 11월에는 추성양절공신 정당문학에 제수되었다. 『고려사』 권35, 충숙왕 10년 1월 임자(20일) 및 11년 2월 정묘(11일), 12년 11월 경오(24일).

76 『익재집』에서의 詩文이 대체로 저술 시기에 따라 편차되어 있음을 주목하여 『김공행군기』의 찬술은 이제현이 정계에서 물러나 있던 1342년(충혜왕 후 3) 이후 立省策動, 충혜왕의 유배와 같은 고려와 원 사이의 갈등 혹은 위기 상황을 벗어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충헌왕세가』 등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견해도 있다. 이정호, 2013, 「『益齋集』의 사료적 가치와 詩文 제작시기-李齊賢의 정치활동과의 비교 검토」, 『한국사학보』 52, 고려사학회, 180~189쪽.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은 『김공행군기』가 수록된 『익재난고』 권6의 編次이다. 권6에는 書·記·碑가 문체별, 저술 순서대로 편차되어 있는데, 3편의 書 중에는 1323년(충숙왕 10) 작성된 「同崔松坡贈元郎中書」이 마지막이고, 6편의 記 중에서 『김공행군기』는 1326년 9월 저술된 「重修開國律寺記」의 앞에 편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익재난고』의 각 저술이 제작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지만, 그에 앞서 문체별 분류가 먼저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각 저술의 제작 연대로 살펴보려고 할 때, 권6의 편차를 문체별로

『김공행군기』에서 서술된 1218년은 건국 300년이 되는 해로 고려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 때로 여겨졌다. 이제현은 그 이전을 최석 가문이 대대로 정권을 전횡하여 인재가 일을 도모하기 어려운 때로 인식했다. 그리고 고려 건국부터 300년에 해당하는 이때 사직신령의 도움으로 성원(聖元)에게 여국(與國)의 마음을 굳히고, 만노(萬奴)에게 요배하지 않아 존왕(尊王)의 의리를 밝혔다고 했다.⁷⁷ 그 과정에서 김취려가 자진해서 몽골군 진영으로 가서 맹약을 맺은 공을 부각했다. 1218년의 형제맹약에 따른 솔선귀부를 밝히는 것이 『김공행군기』를 편찬한 직접적인 이유였다.

14세기에 접어들면서 원과 고려에서 간간이 입성책동이 벌어졌다. 1312년(충선왕 4) 홍중희의 책동에 대해서는 충선왕이 역대실록을 원으로 반출해가면서까지 역사 논쟁을 전개하여 수습할 수 있었다.⁷⁸ 1323년(충숙왕 10) 류청신과 오감의 입성책동도 마찬가지였다.⁷⁹ 이때는 삼한성(三韓省)을 설치하자는 것이었는데, 1303년(충렬왕 29) 충렬왕과 충선왕 부자를 이간시킨 오기 등의 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고려에 왔던 왕약(王約)이 자신이 지은 『고려지(高麗志)』를 토대로 반대했다. 그는 4,000리가 넘는 대도와 고려의 거리, 고려의 경제적 상태, 원과 다른 풍속 등을 근거로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냈다.⁸⁰ 고려에서는 입성책동에 대한 대응논리로, 1218년 솔선귀부의 기억이 여지없이 소환되었을 것이다.

먼저 분류하고, 각 문체에서 제작 연대순으로 편차되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공행군기』의 저술 시기는 1326년 상반기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77 『역재난고』 권6, 기, 「門下侍郎平章事判吏部事 贈諡威烈公金公行軍記」, 論曰.
- 78 『고려사』 권34, 충선왕 4년 5월 임인 및 6월 무진(4일).
- 79 『고려사』 권35, 충숙왕 10년 1월.
- 80 『원사』 권178, 열전65, 王約, “至治三年 … 朝廷議罷征東省 立三韓省 制式如他省 詔下中書雜議 約對曰 高麗去京師四千里 地瘠民貧 夷俗雜尙 非中原比 萬一硬化 疲力治之 非幸事也 不如守祖宗舊制 丞相稱善 奏罷議不行 高麗人聞之 圖公像歸 祠而事之 曰不絕國祀者 王公也 ….”

『김공행군기』에서 확인되듯이 원 간섭기의 고려에서는 몽골에 술선귀부한 해로 설정한 1218년을 새로운 시대의 여명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이때의 계기가 아니었으면 고려는 독립국으로 남아 있을 수도 없었고, 고려국왕은 원 황실의 부마가 될 수도 없었다고 이해되었을 것이다. 원과 고려의 현안이 수면으로 떠오를 때마다 고려의 국체는 위협받았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여러 분야에서 수립되었겠지만, 역사적인 측면에서 고려와 원의 우호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중요한 방책 중 하나였다. 1218년 술선귀부의 기억은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이 시기 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거나 고려 자체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사서는 이를 중심으로 하게 되었다. 술선귀부를 중심에 두고 접근할 때, 『김공행군기』가 신료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제현의 또 다른 저술인 『충현왕세가』는 국왕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IV. 혜종 토곤테무르의 삼사(三史) 편찬과 삼국사적(三國事跡), 『대요사적(大遼事跡)』

C-1. 원에서 直省舍人 實德을 보내 宋·遼·金の 三國事跡을 찾았다[『고려사』 권36, 충혜왕(후) 4년 5월 임오(18일) 및 『고려사절요』 권25, 충혜왕(후) 4년 5월].

자료 C-1은 1343년(충혜왕 후 4) 5월의 일로, 원에서 첩문을 통해 조치된 것이 아니라 직성사인 실덕(實德)을 직접 파견하여 송·요·금의 사적(事跡)을 조사했음을 전한다.⁸¹ 밝혀져 있지 않지만, 역시 원 국사원의 요구에 따른 조치였

81 세조가 三史 편찬을 하기 이전인 1261년(중통 2) 한림국사원을 설립하고 王鶚의 요청으로 遼史와 金史를 편찬하면서 遺事를 採訪한 바 있는데, 이때의 조치는 이를 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사』 권4, 본기4, 세조1, 중통 2년 7월 계해, “初立翰林國史院 王鶚請修遼, 金二史 又言 唐太宗置弘文館 宋太宗設內外學士院

을 것이다.⁸² 직성사인은 황제의 조서를 전달하는 등의 일을 맡았다. 고려에는 1293년(충렬왕 19) 11월 황제의 사면령을 반포하기 위해 처음 파견된 사실이 확인되고,⁸³ 이후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거나 개원(改元) 또는 황후와 황태자 책봉 등과 관련해서 황제의 조서를 전달할 때마다 조서사(詔書使)로 고려에 파견되었다. 낮은 관품이었지만, 황제의 조서를 받든 사신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개경에 도착하면 국왕이 선의문 밖이나 영빈관에서 직접 맞이하고⁸⁴ 잔치를 벌이는 것이 관례였다. 1329년(충숙왕 16) 9월에는 문종 황제의 즉위를 알리는 조서를 전달하기 위해 직성사인 완자(完者) 등이 왔는데, 충숙왕이 백주(白州)로 피병해 있었기 때문에 사신단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고려사』에 기록될 정도였다.⁸⁵ 그들은 또 조서 전달에 그치지 않고, 고려의 현안에 직접 개입하여 처리하기도 했다. 공민왕 때 기황후의 족제였던 기삼만이 정치도감에 의해 순군옥에 투옥되었다가 죽자 원에서는 직성사인 승가노(僧家奴)를 파견하여 이에 가담했던 정치관 백문보 등을 장형에 처하며 후속 조치를 한 바 있다. 물론 이 역시 황제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⁸⁶

이런 측면에서 실덕의 고려 파견 목적이 송·요·금의 사적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특별하다. 혜종 토곤테무르의 명에 따른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今宜除拜学士院官 作养人才 乞以右丞相史天泽监修国史 左丞相耶律铸, 平章政事王文统监修辽, 金史 仍采访遗事 并随之.”

82 세조 때 시작되었다가 중단된 三史 편찬은 1343년(지원 4) 3월 도총제인 脫脫가 三國事積을 수집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1344년 3월 『요사』의 수찬을 마친 후 5월 사직했다. 독토를 이어 阿魯圖가 중서우승상 감수국사가 되어 三史 편찬의 총재로 추진하여 11월 『금사』, 이듬해 10월 『송사』의 수찬을 마치고 순제에게 진헌했다. 그런데 阿魯圖는 漢人文字를 읽지 못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혜종의 질책을 받았다. 『원사』 권139, 열전26, 阿魯圖 참조.

83 『고려사』 권30, 충렬왕 19년 11월 계해(12일).

84 『고려사』 권36, 충혜왕(후) 즉위년 11월 병진(2일); 권37, 충목왕 즉위년 6월 임신(15일).

85 『고려사』 권35, 충숙왕 16년 9월 신미(17일).

86 『고려사』 권37, 충목왕 3년 10월 갑오(26일).

있다. 그들이 개경에 도착하자 충혜왕은 다음 날 연경궁에서 잔치를 열었다.⁸⁷ 실덕은 개경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이때 충혜왕은 삼현(三峴)에 새 궁궐을 짓고 있었는데, 이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이 심했다. 7월 어느 날 그는 길거리에서 “목재와 석재를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배를 징수하고 섬으로 유배를 보낸다”는 궁궐조성도감에서 붙인 방(榜)을 보았다. 그리고 이를 떼어 객관으로 돌아와 정승이었던 채하중에게 그 폐단을 따지며 황제에게 보고하겠다는 협박을 한 바 있다.⁸⁸

그가 고려에 온 목적이 송·요·금의 사적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밝혀져 있는데, 이것은 원에서 혜종 토곤테무르의 개혁 작업이었던 지정강화(至正更化)⁸⁹ 일환으로 추진되어 두 달 전 원에서 황제의 명으로 재개된 삼사(三史) 편찬과⁹⁰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혜종은 1343년 3월 요·금·송 삼사 편찬에 대한 조서를 내리며, 우승상 툃트(脫脫)를 도충재관으로 책임을 맡기고, 중서평장정사 데무르타스(鐵木兒塔識)·중서우승 태평(太平)·어시중승 장기암(張起巖)·한림학사 구양현(歐陽玄)·시어사 여사성(呂思誠)·한림시강학사 계혜사(揭傒斯)를 총재관으로 삼았다.⁹¹ 그리고 2개월 후 사료 발굴을 위해 관리를 직접 파견한 것은

87 『고려사』 권36, 충혜왕(후) 4년 5월 계미(19일).

88 『고려사』 권36, 충혜왕(후) 4년 7월 신미(8일).

89 윤은숙, 2018, 「元末 토곤 테무르 카안의 통치와 至正更化」, 『역사문화연구』 65,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90 『清容居士集』(袁桷)권41, 「修遼金宋搜訪遺書條列事狀」. 1281년(충렬왕 4) 건립된 「張宏範神道碑銘」에서는 원의 대일통을 五代 이래 처음 이룬 것으로 서술하여 당 이후 요·금·송을 無統의 시대로 이해했다. 楊晨 纂輯, 『定興縣志』 권17, 「大元故銀青榮祿大夫平章政事武烈張公神道碑銘」(王磐 撰) “自五代以降 南北分裂 不相統一一三百餘年 大元聖天子至元十三年歲在丙子 始以王師平定江南 至臨安城下 宋主焜奉表稱臣 納地入覲 賜封瀛國公 然後天下合而爲一 民知有息 ….” 國家圖書館善本金石組 編, 2003, 『遼金元石刻文獻全編』(二), 北京圖書館出版社, 890~892쪽.

91 『원사』 권41, 순제4, 지정 3년 3월.

1276년 6월 내려진 『제국신복전기』 편찬의 명이⁹² 2년이 지난 후 고려에 전달된 것과 비교하면 신속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삼사 편찬은 세조가 대일통의 대업을⁹³ 역사편찬으로 증명하려고 시작한 사업이었다. 집권 초기 요사(遼史)·금사(金史) 편찬이 1261년 7월 한림학사승지 왕약(王鶚)의 건의로 시작되었다. 이때 그는 우승상 사천택을 감수국사, 좌승상 아을주와 평장정사 왕문통을 감수로 삼아 요사·금사 편찬을 위한 유사(遺事)를 채방(采訪)하도록 건의했다.⁹⁴ 몽골이 요·금의 북방왕조를 잇는 국가였다는 정당성을 담보하려는 목적에서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조의 반응은 적극적이지 못했다. 세조는 송을 평정하여 대일통을 이룬 후 삼사 편찬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1276년 1월 세조는 남송에게 항복을 받아 대일통을 이룩했다.⁹⁵ 그리고 5월에 그 사실을 천지와 조종에 고하고,⁹⁶ 요사·금사를 넘어 송사를 포함한 삼사 편찬을 추진했다. 하지만 삼사 편찬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수십여 년 동안 마무리될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삼국에 대한 정통논쟁, 실록 편찬에 치중된 황제의 관심, 편찬 방식을 사이에 둔 한유(漢儒)와 남송에서 합류한 남유(南儒)의 갈등이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⁹⁷

92 『원사』 권9, 세조 6, 지원 13년 6월 무인.

93 원에서 세조의 대일통과 35년의 치세는 近古에 없었던 업적으로 평가되었다. 胡聘之, 『山右石刻叢編』 권34, 「故通奉大夫參知政事大興府尹 贈正奉大夫河南江北等處行中書省參知政事護軍 追封平陽郡公諡忠肅姚公(姚天福)神道碑銘并序」(虞集撰)(國家圖書館善本金石組編, 2003, 『遼金元石刻文獻全編』(一), 北京圖書館出版社, 485~491쪽), “… 昔我世祖皇帝 既一海臨御三十五年隆平之效 近古所無也…”.

94 『원사』 권4, 본기4, 세조 1, 중통 2년 7월 계해.

95 『원사』 권9, 세조 6, 지원 13년 정월 갑신.

96 『원사』 권9, 세조 6, 지원 13년 5월 을미.

97 三史 편찬과 관련하여는 鄭夏賢, 1981, 「元朝에 있어서 正統論과 歷史編纂-遼金宋三史의 경우-」, 『공주사대논문집』 19, 공주사범대학; 김양섭, 1989, 「遼·金·宋 三史編纂에 대하여-下命時期와 早期 未成要因을 中心으로-」, 『중앙사론』 6,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古松崇志, 2003, 「脩端『辯遼宋金正統』をめぐる-元代における『遼史』『金史』『宋史』三史編纂の過程-」, 『東方學報』 75;

그런 삼사 편찬이 이때 다시 시작된 것이다.⁹⁸ 혜종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세조를 잇는 대원(大元)의 중흥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원에서 관직에 있던 이곡은 “혜종이 한결같이 지원(至元)의 정치를 좇았다”고 평한 바 있다.⁹⁹ 잘 알려져 있듯이 삼사 편찬을 하던 지정 연간 이전에 혜종은 연호를 (후)지원으로 개원했는데, 이것이 세조의 정치를 계승하겠다는 뜻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¹⁰⁰ 삼사 편찬 또한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삼사 수찬의 조서에서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삼사와 관련한 자료를 행정(行省)과 각 처의 정관(正官)·제조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구매하고 이를 사관(史館)에 송부하여 편찬자료로 채택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¹⁰¹ 그리고 1345년 10월 우승상 아로도(阿魯圖)가 삼사인 『요사』·『금사』·『송사』를 황제에게 진상함으로써 2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되었다.¹⁰² 편찬에 2년 7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것은 앞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편찬 작업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직성사인 실덕 일행이 고려에서 송·요·금의 사적을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

이개석, 2007, 「정통론과 13-14세기 동아시아 역사서술」, 『대구사학』 88, 대구사학회 참조.

98 吳鳳霞, 2019, 「苏天爵与辽宋金元史编纂」, 『内蒙古民族大学学报(社会科学版)』 45(6), 内蒙古民族大学.

99 『가정집』 권9, 「送鄭副令入朝序」, “... 今上聖明 一遵至元之理...”

100 물론 혜종 때 元統에서 (후)至元으로의 개원은 伯顏이 승상일 때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다시 至正으로 개원한 것은 脫脫이 승상일 때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특토가 승상일 때 이루어진 삼사 편찬을 세조 때의 정치 계승과 관련하여 파악하는 것에 다소 주저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세조의 유지 계승과 관련한 것임은 분명하다. 이 시기 원의 정국 상황과 관련해서는 윤은숙, 2018, 앞의 글; 권용철, 2018, 「大元제국 말기 재상 특토의 獨裁 정치와 몰락」, 『동양사학연구』 143, 동양사학회 참조.

101 『遼史』, 附錄, 「修三史詔」, 至正 3년(1343) 3월 28일 聖旨, “這三國實錄, 野史, 傳記, 碑文, 行實 多散在四方 交行省及各處正官提調 多方購求 許諸人呈獻 量給價直 咨達省部 送付史館 以備采擇.”

102 『원사』 권41, 순제4, 지정 5년 10월 신미, “遼, 金, 宋三史成 右丞相阿魯圖進之 帝曰 史旣成書 前人善者 朕當取以爲法 惡者取以爲戒 然豈止激勸爲君者 爲臣者亦當知之 卿等其體朕心 以前代善惡爲勉.”

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¹⁰³ 하지만 원의 요구에 고려에서는 고려와 요, 고려와 금, 고려와 송의 관계를 정리한 삼국사적을 편찬하여 원에 보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편찬에 누가 참여했는지, 내용과 성격은 어떠한지 알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요사』에서 고려의 『대요사적(大遼事蹟)』 또는 고려에서 진상한 『대요사적』이 확인된다. 여기에는 고려 동쪽 국경의 군사 관련한 내용과 국왕의 책문 등이 실려 있었다고 한다.

C-2-1) 邊境戍兵【또한 고려의 『大遼事蹟』을 얻어보니 동쪽 변경의 戍兵으로 고려·女直 등 국가에 대비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 국가를 지키는 규모와 군사 배치가 간결하고 요령이 있어서 하나를 보면 세 변방을 가히 알 수 있다】(『요사』 권36, 지6, 兵衛志 下).

C-2-2) 宋 元豐 원년(1078) 12월 司天監에 조서를 내려서 요와 고려·일본의 曆과 奉元曆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고찰하게 하였다. 요 기미년의 절기와 삭일은 宣明曆과 부합하고, 일본의 무오년은 요의 역과 대체로 비슷하며, 고려의 무오년 삭일은 봉원력과 부합하나 절기에는 같지 않은 점이 있다. 무오년은 요 大康 4년(1078)이고, 기미년은 5년이다. 요와 송의 시대에 두 나라의 사천감은 서로 참고하였다. 고려에서 진헌한 『大遼事蹟』에는 諸王之 冊文이 실려 있어 자못 月朔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첨부하여 넣었다(『요사』 권44, 曆象志 下, 朔考).

자료 C-2는 『요사』 편찬에서 고려에서 수찬한 『대요사적』의 가치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물론 C-2-2) 고려의 책문에서 언급된 월삭은 요를 기준으로

103 삼사 편찬의 대상이 된 삼국의 순서가 원에서는 요·금·송으로 언급된 것에 비해 고려에서는 송·요·금으로 기록되어 있다. 두 나라 사이에 삼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 것이어서 고려의 월삭과 차이가 있었지만,¹⁰⁴ 삼사 편찬 당시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전하지 않아 『대요사적』이 기준자료로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초 한치윤(1765~1814)이 저술한 『해동역사』에서도 『요사』에서 인용한 『대요사적』의 기록을 발췌하여 수록하고 있다.

C-3. 고려에서 올린 『大遼事蹟』에는 諸王의 冊文이 실려 있는데, 자못 月朔이 보이기에 첨부하여 기록한다.

聖宗 統和 13년(995) 11월 초하루는 고려 계묘, 太平 3년(1023) 정월 초하루는 고려 병인, 興宗 重熙 12년(1043) 8월 초하루는 고려 을미, 18년(1049) 정월 초하루는 고려 갑오, 道宗 淸寧 3년(1057) 정월 초하루는 고려 무인, 咸雍 원년(1065) 정월 초하루는 고려 신유, 太康 10년(1084) 정월 초하루는 고려 신축, 太安 원년(1085) 11월 초하루는 고려 신묘, 天祚 乾統 8년(1108) 3월 초하루는 고려 신해
 太宗 會同 10년(947) 7월은 고려 윤월, 聖宗 統和 9년(991) 2월은 고려 윤월, 11년(993) 10월은 고려 윤월, 太平 11년(1031) 9월은 고려 윤월, 興宗 重熙 8년(1039) 12월은 고려 윤월, 17년(1048) 정월은 고려 윤월, 19년(1050) 11월은 고려 윤월, 太安 4년(1088) 12월은 고려 윤월【위와 같음】
 (『해동역사』 권17, 星曆志, 曆)

자료 C-3은 『요사』 「역상지」에서 인용한 『대요사적』에 관한 『해동역사』의 기록이다. 『요사』에서는 1078년(원풍 1) 12월에 황제의 명으로 사천감에서 요·고려·일본의 달력을 비교해보니 태조 5년 기미년의 절기와 월삭(氣朔)은 당의 선명력(宣明曆)과 합치되고, 일본의 무오년은 요력(遼曆)과 비슷한데, 고려 무

104 張東翼, 2012, 「高麗前期의 曆日」, 『韓國中世史研究』 33, 한국중세사학회; 장동익, 2014, 「《高麗史》에서의 朔日」, 『歷史教育論集』 52, 경북대학교; 邱靖嘉, 2012, 「《遼史·曆象志》溯源」, 『中華文史論叢』 2012(4), 中華書局上海編輯所.

오년의 월삭은 송의 봉원력(奉元曆)과 합치하지만 절기는 같지 않아 고려에서 올린 『대요사적』에 실려 있는 제왕의 책문에서 보이는 월삭을 참고로 기록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C-3의 월삭과 윤월에 대한 기록은 『요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해동역사』를 찬술한 한치윤은 그 전거를 『대요사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해동역사』에 소개된 월삭과 윤월에 대한 기록은 『대요사적』에 실려 있던 고려 국왕의 책문 중에서 요력과 기사에 차이가 있는 책문을 예시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대요사적』에는 고려와 요의 외교관계에서 찬술된 제반 문서가 수집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요사적』의 편찬 시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는 고려와 요의 관계에서 편찬되었다는 『해동역사』가 그것이다. 『해동역사』 예문지에서는 『대요사적』을 고려에서 편찬하여 요에 진상했던 것인데, 『고려사』에 충혜왕 4년 3월 임오일 원에서 직성사인 실덕을 보내와 송·요·금의 삼국사적을 찾아 돌아갔다는 기록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고 했다.¹⁰⁵ 한치윤은 『대요사적』을 원의 요구가 아니라 요에 진상하기 위해 찬술한 것으로 파악했다.¹⁰⁶ 그렇다면 이 뿐만 아니라 고려에서는 이미 송과 금에 관한 사적 또한 편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송과 요의 사적은 박인량의 『고금록』과의 관계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누락일 수도 있겠지만, 원 간섭기 이전 고려와 금의 관계를 정리한 사서 편찬의 징후는 확인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고려와 금의 관계에서 편찬되었다는 설이다. 청나라 초기 황우직(黃虞稷)과 이후 전대훈(錢大昕)의 『천경당서목(千頃堂書目)』과 『보원사예문지

105 『해동역사』 권43, 예문지2, 經籍2, 本國書目2, 大遼事蹟, “高麗所進大遼事蹟載諸王冊文 頗見月朔 因附入【遼史】 按大遼事蹟 卽高麗所撰以進於遼者 高麗史忠惠王四年三月壬午 元遣直省舍人實德來 索宋遼金三國事跡以去 卽此是也.” 邱靖嘉는 『해동역사』의 ‘충혜왕 4년 3월’을 ‘충혜왕 후 4년 5월’로 수정한 바 있다. 邱靖嘉, 2012, 위의 글, 265쪽.

106 정동훈, 2023c, 「『遼史』高麗傳의 史源」, 『동양사학연구』 163, 동양사학회, 68~74쪽.

『補元史藝文志』에 실려 있다.¹⁰⁷ 이에 관한 전거나 배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그렇게 설명한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다. 후대의 왕조에서 전대 왕조의 역사를 정리하는 전통에 따라 금에서 고려에 거란과의 관계 자료 찬술을 요청했거나, 금과의 관계에서 고려가 필요하여 찬술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막연한 추측일 뿐이다.

여기에서는 『대요사적』을 포함한 삼국사적을 자료 C-1의 1343년(충혜왕 4) 5월과 관련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원에서 고려에서 찾았던 송·요·금의 사적에 대해 고려에서 편찬한 요나라와 관련한 결과였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금과 송의 사적(事跡)도 편찬되어 함께 원에 보내졌을 것이다. 요·금·송에 대한 사적이 각기 편찬되었고, 이것이 ‘삼국사적’이란 제목으로 묶여 원에 보내졌을 것이다. 박인량과 원부가 각기 편찬한 『고금록』 등이 깊이 참조되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요사』의 「수삼사조(修三史詔)」에서 행정 및 각처에서는 삼국실록(三國實錄)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다방면으로 구하여 사관(史館)에 보내라는 지침을 참고할 때, 자료 C-1의 “색송·요·금삼국사적(索宋遼金三國事蹟)”이 정확한 기록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고려에서는 금과의 관련 사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은 앞서 정리된 바 있는 송과 요와의 관련 사적과 함께 찬수되어 원에 보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언제 마무리되어 원에 보내졌는지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343년 7월까지 실덕이 고려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이후 편찬이 완료되어 원에 보내져 삼사 편찬에 활용되었을 것이다. 『요사』는 1344년 3월, 『금사』는 11월, 『송사』는 1345년 10월에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삼국사적은 1343년 12월 이전에는 마무리되어 원에 보내졌어야 그 편찬에 반영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사』·『금사』·『송사』에서 그 흔적을

107 『千頃堂書目』 권5, “金時高麗所進”; 『補元史藝文志』 권2, 雜史類(1937, 常務印書館). 錢大昕은 『대요사적』과 함께 『大遼古今錄』도 금나라 때 고려가 진상한 것으로 파악했다.

찾기 어렵다.

최근 『요사』 「고려전」의 사원(史源)을 검토한 연구 성과에 따르면, 삼국사적 중 하나인 『대요사적』은 『요사』 「고려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금사』·『송사』 「고려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인데, 삼사의 「고려전」 찬술에서 삼국사적이 활용되지 않은 배경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¹⁰⁸ 고려는 물론 제국(諸國)에서 진상한 사적이 삼사 편찬에서 참고될 법했지만, 사고(史藁) 또는 참고자료로서 기능하지 못한 사실을 의미한다고도 짐작된다. 고려를 비롯한 제국에서의 적극 대응과 달리 원 국사원에서 이 자료들을 어떻게 취급했을 것인가의 문제일 듯한데, 자세한 상황은 추측하기 어렵다.

V. 맺음말

원 간섭기 고려의 역사편찬은 대체로 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단선적인 측면에서 파악되었다. 따라서 그 성격에서 자존적이지 못하고, 사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지적된 바 있다. 이 시기의 역사 편찬자는 이제까지 전례가 거의 없었던 당대사를 편찬해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았다. 거기에는 두 나라 사이의 민감한 현안이 담길 수밖에 없었지만, 고려에서는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에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1276년 6월 원의 『제국신복전기』 편찬과 관련해서 1278년(충렬왕 4) 7월 이후 고려에서는 『친추금경록』, 『금경록(국사)』, 『세대편년절요』, 『고금록』 등을 편찬했다. 그 과정에서 고려는 역대실록을 반출하면서까지 역사 논쟁을 서슴

108 三史「高麗傳」의 史源에 대해서는 다음은 연구가 참고된다. 정동훈, 2023c, 앞의 글; 정동훈, 2023b, 「『金史』高麗傳의 史源」, 『사림』 85, 수선사학회; 정동훈, 2023a, 「『송사(宋史)』고려전(高麗傳)의 사원(史源)」, 『동북아역사논총』 82, 동북아역사재단.

지 않았다. 원에서 벌어진 입성책동 등에 독립국으로서 고려의 국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후 고려의 자발적인 의지 또는 원의 요구에 따른 역사편찬 기록이 『고려사』 등에서 단편적으로 확인된다. 『선제사적』, 『김공행군기』, 삼국사적과 관련한 『대요사적』 등이 그것이다.

1295년(충렬왕 21)의 『선제사적』은 세조 사망 후 1294년 6월 원에서 편찬을 시작한 『세조실록』과 관련해서 검토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자료는 『세조실록』의 편찬 또는 다른 목적으로 원에서 고려에 요구한 것이라기 보다 세조에 이어 즉위한 성종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을 위한 충렬왕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편찬에는 당시 원에서 집현전대학사로 있던 홍군상을 감수국사로 하여 동수국사 임익, 사찬수찬관 김변 등이 참여했고, 이를 원에 진상할 사신으로 장군 류운이 파견되었다. 이들은 당시 원과의 관계에서 최선의 책임자들이었다. 『선제사적』을 진상한 후 고려는 세자의 혼인과 1259년(고종 46) 양국의 관계 정상화 이후 요양과 심양에 있던 고려의 포로와 유민을 모두 귀국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1326년(충숙왕 13)경의 『김공행군기』는 칭기즈칸 이후 공을 세운 사람을 초록해서 진상하라는 원 중서성의 첩문에 따른 것이었다. 제국(諸國)에서 원과의 관계에서 공을 세운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신료 또한 대원(大元)의 신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원 국사원에서의 이 같은 조치는 칭기즈칸 이래 태정제의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 태정제의 즉위로 충선왕은 유배지였던 티베트에서 대도로 돌아왔고, 국새를 빼앗기고 원에 억류되었던 충숙왕의 국왕권도 정상화되었다.

『김공행군기』에서 서술된 1218년은 고려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 여명기로 소급되었다. 1260년대 쿠빌라이와 원종 사이에 형성된 새로운 관계는 고려와 몽골의 첫 번째 접촉이 있었던 1218~1219년의 형제맹약을 솔선귀부로 확대 해석되어 점차 전대(前代)와 당대(當代)를 구분하는 기점으로 인식되었다. 두 나라 간에 현안이 수면으로 떠오를 때마다 독립성을 위협받았던 고려는 이때의 솔선귀부 기억을 지속해서 소환할 필요가 있었다. 강동성 전투에서

조충과 김취려의 활약상은 원에도 익히 알려져 있었다. 칭기즈칸 이래 전공을 올린 사람에 관한 전기(傳記) 편찬의 대상으로 두 사람만큼 적절한 인물은 찾기 어렵다. 조충이 사령관이고 김취려가 부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모두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조충을 선정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럼에도 김취려만 선정된 것은 이후 자손들의 정치 활동과 관련이 있었다. 조충의 아들인 조숙창이 1233년 5월 필현보·홍복원 반란에 연루되어 참수된 반면, 김취려의 손자 김변은 세자였던 충렬왕의 4년간 원나라 생활을 함께 하는 등 충렬왕의 측근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이 자료는 고려에서 중서성의 첩문을 받은 때가 1325년 12월이었음을 감안할 때, 편찬을 끝내고 원에 보낸 시기는 1326년 상반기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1343년(충혜왕 후 4)경 편찬되었을 삼국사적은 원에서의 삼사 편찬과 관련이 있다. 이때는 대면이나 첩문으로 전달하지 않고 황제의 명을 전달하던 조서사(詔書使)인 직성사인이 직접 고려에 와서 조사 활동을 벌였다. 대일통을 이룬 세조 때의 중흥을 이루려는 혜종의 개혁인 지정쟁화와 관련이 있다. 삼사 편찬의 명이 1343년 3월에 있었고, 5월에 조사관이 고려에 도착했으니 즉각적인 조치였다. 삼사 중에 『요사』는 1344년 3월, 『금사』는 11월, 『송사』는 1345년 10월에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참고할 때, 고려에서 삼국사적은 신속하게 편찬되어 그해 말에는 원에 보내졌을 것이다.

그 흔적은 『요사』에 남겨진 『대요사적』에서 확인되고, 19세기 초 저술된 『해동역사』에 잔편이 남아 있다. 『해동역사』에는 고려에서 올린 제왕의 책문에서 보이는 9건의 월삭과 8건의 윤월 기록이 제시되어 있다. 17건의 기록은 『대요사적』에 실려 있던 고려국왕의 책문 중 월삭에서 요력(遼曆)과 차이가 있는 사례라고 짐작된다. 이런 점에서 『대요사적』은 고려와 요의 외교관계에서 찬술된 제반 문서가 수집되어 실렸을 것이다. 함께 편찬되었을 다른 두 나라의 사적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즉, 삼국사적은 고려가 요·금·송과의 외교관계에서 작성된 책문 등을 실은 자료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세조 때 원의 역사편찬 요구로 『금경록』과 『고금록』 등이 편찬되어 원에 보

내진 후 그들의 요구와 고려의 대응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이 글에서는 13세기 말부터 14세기 중반 원의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고려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3종의 사서 편찬을 검토했다. 원에서의 요구는 제국(帝國)에 속해 있던 제국(諸國)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고려의 대응은 그 과정에서 독립국으로서의 국체와 정체성을 드러내야 했고, 3종의 사서도 그런 기본적인 입장에서 편찬되었을 것이다. 또 『선제사적』에서 확인되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원의 요구에 관계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적을 편찬하여 원에 진상하기도 했다. 이 시기 역사 편찬의 성격이 당대사로 규정되는 것은 원과의 관계에서 역사를 통해 현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 3종의 사서에서도 그와 같은 측면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참고문헌

자료

『가정집』,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문선』, 『보한집』, 『역옹패설』, 『익재난고』, 『해동역사』.
『요사』, 『원사』, 『元高麗紀事』, 『淸容居士集』(袁桷).

國家圖書館善本金石組編, 2003, 『遼金元石刻文獻全編』(一·二), 北京圖書館出版社.
錢大昕, 1937, 『補元史藝文志』, 常務印書館.
黃虞稷, 『千頃堂書目』.

단행본

권용철, 2019, 『원 중후기 정치사 연구』, 도서출판 온샘.
장동익, 1997, 『元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학교출판부.

논문

고명수, 2014, 「몽골의 '복속'인식과 蒙麗관계」, 『한국사학보』 55, 고려사학회.
권용철, 2018, 「大元제국 말기 재상 토포의 獨裁 정치와 몰락」, 『동양사학연구』 143, 동양사학회.
김성환, 2023, 「원의 『제국신복전기(諸國臣服傳記)』와 고려의 역사 편찬」, 『東北亞歷史論叢』 81,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4, 「고려 후기 鄭可臣(1224~1298)의 『千秋金鏡錄』 찬술과 역사 논쟁」, 『대동문화연구』 12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김양섭, 1989, 「遼·金·宋 三史編纂에 대하여-下命時期와 早期 未成要因을 中心으로-」, 『중앙사론』 6, 중앙대 중앙사학연구소.
김호동, 2009, 「元代의 漢文實錄과 蒙文實錄-『元史』 「本紀」의 中國中心의 一面性의 解明을 위하여」, 『동양사학연구』 109, 동양사학회.
노명호, 1999, 「高麗時代의 多元의 天下觀과 海東天子」, 『한국사연구』 105, 한국사

연구회.

- 박종기, 2011, 「원 간섭기 역사학의 새 경향-당대사(當代史)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31, 한국중세사학회.
- _____, 2012, 「원 간섭기 김취려상(金就礪像)의 형성과 당대사(當代史) 연구」, 『韓國思想史學』 41, 한국사상사학회.
- 윤은숙, 2018, 「元末 토곤 테무르 카안의 통치와 至正更化」, 『역사문화연구』 65,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이개석, 2007, 「정통론과 13-14세기 동아시아 역사서술」, 『대구사학』 88, 대구사학회.
- 이승민, 2017, 「10세기 국제정세와 고려의 외교 자세」, 『한국중세사연구』 51, 한국중세사학회.
- 이익주, 2006, 「墓誌銘 자료를 통해 본 고려후기 官人의 생애: 金聃(1248~1301)의 사례」, 『한국사학보』 23, 고려사학회.
- 이정호, 2013, 「『益齋集』의 사료적 가치와 詩文 제작시기-李齊賢의 정치활동과의 비교 검토」, 『한국사학보』 52, 고려사학회.
- 張東翼, 2012, 「高麗前期의 曆日」, 『韓國中世史研究』 33, 한국중세사학회.
- _____, 2014, 「《高麗史》에서의 朔日」, 『歷史教育論集』 52, 경북대학교.
- 정구복, 1981, 「李齊賢의 歷史意識」, 『진단학보』 51, 진단학회.
- 정동훈, 2017, 「고려 元宗·忠烈王대의 親朝외교」, 『한국사연구』 177, 한국사연구회.
- _____, 2020, 「동방왕가의 사업에서 쿠빌라이의 사업으로-쿠빌라이의 즉위와 고려~몽골관계의 큰 전환-」, 『한국사연구』 191, 한국사연구회.
- _____, 2023a, 「『송사(宋史)』고려전(高麗傳)의 사원(史源)」, 『동북아역사논총』 82,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3b, 「『金史』高麗傳의 史源」, 『사람』 85, 수선사학회.
- _____, 2023c, 「『遼史』高麗傳의 史源」, 『동양사학연구』 163, 동양사학회.
- 鄭夏賢, 1981, 「元朝에 있어서 正統論과 歷史編纂-遼金宋三史의 경우-」, 『공주사대논문집』 19, 공주사범대학.
- 채용석, 2017, 「고려전기의 다원적 국제관계와 문화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0, 한국중세사학회.
- 최봉준, 2018, 「고려시대 사회 성격론과 다원사회의 구조적 이해」, 『역사와 실학』 67, 역사실학회.

최윤정, 2014, 「元代 兩都內戰(1328)과 동북지역-요양행성과 동도제왕 세력의 향배 및 세력 浮沈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6, 동북아역사재단.

최종석, 2021, 「왜 고려전기의 國制는 황제국 체제로 보일까?-후대 감각과 지식의 소급 적용으로 탄생한 고려 전기 황제국 체제-」, 『역사학보』 251, 역사학회.

_____, 2024, 「고려전기 다중심적 국제질서는 '황제국 체제'의 성립·운동과 상관관계가 있었을까?-베트남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문화』 10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邱靖嘉, 2012, 「《遼史·曆象志》溯源」, 『中華文史論叢』 2012(4), 中華書局上海編輯所.

吴凤霞, 2019, 「苏天爵与辽宋金元史编纂」, 『内蒙古民族大学学报(社会科学版)』 45(6), 内蒙古民族大学.

古松崇志, 2003, 「脩端「辯遼宋金正統」をめぐって-元代における『遼史』『金史』『宋史』三史編纂の過程-」, 『東方學報』 75,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Pirozhenko, Oleg, 2005, Political Trends of Hong Bog Won Clan in the Period of Mongol Do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 9,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기타 자료

<https://db.history.go.kr/>

13세기 말~14세기 중반 원과의 관계에서 추진된 고려의 역사 편찬

김성환

원 간섭기 고려의 역사편찬은 그 성격에서 자존적이지 못하고, 사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에 노정되어 있다. 거기에는 두 나라의 민감한 현안이 담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려의 입장에서는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공세적인 입장에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체(國體)와 관련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1276년 6월 원의 『제국신복전기』 편찬과 관련해서 고려에서는 『천추금경록』·『금경록(국사)』·『세대편년절요』, 『고금록』 등을 편찬했다. 이후 고려의 자발적인 의지 또는 원의 요구에 따른 역사편찬 기록이 『고려사』 등에서 단편적으로 확인된다. 『선제사적』, 『김공행군기』, 삼국사적과 관련한 『대요사적』 등이 그것이다.

1295년(충렬왕 21)의 『선제사적』은 원에서의 『세조실록』 편찬과 관련해서 검토하기 어렵다. 이 자료는 세조를 추모하고 새로 즉위한 성종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을 위한 충렬왕의 뜻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를 진상한 후 고려는 원과의 관계에서 세자 혼인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1326년(충숙왕 13)경의 『김공행군기』는 태정제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원 국사원의 계획에 따라 편찬된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에서 이를 편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강동성 전투를 계기로 형제맹약을 맺은 1218년을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 여명기로 여겼기 때문이다. 솔선귀부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소환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형제맹약의 두 주역 중에 조충이 배제되고 김취려만 선정된 것은 두 나라를 사이에 둔 자손들의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다.

1343년(충혜왕 후 4)경 편찬되었을 삼국사적은 원의 삼사(三史) 편찬과 관련이 있다. 이 자료는 그해 말 원에 보내졌을 것이다. 그 흔적은 『요사』에 남은 『대요사적(大遼事跡)』에서 확인되고, 19세기 초 저술된 『해동역사』에 잔편이 남아 있다. 『해동역사』에서는 고려에서 올린 17건의 책문 기록이 확인된다. 『대요사적』이 고려와 요의 외교관계에서 찬술된 제반 문서를 수집한 자료일 것이라는 점에서 삼국사적의 성격을 추측할 수 있다.

주제어: 『선제사적』, 『김공행군기』, 삼국사적, 『대요사적』, 『해동역사』

ABSTRACT

The Political Situation Changes of the Yuan Dynasty and the History Compilation of the Goryeo Dynasty in the Late 13th Century to the Mid-14th Century

Kim Sunghwan

During the period of Yuan interference in Goryeo affairs, the Goryeo dynasty's limits regarding its historical editing process showed through in an inevitably obsequious character lacking in self-respect. This was due to the fact that the two nations could not help being swept up in sensitive contemporary issues. Although the Goryeo perspective was not revealed, the nation would have by necessity responded to the Yuan demands in an actively confrontational manner.

Related to the editing of the Yuan's "*Zhuguo-chenfu-chuanji*(『諸國臣服傳記』)" in June 1276, the Goryeo dynasty's edited works included "*Cheonchu-gumgyeongrok*(『千秋金鏡錄』)," "*Sedae-pyeonnyeon-jeolyo*(『世代編年節要』)," "*Gogum-rok*(『古今錄』)," and others. Subsequent

to these works, records such as “*Goryeo-sa*(『高麗史』)” and others could be confirmed as representative of the historical editing process carried out in Goryeo spontaneously and in a manner contrary to the demands of the Yuan dynasty. Examples of these included “*Seonje-sajeok*(『先帝事跡』),” “*Kimgong-haenggun-gi*(『金公行軍記』),” “*DaeLiao-sajeok*(『大遼事跡』)” (『related to “*Samguk-sajeok*(『三國事跡』),” and other works.

It is difficult to examine “*Seonje-sajeok*,” written in 1295 (King Chungryeolwang 21st) because of its relationship to the editing of the Yuan era’s “*Sejo-sillok*(『世祖實錄』).” The result of this document reflecting Emperor Sejo’s elegy of Kublai as well as King Chungryeolwang’s intention to seek a new relationship between Emperor Seongjong, newly ascended to the throne, and the political administration of Temur. After this work was offered to the Yuan court, the Goryeo dynasty was able to reap the benefits gained by resolving various affairs of state, such as its relationship with the Yuan dynasty, and the marriage of the crown prince.

“*Kimgong-haenggun-gi*,” written around 1326(King Chungswang 13rd) is considered to have been edited in conjunction with the plans of a Yuan dynasty government official trying to establish the tradition of the political authority of Yesun Temur. Setting the editorial process as a goal in this way stemmed from 1218—a year that saw the formation of a brotherly pact arising from the opportunity presented by combat in Gangdong-seong fortress—as being seen as opening the path to a new era. There was a continuous need to cite passages of remembrance from “Take the lead(率先歸附)”. One can interpret this, however, through the

exclusion of General Jo Chung from the two main roles offered in the brotherly pact and General Kim Chuiryeo remaining as the sole chosen individual, events which have been considered as related to subsequent political activities of the descendants of these two nations.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Samguk-sajeok*” edited in 1343(King Chunghyewang reinstatement 4th) and “*Sanshi*(三史)”. This document was sent to the Yuan dynasty at the end of this same year. Its traces have been confirmed in “*DaeLiao-sajeok*”, which itself was passed down in “*History of Liao Dynasty*,” and that literary remnant has also survived in the work “*Haedong-nyeogsa*(『海東繹史』),” published at the beginning of the nineteenth century. In the “*Haedong-nyeogsa*,” one can confirm the record of the king’s seventeen orders to his subjects from the Goryeo period. It is possible to guess at the character of “*Samguk-sajeok*” by considering the compilation of various documents dealing with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the Goryeo and Liao dynastys into “*Haedong-nyeogsa*”.

Keywords: “*Seonje-sajeok*(『先帝事跡』),” “*Kimgong-haenggun-gi*(『金公行軍記』),” “*Samguk-sajeok*(『三國事跡』),” “*DaeLiao-sajeok*(『大遼事跡』),” “*Haedong-nyeogsa*(『海東繹史』)”

조선 후기 양념김치의 등장과 확산

박채린 | 세계김치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동훈 | 세계김치연구소 박사후연구원

- I. 머리말
- II. 염·장수(鹽·醬水)담금 김치와 향신양념의 사용
- III. 양념 담금법의 출현과 이차침채(二次沈菜)로의 발달
- IV. 김치 인식 체계의 변화와 김치 고유성(固有性)의 확립
- V. 맺음말

I. 머리말

음식을 만들고 섭취하는 과정에서 ‘저장’은 식량 결핍을 대비하여 ‘생존적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조미(調味)’는 맛을 통한 쾌락 추구라는 ‘감각적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전근대에는 겨울에 구하기 어려운 채소를 절여두었다가 이듬해까지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보존기간 확보가 최우선 과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결핍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미식(美食)이라는 감각적 본능 충족의 욕구 또한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란 쉽지 않았다. 저장을 위해서는 발효를 억제해야 하고, 발효 억제를 위해서는 미생물 통제가 핵심인데 여러 가지 맛 성분이 늘어나버리면 통제할 대상이 많아지고, 이는 곧 발효 억제의 난이도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이 음식을 만들고 섭취하는 과정은 이 두 가지 목적의 상충을 회피하면서 적절히 타협하는 방식으로 발달했다.

각 문화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장을 목적으로 탄생한 대부분의 채소절임은 보존성을 높이는 쪽으로 기술 집적이 이뤄졌다. 담금 과정이 끝난 뒤 별도의 조리 과정을 통해 조미가 이뤄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파오차이이다. 파오차이의 주담금원은¹ 소금물인데,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적으로 술과 식초를 첨가한다. 월계수·팔각·산초 등의 향신료가

* 투고: 2024년 9월 30일, 심사 완료: 2024년 11월 5일, 게재 확정: 2024년 11월 11일

** 이 글은 세계김치연구소 기관고유사업(KE2403-2)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1 담금원은 保存源, 절임원, 沈菜源 등과 모두 동일어로서, 삼투압, 살균, 미생물의 활성도 제한 등을 통해 주재료의 보존성을 확보해주는 물질을 가리킨다. 주로 鹽, 酸, 糖, 알코올 등이 사용되며, 채소절임의 경우 소금 및 소금 함유 식품과 식초의 활용 비중이 높다.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조미원(調味源)이 아닌 미생물 억제제가 주된 역할이다.² 이렇게 완성된 파오차이를 그대로 먹기보다는 추가 조리를 거쳐, 조미를 하거나 다른 음식의 조미를 위한 부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온전히 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제조되었기에, 미각 추구는 제조 완료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던 것이다.

이와 달리 김치는 저장·보존을 위해 태어난 음식임에도 담금 과정 중에 조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김치에서 조미원으로써 기능을 담당하는 ‘양념’은³ 다른 문화권의 채소절임식품과 김치를 차별화시켜주는 핵심적인 요소였다. 최근 중국과의 김치중주국 논쟁에서 두 나라의 차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던 구분자도 바로 이것이었다.⁴ 조미원인 김치 양념이 담금원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⁵ 대부분의 채소절임이 채소를 직접 담금원에 넣

-
- 2 향신료의 주 기능은 향이며 매운맛을 동반하므로 다행히 미각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나 전체 맛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한다. 이 점에서 五味를 두루 제공하는 양념과 차이가 있다.
 - 3 우리나라 음식에서 맛을 돋우기 위해 쓰이는 調味料를 ‘양념’이라고 하는데 간을 하거나 향미를 더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간을 담당하는 간장, 된장, 소금, 설탕과 향미를 제공하는 파, 마늘, 생강, 고추 등의 향신채소, 고소한 풍미를 제공하는 참기름, 깨소금등을 기본으로 하되 음식에 따라 조합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2018) 참조. 김치 양념은 파, 마늘, 생강 등 향신채류와 고춧가루, 젓갈까지 포함하는데 이 글에서는 필요에 따라 향신채류만 별도로 ‘향신양념’, 고추 또는 젓갈까지 포함된 경우 ‘복합양념’으로 구별했다.
 - 4 장지현, 1972, 「저채류 제조사」, 『민족문화연구』 6, 67쪽; 박채린, 2021, 「김치 독자성의 근거와 형성 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6-3; 구도영외, 2023, 『한국음식문화사』, 동북아역사재단, 98~99쪽.
 - 5 ‘코텍스’와 ‘식품공전’의 김치정의를 종합하면 김치는 “주재료인 채소를 생채소 상태로 소금에 절였다가 다시 전용 복합양념(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및 무 등으로 구성된 혼합양념)에 버무려 低溫에서 발효시켜 완성한 음식”으로, 양념 버무리의 결과로써 자연적으로 생성된 젖산을 통해 보존성과 숙성된 맛을 확보한다는 점이 요지이다. 김치의 양념이 조미원과 담금원의 역할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치 양념은 양념 본연의 맛 외에 주재료와의 ‘물질교환’과 ‘정상발효’를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조미물질과 발효대사산물을 만들어낸다. 김치양념이 채소

어(직접침채법)⁶ 미생물을 억제함으로써 저장성 향상을 꾀하는 것과 달리 김치는 양념담금원과 주재료 사이의 ‘물질교환’ 및 ‘발효유도’의 결과로써 생성된 유산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저장성과 맛 향상에 기여하는 형태이다.⁷ 오미(五味)를 고루 갖춘 양념을 사용해 제조 과정에 조미까지 포함시킨 세계적으로 독특한 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김치에서 양념이 지닌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와 그 변화가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김치의 형성 과정을 다루면서 일정 부분 다루지기도 했지만,⁸ 양념을 전론으로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조리서의 김치 조리법의 변천을 검토하면서 김치 양념의 형성 및 확산 과정을 살펴보려 한다.⁹ 이를 위해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오이·가지·무로 만든 김치 조리법을 중심으로 양념의 재료 구성과 변천, 양념 사용에 따른 김치 제조법의 변화상 및 그에 따른 인식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오이·가지·무는 조선시대 전후기를 통틀어 김치의 주요 재료로 자리매김한 만큼 변천 과정을 추적함과 동시에 시대적 보편성을 담아낼 수 있다고 판단

의 세포막 안으로 침투하고 채소 속 성분은 다시 양념으로 흘러나오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면서 향미와 조직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 6 장지현(1972, 앞의 글, 72쪽)은 생채를 짜게 절여 담은 단순한 漬鹽식 절임을 ‘直接沈菜法’, 생채를 절였다가 고추, 파, 마늘, 생강, 갓, 부추 등 양념에 담가 만드는 것을 ‘二次沈菜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조선 후기 향신채소로 구성된 양념이 지닌 自家酵素 내지 整菌作用에 의해 효과적 유산발효가 일어나는 형태로 김치의 침채원리가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양념이 유해균은 제거하고 유익균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抗菌이 아닌 整菌作用이라는 표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7 유산균 군집이 계속 변화하면서 만들어 내는 대사활동의 결과 조미성분, 영양성분, 기능성 생리활성물질 등이 생성되며, 유산균 증가로 인해 산도가 높아지면서 보존성이 향상된다. 즉, 유산균의 증가는 조미와 보존성에 영향을 미친다.
- 8 박채린, 2019, 「김치의 기원과 제조 변천과정에 대한 종합적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4-2.
- 9 이 글의 시기별·유형별 김치 제조법은 박채린, 2019, 위의 글을 따른다.

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다양한 조리서 가운데 각 시대별 대표적인 조리서인 15~17세기의 『산가요록』·『수운잡방』·『계미서』·『주초침저방』·『최씨음식법』·『음식디미방』과 18세기의 『주방문』·『증보산림경제』, 19세기의 『규합총서(정양완본)』·『임원경제지』·『주찬』·『시의전서』 등을 대상으로 오이·가지·무를 주재료로 한 김치 제조법을 살펴보았다. 이 책들 이외에도 오이·가지·무를 주재료로 활용한 조리법이 있겠지만, 각 시대를 대표하는 조리서인만큼 이 자료들을 통해 양념 김치의 출현 및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양념 김치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물질사이자 일상사의 한 갈래인 음식사라 할 수 있다. 이 분야는 타 분야와 달리 연구 성과가 부족하며, 연구 방법 또한 생소한 편이다. 이제 개척되는 분야인 만큼 많은 관심과 질정을 바란다.

II. 염·장수(鹽·醬水)담금 김치와 향신양념의 사용

〈표 1〉은 17세기 이전 조리서 중 김치류를 정리한 것이다. 주재료는 오이·가지와¹⁰ 무(菁)가 압도적이며 담금원은 소금물과 간장 2종으로 집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름에는 장(醬)에, 겨울철에는 소금물을 담금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담금원의 계절성이 드러난다. 이는 김치에 관한 현전 최고 기록인 이규보의 “한여름엔 장에 곁들이고 겨울엔 소금에 담근다”라는 내용과도 일치하여 고려시대 이래 조선 중기까지 주류 김치 제조법이었음을 알 수

10 오이와 가지는 상호 대체재료로 사용될 정도로 만드는 법에서 유사성이 높는데 조리서에 따라 어느 하나의 제조법만 소개한 사례가 있어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며, 茄菹 또는 오이(가지)라고 표기했다.

〈표 1〉 17세기 이전 조리서의 김치류 종류와 담금원

서명	주재료	종류	개수	담금원	양념 여부
산가요록	茄苳	夏日醬菹, 菹菹	2	간장	간장 단독(2)
		又菹菹(형개·분지잎·생강·마늘), 茄子菹(파·마늘), 夏日假汁菹(생마늘·향유·분지잎)	3	간장	향신양념(3)
		又菹菹(형개·여뀌·분지잎·할미꽃)(4)	4	소금물	모두 草材 香辛料
	무	菁沈菜(2), 凍沈, 蘿薄, 土邑沈菜(2), 無鹽沈菜法, 旋用沈菜	8	소금물	소금물 단독
	기타	芋沈菜, 沈白菜, 生蔥沈菜(2)	4	소금물	소금물 단독
수운잡방	茄苳	菹菹(할미꽃·산초)(2), 水菹菹(할미꽃·산초), 老菹菹(할미꽃·산초)	4	소금물	모두 草材 향신료
		香菹菹(생강·마늘·후추), 雉菹(생강·천초)	2	간장	모두 향신양념
	무	沈蘿菹, 土邑沈菜, 靑郊沈菜法	3	소금물	소금물 단독
	기타	沈白菜, 土卵莖沈造, 蔥沈菜	3	소금물	소금물 단독
계미서	茄苳	茄苳菹(할미꽃), 菹菹(향유·박초·형개)	2	소금물	초재향신료(2)
		菹菹法, 造菹法	2	간장	모두 간장 단독
	무	鹽蘿菹菹, 眞菁沈菜, 眞菁根沈菜, 蘿薄沈菜	4	소금물	소금물 단독
	기타	芋沈菜	1	소금물	소금물 단독
주초침저방	茄苳	汁菹(생강·마늘), 靑菹菹(생강·마늘)	2	간장	향신양념(2)
		水菹菹, 茄子菹	2	소금물	소금물단독(2)
		菹菹(산초)(2)	2	소금물	초재향신료(2)
		甘動菹(근쟁이젓), 冬菹白蝦交沈菹(새우젓)	2	젓갈	젓갈 단독
	무	凍沈, 毛隱止沈菜(2)	3	소금물	소금물 단독(5)
		唐菁根在汁沈菜(깨즙)	1	소금물	깨즙 추가(1)
기타	吐蘭沈菜, 背葉沈菜	2	소금물	모두 소금물 단독	
최씨음식법	茄苳	외딤채(분지·할미꽃)	1	소금물	초재향신료
		가지딤채	1	소금물	소금물 단독

음식디미방	무	무담채(간장·깨즙)	1	소금물	간장, 깨즙 추가(1)
	기타	파담채, 토란담채	2	소금물	소금물 단독
	茄苳	생치잔지히(천초·후추)	1	간장	향신양념
		생치지히	1		-
		생치팀채	1	소금물	소금물 단독
기타	산갓김치	1	소금물	소금물 단독	

* 비교: () 안의 숫자는 동일한 항목명에 여러 가지 제조법을 여러 개 소개한 경우 그 방문(方文=recipe)의 개수를 표기한 것임.

있다.¹¹ 특히 오이장김치는 상대적으로 기록량이 많지 않은 고려시대에 이색(李穡)이 선물로 주고받은 일화가 3회나 등장할 정도로 출현 빈도가 높다.¹²

주재료의 재배 특성상 오이·가지는 여름에 수확하므로 장수(醬水)담금음, 무는 가을에 수확하므로 염수(鹽水)담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오이·가지를 염수에 담근 김치도 적지 않은데 가급적 가장 늦여름에 수확한 오이·가지를 사용함으로써 이듬해 봄까지 재료의 상태를 처음 탄 듯하게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때 할미꽃(白頭翁), 노야기(香薷),¹³ 여뀌(蓼藥),¹⁴ 정가(荊芥),¹⁵ 박새(朴草),¹⁶ 분지잎(粉知葉)¹⁷ 등의 초재

11 박채린, 2013, 『조선시대 김치의 탄생』, 민속원, 78~88쪽.
 12 『牧隱詩稿』 권13, 「卽事」; 권13, 「送牛蒡蔥蘿蔔并沈菜醬」; 권35, 「尹可觀夫人權氏送米及醬瓜」.
 13 꿀풀과의 한해살이풀이며, 산이나 들에서 자란다. 『동의보감』에서는 민간요법으로 복통 등의 증상에 노야기를 추천했다. 학명은 *Elsholtzia ciliata*이다.
 14 마디풀과의 한해살이풀. 학명은 *Persicaria hydropiper*이다.
 15 명아주과의 한해살이풀로 잎과 줄기를 한약재로 사용한다. 유사어로 덩가, 형개, 假蘇 등이 있다. 학명은 *Chenopodium ambrosioides*이다.
 16 박새풀은 백합목 식물로 한국과 일본에 분포하는 유독식물로 알려져 있다. 박새풀은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로, 고산지대의 습한 곳에 군락을 이루고 자라며, 생약명은 여로(藜蘆), 학명은 *Veratrum oxysepalum Turcz*이다(황지영·김현, 2015, 「박새풀 섭취 후 발생한 심장효소 상승 1례」, 『대한임상독성학회지』 13(2)). 유사어

〈표 2〉 17세기 이전 염수·장수김치의 특징

담금원	주재료	여름	가을	겨울~ 이듬해 봄	특징	보존성
醬水	오이	수확/담금/취식	-		향신양념 (마늘·생강)	단기저장
鹽水	오이	수확/담금/저장	취식		초재향신료	장기저장
	무	-	수확/담금/저장	취식	염수 단독	장기저장

향신료(草材香辛料)를¹⁸ 넣어 보존성을 높여주었다. 이렇게 완성한 오이(가지)지는 겨우내 반찬이 필요할 때 건져서 먹거나 다른 요리의 재료로 활용했다. 이를 도식화하면 〈표 2〉와 같다.

17세기 이전 김치류에서 양념의 사용은 매우 한정적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미와 보존성은 반비례했기에, 조미를 위한 향신채 사용은 음식의 보존성을 떨어뜨렸다.¹⁹ 여름철 단기저장 김치류에서 향신양념이 사용된다는 것은, 계

로 朴鳥伊, 朴沙伊, 箔草 등이 있다(『鄕藥採取月令』, 3月, 借).

- 17 분지읓은 산초나무의 잎이다(『훈몽자회』에서는 椒를 “고초 초, 胡椒又川椒奏椒蜀椒 椒 苽피 又 분디 曰山椒”라고 했다). 유사어로는 진피, 제피, 쟈피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분지의 잎을 이용한 경우는 草材香辛料, 분지의 열매(산초)를 사용한 경우는 향신료로 분류했다.
- 18 주로 열매류를 이용하는 향신료(spices)와 달리 줄기, 잎 등을 사용하는 허브(Herb)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이 원산지인 고가의 스파이스나 허브 대신 주변의 산천에서 흔히 자라는 향신성 풀들을 식재료로 활용했는데, 이 글에서는 이 허브를 草材香辛料로 칭했다.
- 19 ‘마늘·생강·(파)’의 경우 잡균을 죽여 부패 위험을 낮추기도 하지만 초기 유산균 숫자를 늘려 단시간에 발효를 촉진하기도 한다. 향신채 자체가 상당량의 당분을 함유하고 있어 음식의 단맛을 제공하며 맛을 상승시키는 동시에 미생물의 먹이로도 이용되기 때문이다. 단, 김치에서는 각 향신채의 향균물질들이 발효 과정 중 생성되는 유산균 출현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김치의 저장성을 일정 기간 확보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주영·최미경·경규향, 2008, 「마늘의 김치발효 촉진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과학회지』 40(4), 479~484쪽; 최윤정·황예슬·홍성욱·이미애, 2016, 「마늘 첨가량에 따른 김치의 발효 중 품질 특성

질 특성에 따른 장기 보존의 포기 가능성을 추정케 한다. 예를 들면, ‘4~5일 후 먹기 시작해 10여 일을 넘지 않게 하고, 계속 담가 먹으면 맛이 굉장히 좋다’라는 『산가요록』 「장저」의 방문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여름철 수확한 오이·가지를 주재료로 간장에 담근 김치(이하 장수김치)는 보존성을 포기하는 대신 미식 추구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장수김치들의 가식 기간은 대두분 익일~9일 정도 이내였다.²⁰ 하지만 적어도 약 10일 정도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름철 하루 만에 맛의 변질되는 나물류와는 다르므로 엄연히 김치임에 틀림없다. 17세기 이전 조리서의 기술 체계를 볼 때 당대인들의 인식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읽힌다. 간장과 향신양념인 ‘마늘·생강·파’ 조합은 당대 사회에서 조미의 역할을 하는 양념법으로 보편화되어 있었으므로,²¹ 장수김치에 향신양념을 넣은 ‘여름-오이·가지-장수-향신양념’이라는 특별한 계절 한정 김치 제조 공식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염수담금김치(이하 염수김치)의 경우를 보자. 17세기 이전 염수김치에 ‘마늘·생강·파’ 등 향신양념을 사용한 사례는 조사대상 문헌에서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오이·가지 김치의 경우 주변의 산과 들에서 흔하게 채취할 수 있는 초재향신료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할미꽃, 노야기, 여

변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45(11), 1638~1648쪽; 황인경·조영·이진희, 1998, 「부재료를 달리하여 제조한 김치의 발효특성」,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14(1), 1~8쪽). 오래 보관해두고 먹기 위한 김치에는 양념 양을 최소화했다는 사실은 양념이 장기보존성에는 장애가 된다는 점을 일러주는 것이다.

- 20 간장을 끓여서 만든 경우 여름김치라도 가식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가을에 만들었다가 겨울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장기보관이 가능한 茄苳장 김치의 사례는 극소수이다. 『수운잡방』 「毛難伊法」와 『음식보』 「가지지히」에서만 보인다. 「모난이」는 가지를 지져서 익힌 후 간장을 넣은 조림의 형태로 엄밀히 채소 절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표 1>에서 제외했다.
- 21 현전 最古 조리서인 『산가요록』만 보아도 「수라화」의 초간장(생강·마늘·식초·간장), 「토장」의 양념(간장·諸香菜·들깨즙) 등 간장에 생강이나 마늘을 넣어 맛을 돋우는 조리법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뀌잎, 정가(형개), 분지잎 등은 강한 항균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풀이다. 잡균을 죽여 소금물의 저장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 사실 할미꽃, 노야기, 여뀌잎, 정가(형개) 등은 독성이 강해 식용에 무리가 따른다.²² 오늘날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점으로 비추봐도, 이 당시에도 저장성 제고를 위한 보존용으로 용도가 훨씬 컸다고 생각된다. 향과 매운맛 등 맛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향신료와 다른, 보존성 제고를 위한 향신료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오이·가지 담근 염수김치에만 초재향신료를 사용했을까?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겠지만 이들이 식용 작물이 아니라는 데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오이·가지는 무에 비해 수확시기가 빨랐기 때문에 저장 후 취식까지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과제였다. 게다가 수분 함량은 높고 조직 강도는 낮으므로 미생물에 의한 조직 손상 및 변질 우려, 즉 ‘연부 현상’의 발생 우려가 컸다. 따라서 방부 역할의 보조제가 필수였다. 다행히 무동치미와 달리 국물까지 섭취하는 유형은 아니었기에, 식용은 아니지만 제조 단계에 넣어두면 보존성을 높일 수 있는 초재향신료는 최적의 대안이었으리라 판단된다. 초재향신료를 넣은 후 “이렇게 하면 물러지지 않고 이듬해 봄까지 먹을 수 있다”라는 부연 설명이 이를 잘 보여준다.²³

22 할미꽃이나 형개와 달리, 노야기(香薷)와 여뀌는 식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서거정의 「巡菜圃有作」(『사가집』 卷51)에는 “생강, 마늘, 파, 여뀌 오미 양념을 갖추어 잘 삶으면 국이 되고 담그면 김치가 되네”라는 기록이 있고, 『증보산림경제』에는 “노야기는 여름에 나물을 무쳐 먹고 이삭이 나오면 수확한다”, “여뀌는 싹이 나오면 오신반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여 재배 및 식용 현황을 보여준다. 왕실 의례 규정을 담고 있는 『태상지』에는 여뀌싹(蓼芽)이 12~2월 조석전(朝夕奠)에 올려진 기록도 있다. 서거정이 “붉은 차조기와 여뀌가 맛이 비슷하다”(『사가집』 卷1 〈種蔬〉), “생선회에는 유독 여뀌 싹이 제격이구나”(『사가집』 卷40 〈憶村家〉)라고 한 내용으로 미루어 특유의 매운맛과 강한 향이 필요한 음식에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민물고기를 잡을 때 여뀌잎을 비벼서 물에 풀면 물고기 기절할 정도로 약성도 강하다는 점을 볼 때 草材香辛料를 대체할 향신양념의 구득이 용이해지면서 점차 식재료로의 용도가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3 김정·조영수·서권일·주옥수·심기환, 2000, 「산초와 초피잎의 항균활성»,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7(2); 한복려, 2005, 『할미꽃(백두웅, Pulsatilla koreana)』

이렇게 저장해둔 오이·가지 염수김치는 이듬해 봄까지 반찬이 필요할 때마다 건져서 그대로 먹거나, 양념에 무쳐 먹거나 다른 요리의 재료로 활용하였다.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의 꿩김치류가 바로 염수 오이김치를 건져 꿩 요리로 만든 사례인데 제조법을 보면 꿩고기에 오이지와 양념을 넣고 볶거나, 꿩백숙에 오이지를 넣어 국물음식으로 만들었다. ‘꿩·오이김치’로부터 꿩김치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 오이지를 건더기만 건져 먹는 용도였으므로 염수절임시 재료의 맛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초재향신료를 사용해도 무방했으리라 짐작된다. 이는 중국의 파오차이가 조미 기능보다 보존성 향상에 중점을 둔 배경과 흡사하다. 최종 취식 전 ‘조미’가 이루어지므로 제조 단계에서는 보존성을 우선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무동치미는 추가 조리단계 없이 국물까지 바로 섭취하는 것이기에, 취식이 가능하면서도 맛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조미원료가 아니면 사용을 꺼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 동치미 제조법이 향신양념을 추가해 조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Ⅲ. 양념 담금법의 출현과 이차침채(二次沈菜)로의 발달

18세기에 접어들면 인구 증가에 따른 농업노동력 증대, 상품교환 경제 활성화,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진행되면서 누대를 걸쳐 축적된 경제력과 문화적 감각이 바탕이 되어 미식 추구 경향이 두드러진다.²⁴ 김치 제조법에도 이와 같은 사회

참가가 오이지의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 明知大學校 박사학위논문 등 참조.

24 18세기 사회의 미식 추구 문화 형성은 다음의 연구가 참조된다. 이숙인, 2014, 「18세기 조선의 음식 담론」, 『한국실학연구』 28; 안대회 외 2인, 2014, 『18세기의 맛』, 문학동네; 안대회, 2015, 「18·19세기의 음식취향과 미각에 관한 기록-沈魯崇의 『孝田散稿』와 『南遷日錄』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69 등 참조.

〈표 3〉 18세기 이후 김치 담금원에 따른 제조 방법 변화와 특징

담금원	주재료	18세기 이후 변화 양상			사례	계절성
		향신물질	특징	추가 재료		
鹽水	오이	草材香辛料 소멸	타 김치 재료 활용 可 오이지(가지지)	-	용인오이지(중/규/주/시), 동 가침채(규/주)	겨울
	무	신규 사용 (일부 고추 사용)	동치미류	배·유자· 석류 등	나복동침저(중), 나복황아저 (중), 동침저, 담저(찬) 담족침 채(찬), 동침이(규/주/시)	
醬水	오이/ 무	사용 지속	熟菜형 장수김치 일부 존속	-	약지히(주/음), 슈조외(주), 과 담침채(찬)	-
			조림·찜 형태 반 찬으로 변형	육류 (팽담소)	茄爛(중) 黃瓜爛(중), 오이무 름(찬) 오이장아찌(시), 가지짠 지(시), 무숙장아찌(시)	
	오이/ 무	신규 사용 (·고추)	生菜형 장수김치 → 장김치 및 장짠 지류	해물류	장짠지(규/시) 장김치(주/시) 숙대장아찌(시)	겨울
양념	오이/ 무	신규 사용 (+고추)	섞박지·어육김 치·소박이김치 등	소금물 소량 (간국물용)	황과담저(중) 황과합저(중), 나 복합저(중), 섞박지(규/주/시), 어육침채(규/시), 추침(찬), 합 저(찬), 과합저(찬) 호과침채 (시), 첫무(시), 얼것국지(시)	겨울

* 비고: 중=「중보산림경제」, 규=「규합총서」, 주=「규곤요람」「주식방」, 시=「시의전서」, 찬=「주찬」, 음=「음식보」

현상이 반영되며 변화가 일어난다. 〈표 3〉은 앞서 언급한 18세기 이후 조리서
에 담긴 오이·가지·무 김치의 제조법 변화 과정에 보이는 특징적인 현상을 정
리한 것이다.

〈표 3〉에서 확인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향신양념이 소금물만 단
독 사용하던 무김치(동치미)에도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향신양념은 단기
저장 장수김치에 국한되었던 것인데 18세기 이후 염수김치 중 특히 국물까지
먹는 동치미에 적용된 것이다. 물의 양이 많을수록, 양념이 추가될수록 보존성
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주로 국물 취식이 주목적인 무김치에 향신양념

사용이 보편화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²⁵ 다른 한편으로 염수담금 오이·가지 김치는 보존제인 초재향신료 없이 소금물 단독 사용으로 변화했다. 양자 모두 미식 추구 경향에 따른 변화임이 분명한데,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보존성을 어떻게 만회했는지가 관건이므로 이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향신양념을 썼던 장수김치가 두 가지로 분화된다. 생채로 담근 국물김치 형태의 생채형은 장김치로, 재료를 익히거나 간장을 끓여 부은 숙채형은 반찬 형태로 나뉜다. 장수김치는 17세기 이전부터 맛의 상승 목적으로 양념을 사용해왔던 것으로, 이러한 경향은 18세기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단, 고추를 추가한 경우 생채형 김치로 변모하였고, 고추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가열 조리 과정을 거침으로써 더 이상 김치가 아닌, ‘숙장아찌 또는 선(膳)’이라는 명칭을 지닌 숙채(熟菜)형 반찬으로 자리 잡는 것이 확인된다.

셋째, 조미원인 향신양념이 담금원의 기능을 겸한 ‘양념담금 김치’(이하 양념 김치)의 등장이다. 17세기까지는 소량의 향신양념이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 머물렀었다. 그런데 향신양념에 고추가 추가되면서 담금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미 알다시피 고추가 첨가된 다량의 향신양념이 담금원의 역할을 하는 ‘양념김치’의 등장은 김치 제조 방식과 모양, 그리고 맛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 세 가지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과거부터 지속되어왔던 염·장수김치의 변모와 새로 등장한 양념김치의 성립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염수김치에서 향신양념 사용의 확대

〈표 4〉는 17세기 이후 달라진 염·장수담금 오이·가지·무 김치의 제조법을 조

25 배·유자 등 단맛을 내는 재료 사용의 확대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국물 자체의 맛을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냉면처럼 동치미와 결합한 새로운 음식으로의 확장 또한 일으켰다.

〈표 4〉 17세기 이후 염·장수김치의 변화

서명	주 재료	종류	개수	담금원	향신 양념	비고	
주방문	茄苳	茄苳菜, 茄苳菁沈菜(마늘)	2	소금물	○	마늘	
		藥沈菜[파·마늘·형개·후추·육류(꿩·牛)]	1	간장	○	파·마늘·형개	
음식보	茄苳	가지약지히(생강)	1	간장	○	생강	
	무	동침이(파초)	1	소금물	×	芭蕉	
증보산 림경제	茄苳	沉冬月茄苳(龍仁淡瓜苳, 黃苳熟苳)	3	소금물	×	소금물 단독	
		夏月沉茄苳(마늘)	1	소금물	○	마늘	
		黃瓜醃(새우젓), 紫蝦醃(전복·소라·자하젓)	2	젓갈	×	젓갈 단독	
		醬茄(牛)	1	간장	×	간장 단독	
		茄爛(양념·牛), 黃瓜爛(양념·牛)	2	간장	○	양념 종류 未記	
	무	蔓菁菹	1	소금물	×	소금물 단독	
		蘿菹熟菜[파·생강·후추·육류(꿩·牛·닭)]	1	간장	○	생강·파·후추	
		蘿菹凍沉苳(파·생강·청각·산초·오이·가지·송이), 蘿菹黃芽菹(파·무쌈)	2	소금물	○	생강·파·산초	
	규합 총서	무	동침이(파·생강·고추·배·유자), 동지(고추·청각·오이)	2	소금물	○	고추 추가
		茄苳	장잔지1(파·생강·고추·청각·송이·전복), 장잔지2(파·생강·고추·후추·부추·갯·牛)	2	간장	○	고추 추가
용인과지, 동가침채			2	소금물	×	소금물 단독	
주찬	무	童沈苳(고추·천초·오이·가지), 淡苳(생강·천초), 淡足沈菜(파·고추·천초)	3	소금물	○	고추 추가	
	茄苳	生雉沈菜(천초·꿩), 生雉醃苳(생강·후추·꿩), 瓜物飲(파·생강·표고·석이·닭)	3	간장	○	생강·파·천초·후추	
주식 시의	茄苳	용인오이지, 동가침채	2	소금물	×	소금물 단독	
	무	동김치(파·생강·고추)	1	소금물	○	고추 추가	
	茄苳	장김치(파·생강·고추·후추·갯·석이·표고·전복), 슈조외(파·마늘·깨소금·牛·닭)	2	간장	○	고추 추가	

시의 전서	茄苳	외지담는법	1	소금물	×	소금물 단독
	무	冬沉伊(파·생강·고추·오이·배·유자), 쟈김치(파·마늘·생강·고추·미나리·가지)	2	소금물	○	고추 추가
	茄苳	외중앗지(파·마늘·고추·석이·표고·牛-간장절임), 가지짬지(양념·牛)	2	간장	○	고추 추가
	무	무숙장아찌(파·마늘·생강·고추·후추·깨소금·牛)	1	간장	○	고추 추가
	혼합	장짬지(파·생강·고추·청각·송이·오이·무·배추·전복·조갯살), 醬沉菜(파·마늘·고추·생강·밤·석이·표고·갯·전복·해삼·양지차돌), 속대장아찌(고추·파·마늘·생강·배추속대)	3	간장	○	고추 추가 간장절임

* 양념이라고만 표기된 것은 종류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임.

리서별로 정리한 것이다. 주된 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했듯 17세기 이전까지 향신양념은 장수김치에만 사용했다. 여름에는 부패 가능성이 높아서 수일 내로 섭취해야 했기에, 보존성에 대한 기대는 처음부터 높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양념을 첨가해 조미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18세기 이후부터 염수김치에도 향신양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오이·가지김치인 『주방문』의 「오이가지선」과 『증보산림경제』의 「하월침가저」에는 향신양념인 ‘마늘’이, 무김치인 『증보산림경제』의 「나복동침저」에는 ‘마늘·생강·파’ 등 향신양념이 들어갔다. 이 사례들은 ‘여름-오이·가지-장수-향신양념’, ‘겨울-오이·가지-소금물-초재향신료’, ‘겨울-무-소금물 단독’이라는 17세기식 김치 제조 경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염수김치는 소금의 농도가 낮아질수록 부패 위험이 크다. 그래서 기온이 낮은 가을 이후에 담갔고 특히 수분이 많고 조직이 무른 오이·가지는 초재향신료를 함께 넣어 보존성을 높였던 것이다. 그런데 17세기 이후 이러한 제조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향신양념을 넣어 미식에 힘을 신게 된 것이다.

향신양념을 넣어 맛을 증가시키는 경향은 더욱 짙어져, 『증보산림경제』를 기점으로 19세기부터는 염수 무김치에 향신양념을 추가하는 조리법도 쉽게 확

인된다. 또 『규합총서』의 「동침이」·「동지」, 『주찬』의 「동침저」·「담저」·「담죽침채」, 『주식시의』의 「동치미」, 『시의전서』의 「동치미」·「젓김치」 등을 보면 향신양념에 ‘고추’까지 더해진 것도 확인된다. ‘무-소금물-(고추)향신양념’이 기본 틀로 지속되면서 여기에 여름철에 미리 담가둔 염수 오이·가지김치에서 건더기를 건져 함께 담그거나 배·유자·석류 등 과일류까지 첨가함으로써 동치미의 재료가 확장되는 현상도 확인된다.

왜 이러한 변화가 생긴 것일까? 양념 사용의 확대는 더 맛있는 음식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층의 확대, 양념의 재료라 할 수 있는 향신채소류의 원활한 공급, 보존성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의 발달, 소비기한보다 맛을 더 선호하는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만들어진 사회문화적 변화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조리서는 이러한 사회문화를 담고 있으며, 조리서를 통해 사회문화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 글에서 주목한 것은 낮아진 보존성을 보완해주는 기술 발달, 그 중에서도 오이·가지 김치의 소금물 농도 조절 기술을 통한 절임 품질 제고 방안이다. 오이·가지 김치는 염수 농도를 높이거나 염수를 순환시키는 방식을 통해 보존성을 제고한 것으로 짐작된다. 『규합총서』의 「동가김치」, 『주식방문』의 「오이지 담는 법」·「과동」·「가지외지법」·「가을에 담그는 가지장아찌」, 『주식시의』의 「동가침채」 등 소금물 단독으로 담근 오이·가지 김치의 제조법을 보면 “오이를 짜게 하여 … 먹을 때 소금기를 뺀 뒤, 소금을 물에 짜게 풀어, 소금에 문뜬이 절여 두었다가, 소금을 흐벅지게 찍어, 소금을 동침이 국보다 조금 짠 듯하게 하여”라는 설명이 부기되어 있다. 17세기 이전의 김치에 비해 염수의 농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²⁶

26 17세기 이전에는 물 한 동이에 소금 1~4되 정도가 보편적인데 조선 후기 조리서에는 분량이 명시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19세기 말 한강 수계를 이용한 소금 시장이 강원도 내륙까지 이어져 있었고, 낮은 품질의 청나라 소금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조선의 소금 시장을 잠식해나간다는 점을 떠올려보았을 때(최영준, 1997, 『국도와 민족생활사』, 한길사, 163~168쪽), 그 이전부터 소금 수요에 의한 시장이

또 다른 단서는 ‘용인’이라는 지명이 붙은 염수 단독 오이김치이다. 『증보산림경제』의 「용인담과저」를 시작으로 『규합총서』의 「농인과지법」, 『임원십육지』와 『주식시의』에 각각 「용인과저법」·「농인과지법」 이외에도 다수의 조리서에 「용인오이지」 조리법이 실려 있다. 「용인오이지」는 향아리에 오이를 넣고 소금물을 부은 뒤 여러 번 오이의 위치를 바꿔주면서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소금의 농도는 오히려 높지 않다. 수분이 많은 오이를 향균·방부 효과를 지닌 초재향신료 없이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고농도의 염수를 사용하거나, 염수를 잘 순환시켜 절임이 고루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용인오이지」는 후자에 해당한다. 염수의 농도가 낮아지면 부패가 쉽게 일어난다. 삼투압의 영향으로 재료에서 침출되는 세포액이 재료 주변의 농도부터 염도를 떨어뜨린다. 이때 염수를 휘저어 주면 낮아진 염수 농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게다가 무거운 소금액이 아래쪽으로 가라앉으므로 자주 저어수록 염도가 균일해지므로 고루 절일 수 있다.²⁷ 「용인오이지」가 유명세를 떨친 이유는 며칠 간 6~7회 이상 오이의 위치를 뒤바꿔줌으로써 절임의 품질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염수순환 절임’ 지식의 확산 결과로 해석된다. 18세기부터 등장한 「용인오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조선시대 소금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는 소금 생산 지역과 방법, 염세 등 소금부세 정책 등에 초점을 두고 이뤄졌고, 유통에 관한 부분은 위 연구 주제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광민 외, 2006, 『조선시대 소금생산방식』, 신서원; 유승훈, 2008, 『우리나라 계염업과 소금 민속』, 민속원; 유승훈, 2012, 『작지만 큰 한국사, 소금』, 푸른역사). 이는 비단 소금뿐 아니라 쌀 등의 몇몇 상품작물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식재료에 해당하는데, 조선 후기 유통·상업 경제가 발달했다는 거시적 시각은 세워졌으나, 실제로 그러한 시각하에 개별 상품들이 생산·유통·소비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에 관해서는 더욱 진무한 실정이라 할 수 있는데, 유통되었으니 소비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측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개별 식재료의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27 한응수, 1996, 「김치공장의 배추 절임공정 개선 및 절임배추의 저장성」,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산업심포지움발표집』, 14~15쪽; 김순동, 1997, 「소금절임과 김치발효」, 『식품과학지』 9, 187~196쪽.

이지」는 양념 사용이 보편화된 19세기까지도 명성을 이어갔다.

절임 품질 제고는 보존성을 올려주는 것으로, 이는 조미를 위한 조리로 인해 낮아졌던 보존성을 보완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존성 제고를 위한 절임 기술 개발이 조미 조리 변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²⁸

2. 장수김치의 분화

17세기 이전부터 향신양념을 넣어 만들었던 장수김치(여름-오이·가지-장수-향신양념)는 18세기를 넘어서면서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째, 김치로부터 분리되어 숙채형으로 바뀐 유형이다. 보존성은 아예 포기하고 미식이 극대화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오이·가지-장수-향신양념’에 ‘육류(평·닭·쇠고기)’ 사용이 적극적으로 늘어나면서 명칭도 변하는데 약지히(『주방문』), 가지무름(茄爛)·늪은오이무름(黃瓜爛)·나복숙채(『증보산림경제』), 오이무름(『주찬』), 슈조외(『주식시의』), 무숙장아찌·오이장아찌(『시의전서』) 등이 이 계열이다. 김치를 뜻하는 ‘침채(沈菜)’나 ‘저(菹)’가 아닌 무름(爛·物飮), 약지히, 장아찌로 바뀌고 있다.²⁹ 17세기 이전에는 무를 장수담금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데, 『증보산림경제』의 「나복숙채」처럼 무를 사용한 새로운 형태도 생겨났다. 17세기 이전에도 육류를 넣어 만든 사례는 있었으나, 오이에 ‘육류맛이 우러난 간장’을 붓거나, 오이김치에 ‘고기와 함께 장을 넣고 숙성·저장’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18세기부터는 육류(평·닭·쇠고기)를 주재료(오이·가지·무)와 함께 ‘장수에 줄이는 방식’으로 변했다. 가열조리가 필수가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여름이라

28 지금 단계에서는 조미 조리 변화와 절임 기술 개발 중 무엇이 우선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극한 환경이 기술 개발을 추동한다는 점을 떠올렸을 때, 기술 개발이 좀 더 우선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개발이라 표현했지만, 설령 경험적 소산에 의한 우연한 발견이라 하더라도 이 방법이 기록되고 전파되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개발이라 표현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29 20세기 이후에는 ‘熟醬瓜’, ‘갑장과’, ‘膳’이라는 이름의 음식으로 이어졌다(구도영 외, 2023, 앞의 책, 88~94쪽).

는 계절적 제약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둘째, 생채형으로 여전히 김치류에 잔존한 유형이다. ‘오이·가지·무-장수+다량의 소금물-향신양념(고추 추가)-해물(굴·전복·낙지 등)’ 형태로 장짠지(규합), 장김치(『주식시의』), 장김치·장짠지(『시의전서』) 등 국물김치류 해당된다. 해물뿐 아니라 배추·부추·미나리·갓·버섯 등 다른 부재료의 첨가도 눈에 띄게 늘어난다. 첨가 부재료의 증가는 부의 축적, 해산물 및 각종 식재료 공급·유통 활성화 등 조선 후기 사회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김치 자체의 맛과 발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유지·활성화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17세기 장수김치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향신양념에 고추가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고추가 들어가면서 간장만 자작하게 붓는 것에서 탈피하여 소금물 등을 추가한 국물김치 형태로 변모하였으며, 간장이나 해산물 등을 가열·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넣었다. 조선 후기 염수담금 무김치에서 고추까지 추가된 향신양념이 사용되는 현상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마늘·생강·파만 들어갔을 경우 초기 발효를 촉진시켰다면 고추는 그 이후 과숙성을 제어함으로써 김치의 가식 기간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³⁰

3. 향신양념 담금원의 출현

17세기 이후 김치 제조법에 보이는 획기적인 현상은 향신양념이 담금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표 5>는 새로 등장한 ‘양념담금 김치’만 별도로 분리해 정리한 것으로 양념김치가 주류의 위상을 점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17세기까지의 담금원은 염·장수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었고 담금원에 소량 첨가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18세기부터 향신양념이 본래의 조미원으로서의 기능에 더하여 그 자체로서 담금원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고 19세기에는 주류

30 박소희·임호수, 2003, 「고추, 젓갈 및 소금농도가 김치의 맛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2-3.

〈표 5〉 18세기 이후 '양념김치'의 종류와 유형

서명	주재료	종류(향신양념)	추가 부재료	개수	비고
증보 산림 경제	茄菰	黃瓜淡菹(고추·마늘)	-	2	고추
		黃瓜醃菹(파·마늘·생강·고추)	부추		
	무	沉蘿菹醃菹(고추·산초·마늘)	부추·갓·미나리·동아·가지·호박잎·고춧잎	1	고추
규합 총서	雜菜	섯박지(마늘·고추)	무·배추·동아·가지·청각·진어젓·소어젓·준치젓·밴댕이젓·굴젓·소라·낙지·전복	3	고추·젓갈
		어육침채(파·마늘·생강·고추)	청각·배추·무·갓·대구·민어·조기·어육수		
		동과석박지(파·마늘·생강·고추)	청각·조기젓국		
임원 경제지	雜菜	醃汁冬瓜(생강·椒)	볶은 참깨·젓갈	2	고추·젓갈
		醃菹[생강·천초·고추(南椒)]	무·오이·가지·동아·배추·조기젓·전복·낙지·녹각채		
주찬	雜菜	秋沈法(파·마늘·고추·천초)	청각·깨·무·배추·오이·가지·고춧잎	1	고추
		胥薄菹(2)(파·마늘·생강·천초)	청각·석이·표고·소라·굴·대하·조기젓·굴젓·준치젓·배추·무	2	고추·젓갈
	무	醃菹1(파·생강·고추·천초)	-	2	고추
		醃菹2(생강·천초)	-		
	茄菰	菰淡沈菜(파·천초)	갓	2	고추
菰醃菹(파·생강·마늘·고추·천초)		부추·후추			
주식 시의	雜菜	석박지(마늘·고추)	청각·무·배추·동아·오이·배·조기젓·젓국·소라·낙지·굴·전복·팽·수육	2	고추·젓갈
		동아석박지(파·마늘·생강·고추)	청각·조기젓국		

시의 전서	雜菜	魚肉沉菜(파·마늘·생강·고추)	무·배추·호박·갓·오이·가지·고춧잎·청각·대구·복어·민어·고기육수	6	고추· 젓갈
		비죽통김치(菘沉菜 파·마늘·생강·실고추)	청각·미나리·밤·배·조기젓(국)·소라·낙지·배추·무·오이지		
		얼젓국지(파·마늘·고추·생강)	미나리·젓국·무·배추		
		젓무(파·마늘·고추)	새우젓·무·오이지·배추		
		셋박지(=「규합총서」와 동일), 동과침채(冬菘沉菜 동아셋박지)(=「규합총서」와 동일)			
茄菘		호과침채(胡菘沉菜 파·마늘·고추)	-	2	고추
		포침채(匏沉菜 파·고추·)	박·가지·오이·열무		

* 담금원은 모두 향신양념임.

김치로 자리 잡은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향신양념(마늘·생강·파) 외에 고추까지 한꺼번에 버무려진 ‘(고추)향신양념 담금원’³¹은 바로 오늘날 김치양념소의 원형이다. 『증보산림경제』의 「황과담저」·「황과함저」·「침나복항저」 등은 모두 고추까지 들어간 향신양념을 넣어 만들고 있으나 ‘(고추)향신양념 담금원’이 본격적으로 확립된 것은 19세기부터이다. 이러한 흐름이 고추의 사용과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념담금원의 출현은 김치의 제조방식에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17세기까지의 제조법은 담금원에 바로 재료 및 양념을 함께 넣고 숙성시키는 방식(直接沈菜法)이 전부였으나, 양념담금원의 출현으로 1차에서는 절인 채소를 건져 탈수한 뒤 2차로 양념에 담가 숙성시키는 방식(二次沈菜法)이 김치의 주류로 부상하는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사실 소금에 절여진 채소를 건져 물기를 뺀 후 양념에 무쳐 먹는 것은 오늘

31 고추는 경우에 따라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로 표기했다.

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조리 방법이며 17세기 이전에도 염수김치의 주된 활용 방식이었다. 어느 날 양념에 버무려 오래 보관해두었던 김치에서 매우 신기한 맛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 맛이 긍정적인 호응을 얻게 되면서 보편적인 방법으로 확산·정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추를 넣은 물김치를 먹으니 갑자기 살아 있는 봄이 온 듯하다”,³² “겨울에 그 열매를 즙으로 짜 넣으면 채소가 청담해진다”,³³ “고추 열매가 향기로우며 김치에 넣으니 부드럽고 맛은 시원해지네(脆爽)”라고³⁴ 한 당대 지식인들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고추가 들어간 복합양념이 담금원의 기능을 하면서 유산발효에 따른 맛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³⁵

‘복합양념 담금원’에 들어갈 김치 주재료를 1차로 염수에 절였다가 건져서 행귀내는 퇴염(退鹽)을 행한 후 양념과 버무리는 2차침채법이 김치 제조의 보편 과정으로 굳어졌다는 사실은 다음의 사료들을 통해 확인된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김치 제조법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조리법이 서술된 사례를 각 조리서별로 제시했다.

- ① 얇고 크고 연한 무를 너무 짜게 말고 좋은 갓 배추를 각각 그릇에 저린 지 사오 일 만에 ... 무 배추를 광주리에 건지고 물이 빠진 후, 독을 땅에 묻고 (무·배추를) 먼저 넣고, 가지, 동과 등을 넣고, 젖을 한 벌 깬 후, 청각과 마늘, 고추 등을

32 『임원경제지』 「나복황아저법」, “生蔥 蠻椒子 作淡菹食之 令人頓生春意.”

33 『오주연문장전산고』 「번초남과변증설」, “其子冬月作乳 爲菹清淡.”

34 『老稼齋集』 권2 「野椒」, “實亦芬馨 入菹助脆爽.”

35 고추가 포함된 양념이 효과적 유산발효를 도왔기 때문임은 다수의 실험을 통해 검증되고 있다. 잘 발효된 김치는 유산균의 대사산물인 만니톨이 생성되어 상큼하고 시원한 맛이 난다(조영·이진희, 1994, 「김치 부재료가 *Leuconostoc mesenteroides* 및 *Lactobacillus plantarum*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10-1; 김정환, 1995, 「김치 양념류가 염절임 배추의 발효에 미치는 영향」, 『論文集』 15-1, 서울보건대학, 153~159쪽; 김영자, 1993, 「양념이 김치의 관능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12~20쪽).

위에 많이 뿌리고, 고추, 남새 넣기를 전대로 떡 안치듯한다. … (『규합총서』 「섯박지」)

② 김장할 때, 좋은 무와, 연한 배추, 굵은 갓을 정히 씻어 간을 맞추어 절이고 오이와 가지를 법대로 절인 것과…고춧잎 고추달린채 소금에 절여내어 여러번 씻어 … 독을 문은 후 청각, 마늘, 파, 생강, 고추 등을 켜켜 넣고 … (『규합총서』 『시의전서』 「어육침제」)

③ 무 하나를 세로로 잘라 서너 조각으로 만들어 깨끗한 동이 안에 넣고 약간의 소금을 뿌린다. 3일이 지나면 6~7월에 미리 소금에 절였던 오이를 물에 담가 소금기를 뺀 후 쓴다. … 모든 재료를 항아리 안에 넣고 … 한 층은 무, 한 층은 위의 (양념)채소를 층층이 넣은 후 … 짓갈증을 타서 간을 맞추고 … 땅속에 묻으면 21일이면 익는다. (『임원경제지』 「해저」)

④ 무·배추를 짠 소금물에 얼마 동안 담갔다가 건져내어 다른 그릇에 담아 물기를 뺀 다음 독 안에 넣는다. 오이(파), 가지, 고춧잎, 고추, 파, 마늘, 청각, 생강, 볶은 깨, 천초 섞어 층층마다 넣는다. (『주찬』 「추침」)

⑤ 속이 좋은 무와 어리고 푸른 오이, 좋은 배추, 늙은 동아를 소금에 절여 꼭 절거든 물에 행귀 건져 놓고 … 갓은 양념 갖추어 모두 섞어 배추통에도 넣고 혹 무와 동아에도 조금씩 넣고 켜켜로 놓아 양념 뿌리고 … (『주식방』 「섯박지」)

⑥ 연하고 좋은 무를 얇전하게 썰고 좋은 배추는 잘 절이고 진어, 준치, 소라, 조기, 젓, 밴댕이를 물에 담가 하룻밤 재워 … 독을 문고 무배추 먼저 넣고 … 마늘, 파, 고추, 등속을 위에 많이 펴고 … (『시의전서』 「섯박지」)

이상의 사료를 통해 19세기 조리 경향의 두 가지 변화상을 알 수 있다. 첫째,

젓갈 또는 육류 해산물이 부재료로 적극 사용되는 것이 보인다. 19세기 『규합총서』를 보면 ‘향신양념’에 고추와 젓갈류까지 혼합된 ‘복합양념’으로 변모한다. 고추의 사용과 함께 젓갈 및 어육류 첨가도 활발해지는 것도 확인된다. 복합양념의 정착과 함께 고추가 사용되기 전 비린 맛이 거의 없는 새우젓, 굴젓에 국한되었던 젓갈의 어종은 조기젓·진어젓·소어젓·준치젓·밴댕이젓에 이르기까지 크게 확장되었고 경제력이나 물류 등 개별 여건에 따라 제약이 따랐을 뿐 소라·낙지·전복·굴·대구·민어·조기·대하 등 생어물(生魚物)의 사용도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들어가는 젓갈과 해산물이 다양해짐에 따라 지역이나 경제력에 따라 김치담금법이 여러형태로 다변화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³⁶

둘째, 무를 중심으로 여러 재료를 혼합하여 넣는 방식이 주류 제조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이·가지나 무 등 대부분 주재료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각각의 김치를 만들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김치에 들어가던 주재료들을 모두 한꺼번에 넣은 잡채(雜菜)형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17세기 이전까지 주류였던 염수김치(오이·가지·동아·버섯 등)의 건더기는 ‘복합양념 담금김치’의 재료로 활용되었으며, 19세기 들어 재배가 활발해진 배추도 추가되었다. 여기에 마늘·생강·(파)·고추 이외에 미나리, 갓, 부추 등 향신채소류의 종류도 다양하게 추가되면서 여러 재료를 섞어 만들었다는 뜻의 ‘섞박지·섯박지·서박지·잡지(雜蒞)’ 등이 주류 제조법으로 부상하기에 이른다. 하나의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의 면면을 보면 우선 채소류로는 오이·가지·동아·무·배추는 기본이고 호박·박·열무·고춧잎·호박잎이 들어가기도 했다. 석이·표고 등의 버섯류와 밤·배 등의 과실류, 꿩·쇠고기 등 육류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고추까지 포함됨으로써 재료 본연의 맛을 가릴 정도로 강렬한 복합양념의 맛은 덕분에 부재료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2차침채법에 따른 효능은 오늘날 현대과학에 의해 검증된 사실이기도

36 박채린·신동훈, 2014, 「조선시대 젓갈 활용과 김치 조리법의 변천-調理書 분석을 중심으로-」, 『사림』 87, 416~419쪽.

하다.³⁷ 염수에 절였다가 맹물에 행구는 작업은 초기 잡균을 제거하되 재료의 조직감은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도록 돕는다. 절임에 의해 재료 자체의 염도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삼투압 작용으로 복합양념 담금원과의 물질교환을 용이하게 해준다. 탈수를 거쳤으므로 양념의 농도가 묽어지는 것은 막아준다. 양념의 맛과 보존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절임 과정’은 생채소가 지닌 잡균은 없애주되 열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염에 강한 유산균은 살아남을 수 있다. ‘절임 과정’의 추가와 더불어 조미원이자 담금원으로써 발효에 최적인 복합양념이 더해져 독특한 채소절임이 완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훨씬 복잡해진 절차로 김치를 담기 위한 노동력이 대폭 늘어남으로써 김장공동체 필요성도 한층 강화되었다.

무엇보다 복합양념의 사용으로 새롭게 나타난 김치는 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와 가짓수에 크게 구애받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변화는 일종의 김치 모듈화가 진행된 것으로, 동일한 양념과 제조법으로 원재료에 구애받지 않고 김치를 담글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지역별·계층별·계절별 등에 따라 수없이 많은 김치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듯 복합양념은 어떠한 재료든 그 채소를 김치로 담글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그 결과 김치의 형태, 색, 맛, 종류의 확장성에 기여하며 지역·계층·계절별 김치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IV. 김치 인식 체계의 변화와 김치 고유성(固有性)의 확립

18세기 양념을 담금원으로 하는 2차침채 방식이 출현 및 확산하면서 김치의 범주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인식 체계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신호는 앞

37 김순동, 1997, 「소금절임과 김치발효」, 『식품과학지』 9, 187~196쪽; 세계김치연구소, 2023, 『우리김치 바르게 바르게』, 80쪽.

서 언급한 대로 ‘무름, 약지히, 장아찌, 숙장과’ 등으로의 명칭 변화이다. 장수김치 중 ‘불을 사용한 조리과정’이 포함된 경우는 김치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임원경제지』에 담겨 있다.

『임원경제지』는 저자인 서유구(徐有集)가 당시 한·중·일에서 출간·유통되던 방대한 서적을 수집·정리하고 비교문화 관점에서 집필한 저작물이다. 저자는 『임원경제지』의 항목을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분류하였는데 채소류를 이용한 저장 및 요리법을 기록한 「정조지」 교여지류편(咬茹之類編)을³⁸ 보면 그가 당시에 보편적으로 만들어 먹던 채소절임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백과사전으로서 기능에 충실하게 분류체계에 맞춰 구성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비교문화적 관점으로 중국과 조선의 채소절임이 지닌 차이를 각각의 총론에 설명해두었다.³⁹

중국과 우리나라의 채소절임을 계통에 따라 엄장채(醃藏菜), 식향채(食香菜), 자채(鮮菜), 제채(齎菜), 저채(菹菜)류에 분류하였는데 이 중 식향채·자채⁴⁰는 중국 방식의 절임, 저채는 우리나라 고유방식의 김치가 속해 있다. 엄장채와

38 저장, 건조, 절임, 각종 채소요리 등이 망라되어 있는데 이 중 절임 방식은 엄장채, 식향채, 자채, 제채, 저채류로 분류하여 다루고 있다.

39 시라(Dill, 蒔蘿), 회향(fennel, 茴香), 누룩, 식초, 술지게미 등을 넣어 만든 것을 醃, 곡물과 누룩, 기름을 넣어 발효시킨 것은 鮮라 하여 중국식 채소절임으로 분류했다. 겨자와 마늘, 생강 등의 향신 양념에 식초 및 장의 조미료가 들어간 것을 齎라고 분류하면서 이 중 우리나라의 제로는 17세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장김치들을 포함시켰다. 중국식 제는 간장이 아닌 醬黃을 활용하는 것이다. 낱알 곡물을 띄워서 발효시켜 만든 중국식 장누룩을 넣어 만든 절임이다. 우리나라 고유방식의 김치를 저로 분류했다. 저 가운데 우리 김치는 소금물에 향신양념을 첨가한 것과 향신양념 자체를 담금원으로 한 것에 한정했다. 소금물을 단독으로 사용한 것은 겨울가지김치와 용인오이지 단 2항목뿐이다.

40 식향, 자채류는 여러 양념을 섞어 발효시켜 그대로 섭취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김치, 즉 저채와 제조 방식은 가장 닮았지만 사용하는 재료의 종류와 구성이 판이하다. 이 중 식향에는 회향·시라 식초 등의 양념이 들어가고 자채는 누룩·기름을 사용해 두 가지 모두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모양과 맛이므로 비교 자채를 논의로 하고 있다.

〈표 6〉 『임원경제지』 「정조지」 교여지류 중 채소절임의 분류와 구성

주재료	종류	구분	개수	서유구의 분류 기준
醃藏菜	乾閉瓮菜, 菹藏菜 醃五香菜, 醃冬菜, 糟藏菜, 醃鹽韭, 糟薑, 藏芥, 糟蘿蔔方, 糟茄茄方, 醃蒿苳方, 糟蒜方, 醃糟白菜方	중국	13	술지게미, 향료 등에 담금(醃). 漬·藏과 동일하다. 醃은 먹을 때 다시 데쳐 먹는 것이다.
	醃藏熊蔬(『산림경제보』)	고유속방	1	소금물 단독
食香菜	菜蕪, 香蘿蕪, 食香菘芥, 食香穀菜, 食香瓜, 食香茄	중국	6	회향, 시라, 자소, 산초를 섞어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 풍속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鮓菜	胡蘿蔔鮓, 三白鮓, 茭白鮓, 竹筍鮓, 蒲筍鮓, 藕梢鮓, 蓴鮓	중국	7	쌀, 누룩, 소금, 기름에 발효(釀)한 것
齏菜	造齏, 相公齏, 芥齏, 菘齏方, 胡葵齏, 胡蘿蔔齏, 瓜齏, 忘憂齏, 不寒齏, 瓊芝齏, 醬瓜茄, 醋薑, 醋蒜, 醋瓜, 蒜瓜, 蒜冬瓜, 蒜茄, 蒜梅, 芥末茄	중국	19	생강, 마늘 등 매운 것을 넣어 잘라 부수어(齏) 장황, 식초와 섞은(和) 것
	芥子醬菘(『증보』*), 芥子醬瓜(『증보』), 芥子醬冬瓜(『증보』)	조선식 변형 (현지화)	3	겨자, 간장을 넣어 만든 것. 중국 사람들은 마늘을 넣어蒜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芥醬瓜菜라 부른다. (장황과 식초가 들어가지 않은 집이 중국과 다름)
	醬黃瓜, 醬甜瓜, 假汁醬, 醬薑筍, 醬蠻椒, 醬沙參, 醬紫蔥, 醃汁冬瓜*, 汁醬瓜茄(『증보』), 夏節造汁醬(『증보』)	고유속방	10	생강, 마늘 로 매운맛을 낸 것. 제체는 잘게 잘라서(齏) 만든 것
菹菜	醃菹, 無鹽菹(『삼산방』), 蘿蔔鹹菹(『증보』) 黃瓜淡菹(『증보』), 蘿蔔黃芽菹(『증보』), 蘿蔔淡菹(『증보』), 菘菹(『증보』), 冬月作茄菹(『증보』), 龍仁瓜菹(『증보』), 冬月作茄菹(『증보』), 石花菹(『증보』), 薑芽菹(『증보』), 山芥菹(『증보』), 鰓菹(『증보』)	고유속방	14	저체는 통째로 발효(醃)한 것. 데치지 않고 바로 먹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침채라고 한다. (소금물 또는 향신양념에 발효)

* 미고

- ① 『증보』는 『증보산림경제』를 의미함.
- ② 醃汁冬瓜: 서유구는 스스로 정의한 형태적인 분류 기준(제채류는 잘라서 담근 것)에 맞춰 제채류로 분류했음. 엄밀히 따지면 저채류에 포함되어야 함.
- ③ 蘿蔔淡菹: 『증보』에는 蘿蔔冬沈菹로 표기되어 있음

제채의 경우 중국과 조선에 모두 공존하는 유형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엄장채, 제채와 저채의 분류 기준에 대한 그의 견해를 토대로 조선 후기 사람들의 김치에 대한 인식을 읽어낼 수 있다.

서유구는 ‘조리 과정’ 필요 유무로 김치의 종류를 분류했다. 그는 김치를 엄장채·제채·저채 등 3개로 나누고 각각, 엄장채는 ‘취식 전 조리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 제채는 ‘제조 단계에서 조리가 이루어지는 것’, 저채는 ‘별도의 조리 과정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엄장채는 겨울을 대비해 채소를 식재료 자체로서 오래 보존하는 것이므로 ‘다시 데친 뒤에 먹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⁴¹ 이는 재료 자체의 보존에 목적이 있었고, 직접침채 한 번으로 끝나므로 조리는 취식 직전에 이뤄졌다. 단, 직접침 채법은 중국뿐 아니라 조선에도 존재한 것이었으므로, 소금물로만 절인 조선의 엄장용소(醃藏熊蔬)와 술지게미·향료를 넣은 중국의 조장채(糟藏菜)·엄염구(醃鹽韭)·조강(糟薑)·장개(藏芥)를 대비함으로써 양국 문화의 차이를 분명히 짚었다. 또한 중국의 다양한 엄장채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엄장채 유형이 조선에 비해 중국에서 유행한 식문화임을 전하고 있다.⁴²

서유구의 김치 분류 체계 중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이 제채류이다.⁴³ 17세기까

41 『임원경제지』 「정조지」 교여지류, “但菹則一熟可供 醃菜則更須芼燥而后食 齏則細切 菹則全根葉而釀之『候鯖錄』云 細切曰齏 全物曰菹 此其所以異也 東人呼爲沈菜.”

42 중국의 엄채는 주로 담금 과정에서 술지게미·향료 등으로 방부효과를 극대화하여 저장성을 높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취식을 위한 맛의 상승은 마지막 조리단계에서 달성한다. 서유구는 재가공·조리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한 번 익으면 그대로 먹는 저채(침채)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43 이 중 ‘중국식’은 식초, 醬黃(중국식 콩누룩)으로 맛을 어우러지게 한 것이며 醋蒜, 醋瓜 등이 해당된다. ‘조선식’은 매운맛 양념에 ‘겨자’가 포함되며, 식초나 장황이 아닌 고유 ‘油醬(기름간장)’을 사용한 것이다. 『증보산림경제』의 「芥子醬菘」, 「芥子醬瓜」, 「芥子醬冬瓜」 등은 미늘 대신 겨자를 씌으로써 조선식으로 현지화한 채소절임법이다. 조선 전기 채소절임 항목 중 말채가 이에 속한다. 「말채」는 현전 최고 조리서인 『산가요록』의 「冬瓜辣菜」를 비롯하여 『수운잡방』의 「過冬芥菜沈法」, 『계미서』의 「芥胃菜(갓날채)」, 『주초침저방』의 「日乙菜(날채)」까지 지속적으로

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장수김치 중 육류를 넣고 가열 조리하여 만드는 유형들을 제채로 구분하고 있다. 18세기부터 ‘물음, 약지히, 짬지’ 등으로 명칭이 바뀐 것들이다. 서유구 스스로는 형태적으로 ‘잘라서 섞어 만든 것’, 맛의 속성상 ‘매운맛의 양념(생강·마늘)이 들어간 것’을 제채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면면을 보면 숙채형 채소절임들을 선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채류로 규정된 장황과(醬黃瓜), 장침과(醬甜瓜), 가즙장(假汁醬), 장강순(醬薑筍), 장만초(醬蠻椒), 장사삼(醬沙參), 장자충(醬紫蔥), 즙장과가(汁醬瓜茄)는 17세기 유장(油醬 = 간장·참기름)을 사용한 장수김치를 계승한 것이다. 이들 유형이 17세기보다 오히려 다양해진 것으로 보아 숙채형 반찬류로서 나름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김치(沈菜)’라고 한 저채류를 보자. 저채류 분류 속에는 바로 취식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리과정이 필요 없는 생채(生菜)형 염수담금과 복합양념 담금 2개의 유형만 포함되어 있다. 조선 초기 이래 지속되어온 ‘염수담금법’과 함께 18세기 이후 새로이 형성된 ‘복합양념 담금법’만 고유김치로 인정된 셈이다. 서유구는 저채는 “통째로 담가 발효(釀)시킨 것으로 데치지 않고 바로 먹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데 그의 조부인 서명응(徐命膺)이 “저(菹)는 생채소를 발효시켜 덤지도 찹지도 않게 하여 물러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옛날에는 엄채(淹菜)라 했는데 지금은 침채를 이른다”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⁴⁴

특히 서명응이 뒤에 덧붙인 “古謂之淹菜 今謂之沈菜”는 옛날의 저(菹)에는 엄채(淹菜)까지 포괄하였으나 현재는 침채로 좁혀졌다는 뜻으로, 김치에 대

등장하는 채소저장법 중 하나이다. 17세기까지는 동아를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茄瓜·무를 활용한 제조법만 정리한 이 글의 <표 1>에는 넣지 않았다. 조선시대 말 채의 경우 마늘을 넣은 사례도 있어 중국의 蒜茄, 蒜瓜, 蒜冬瓜와 비슷하게도 보이지만 이들 중국식 蒜法과 핵심적인 차이는 겨자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蒜法은 매운맛을 ‘마늘-식초’로, 조선식은 ‘겨자-간장’으로 냈다. 서유구는 이 알채법이 중국식과 엄연히 다른 겨자절임법이라는 점에서 조선식 제채로 구분했다.

44 『고사십이집』 권11, 「淹菜造法」, “菹阻也 生釀之使 阻於寒溫之間 不得爛也 古謂之淹菜 今謂之沈菜.”

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재조리가 필요한 입장채는 더 이상 김치류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당대의 인식이 담긴 것이다. <표 1>의 토란김치(토란담채), 파김치(파담채) 등은 소금에만 짜게 절여 다른 음식에 활용되었지만, 입장채에 속했기 때문에 17세기까지는 김치라고 명명되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이런 유형을 입장채로 분류해 침채와 별도로 인식하게 되면서 단순소금절임 채소저장류와 김치를 명확히 구분하게 되었다.

『임원경제지』에서 저채류로 묶어 소개한 항목의 대부분이 18세기에 간행된 『증보산림경제』의 속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탓에 19세기 저서로서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것은 「해즙동과」와 「해저」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산취박지」의⁴⁵ 유명세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어, 당대 복합양념 담금원 김치의 광범위한 확산 현상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표 5>에서 보듯 19세기 조리서인 『규합총서』, 『주찬』, 『주식시의』, 『시의전서』에서도 확인되며, 이규경(李圭景)이 “무 배추김치(菁菘菹), 소금에 절인 김치(鹽菹), 젓갈즙(醃汁) 등으로 담은 김치는 이미 일상으로 행해지는 방법이 되어 다시 적을 필요가 없다”⁴⁶고 한 점도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중국과 별개로 독자적인 인식, 즉 조리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제조 단계에서 자연 발효가 일어나 그대로 취식이 가능한 생채형 발효식품이 김치라는, 조선 고유 김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V. 맺음말

인류는 생존 본능으로서 식량 결핍을 대비해 음식을 저장하며, 감각적 본능으로서 조미를 통해 더 나은 맛을 추구해왔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

45 박채린·신동훈, 2014, 앞의 글, 419쪽.

46 『오주연문장전산고』 「菁菘菹鹽菹醃汁等淹菹」.

성하기란 쉽지 않았다. 저장을 위해서는 미생물 통제를 통해 발효를 억제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맛 성분들이 늘어나면 발효 억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인류의 음식은 이 두 가지 목적의 상충을 회피하면서 적절히 타협하는 방식으로 발달했다.

전근대 사회의 채소절임들은 중국의 파오차이처럼 보존성을 높이는 쪽으로 기술 집적이 이뤄졌다. 완성된 파오차이는 추가 조리를 통해 조미를 하거나, 혹은 다른 음식의 조미를 위한 부재료로 사용되었다. 이와 달리 김치는 채소절임 음식임에도 조리 과정 중에 조미가 이뤄졌다. 이는 양념이 담금원이자 조미원으로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조리서의 김치 조리법의 변천을 검토하면서 김치 양념의 형성 및 확산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오이·가지·무로 만든 김치 조리법을 중심으로 양념의 재료 구성과 변천, 양념 사용에 따른 김치 제조법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인식 변화까지 검토했다. 이하는 본고의 검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7세기까지 나타난 김치의 특징은 여름에 장, 겨울에 소금물로서, 담금원의 계절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당시까지 조미의 역할은 간장과 ‘마늘·생강·(파)’ 조합의 향신양념이었는데, 이는 장수김치에 향신양념을 넣은 ‘여름-오이·가지-장수-향신양념’이라는 계절 한정 김치 조리에 사용되었다. 이를 제외하면, 이때까지 김치류에서 양념 사용은 매우 한정적이었다. 오히려 보존성 제고를 위해 향신료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조미보다는 보존성에 무게중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18세기부터 나타나는 오이·가지·무 김치 제조법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향신양념이 소금물만 단독 사용하던 무김치(동치미)에도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조미원인 향신양념이 담금원의 기능을 겸한 ‘양념담금 김치’(이하 양념김치)의 확산이 있었다. 그리고 이는 낮아진 보존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기술, 오이·가지 김치의 소금물 농도 조절 기술을 통한 절임 품질이 제고되었기 때문이었다. 보존성 제고를 위한 절임 기술 개발이 조

미 조리 변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던 것이다.

둘째, 향신양념을 썼던 장수김치(여름-오이·가지-장수-향신양념)가 두 가지로 분화된다는 점이다. 하나는 김치로부터 분리되어 숙채형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보존성을 포기한 대신 미식을 극대화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생채형으로 김치류에 잔존한 유형인데, ‘오이·가지·무-장수+다량의 소금물-향신양념(고추 추가)-해물(굴·전복·낙지 등)’ 형태로 장김치·장짬지 등 국물김치류가 여기에 해당된다.

양념담금원의 출현은 김치의 제조 방식에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17세기까지의 제조법은 담금원에 바로 재료 및 양념을 함께 넣고 숙성시키는 방식(直接沈菜法)이었으나, 양념담금원의 출현으로 1차 절인 채소를 건져 탈수한 뒤 2차로 양념에 담가 숙성시키는 방식(二次沈菜法)이 김치 제조법의 주류로 부상했다.

19세기에는 세 가지 조리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젓갈 또는 육류 해산물이 부재료로 다수 활용되었다. 둘째, 무를 중심으로 여러 재료를 혼합하여 넣는 방식이 주류 제조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합양념의 사용으로, 김치로 담그는 원재료의 종류를 가리지 않게 되었다. 특히 이 변화는 김치의 모듈화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동일한 양념과 제조법으로 어떠한 원재료를 선택하더라도 김치를 담글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김치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 또한 변화했다. 중국과 별개로 조선만의 독자적인 인식, 즉 조리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제조 단계에서 자연 발효가 일어나 그대로 취식이 가능한 생채형 발효식품이 김치라는, 조선 고유의 김치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조선 후기에 등장한 복합양념은 어떠한 재료든 그 채소를 김치로 담글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그 결과 김치의 형태, 색, 맛, 종류의 확장성에 기여하며 지역·계층·계절별 김치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생활방식과 인식 체계는 강제할 수 없기에 시대의 사회문화 변화에 따라 부지불식간에 이뤄진다. 비록 돌출되는 사례가 없지 않으나 김치로 대표되는 조리

법의 전반적인 변화상을 밝히고자 했다. 물론 양념의 증가 배경에 대해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해석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타당한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은 이 글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특히 '더 나은 맛 추구'로 양념 사용이 확대되었다면 그러한 사회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원인과 배경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 글은 기존의 '조선 후기 상품·유통의 발달'이라는 사회 변화상에 기대어, 이러한 변화로 인해 조리법의 변화가 뒤따랐다는 데 머무르고 말았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음식사는 문헌사와 물질사의 경계에서 모두를 아울러야 하는, 사실상 출발선에 선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함과 동시에 기존 연구의 공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후속 연구를 지켜봐주길 바란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고광민 외, 2006, 『조선시대 소금생산방식』, 신서원.
구도영 외, 2023, 『한국음식문화사』, 동북아역사재단.
박채린, 2013, 『조선시대 김치의 탄생』, 민속원.
안대회 외 2인, 2014, 『18세기의 맛』, 문학동네.
유승훈, 2008, 『우리나라 제염업과 소금 민속』, 민속원.
_____, 2012, 『작지만 큰 한국사, 소금』, 푸른역사.
이창현 외, 2023, 『우리김치 바르게 바르게』, 세계김치연구소.
최영준, 1997, 『국토와 민족생활사』, 한길사.

논문

- 김순동, 1997, 「소금절임과 김치발효」, 『식품과학지』 9.
김영자, 1993, 「양념이 김치의 관능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김정·조영수·서권일·주옥수·심기환, 2000, 「산초와 초피잎의 항균활성」,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7(2).
김정환, 1995, 「김치 양념류가 염절임 배추의 발효에 미치는 영향」, 『論文集』 15-1, 서울보건대학.
박소희·임호수, 2003, 「고추, 젓갈 및 소금농도가 김치의 맛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2-3.
박채린, 2019, 「김치의 기원과 제조 변천과정에 대한 종합적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4-2.
_____, 2021, 「김치 독자성의 근거와 형성 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6-3.
박채린·신동훈, 2014, 「조선시대 젓갈 활용과 김치 조리법의 변천-調理書 분석을 중심으로-」, 『사립』 87.
안대회, 2015, 「18·19세기의 음식취향과 미각에 관한 기록-沈魯崇의 『孝田散稿』와

- 『南遷日錄』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69.
- 이숙인, 2014, 「18세기 조선의 음식 담론」, 『한국실학연구』 28.
- 이주영·최미경·경규향, 2008, 「마늘의 김치발효 촉진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과학회지』 40(4).
- 장지현, 1972, 「저채류 제조사」, 『민족문화연구』 6.
- 조영·이진희, 1994, 「김치 부재료가 *Leuconostoc mesenteroides* 및 *Lactobacillus plantarum* 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10-1.
- 최윤정·황예슬·홍성욱·이미애, 2016, 「마늘 첨가량에 따른 김치의 발효 중 품질 특성 변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45(11).
- 한복려, 2005, 「할미꽃(백두웅, *Pulsatilla koreana*) 첨가가 오이지의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 明知大學校 박사학위논문.
- 한응수, 1996, 「김치공장의 배추 절임공정 개선 및 절임배추의 저장성」,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산업심포지움발표집』.
- 황인경·조영·이진희, 1998, 「부재료를 달리하여 제조한 김치의 발효특성」,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14(1).
- 황지영·김현, 2015, 「박새풀 섭취 후 발생한 심장효소 상승 1례」, 『대한임상독성학회지』 13(2).

기타 자료

- 국립국어원, 2018, 『표준국어대사전』.

조선 후기 양념김치의 등장과 확산

박채린 · 신동훈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조리서의 김치 조리법의 변천을 검토하면서 김치 양념의 형성 및 확산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오이·가지·무(이하 茄苳菁)로 만든 김치 조리법을 중심으로 양념의 재료 구성과 변천, 양념 사용에 따른 김치 제조법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인식 변화까지 검토했다.

17세기까지 나타난 김치의 특징은 여름에 장(醬), 겨울에 소금물로서, 담금원의 계절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때까지 김치류에서 양념 사용은 매우 한정적이었다. 이는 조미보다는 보존성에 무게중심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18세기부터 나타난 제조법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향신양념이 소금물만 단독 사용하던 무김치에도 사용되었다. 이는 보존성 제고를 위한 절임 기술 개발(소금물 농도 조절 기술)이 조미 조리 변화(양념김치의 확산)와 함께 일어났기 때문이다. 둘째, 향신양념을 썼던 장수(醬水)김치가 김치에서 분리되어 숙채형으로 바뀌는 경우[미식(美食) 극대]와 생채형으로서 김치류에 잔존한 유형(국물김치류)으로 나뉘었다.

양념담금원의 출현은, 담금원에 바로 재료 및 양념을 함께 넣고 숙성시키는 방식(直接沈菜法)에서, 절인 채소를 건져 탈수한 뒤 양념에 담가 숙성시키는 방

식(二次沈菜法)으로 김치 제조법의 변혁을 가져왔다.

19세기에는 짓갈, 육류, 해산물 등이 부재료로 다수 활용되었고, 무를 중심으로 여러 재료를 혼합하여 넣는 방식이 주류 제조법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복합양념의 사용으로 동일한 양념과 제조법으로서 어떠한 원재료를 선택하더라도 김치를 담글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조리(調理)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제조 단계에서 자연 발효가 일어나 그대로 취식이 가능한 생채(生菜)형 발효식품이 김치라는, 조선 고유의 김치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조선 후기에 등장한 복합양념은 어떠한 재료든 그 채소를 김치로 담글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그 결과 김치의 형태, 색, 맛, 종류의 확장성에 기여하며 지역·계층·계절별 김치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주제어: 김치, 양념, 침채, 직접침채법(直接沈菜法), 이차침채법(二次沈菜法)

ABSTRACT

The Emergence and Spread of Seasoned Kimchi in the Late Joseon Period

Park Chaelin · Shin Donghoon

This paper examines the formation and spread of kimchi seasoning by reviewing the evolution of kimchi recipes in cookbooks from the Joseon Dynasty. To do so, it focuses on the ingredients and changes in seasoning from the 15th to the 19th century, specifically in cucumber, eggplant, and radish-based kimchi (hereafter referred to as 茄菘菁). It also explores the changes in kimchi preparation methods according to the use of seasoning, as well as the shifts in perception that followed.

The distinctive feature of kimchi up until the 17th century is the clear seasonal difference in its preparation: soy sauce was used in the summer and brine in the winter. At that time, the use of seasoning in kimchi was very limited, as the emphasis was more on preservation than on flavoring.

From the 18th century, two major changes in kimchi preparation

emerged. First, spiced seasonings, which had previously only been used for kimchi made with brine, began to be used in radish kimchi as well. This was due to advancements in salting techniques (controlling brine concentration) for better preservation, which occurred alongside changes in seasoning practices (the spread of seasoned kimchi). Second, soy sauce-based kimchi that used spiced seasonings became divided into two forms: one that evolved into cooked vegetables for maximum flavor (美食), and another that remained in the kimchi category as a raw vegetable dish (broth-based kimchi).

The introduction of seasoned brining marked a transformation in the kimchi-making process. Previously, the ingredients and seasonings were placed together and fermented immediately (direct brining method). This shifted to a two-step process (secondary brining method) where the vegetables were first salted, dehydrated, and then soaked in seasonings for further fermentation.

In the 19th century, various side ingredients such as salted seafood, meats, and seafood were widely used. The method of mixing multiple ingredients, centered around radish, became the dominant way of making kimchi. Additionally, the use of complex seasonings allowed for the flexibility to make kimchi from any raw ingredient with the same seasoning and method. Thi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kimchi as a unique fermented food of Joseon, one that required no cooking, with natural fermentation occurring during the preparation stage, allowing for direct consumption.

The complex seasonings that emerged in the late Joseon period made it possible to turn any vegetable into kimchi. This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kimchi in terms of form, color, taste, and variety,

greatly increasing the diversity of kimchi across different regions, social classes, and seasons.

Keywords: Kimchi, Seasoning(양념), Chimchae(沈菜), Direct brining method (直接沈菜法), Secondary brining method(二次沈菜法)

생존경쟁과 영토 팽창

– 칠박사 집단이 제시한 러일전쟁 개전론의

사상적 배경 검토

박해운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초빙교수

- I. 머리말
- II. 생존경쟁, 헤겔의 진화론과 라첼의 레벤스raum
- III. 메이지 시대 집단주의적 사회진화론의 일본 유입과 형성 과정:
칠박사 사건 이전 시대적 상황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IV. 칠박사 집단의 개전론에 투영된 영토 팽창 논리
- V. 맺음말



I. 머리말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던 1903년 6월 24일,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법학부 교수 도미즈 히론도(戸水寛人), 오노즈카 기헤이지(小野塚喜平次), 다카하시 사쿠에(高橋作衛), 가나이 노부루(金井延), 도미이 마사아키라(富井政章), 데라오 도루(寺尾亨)와 가쿠슈인대학(學習院大學) 교수 나카무라 신고(中村進午)는 지난 6월 10일 정부에 제출했던 대러시아 정책에 대한 건의서를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에 게재하였다. 이들 중 도미즈를 필두로 한 급진파의 여론몰이로 인해 1903년 10월 개전론이 주류가 됨으로써, 소위 ‘칠박사 사건(七博士事件)’은 러일전쟁 발발에 큰 역할을 하였다.¹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자의 정치적 자율성, 이들의 여론전이 전쟁 개시에 끼친 영향, 그리고 사건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오고 있다.² 한편으로 이들이 주장한 개전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박양신(朴羊信)이 잘 정리해놓았다. 그는 칠박사 집단이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과 경제 확장을 위해 전쟁을 주장했으며, 전쟁을 선악의 가치 판단이 아닌 나라의 발전과 일본의 자위라는 명목으로 합리화했다고 설명하였다.³ 이는 동시대 일본 지식인의 대외

* 투고: 2024년 10월 11일, 심사 완료: 2024년 11월 5일, 재심사 완료: 2024년 11월 29일, 게재 확정: 2024년 11월 29일

1 宮武実知子, 2007, 「「帝大七博士事件」をめぐる輿論と世論: メディアと学者の相利共生の事例として」,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70, 177~173쪽; 前原淳史, 2018, 「「七博士事件」の再検討: 「金井延日記」を中心として」, 『社会科学』 48(2), 278~279쪽.

2 宮武実知子, 2007, 위의 글; 前原淳史, 2018, 위의 글.

3 朴羊信, 1998, 「「七博士」と日露開戦論」, 『北大法学論集』 48(5), 964~970, 973~976쪽.

관과 러일전쟁의 상관성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러한 사고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어디서 끌어왔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박양신은 영국에서 유학한 다카하시가 국제법 이론과 마한(Alfred Mahan)의 해양력에 영향을 받았다고 서술하였으나, 이들이 주장한 전쟁을 통한 영토 팽창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론과 유사한지는 제시하지 않았다.⁴

칠박사 사건과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은 다치바나 다카시(立花隆)의 『천황과 도쿄대 1』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그는 전쟁 도중 바이칼 박사로 불렸던 이 사건의 주동자인 도미즈의 팽창론이 라첼(Friedrich Ratzel)의 ‘레벤스raum(Lebensraum)’과 흡사하다고 제시하였다.⁵ 그러나 그는 도미즈의 주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레벤스raum 개념과 유사한지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라첼은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론을 바탕으로 집단주의적 사회진화론을 주장한 헤켈(Ernst Haeckel)의 제자로 진화론의 영역을 지리학으로 확장시킨 인물이었다. 그는 ‘생존경쟁(struggle for existence)’⁶을 “공간을 위한 투쟁”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생존경쟁을 위해 일으킨 전쟁에서 승리한 집단이 레벤스raum(생활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개념을 국제정치학에 적용한다면 레벤스raum은 생존을 위해 팽창하는 국가가 타국과의 전쟁을 통해 확보한 영토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레벤스raum은 일본에서 ‘생존권(生存圏)’이라고 번역되어왔다. 그런데 칠박사 집단의 건의서와 이들이 전쟁 전과 도중에 발표한 글에는 ‘생존’이라는 단어는 발견되지만 ‘생존권’이란 단어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국가의 생존을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4 박양신, 1998, 위의 글, 978~979쪽.

5 다치바나 다카시 지음, 이규원 옮김, 2008, 『천황과 도쿄대』 1, 청어람미디어, 364쪽.

6 영어 ‘struggle for existence’와 독일어 ‘Kampf ums Dasein’의 올바른 번역어는 ‘생존투쟁’이다. 하지만 당시 일본에서 이를 ‘生存競爭’이라 번역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생존경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겠다.

점, 그리고 독일 유학파인 오노즈카가 1903년에 출간한 『정치학대강(政治学大綱)』의 참고문헌에 라첼의 『정치지리학(Politische Geographie)』이 수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⁷ 라첼의 이론을 기반으로 논리를 전개했을 가능성이 있다.⁸

비록 생존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일본이 생존을 위해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라첼의 레벤스raum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이 이유는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라첼은 레벤스raum이라는 단어를 1897년에 발표한 「레벤스raum에 대하여: 생물지리학적 스케치(“Ueber den Lebensraum. Eine biogeographische Skizze”)」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지만 이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한 시점은 『레벤스raum: 생물지리학적 연구(Der Lebensraum: Eine biographische Studie)』가 출간된 1901년이였다. 오노즈카가 1901년에 귀국했기 때문에 이 책을 입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프랑스법 전공자였던 도미이를 제외한 다른 박사들 역시 오노즈카와 마찬가지로 라첼이 학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며 식민지 확보를 통한 과잉 인구의 해결을 역설하기 시작한 1880년대 중반 이후 독일에서 공부하였다. 따라서 이들 역시 라첼의 이론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오노즈카를 제외한 다른 박사들이 라첼에 대해 몰랐을지라도 이들 역시 당시 독일 정부가 추진한 세계정책(Weltpolitik), 그리고 독일인들의 식민지 획득과 지리적 팽창에 대한 열망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었다. 따라서 칠 박사 집단이 제시한 러일전쟁 개전 논리에 내포된 독일식 집단주의적 사회진화론의 측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들이 집단주의적 사회진화론을 처음 접한 곳은 독일이 아니라 일본이었다. 18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던 진화론은 개인 간의 자

7 小野塚喜平次, 1903a, 『政治学大綱』上, 東京: 博文館.

8 藏原惟和 編, 1903, 「滿州問題ニ關する七博士の意見書」, 『日露開戰論纂』, 東京: 東京國文社.

유 경쟁과 국가 간섭의 최소화를 강조한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이론이 아닌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를 통해 유입된 헤켈의 진화론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생존을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는 칠박사 집단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진화론의 기본 원리가 어떻게 일본에 유입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연구자들은 가토의 국가주의적 진화론에 대한 헤켈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관해 간접 인용에 그침으로써 ‘생존경쟁’이라는 개념이 일본에서 어떻게 메이지 시대 권위주의적 정부 체제의 확립과 팽창 정책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⁹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헤켈을 중심으로 하여 다윈 진화론의 독일 유입 과정과 라첼의 레벤스raum이 내포한 사회진화론적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그다음으로 일본에 진화론을 최초로 소개한 에드워드 모스(Edward Morse)의 이론과 가토가 제시한 사회진화론의 특징, 그리고 그의 이론이 반영하는 시대적 상황과의 연관성을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첼의 영토 팽창 이론과 칠박사 집단이 제시한 개진 논리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박양신이 주장한 것처럼 일본 사회진화론자들의 이론에 나타나는 비윤리적 측면, 일본 사회에 국민의 통합과 계층의 위계화를 강조한 집단주의적 사회진화론의 확산 과정, 칠박사의 전쟁론에 내포된 국가의 생존을 위한 영토 팽창에 대한 이해와 함께 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전쟁을 생존 수단으로 간주했는지에 대한 원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9 김도형, 2014,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진화론수용 이해-「疑堂備忘」 독해를 중심으로」, 『日本思想』 27.

II. 생존경쟁, 헤켈의 진화론과 라첼의 레벤스raum

1844년 바덴 대공국의 수도 카를스루에에서 태어난 라첼은 하이델베르크대학, 예나대학, 베를린대학에서 동물학을 수학한 후 1868년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이 시기 라첼은 다윈의 자연선택설과 예나대학 시절 스승 중 한 명인 헤켈의 진화론을 기반으로 어떻게 무기체가 유기체로 진화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¹⁰ 그리고 그는 1870년대에 진화론을 지리학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그의 레벤스raum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윈과 헤켈이 주장한 진화론, 그중에서도 ‘생존경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실제 이 개념을 최초로 구체화한 사람은 다윈이 아닌 맬서스(Thomas Malthus)였다. 맬서스는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에서 기독교의 세계관을 거부하고 인간이 자연계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닌 다른 유기체와 같은 자연 법칙에 따라 생존하는 존재로 규정하였다.¹¹ 한편으로 맬서스는 당시 계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을 거부하였다. 그에 따르면 동물과 식물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후손들을 증가시키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¹² 맬서스는 지구는 늘어나는 개체군에게 무한한 공간과 자원, 그중 특히 식량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는 식물과 동물의 경우 자원의 한계에 의해 약한 개체군이 제거됨으로써 적정수를 유지하며, 인간의 경우 질병, 전쟁, 기아 등을 통해 인구의 균형이 유지된다고 주장하였다.¹³ 한편으로 맬서스는 인간 사회가 인구 증가로 인해 식량 부족에 빠졌을 때 이주를 통해 다른 집단과의 전쟁을 통한 생존경쟁을

10 F. Ratzel, 1869, *Sein und Werden der organischen Welt: Eine populäre Schöpfungsgeschichte*, Leipzig: Gebhardt und Reisland, pp. 83~89.

11 김호연, 2009, 『우생학, 유전자 정치의 역사』, 아침이슬, 46~47쪽.

12 T. Malthus, 1993(1802),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2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18.

13 T. R. Malthus, 1993(1802), 위의 책, pp. 14~17.

벌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강한 집단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는 것을 일종의 자연 법칙으로 본 것이다.¹⁴

다윈은 맬서스의 『인구론』을 1838년 10월에 접하였는데 맬서스의 생존경쟁 개념은 다윈의 진화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¹⁵ 다윈은 맬서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을 특별한 존재가 아닌 자연계의 일원이라고 보고, 맬서스가 인간 사회에 한정해 설명했던 생존경쟁을 자연계 전체에 적용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는 생존경쟁에 의한 종의 자연선택 과정을 『종의 기원(On the Origins of Species)』 제 3장 「Struggle for Existence」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이 장에서 맬서스를 언급하며 모든 유기체는 물리적 생활 조건 내에서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는 수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생존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윈은 생존경쟁은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특히 동일한 식량을 두고 경쟁하는 생물종 간에서, 또 종 내 개체군 사이에서 강하게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는 종들의 개체군 증가를 저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서술하였으나, 기후 변화를 포함한 생활 조건의 변화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추측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존에 더욱 유리한 종이나 개체군이 자연선택에 의해 살아남는다고 제시하였으며, 자연 상태에서 생물종은 수많은 변이를 일으키고, 그중 생존경쟁에 유리하게 개량된 변이가 유전되면서 종의 진화가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¹⁶

하지만 다윈의 생존경쟁 개념은 맬서스와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맬서스는 과잉 인구에 의해 발생하는 생존경쟁을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기아의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또 타 집단과의 생존경쟁에서 승리한 집단도 역시 기하급수적인 인구의 증가에 의해 파멸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반면에 다윈은 생

14 T. R. Malthus, 1993(1802), 위의 책, pp. 25~27.

15 N. Barlow ed., 1958, *The Autobiography of Charles Darwin*, New York: W·W·Norton & Company·INC, p. 120.

16 C. Darwin, 1859, *On the Origins of Species*, London: John Murray, Albermale Street, pp. 63~79, 433.

존경쟁에 의해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종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에 불리한 형질들이 제거된다고 추측하였다.

영국에서 다윈의 이론에 대한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던 1860년대, 독일의 일부 젊은 지식인들은 다윈의 진화론을 열렬히 수용하였다. 당시 독일의 다윈 추종자들은 대체로 자유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독일의 통일과 구체제의 개혁을 위해 발발한 1848년 혁명이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귀족층과 교회의 반대로 실패한 이후인 반동의 시대에 청소년기를 거친 인물들이었다. 혁명의 실패를 경험한 이들은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는 계몽주의의 기본 원칙을 거부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던 교회, 그중에서도 특히 통일에 반대하던 가톨릭에 대해 부정적이였다.¹⁷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중 일부는 인간이 기독교의 신이 창조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동물과 같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진화하는 존재라는 다윈의 진화론을 열광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를 대표하는 학자가 바로 1834년 2월 프로이센의 포츠담에서 태어난 헤켈이었다.

독일 통일을 지지하던 상층 중간계급 자유주의자 집안에서 태어난 헤켈은 1850년대 중반 과학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기독교, 그중에서도 특히 가톨릭의 반과학적인 종교관을 비판하기 시작하였으며, 1860년대 초반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였다.¹⁸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기 다윈은 자신의 진화론을 인간계에 적용하는 것에 주저했던 반면 헤켈은 1863년 ‘생존경쟁’과 ‘자연선택’에 의해 사회가 ‘진보(progress)’하여 ‘시민사회’에 도달하는 것이 자연 법칙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¹⁹ 그는 인간 사회 역시 자연 법칙에 의해 운영되므로 자연계에서 단

17 W. Smith, 1991, *Politics and the Science of Culture in German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91~94.

18 R. Richards, 2008, *The Tragic Sense of Life: Ernst Haeckel and the Struggle over Evolutionary Though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44~49.

19 R. Weikart, 1993, “The Origin of Social Darwinism in Germany, 1859-

순한 하등 생명체가 복잡한 고등 생명체로 진화하듯 인간 사회도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진화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정점이 시민사회라 주장하였는데 이는 바로 그의 정치관을 반영한 것이었다.

헤켈의 진화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생물학적·자연과학적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의 정치적 입장과 연결되는 분야만 검토해 보겠다. 인간 사회의 진화와 관련한 헤켈의 진화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1867년에 창당한 독일국가자유당(Nationalliberale Partei)의 지지자였음을 알 필요가 있다.²⁰ 당시 국가의 통합과 자유를 강조했던 독일국가자유당은 크게 두 가지 분파로 구성되었다. 그중 우파는 자유와 문화적 진보를 위한 선결 조건이 국가의 권위주의적인 권력이라 주장하였으며, 좌파는 시민의 자유와 의회 권력이라 판단하였다.²¹ 그중 헤켈은 우파로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와 민족(volk)의 통합을 지지하였다.

헤켈은 무자비한 “생존을 위한 경쟁”이 자연의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소수의 선택된 개체만 이 경쟁을 성공적으로 견뎌낼 수 있고, 대다수의 경쟁자들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 주장하였다.²² 그런데 그는 종 내 또는 집단 내에서 각각의 개체가 벌이고 있는 생존경쟁에 의해 어떻게 부적응한 개체가 제거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당시 독일은 산업혁명에 의한 도시화가 진전되고 계급 간의 갈등이 고조되던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계급 분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는 노동의 분화(Arbeitsteilung)를 진화의 추동력으로 판단하였다. 그는

1895”,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 54(3), p. 473.

20 R. Weikart, 1993, 위의 글, p. 473.

21 P. Otto, 2014, *Bismarck and the Development of Germany*, Volume I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167.

22 E. Haeckel, 1908(1878), *Freie Wissenschaft und freie Lehre Eine Entgegnung auf Rudolf Virchow's Munchener Rede uber "Die Freiheit der Wissenschaft im modernen Staat"*, Leipzig: Alfred Kröner Verlag, p. 67.

노동의 분화가 집단 내 계급의 분화를 수반하는데 계급 간의 협력이 하등한 낮은 단계에서 고등한 높은 단계로 진화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생물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세포의 경우 진화 과정에서 핵, 체, 막으로 분화되는데 각각의 구성체는 각자 다른 역할을 하지만 세포의 생존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생명체가 진화할수록 각자의 역할을 하는 구성체의 분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생물이 진화할수록 기능적으로 분화된 노동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집중화된다는 것이다.²³

헤켈은 인간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불평등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유기체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였다. 그는 세포를 질서 있는 문화국가에서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로 비유하고, 시민사회는 분업을 통해 진보한다고 판단하였다. 식물의 경우 세포가 비교적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동물의 경우 세포가 위계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생각한 헤켈은 이를 인간 사회에 적용하였다. 즉, “조직(tissues)”에서 형성된 “기관(organs)”은 국가의 “부서(departments)” 및 “기관(institutions)”과 같고,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의 “통치(rule)”는 “뇌의 신경 중심 권력(the power of the brain as nerve centre)”과 비교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²⁴

헤켈은 기본적으로 높은 문화에 도달한 국가가 “aristokratische”²⁵에 의해 운영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단어는 “귀족제”로 번역되나 혈통과 관계없이 능력 있는 소수에 의해 운영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 그는 당시 프로이센과 독일제국의 토지귀족이었던 융커(Junker)를 증오했다. 헤켈

23 E. Haeckel, trans by E. Lankester, 1880(1868), *The History of Creation (Natürliche Schöpfungsgeschichte)* Vol. I, York: D. Appleton and Company, pp. 187~188, 284.

24 P. Weindling, 1981, “Theories of the Cell State in Imperial Germany”, In C. Webster(ed.), *Biology, Medicine and Society 1840-194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19.

25 E. Haeckel, 1908(1878), 앞의 책 p. 68.

은 1866년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소독일주의를 채택한 용커 출신 비스마르크를 맹비난하였지만, 민족주의의 고양, 중간계급 이익의 보장, 권위주의적인 국가 운영을 추구하던 비스마르크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다.²⁶

또한 그는 수준 높은 문화를 지닌 사회를 노동의 분화가 고도화된 산업사회라고 정의했는데 이는 곧 산업사회를 지도하는 계층이 과학자, 기술자, 지식인과 같은 상층 중간계급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헤켈은 이들의 능력이 산업사회라고 적합한 유전형질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곧 유전적으로 선택된 엘리트들이 사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²⁷ 헤켈은 각 개인은 불평등한 존재이며 시민사회 모든 구성원의 권리, 의무, 재산, 권력이 동등하지 않은 것이 자연법칙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사회의 각 구성원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에 따라 국가라는 유기체의 운영을 위한 역할을 기능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²⁸ 따라서 헤켈은 계몽주의의 자유의지(free will)와 민주주의를 거부하였으며, 공동체의 유대와 사회를 위한 개인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이 지점에서 헤켈의 진화론은 스펜서의 사회진화론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자유방임과 개인의 경쟁을 강조한 스펜서는 극빈층을 생존경쟁에서 실패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이들에 대한 구제에 반대하였다. 반면 헤켈은 국가가 가난한 계급을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조건 개선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⁹ 이는 헤켈이 서양 인종이 공유하는 유전적 우월성에 의해 서구사회가 분업화에

26 R. Richards, 2008, 앞의 책, pp. 176~177.

27 E. Haeckel, trans by J, McCabe, 1904, *Wonders of Life: A Popular Story of Biological Philosophy(Die Lebenswunder)*, London: Haper & Brothers Publisher, p. 425.

28 E. Haeckel, 1908(1878), 앞의 책, pp. 68~70.

29 E. Haeckel, trans by J, McCabe, 1904, 앞의 책, p. 117.

바탕을 둔 고도화된 산업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³⁰ 인구 증가, 산업 발달, 노동의 분화 과정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상층 중간계급과 같은 인종에 속한다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이들도 사회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³¹ 유전적으로 이들보다 뛰어난 계층이 운영하는 국가가 유전적 결함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헤켈이 제시한 생존경쟁의 사례는 사회 집단 내가 아닌 집단 간의 대결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생존경쟁의 과정과 관련해 ‘더욱 발전하고 규모가 큰 집단이 더 뒤처지고 더 작은 집단을 희생시키면서 더 많이 퍼지게 되는 긍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자에 의한 약자의 소멸을 합리화하였다.³² 그는 생존경쟁을 벌이는 집단을 크게 인종과 국가로 구분하였다. 그는 신생대 제3기 말에 존재했을, 직립보행하는 “사람 같은 유인원(men-like ape, *Pithecanthropi*)”을 인간의 공통 조상으로 가정하였다.³³ 그리고 사람 같은 유인원에서 “원시인간(primitive man)”이 출현하였으며, 이 집단이 다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인간 “종(species)”으로 분화하고, 이 과정에서 생존경쟁에 실패한 수많은 인간 종이 멸종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당시 가장 우수한 인종인 코카서스인과의 생존경쟁에서 패배한 흑인(negros), 호주 원주민 등의 “야만인(savage)”이 멸종해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³⁴

헤켈은 국가라는 정치체를 문명사회의 특징으로 간주하고, 노동의 분화 단계가 높고 중앙 집권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영국과 독일을 당대 가장 발전

30 E. Haeckel, trans by J, McCabe, 1904, 위의 책, p. 60.

31 E. Haeckel, trans by J, McCabe, 1904, 위의 책, p. 425.

32 E. Haeckel, trans by E. Lankerster, 1887(1868), *The History of Creation (Natürliche Schöpfungsgeschichte)*, Vol. II, York: D. Appleton and Company, p. 324.

33 E. Haeckel, trans by E. Lankerster, 1887(1868), 위의 책, pp. 292~294.

34 E. Haeckel, trans by E. Lankerster, 1887(1868), 위의 책, pp. 321~325.

한 국가로 분류하였다.³⁵ 헤켈은 영국인이 인종적으로 독일인과 비슷하며 이 두 나라는 비슷한 문화를 공유한다는 이유로 영국을 호의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한편으로 헤켈은 영국이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식민지 획득과 팽창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국을 독일의 생존경쟁 대상으로 간주하였다.³⁶ 제국주의자였던 헤켈은 1890년대 독일의 팽창을 본격적으로 부르짖기 시작하였으며 1910년대에는 독일이 새로운 레벤스라움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³⁷ 즉, 산업의 발전에 의한 무역의 확대와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독일제국의 해결책이 바로 레벤스라움의 확대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레벤스라움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개념화한 사람은 헤켈이 아니라 그의 제자 라첼이었다. 그런데 레벤스라움의 기본 개념은 그가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1897년 이전에 발표한 저작들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1882년 출간한 『인류지리학(Anthropogeographie)』에서 라첼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토지가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강한 민족이 팽창하여 약한 민족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자연법칙이라 주장하며, 독일이 식민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³⁸

라첼이 레벤스라움의 확장을 주장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정치적 성향과 당시 독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스마르크의 주도로 아프리카의 분할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될 예정이었던 베를린 회담(The Berlin Conference, 1884년 11월 15일~1885년 2월 26일) 직전인 1884년 9월 16일, 뮌헨에서 독일국가자유당의 창당기념식이 열렸다. 당원이던 라첼은 『국가불평론자들을 반대하며(Wider die Reichs Nörgler)』라는 연설문을 공개하

35 E. Haeckel, trans by E. Lanckerster, 1887(1868), 위의 책, p. 281.

36 D. Gasman, 1971, *The Scientific Origins of National Socialism: Social Darwinism in Ernst Haeckel and the German Monist League*, London: Macdonald & Co. LTD, pp. 127~129; E. Haeckel, 1925(1890), “Algerische Erinnerungen”, *Teneriffa bis zum Sinai*, Leipzig: Kroner, pp. 84~85.

37 D. Gasman, 1971, 위의 책, p. 131.

38 F. Ratzel, 1882, *Anthropogeographie*, Stuttgart: Verlag Von J. Engelhorn, pp. 166~167.

였다. 라첼은 이 연설문에서 독일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 좁은 영토로 인한 자원 부족의 해결, 산업 발전에 의한 무역 확대를 위해 식민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³⁹

19세기 중반 이후 독일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840년에서 통일되기 직전인 1871년까지의 독일 내 각 국가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평균 약 10퍼센트였으며, 1871년 이후 14년 동안에는 독일의 인구가 약 300퍼센트 증가하였다. 당시 독일의 경우 공업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수많은 농민이 유입됨에 따라 산업도시는 과밀화되고 있던 반면, 농촌의 경제 성장은 정체되고 있었다.⁴⁰ 게다가 1873년에 시작한 장기불황(Long Depression)의 여파로 공산품과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독일인이 일자리와 농지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었다.⁴¹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880년대 비스마르크는 식민지 개척을 시도했으며 라첼은 바로 이 정책을 지지한 것이었다.

이후 라첼은 독일의 식민지 개척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레벤스라움의 이론적인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인류지리학이 생물지리학과 동일선상에서 출발한다고 정의함으로써 ‘공간을 위한 경쟁’을 자연 법칙으로 간주하였다.⁴² 그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여기서 공간이란 식량을 제공하는 토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기후환경의 변화와 함께 라첼은 서식밀도의 증가를 레벤스라움의 팽창 이유로 제시하였다. 즉, 개체수가 공간이 부양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 그 종의 일부는 협소한 공간에 적응하기

39 F. Ratzel, 1884, *Wider die Reichs Nörgler*, München: Oldenbourg Wissenschaftsverlag.

40 J. Reulecke, 1977, "Population Growth and Urbanization in Germany in the 19th Century", *Urbanism Past & Present*, No. 4, pp. 22~23.

41 W. Smith, 1974, "The Ideology of German Colonialism, 1840~1906",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46(4), pp. 641~645.

42 F. Ratzel, 1901, *Der Lebensraum: Eine biographische Studie*, Tübingen: H. Laupp, p. 1.

보다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려 하고, 이에 따라 기존에 살고 있던 비슷한 자원을 이용하는 종과 대립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레벤스라움이 더욱 넓게 확장될수록 생물의 경우 이용 가능한 자원이 증가함에 따른 다양한 조건에 적응하기 마련이고, 이에 개체수가 증가하여 다른 종을 압도하게 되어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라첼이 제시한 이론이었다. 그는 패배한 종은 서식지의 한계로 인해 결국 퇴화되고 멸종한다고 주장하였다.⁴³ 따라서 라첼은 맬서스와는 다르게 개체수의 과잉을 종의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간주하였다.

『레벤스라움: 생물지리학적 연구』 출간 이전 라첼은 오노즈카가 인용한 『정치지리학』에서 “동식물계의 생존경쟁이 항상 공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것처럼 국가 간 투쟁도 대부분은 영토를 둘러싼 투쟁일 뿐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⁴⁴ 그는 국가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초과 인구를 인구가 희박한 인근 지역으로 보내게 되고 이로 인해 전쟁이 발생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라첼은 국가 간의 전쟁을 영토, 즉 레벤스라움을 확장하는 본질적인 수단으로 보고, 전쟁을 과잉 인구 해소와 국가의 생존을 위한 방어 수단으로 생각하였다.⁴⁵ 그런데 당시 유럽은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 등의 강대국의 역사적인 전쟁을 통해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따라서 그는 과잉 인구의 해소를 위해 유럽 내에서의 전쟁을 통한 레벤스라움의 확보보다는 해외 식민지의 개척을 통한 영토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⁴⁶

라첼은 서구 열강의 해외 식민지 개척을 “문화민족(Kulturvölker)”이 “자연민족(Naturvölker)”을 정복하는 과정이라고 합리화하였다. 그는 토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 기술적 발전 수준과 이를 다룰 수 있는 문화적인 능력이 이 두 민족

43 F. Ratzel, 1901, 위의 책.

44 F. Ratzel, 1903, *Politische Geographie* 2nd edition, Berlin: Druck und Verlag von R. Oldenbourg, p. 381.

45 F. Ratzel, 1897, “Ueber den Lebensraum. Eine biogeographische Skizze”, *Die Umschau* 21(1), pp. 363~367; 1903, 위의 책, pp. 93~94, 100, 141.

46 F. Ratzel, 1903, 위의 책, pp. 246~251.

을 가르는 핵심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자연민족의 경우 이 수준이 낮거나 또는 인구 감소로 인해 이것이 퇴화되었다고 제시하였다.⁴⁷ 그는 문화민족인 유럽인이 자연민족인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땅을 정복함으로써 원주민들이 비옥한 토지에서 밀려날 결과 이들 집단의 인구가 급감했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주민 집단은 생존경쟁에서 패배한 존재라는 것이다.⁴⁸ 그리고 퇴화된 종의 멸종이 자연 법칙에 따른 것이듯, 이들의 소멸도 당연하다는 것이 라첼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라첼은 해외 식민지에서 이주민과 원주민의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닌 본국 이주민의 대체 과정으로 판단하였다. 문화민족의 인구폭발에 의한 식민지의 건설, 그리고 이주민들의 자연적인 인구 증가는 결국 식민제국의 팽창과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독일에서 레벤스raum의 확보에 대한 논의는 경쟁 대상인 협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파리강화회담(Paris Peace Conference, 1919~1920)에서 해외 식민지뿐만 아니라 서프로이센과 포젠을 포함한 13퍼센트의 영토를 상실한 독일인들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결국 이는 레벤스raum의 확대를 선언한 나치가 1933년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칠박사 집단 중 영토팽창론자들이 제시한 러시아와의 대결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의 급증하는 인구에 대한 해결이었다는 점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이지 시대 독일식 사회진화론의 일본 유입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7 A. Stoginno, 2019, *The Genesis of Geopolitics and Friedrich Ratzel*, Cham: Springer, p. 203.

48 F. Ratzel, 1901, 앞의 책, pp. 54~56.

Ⅲ. 메이지 시대 집단주의적 사회진화론의 일본 유입과 형성 과정: 칠박사 사건 이전 시대적 상황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다윈의 진화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서구 국가가 독일이라면 그 외 지역에서는 일본이었다. 1800년대 중반 일본은 ‘생존경쟁’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게 될 상황을 맞이하였다. 일본의 막부 정부는 1853년 페리 제독의 무력시위에 저항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개항 후 일본 정부는 서구 열강과 불평등조약을 맺었다. 이후 일본은 사쓰에이 전쟁(薩英戰爭)과 시모노세키 전쟁(下関戰爭)에서 근대적 무기로 무장한 서양 세력의 위력을 경험하였다. 마침내 1868년 국가의 생존을 위해 ‘부국강병(富國強兵)’과 ‘식산흥업(殖産興業)’을 기치로 내세운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었다.

다윈의 이론을 일본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사람은 미국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의 회원인 미국의 진화론자 모스였다. 1877년 6월, 문부성(文部省)은 연구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패류 전문가 모스를 도쿄대학(東京大學)의 초대 동물학 담당 교수로 임명하였다. 이는 미시간대학에서 개최된 모스의 특별 강연에 깊은 감명을 받은 후 귀국해 도쿄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도야마 마사카즈(外山正一)의 소개 덕분이었다. 이 특별 강연에서 모스는 다윈의 진화론을 소개하였다.

모스는 도쿄에서 학교라는 울타리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1877년 10월 그는 도쿄대학에서 진화론에 대한 특별 강연을 세 차례 실시했는데, 당시 강연에 참석한 교수들과 그들의 부인, 학생 500~600명의 열띤 참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⁴⁹ 이후에도 그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설립한 게이오의숙(慶應義塾)을 포함한 도쿄 내 각지에서 명사들과 지식인들을 상대로 진화론에 대한 강

49 E. Morse, 1979, *Japan Day by Day*, Vol. 1, New York,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p. 138.

연을 실시하였다.⁵⁰ 강연에서 그는 동물이든 인류든 변화하는 환경에서 생존경쟁에서 승리한 개체나 종이 살아남는다고 설명하였다.⁵¹ 그리고 원숭이와 공통 조상에서 번영한 인류가 다시 인종으로 분기되는데, 유전에 의해 짐승처럼 싸우는 하등한 인종은 전쟁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인종에 의해 패배한다는 인종주의적 진화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모스는 전쟁에 유리한 인종을 같은 정부 아래에서 같은 목표를 위해 단합하는 집단으로 정의함으로써 구성원의 단결이 집단적 생존경쟁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⁵² 따라서 모스가 일본에 전파한 다윈의 진화론은 헤켈의 진화론과 매우 흡사하다. 모스는 다윈의 이론인 ‘생존 경쟁’이 일본에서 널리 확산되도록 했으며,⁵³ 메이지 시대 인종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사회진화론이 지식인 사회에 널리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모스가 일본에 다윈의 진화론을 소개했으나 당시 일본인들의 지적 환경에서는 이 이론을 직접 생물학에 적용할 수 없었다. 실제 일본 과학계에서 진화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모스의 제자인 이시카와 지요마쓰(石川千代松)가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1889년에 시작되었다.

그런데 1880년대 초반 일본 사회를 고민했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이 유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생존경쟁에 대한 스펜서식 표현인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보다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로운 개인들의 경쟁을 통해 사회가 사회 발전한다는 스펜서의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 이론에 주목하였다.⁵⁴ 이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다. 1874년 이타

50 S. Cross, 1995, “Prestige and Comport: The Development of Social Darwinism in Early Meiji Japan, and the Role of Edward, Sylvester Morse”, *Annals of Science* 53, p. 338.

51 エトワルト・モール스 口述, 石川千代松 筆記, 1967(1883), 「動物進化論」, 明治文化研究會 編輯, 『明治文化全集』 27(科學篇), 東京: 日本評論社, 329~331쪽.

52 エトワルト・モール스 口述, 石川千代松 筆記, 1967(1883), 위의 글, 35~357쪽.

53 矢田部良吉, 1967(1883), 「緒言」, エトワルト・モール스 口述, 石川千代松 筆記, 「動物進化論」, 明治文化研究會 編輯, 『明治文化全集』 27(科學篇), 東京: 日本評論社, 321쪽.

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가 주도한 「민선의원설립건백서(民撰議院設立建白書)」가 제출된 이후, 일본에서는 입헌군주제 설립을 위한 자유민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⁵⁵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도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이에 당시 정부를 주도하던 오키키 시게노부(大隈重信),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헌법 제정과 국회 개설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이토는 독일식과 영국식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정확한 노선을 정하지 않았으나, 후쿠자와와 친밀하게 지낸 오키마는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지지하였다. 1881년 3월 오키마는 이토나 이노우에와 상의하지 않고 아리스가와노미야 다루히토 친왕(有栖川宮熾仁親王)에 보낸 의견서에서 헌법을 제정한 뒤 1883년 초에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한 국회를 개설하자고 건의하였다. 이토는 이러한 급진적인 헌법 구상에 반발하며 격노하였으며, 이노우에는 후쿠자와로 상징되는 정부를 향한 여론전을 주도하던 도시민권파(都市民權派)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하였다. 결국 1881년 10월 12일 메이지 천황이 1890년 국회를 개설하기로 발표한 직후 오키마의 사직과 함께 도시민권파와 연결된 정부 관료들이 해임되었다.⁵⁶

소위 ‘메이지 14년의 정변’으로 불리는 이 사건을 전후로, 자유민권론을 지지하던 지식인들은 게이오의숙을 중심으로 스펜서의 진화론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스펜서의 적자생존 개념보다는 그가 제안한 ‘군사사회(militant society)’에서 ‘산업사회’로의 진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스펜서는 권위주의

54 D. Howland, 2000, “Society Reified: Herbert Spencer and Political Theory in Early Meiji Japan”,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42(1), p. 70.

55 이태진, 2022, 『일본제국의 ‘동양사’ 개발과 파시즘』, (주)사회평론아카데미, 67~72쪽.

56 松沢裕作, 2016, 『自由民権運動: 「デモクラシー」の夢と挫折』, 東京: 岩波書店, 131~137쪽.

적인 중앙집권적인 정부, 개인에 대한 통제, 엄격한 사회계층화로 특징되는 ‘군사사회’에서 평등한 도덕적인 개인의 자발적 협동에 의해 운영되는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것을 ‘일반적인 법칙(universal law)’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자유민권론자들은 당시 일본 사회를 전제적인 ‘군사사회’로 정의하고 이를 민주적인 ‘산업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스펜서의 진화론을 무기로 정부와 투쟁한 것이었다.⁵⁷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에서 가토의 ‘사상적 전향’ 사건이 일어났다. 가토는 1873년 결성된 일본 최초의 계몽 학술단체인 메이로쿠샤(明六社)에서 후쿠자와 등과 함께 활동하였지만 1882년 10월에 출간한 『인권신설(人權新說)』에서 천부인권이란 없고 권리라는 것은 치열한 권력경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획득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유민권론자들을 공격하였다. 이 책에서 가토는 집단주의적·사회진화론적 시각에서 국가의 성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국가가 생기기 전 인간 사회에서는 생명을 빼앗는 가혹한 ‘우승열패(優勝劣敗)’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제 권력을 가진 최대 우승자가 등장하여 국가를 창설했을 때, 우승열패를 제한하고 사회와 개인의 안전을 위해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가토가 1877년 12월 30일 작성하기 시작한 연구 노트 「의당비망(疑堂備忘)」 1에는 생존경쟁이라는 단어와 다윈, 헤켈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⁵⁸ 도쿄 대학의 총리였던 가토는 모스와 친밀한 관계였다. 하지만 모스는 당시 일본 지식인들의 학문, 특히 생물학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은 관계로 다윈의 진화론을 상당히 간략한 형태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어 구사자였던 가토는 다윈의 진화론을 『종의 기원』이 아닌 1868년에 출간된 헤켈의 저작 『자연창조사(Natürliche Schöpfungsgeschichte)』를 통해 받아들였다. 「의당비망」을 검

57 山下重一, 1975, 「明治初期におけるスペンサーの受容」, 『年報政治学』 26.

58 加藤弘之, 1990a, 「疑堂備忘一」, 上田勝美·福嶋寛隆·吉田曠二 共編, 『加藤弘之文書 1』, 京都: 同朋舎, 188쪽.

토하면 가토가 ‘선택설(Selektionstheorie)’, ‘생존경쟁(Kampf ums Dasein)’, ‘자연선택(Natürliche Zuchtwahl)’, ‘적응(Anpassung)’ 등 다윈이 제시한 기본적인 개념과 ‘유전(Vererbung)’, ‘인위적 선택(Künstliche Zuchtwahl)’, 생명체와 인류의 진화과정 등 헤켈이 강조한 개념을 『자연창조사』를 통해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⁹ 모스와 헤켈을 통해 진화론에 접근한 가토는 이제 다윈이 피하고자 했던 생존경쟁의 인간사회에 대한 적용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집단의 생존을 위해 유전적으로 선택된 엘리트들이 사회를 주도해야 한다는 헤켈의 주장은 가토에게 집단 내부의 생존경쟁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가토는 『인권신설』에서 헤켈과 유사하게 ‘능력과 재능, 도덕성, 품행, 학예, 재산, 농업, 공업, 상업 등의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정신적 우수한 상등평민’이라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⁰ 그리고 헤켈이 이들이 생존경쟁에서 승리한 이유를 유전적인 요소로 판단한 것처럼 가토는 상등평민이 “우수한 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회를 주도할 권리가 있다고 역설하였다.⁶¹

헤켈은 당시 사민주의자들의 급부상에 반발하여 자연계의 불평등성을 당대 독일 사회에 적용한 것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토는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가던 전직 사무라이, 대기업 보호에 불만을 품은 소규모 상인 및 산업가, 과중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소규모 토지 소유자, 하급 무사 계층, 소작농,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던 자유민권운동을 비판하기 위해 『인권신설』을 발표한 것이었다.

『인권신설』이 출간된 후 야노 후미오(矢野文雄), 우에키 에모리(植木枝盛), 바바 다쓰이(馬場辰猪)와 같은 자유민권론자뿐만 아니라 1876년 가이세이학교(開成學校)에서 일본 최초로 스펜서를 강의했던 도야마도 가토를 비판하였다.

59 加藤弘之, 1990b, 「疑堂備忘二」, 上田勝美·福嶋寛隆·吉田曠二 共編, 『加藤弘之文書 1』, 京都: 同朋舎.

60 加藤弘之, 1882, 『人權新說』, 東京: 谷山樓, 37~40쪽.

61 加藤弘之, 1882, 위의 책, 39쪽.

그리고 가토는 이들의 비판에 대한 답변으로 1883년 1월 『인권신설』 제3판을 출간하였다.⁶²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점점 자유민권론자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강력한 정부의 필요성을 느낀 토지소유주와 산업가들의 이탈, 대정부 투쟁의 과격화, 빈농층과 도시 하층민이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과정 속에서, 1884년 10월 31일 지치부(秩父)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군을 동원하여 이 봉기를 강경 진압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자유민권운동은 종언을 맞았다.⁶³

무력을 동원한 정부의 힘이 점점 강화되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개인의 경쟁을 통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라는 민권론자들의 유토피아적 진화론은 일본에서 힘을 잃게 되었다.

일본 사회가 극단적으로 분열된 1882년 3월 이토가 헌법 제정을 위한 조사차 유럽으로 파견되기 직전 정부 수뇌부는 독일 헌법을 기반으로 일본 헌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1889년 2월 11일 천황 주권과 신민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된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이 공포되어 권위주의적 정부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헌법과 동시에 공포된 「중의회선거법(衆議院議員選舉法)」은 선거권을 토지세나 소득세를 15엔 이상 납부하는 25세 이상 성인 남성(당시 전체 인구 중 1.1%)으로 제한함으로써 하층 중간계급과 하층민의 정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⁶⁴

가토는 1893년 출간한 『강자의 권리의 경쟁(強者の權利の競争)』에서 권리(사권과 공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즉 ‘강자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유럽의 사례를

62 『인권신설』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가토의 대응에 대해서는 김도형, 2015, 앞의 글, 550~566쪽 참조.

63 松沢裕作, 2016, 앞의 책, 191~199쪽; M. Nagai, 1954, “Herbert Spencer in Early Meiji Japan”, *The Far Eastern Quarterly*, 14(1), pp. 59~60.

64 清水唯一朗, 2013, 「日本の選挙制度—その創始と経路—」, 『選挙研究』 29(2), 12쪽.

들어 메이지 헌법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즉, 유럽에서는 절대군주제에서 입헌제로 이행하였는데, 이를 추진한 동력은 지능과 부의 발전으로 ‘자유권(강자의 권리)’을 획득한 피차자들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대체로 그가 『인권신설』과 그 이후 발표한 글들을 구체화하여 소수 엘리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입헌군주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⁶⁵

소수로 구성된 지도층의 국정 주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토는 이 책에서 국가유기체설을 도입하였다. 헤켈과 마찬가지로 가토는 국민을 세포로 간주했는데 ‘사회 생물, 즉 국가의 주된 목적은 국가 전체와 그 세포가 되는 각 개인의 유지와 진보’라 주장하며 국가에 대한 개인의 종속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가토는 같은 해 출간한 『도덕법률진화의 이(道德法律進化の理)』의 증보개정판에서 삼단계의 유기체설을 구체화하였다. 이 책에서 가토는 그의 이론이 헤켈의 제자인 헤르트비히(Oscar Hertwig)⁶⁶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 단계의 유기체를 단세포 생물이나 세포로 규정하고, 세포의 집합체인 생명체를 “이기심”을 지닌 두 번째 단계의 유기체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의 유기체가 생존경쟁에 의해 고등 생물, 즉 인간으로 진화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의 유기체인 사회는 인간의 생존경쟁 과정에서 생성된다고 하였다.

사회를 국가로 인식한 가토는 ‘국가라는 세 번째 단계의 유기체는 반드시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의 유지와 발전을 꾀하기 위해 그 세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타국과 경쟁하고(공격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이를 통해 타국을 자신의 생존 필요에 맞추려는 것이 당연하다’⁶⁷고 주장하며 국가 내 생존경쟁에서 국가 간의 생존경쟁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였다. 이 지점에서 가토는 두 번째 단계의 유

65 가토의 천황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제시한 입헌군주론에 대해서는 박삼헌, 2010,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후기사상-입헌적 족부통치론을 중심으로-」, 『사총』 70 참조.

66 加藤弘之, 1893b, 『道德法律進化の理』, 増補改定版, 東京: 博文館, 2쪽.

67 加藤弘之, 1893b, 위의 책, 246쪽.

기체인 국민에게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을 요구하였다. 즉, ‘이타적 행동에 의해 국민의 일치와 협력이 견고할 때 국가적 사회의 강력한 이기심이 생기고, 이 사회는 타국과의 경쟁에서 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의 일치와 협력이 약할 때는 도저히 국가가 이기적 정신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⁶⁸는 것이었다.

이 시기 가토는 우승열패의 개념을 주변국과의 관계로 확장하여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국가유기체설을 주장한 것은 당시의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다.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메이지 유신은 바로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방어, 즉 생존을 위해 일어난 것이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인접국인 청의 군비 확장과 러시아의 동진에 위협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1880년대 일본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 두 나라와 충돌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내각총리대신 야마가타 아리모토(山縣有朋)는 러시아가 시베리아 철도 계획을 발표하자 1890년 12월 6일 제국의회에서 국가의 독립과 방위가 일본의 ‘주권선’(국경)에만 그치지 않고 ‘이익선’(조선)의 확보에 있다고 연설하였다. 이는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일본이 군사적인 수단을 통하여 조선에 대한 종주권, 즉 한반도라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⁶⁹ 이에 일본 정부의 전략은 일종의 공세적 방어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강자의 권리의 경쟁』이 출간된 1893년은 조선을 둘러싸고 일본과 청의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던 시점이었다. 일본이 무력을 통해 국가 간의 생존경쟁에 참여를 시도한 시기에, 가토는 이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이었다.

실제 가토는 청일전쟁 기간 중 일본군이 청군에 연승하고 있는 원인으로 일본 사회의 집단적인 통합, 도덕적·진화적 우월성 등을 제시하였다.⁷⁰ 『도덕법

68 加藤弘之, 1893b, 위의 책, 246~247쪽.

69 이승환, 2022, 「19세기 말, 일본의 지정학적 상상력과 국방전략에 대한 고찰: 야마가타 아리모토(山縣有朋)의 구상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1), 1929~1931쪽.

70 자세한 내용은 김도형, 2018, 「가토 히로유키의 진화론과 전쟁인식-청일·러일전쟁 관련 저술분석을 중심으로-」, 『日本思想』 35, 16~19쪽 참조.

를진화의 이』에서 가토는 서구식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도덕이 충만한 문명국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는 헤켈과 유사하게 문명국이 국가 간의 경쟁에서 실패한 미개 사회를 잔인하게 대하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⁷¹ 그런데 이 책에는 중국도 문명국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지중해인을 제외하고는 몽골인종만 “실제 역사(actual history)”를 가지고 있으며 “문명(civilization)”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한 『자연창조사』의 내용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⁷² 하지만 청일전쟁 기간 도중 보여준 청나라 군대의 졸전을 보며 가토는 스스로 개화에 성공한 일본이 미개를 벗어나지 못한 중국, 그리고 그 미개국에 종속된 조선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우승열패라는 진화의 과정으로 합리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청일전쟁 이후의 상황은 가토의 예측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1893년 가토는 유럽 열강들이 이제 하나의 유기체, 즉 세계국가로 통합되어간다는 비현실적인 진화 과정을 제시하였다.⁷³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유럽 열강이 도덕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인데 이들이 동일한 도덕적 목표를 지향하고, 그로 인해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 때문에 하나의 유기체, 즉 세계국가로 통합되어간다고 판단한 점에 있다. 그리고 그는 일본이 이 세계국가에 합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당시 독일, 프랑스, 러시아는 삼국간섭을 통해 일본의 요동반도 확보를 저지하였다. 특히 1896년 동청철도(東淸鐵道)에 대한 부설권을 획득한 러시아는 1900년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만주를 점령하였다. 1890년대 후반 일본 정부의 목표는 대한제국을 러시아와 분할 점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방어를 위해 러시아에게 만주와 한반도를 교환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는 대한제국까지 노리던 러

71 加藤弘之, 1893a, 앞의 책, 201~236쪽.

72 E. Haeckel, 1887(1868), 앞의 책, p. 324.

73 加藤弘之, 1893a, 앞의 책, 201~236쪽.

시아의 거부로 실패하고 만다. 일본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러시아에게 대항하고자 일본의 지도층은 일본의 이익선인 조선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군을 만주에서 축출하기 위한 외교 정책으로 전환하였다.⁷⁴

결국 청일전쟁 이후 동아시아는 결국 개별 국가 간의 치열한 생존경쟁의 장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 과정 속에 일본이 급부상하였다. 이제 문명국의 협력을 통한 세계제국의 건설이라는 가토식의 유토피아적 세계관은 일본 사회에서 비현실적인 이론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사회에서 가토가 제시한 국가유기체설은 더욱 맹위를 떨쳐갔다. 1880년대 중반 자유민권운동이 실패하자 대다수의 일본 지식인은 우승열패를 강조하는 가토의 집단주의적 진화론을 수용하였다.⁷⁵ 그리고 청일전쟁 이후 일본에서 국가유기체설은 사무라이의 ‘무사도(武士道)’ 개념과 결합하였다. 즉,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선과 악 같은 보편적인 윤리를 따르는 존재가 아닌 천황과 국가의 생존을 위해 충성, 복종, 희생하는 존재라는 사고가 일본 사회에 널리 확산되었다.⁷⁶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엘리트 양성소인 도쿄제국대학에서는 도미즈로 대표되는 개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칠박사 중 도미즈, 도미이, 가나이, 테라오, 나카무라 등 다섯 명은 이미 1900년 당시 총리 야마가타에게 러시아의 만주 점령에 대항해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개시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이들의 사고는 도미즈가 1901년 3월 『윤리계(倫理界)』에 게재한 「침략주의와 도덕(侵略主義と道徳)」이라는 글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74 조명철, 2002, 「근대 일본의 대외정책과 동아시아: 의화단사건과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일본의 외교전략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29, 51~56쪽.

75 이성철, 2024,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변형」, 『사회사상과 문화』 27(1), 196쪽.

76 H. Unoura, 1999, “Samurai Darwinism: Hiroyuki Katô and the reception of Darwin’s theory in modern Japan from the 1880s to the 1900s”, *History and Anthropology*, 11(2-3), pp. 245~247.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침략주의, 영토확장주의, 적국박멸책 등은 모두 필요한 것이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조상에 대한 불효이며, 황실에 대한 불충이며,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도덕한 것이라 생각한다. 보통 도덕가에게 묻는다면, 타국을 점령하는 등의 행위는 상당히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로서는 타국을 침략하지 않는 것이 매우 부도덕한-부도덕의 극치라고 생각한다.⁷⁷

이러한 도미즈의 주장은 가토가 소개한 ‘국가의 생존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 곧 자연법칙’이라는 헤켈식 진화론과 무사도가 결합한 사고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미즈는 당시 일본 정부의 외교 원칙인 일본의 생존을 위한 방어적 무력 사용을 넘어 침략 전쟁을 통한 영토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도미즈가 영토, 곧 일본의 공간 확보를 강조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그는 넓은 영토를 강국의 기본 조건으로 간주하였다. 둘째, 그는 일본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 때문에 넓은 영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⁷⁸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 일본의 인구통계는 높은 출산율과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약 10퍼센트 이상 높았다.⁷⁹ 비록 당시 농업 기술의 발전으로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었지만, 인구 증가와 함께 쌀 소비량도 증가했다. 이로 인해 1890년대 일본의 쌀 자급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이미 1892년 대장성(大藏省)은 쌀 생산의 증가 이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⁸⁰ 결국 당시 일본은 소위 ‘멜서스의 덫’에 갇히게 된

77 戸水寛人, 1901, 「侵略主義と道徳」, 『倫理界』, 2, 6쪽.

78 戸水寛人, 1901, 위의 글, 3쪽.

79 岡崎陽一, 1986, 「明治大正期における日本人口とその動態」, 『人口問題研究』 178, 1~2, 7쪽.

80 日本 農林水産省 홈페이지, 「その1 : お米の自給率」, https://www.maff.go.jp/j/zyukyu/zikyu_ritu/ohanasi01/01-03.html(검색일: 2024년 9월 8일).

것이였다.

이 문제는 가토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청일전쟁 직전인 1894년 3월에 출간한 『200년 후의 우리(二百年後の吾人)』에서 맬서스를 언급하며 일본의 인구 증가를 우려하였다.⁸¹ 그런데 문명국의 협력을 통한 세계 단일 제국의 출현을 예측했던 가토는 아시아의 일부 문명국과 유럽의 문명 인종이 인구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를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야만 인종이 생존경쟁에서 패배하여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⁸² 따라서 이 지점에서 가토는 일본의 식민지 확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전 세계에서 목축과 농경에 적합한 토지의 면적은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 문명국의 인종도 약 200년 후에는 맬서스의 뒷에 간힐 수밖에 없다고 예측함으로써 공간의 확장, 즉 식민지 확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맬서스의 관점을 공유하고 있었다.⁸³

도미즈의 경우 200년 후의 미래보다는 당시의 현실이 더 큰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토와 마찬가지로 강국이 소국을 병합하는 것이 자연법칙이라고 판단한 그는 지금 당장 영토를 확장하여 인구를 이주시키지 못한다면 일본이 20세기에 멸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⁸⁴ 따라서 도미즈는 당시 일본을 위협하고 있던, 자신이 강국으로 정의한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일본의 방어뿐만 아니라 당장의 생존을 위해 영토, 즉 식민지 확보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러시아라는 서구 열강과의 생존경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정당화할 새로운 형태의 이론이 일본의 사회진화론자들에게 필요한 시점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정치학을 연구하며 라첼의 이론을 접한 오노즈카가 1901년 가을 귀국한 후 도쿄제국대학 초대 정치학 담당 교수로 임명되었다. 유학 전 만민평등주의와 박애주의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오노즈

81 加藤弘之, 1894, 『二百年後の吾人』, 東京: 哲學書院, 43~44쪽.

82 加藤弘之, 1894, 위의 책, 53~56쪽.

83 加藤弘之, 1894, 위의 책, 59, 83~85쪽.

84 戸水寛人, 1901, 앞의 글, 3쪽.

키는 당시 열강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던 유럽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만국평등주의를 거부하고 애국주의자로 변모하였다.⁸⁵ 일본이 러시아와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1903년 5월, 오노즈키는 대학 내에서 전쟁 개전의 여론을 주도하던 도미즈 그룹에 합류한 후 그들과 함께 건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소위 ‘칠박사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IV. 칠박사 집단의 개전론에 투영된 영토 팽창 논리

칠박사 집단이 개전 건의서를 내각 총리 가쓰라 다로(桂太郎)에게 제출한 1903년 6월 10일은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달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해 4월 ‘만주철군협정(滿洲撤軍協定)’에서 약속한 2차 철군 시기를 어긴 러시아는 용암포를 점령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열린 각료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권리를 인정하고 대신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보장받는 ‘만한교환론(滿韓交換論)’을 채택하였다.⁸⁶ 이러한 상황에서 칠박사 집단은 그들의 건의서를 6월 24일 공개하였다.⁸⁷

칠박사는 건의서에서 이익선에 기반을 둔 만한교환론에 반대하였다. 즉, ‘조선을 지키고자 한다면 만주가 러시아에 넘어가는 막아야 하며 만약 러시아가 만주를 차지한다면 일본의 방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들의 주장은 전쟁을 통한 국경선의 확대가 국가의 방어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는 라첼의 생각과 매우 흡사하다.

이후 이들은 만주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거듭했다. 그 과정에서 도미즈의

85 南原繁·蠟山政道·矢部貞治, 1963, 『小野塚喜平次-人と業績-』, 東京: 岩波書店, 64쪽.

86 홍용덕, 2023, 위의 책, 353쪽.

87 花見朔巳, 1939, 앞의 책, 120~121쪽.

과격한 전쟁론에 대해 반대하던 오노즈카와 도미이가 이탈하였다. 오노즈카는 『정치학대강』에서 ‘외교정책은 평화적이어야 하며, 군부의 선동이 외교 당국자를 압박할 때 당국자는 전체적인 상황을 계산하여 소신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지나친 평화주의에 의해 타국의 강압적 행동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전쟁은 마지막 수단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⁸

도미즈의 과격한 주장에 반대한 오노즈카와 도미이를 제외한 나머지 5인에 더해, 새롭게 가세한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교수 다케베 돈고(雄邨遜吾)와 제국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일본은행에 재직하고 있던 문학사 와타나베 지하루(渡邊千春)는 1903년 9월 그들의 의견을 정리한 논문을 모아 『일로개전논찬(日露開戰論纂)』을 간행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과격 주전론자들의 주장은 라첼의 영토 팽창 이론과 매우 비슷하다.

가나이는 이 책에서 그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고백하였다.⁸⁹ 실제 이 책의 저자들의 성향을 분류하면 도미즈, 데라오, 다케베, 나카무라를 포함하는 과격파와 가나이, 다카하시, 와타나베를 포함하는 온건파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과격파에 대해 살펴보면, 데라오는 대외 팽창을 통한 국가의 ‘생존’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일본인이 작은 섬에서 생존하기만 한다면 발전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일본이 멸망할지라도 강대국 러시아와 싸워 이김으로써 만주를 획득하여 경제적 이득과 국운의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⁹⁰ 즉, 그에게 영토 팽창은 강대국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며 러일전쟁은 일본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결전이었던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전쟁을 원한 이유는 바로 영토의 확보 때문이었다. 과격파 중

88 小野塚喜平次, 1903b, 『政治学大綱』下, 東京: 博文館, 103~104쪽.

89 金井延, 1903, 「法學博士 金井延君論文」, 藏原惟昶 編, 『日露開戰論纂』, 東京: 東京國文社, 34~35쪽.

90 寺尾亨, 1903, 「法學博士 寺尾亨君論文」, 藏原惟昶 編, 『日露開戰論纂』, 東京: 東京國文社, 20, 29~32쪽.

나카무라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급증하는 일본의 인구 증가를 일본이 영토를 확장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하였다.

특히 다케베는 당시 일본의 인구와 식량의 증가율을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메이지 23년을 중심으로 한 전후 5년간 평균 쌀 생산량은 3,860만 석, 보리 생산량은 1,460만 석이었다. 메이지 31년을 중심으로 한 전후 5년간의 평균은 쌀이 3,960만 석, 보리가 1,910만 석이었다. 이 8년간 쌀은 연간 약 0.3%, 보리는 약 3% 증가한 것이다. ... 즉, 매년 인구 1,000명당 2.3명에 해당하는 식량이 부족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인구 증가가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⁹¹

위의 글을 보면 다케베가 주장한 일본이 식량 위기 상황에 빠진 이유의 근거가 인구 급증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케베가 당시 서양 문명국의 인구 증가율이 일본을 포함한 황인의 증가율에 비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지적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약 100년 후 백인의 인구가 2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황인은 7~8억에 머무를 것’이라는 것이다.⁹² 도미즈 역시 ‘19세기 초에 백인 인구가 1억 7,000만 명이었지만 20세기 초에 5억에 도달했으며 일본의 인구 증가율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⁹³

이 지점에서 다케베는 라첼과 마찬가지로 높은 인구 증가율을 국가의 팽창을 위한 희망적인 요소로 판단하였다.⁹⁴ 그는 서구 사회가 산업 발달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본토와 식민지를 포함한 영국, 프랑

91 雄邨遯吾, 1903, 앞의 글, 80쪽.

92 雄邨遯吾, 1903, 위의 글, 78쪽.

93 戸水寛人, 1903, 앞의 글, 7쪽.

94 雄邨遯吾, 1903, 앞의 글, 78쪽.

스, 독일, 러시아의 인구 밀도가 일본의 수준에 도달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일본이 이들보다 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영토를 확장시켜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는 일본의 성장을 위해서 한 반도와 만주를 일본의 식민 영토로 편입시키고 이를 방해하는 러시아와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⁹⁵

건의서 제출을 주도했던 도미즈는 더욱 노골적으로 과잉 인구 해소를 위한 식민지 확보를 강조하였다. 그는 급증하는 일본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만 명 이상의 일본인을 조선에 이주시켜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 정도의 일본인이 조선에 정착해야 하며, 이후 점차 증가하는 일본인을 수용하기 위해 만주도 점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⁹⁶ 이 논문을 발표할 당시 도미즈는 조선을 식민지화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만주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토로 할 것인지 아니면 후대의 만주국과 같은 괴뢰국가를 설립해야 할지 결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단지 만주의 비옥한 땅을 일본의 통제하에 둘 것을 제안하였다.⁹⁷ 이러한 도미즈의 생각은 당시 일본 정부의 기본 전략이었던 공세적 방어, 즉 만주의 중립지대화를 부정한 것이었다.⁹⁸ 전쟁 도중 일본의 영토를 바이칼 호수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부르짖던 도미즈는 포츠머스 조약의 체결을 반대하였다. 이에 1905년 8월 문부성은 도미즈에게 휴직 처분을 내림으로써 소위 ‘도미즈 사건(戶水事件)’이 발생하였다.⁹⁹

반면에 온건론자 중 가나이는 과격 주전론자와는 다르게 만주를 확보하기 보다는 중국의 주권을 회복시켜 만주를 중국의 영역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

95 雄邨遯吾, 1903, 위의 글, 80~89쪽.

96 戶水寬人, 1903, 앞의 글, 13쪽.

97 戶水寬人, 1903, 위의 글, 16~18쪽.

98 와다 하루키 지음, 이웅현 옮김, 2010, 『러일전쟁: 기원과 개전』, 한길사, 782~783쪽.

99 宮武実知子, 2007, 앞의 글, 166~167쪽.

하였다. 즉,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일본은 자위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동양 전체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는 것이었다.¹⁰⁰ 그리고 와타나베는 만주의 점령보다는 청의 주권 회복을 통한 완충 지대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¹⁰¹ 하지만 이 둘 역시 만주에서 전쟁을 통한 일본의 경제적 이익 추구에는 찬성하였다.¹⁰²

그러나 다카하시는 개전론은 이들과는 상당히 다르다. 우선 그 역시 다른 박사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생존을 위해 러시아와의 전쟁을 촉구하였다. 철박사의 개전론 중 자위권은 다카하시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국제법 전공자였던 다카하시는 국가의 자위권은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발동해야 한다는 영국 유학 시절 은사 웨스트레이크(John Westlake)의 의견에 대하여, 국제법상 한 나라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위권에 그러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였다.¹⁰³

국가 자위권을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경우 사용하는 폭력적 방법’이라 정의한 다카하시는 일본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러시아와의 개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자위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는 자국에 직접적인 이해가 없더라도 강대국 사이에 포위된 작은 국가가 한 강대국에 침공당하여 다른 강대국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경우 다른 강대국이 이에 개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¹⁰⁴ 즉, 러시아가 일본을 침공하지 않더라도 만주를 점령하고 조선에 군대를 보내는 행위가 일본의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본은 외교적인 방법이 실패한 당시의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만 한다

100 金井延, 1903, 앞의 글, 57쪽.

101 渡邊千春, 1903, 「文學史 渡邊千春君論文」, 藏原惟昶 編, 『日露開戰論纂』, 東京: 東京國文社, 117~118쪽.

102 金井延, 1903, 앞의 글, 58~60쪽; 渡邊千春, 1903, 위의 글, 118쪽.

103 朴羊信, 1998, 앞의 글, 978쪽.

104 高橋作衛, 1903, 「法學博士 高橋作衛君論文」, 藏原惟昶 編, 『日露開戰論纂』, 東京: 東京國文社, 123쪽.

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카하시는 다음과 같이 영토 팽창론자들을 비판하였다.

세상에서 대외 강경파로 불리는 논자 중 일부는 만주의 변환을 일본 국민의 증가와 일본 영토의 협소함, 국운 발전의 필요에 기반을 두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 ... 만약 일본 국민의 필요와 일본의 영토 협소함 때문에 만주의 땅을 강탈하여 국운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왜 러시아가 그 영토를 확장하여 국운을 발전시키는 것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¹⁰⁵

즉, 다카하시는 일본의 경제적·영토적 생존권 확대를 목표로 러시아와의 개전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참전의 명분을 앗아간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일본 정부가 영국과 미국 등 다른 강대국과 협상하여 국제 조약을 통해 만주를 중립지대, 즉 완충지화해야 하며 이후 일본군이 만주에서 철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⁰⁶ 결국 다카하시는 이후 강경론자들과 결별하고 영토 팽창을 부르짚던 도미즈를 “천박하다”고까지 표현하며 비난하였다.¹⁰⁷

이러한 상황에서 강경론자들과 결별한 후 침묵하던 오노즈카가 전쟁이 한창 전개되던 1904년 8월 「국가팽창범위의 정치학적 연구(國家膨脹範圍ノ政治學的的研究)」라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그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오노즈카는 다카하시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최후 수단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 논문에서 러일전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큰 사건의 발생을 기회로 팽창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전쟁을 지지하였다.¹⁰⁸

오노즈카는 이 논문에서 라첼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라첼의 주장과 유사한

105 高橋作衛, 1903, 위의 글, 120쪽.

106 高橋作衛, 1903, 위의 글, 143~145쪽, 155쪽.

107 다치바다 다카시 지음, 이규원 옮김, 2008, 앞의 책, 379쪽.

108 小野塚喜平次, 1904, 「國家膨脹範圍ノ政治學的的研究」, 『法學協會雜誌』, 1059쪽.

내용을 많이 제시하였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인접국과의 생존경쟁에서의 성패로 결정된다고 판단한 오노즈카는 라첼과 마찬가지로 국가 팽창의 최대 동기가 과잉 인구의 처리에 있다고 인식하였다.¹⁰⁹ 특히 라첼과 오노즈카의 가장 큰 공통점은 국가 팽창의 촉진요인을 인구 과잉과 문화의 조합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오노즈카는 “우수한 문화”를 가진 강국이 어떤 방법으로 그 인접 지역에 있는 “열등한 약국”을 팽창 범위, 즉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이 논문에서 제시하였다.¹¹⁰ 그 대상국이 어디인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열등국은 청과 대한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오노즈카는 라첼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사례를 들어 이주민들이 본국의 문화적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라첼은 미국에 거주하는 약 800만 명의 독일인이 더 이상 독일어를 사용하지 않고 독일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것을 걱정하며 이들이 고향의 문화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¹¹ 이와 마찬가지로 오노즈카는 미국으로 이주한 대다수의 독일인이 “언어, 사상, 감정에서 독일 민족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언급하였다.¹¹² 따라서 오노즈카가 열등국으로의 영토 팽창을 시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자연민족의 공간에 식민지를 건설함으로써 본국인과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라첼의 이론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식민지에서 자연민족의 소멸을 예상한 라첼과 다르게 오노즈카는 식민지민들을 보호해야 하며 그들을 문화민족으로 동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¹¹³ 이는 독일과 일본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1880년대 이후 독일은 인구가 희박하고 유색인종이 거주하고 있던 남태평양의 섬들(독일

109 小野塚喜平次, 1903a, 앞의 책, 158~163쪽; 小野塚喜平次, 1904, 위의 글, 1056쪽.

110 小野塚喜平次, 1904, 앞의 글, 1057쪽.

111 F. Ratzel, 1884, 앞의 책, p. 10.

112 小野塚喜平次, 1904, 앞의 글, 1056쪽.

113 小野塚喜平次, 1904, 위의 글, 1060쪽.

령 뉴기니)과 현재의 나미비아, 탄자니아 등의 아프리카 지역을 식민지화하였다. 하지만 당시 일본이 노리던 만주와 한반도는 높은 인구 밀도와 함께 메이지 유신 직후 일본인과 함께 몽골인종, 그리고 반개인(半開人)으로 분류되던 중국인과 한국인의 거주 지역이었다. 비록 청일전쟁의 승리 이후 일본인들은 타동양인에 대해 인종적 우월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오노즈카가 염려하였듯이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던 중국과 조선에서 억압 정책을 실시할 경우 이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¹¹⁴ 이에 오노즈카는 식민지인의 문화적 발전과 진보를 위해 일본이 팽창한다는 논리를 구축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의 경우 열강과의 협상, 또는 구입을 통해 식민지를 획득했던 반면에 당시 일본은 서구 열강 중 하나인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영토 팽창을 시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오노즈카는 이 논문에서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식민지 획득 열망에 대한 서구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역을 보호국화하여 내정을 감독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노즈카는 “그 팽창 범위 내의 인민은 문화적·경제적으로 진보의 이점을 누리고 ... 조약으로 팽창 국가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열강으로 하여금 이를 인정하게 해야 한다”¹¹⁵라고 주장하며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국제법에 의해 인정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오노즈카는 ‘약한 나라가 보호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강국이 실력으로 이를 인정시킨다’¹¹⁶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결국 청과 대한제국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일본이 만주와 한반도를 침공할 수 있다는 명분을 제시한 것이었다. 즉, 일본도 서구 열강과 마찬가지로 무력을 통해 식민지를 확보해야 함을 역설한 것이었다.

결국 유럽에서 공부했던 철박사 집단은 건의서 제출 이후 의견을 제시하지

114 小野塚喜平次, 1904, 위의 글, 1060쪽.

115 小野塚喜平次, 1904, 위의 글, 1059~1060쪽.

116 小野塚喜平次, 1904, 위의 글, 1061쪽.

않았던 도미이, 영토 확장과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에 의한 개전을 반대한 다카하시를 제외하고는 일본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인보다 열등한 인종이 살고 있는 만주와 한반도의 식민지화에 대한 의견을 학자의 권위에 입각해 제시한 것이었다.

V. 맺음말

19세기 중반 소위 흑선(黑船)의 무력시위에 의해 개항한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상징되는 서구식 근대화의 추구를 통해 국가의 생존을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메이지 시대 초기 일본 정부는 독일제국의 정치체제를 모델로 삼아 막부시대의 분산적 권력을 중앙에 집중하려 하였다. 따라서 당시 일본에 본격적으로 수용된 사회진화론은 시민들을 자유경쟁을 통한 민주주의적 사회발전을 제시했던 영국의 스펜서식의 진화론이 아니라, 국민을 세포로 간주하고 엘리트의 사회주도를 강조했던 헤켈의 이론이었다. 그리고 이 헤켈의 사회진화론을 일본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사람이 바로 가토였다. 가토는 헤켈의 진화론을 기반으로 저술한 『인권신설』에서 스펜서식의 민주주의적 산업사회를 추구하던 자유민권론자들의 의견을 반박하였으며, 결국 일본 정부는 독일식 입헌군주제를 채택함으로써 독일제국과 마찬가지로 군국주의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기틀이 마련하였다.

헤켈의 집단주의적 사회진화론의 문제점은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존경쟁에 처한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이타성과 윤리를 비과학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집단의 생존과 이익 추구를 강조했다라는 점에 있다. 이는 일본의 대외 정책에 극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1889년 메이지 헌법 발표 이후 일본은 주변국인 중국과 조선을 생존경쟁의 희생양, 즉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 근대화에 실패한 열등한 중국과 조선에 대한 이권 추구를 사회진화론의 논리로 정당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당시 근대화를 추구하던 일본은 1870~1880년대 독일과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식량 부족이라는 맬서스의 뒷에 갇히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늘어나는 인구를 위한 새로운 생활공간과 상품의 수출시장, 그리고 자원의 공급처인 식민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대만을 식민지화하였으며, 이후 동쪽으로 팽창하고 있던 러시아와 만주에서 충돌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최고 엘리트 집단이었던 제국대학 법학부 출신 학자들이 모여 칠박사 집단을 구성하였다. 독일 유학 경험이 있었던 이들은 당대 독일의 팽창 논리, 그중에서도 인구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통해 식민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들은 동식물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강자에 의한 약자의 소멸을 정당화한 라첼의 이론과 유사한 개념을 제시하며 러일전쟁 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사실은 러일전쟁을 통한 영토 팽창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강경론자 중 한 명인 다케베는 도야마의 제자로 스펜서주의자였다는 점이다. 실제 당시 일본에서 대부분의 스펜서주의자들은 자유주의를 추구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에는 찬성하였다. 이 문제는 사실 일본에서 집단주의적 사회진화론이 어떻게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무사도와 같은 일본 전통 사상, 그리고 유학(儒學)과 결합되는지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일본식 사회진화론의 형성과 특징에 대한 주제는 추후 자세히 논의하겠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사실은 라첼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오노즈카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라첼의 영향을 받아 지정학(geopolitic)을 개념화한 스웨덴의 지리학자 셸렌(Rudolf Kjellén)의 이론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그의 제자인 국제정치학자 가미카와 히코마쓰(神川彦松)가 라첼과 셸렌의 지정학을 바탕으로 만주사변과 태평양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문제도 추후 검토하겠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적자생존’의 가토식 표현인 ‘우승열패(優勝劣敗)’를 바탕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다. 하지만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서 서구 열강의 눈치를 보던 일본은 한일합방이 조선의 문명화를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평화의 정착을 위해 설립된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의 상임이사국이 됨으로써 자국이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문명국임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 이후 일본은 방어적 공세와 국제사회로의 편입에 의한 일본의 이익 추구가 아닌 무력행사에 의한 영토 팽창을 본격화하였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서구 열강과의 생존경쟁의 장을 벌이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 지점에서 칠박사 사건으로 상징되는 메이지 시대 비윤리적인 독일식 집단주의적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정착화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까지 일본의 팽창과 제국주의적 침략의 기본 원리로 작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호연, 2009, 『우생학, 유전자 정치의 역사』, 아침이슬.
- 다치바다 다카시 지음, 이규원 옮김, 2008, 『천황과 도쿄대』 1, 청어람미디어.
- 미와 료이치 지음, 권혁기 옮김, 2004 『근대와 현대 일본경제사』, 보고서.
- 와다 하루키 지음, 이웅현 옮김, 2010, 『러일전쟁: 기원과 개전』, 한길사.
- 이태진, 2022, 『일본제국의 ‘동양사’ 개발과 파시즘』, (주)사회평론아카데미.
- 홍용덕, 2023, 『19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동연.
- 加藤弘之, 1882, 『人權新說』, 東京: 谷山樓.
- _____, 1893a, 『強者の權利の競争』, 東京: 哲學書院.
- _____, 1893b, 『道德法律進化の理』 増補改定版, 東京: 博文館.
- _____, 1894, 『二百年後の吾人』, 東京: 哲學書院.
- 南原繁·蠟山政道·矢部貞治, 1963, 『小野塚喜平次-人と業績-』, 東京: 岩波書店.
- 小野塚喜平次, 1903a, 『政治学大綱』 上, 東京: 博文館.
- _____, 1903b, 『政治学大綱』 下, 東京: 博文館.
- 松沢裕作, 2016, 『自由民権運動: 「デモクラシー」の夢と挫折』, 東京: 岩波書店.
- Barlow, N. ed., 1958, *The Autobiography of Charles Darwin*, New York: W·W·Norton & Company·INC.
- Darwin, C., 1859, *On the Origins of Species*, London: John Murray, Albermale Street.
- Gasman, D., 1971, *The Scientific Origins of National Socialism: Social Darwinism in Ernst Haeckel and the German Monist League*, London: Macdonald & Co. LTD.
- Haeckel, E., 1908(1878), *Freie Wissenschaft und freie Lehre Eine Entgegnung auf Rudolf Virchow's Munchener Rede uber "Die Freiheit der Wissenschaft*

- im modernen Staat”, Leipzig: Alfred Kröner Verlag.
- Haeckel, E., trans by E. Lankerster, 1880(1868), *The History of Creation (Natürliche Schöpfungsgeschichte)* Vol. I, York: D. Appleton and Company.
- _____, 1887(1868), *The History of Creation (Natürliche Schöpfungsgeschichte)*, Vol. II, York: D. Appleton and Company.
- Haeckel, E., trans by J. McCabe, 1904, *Wonders of Life: A Popular Story of Biological Philosophy(Die Lebenswunder)*, London: Haper & Brothers Publisher.
- Malthus, T., 1993(1802),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2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orse, E., 1979, *Japan Day by Day* Vol. 1, New York,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Otto, P., 2014, *Bismarck and the Development of Germany*, Volume I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tzel, F., 1869, *Sein und Werden der organischen Welt: Eine populäre Schip-fungsgeschichte*, Leipzig: Gebhardt und Reiland.
- _____, 1882, *Anthropogeographie*, Stuttgart: Verlag Von J. Engelhorn.
- _____, 1901, *Der Lebensraum: Eine biographische Studie*, Tübingen: H. Laupp.
- _____, 1903, *Politische Geographie* 2nd edition, Berlin: Druck und Verlag von R. Oldenbourg.
- Richards, R., 2008, *The Tragic Sense of Life: Ernst Haeckel and the Struggle over Evolutionary Though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mith, S., 1991, *Politics and the Science of Culture in German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toginno, A., 2019, *The Genesis of Geopolitics and Friedrich Ratzel*, Cham: Springer.

논문

- 김도형, 2014,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진화론수용 이해-「疑堂備忘」 독해를 중

- 심으로, 『日本思想』 27.
- _____, 2015,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人權新說》과 천부인권논쟁 재고, 『동아 인문학』 33.
- _____, 2018, 「가토 히로유키의 진화론과 전쟁인식-청일·러일전쟁 관련 저술분석을 중심으로-」, 『日本思想』 35.
- 박삼현, 2010,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후기사상-입헌적 족부통치론을 중심으로-」, 『사충』 70.
- 이성철, 2024,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변형」, 『사회사상과 문화』 27(1).
- 이승환, 2022, 「19세기 말, 일본의 지정학적 상상력과 국방전략에 대한 고찰: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구상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1).
- 조명철, 2002, 「근대 일본의 대외정책과 동아시아: 의화단사건과 동아시아의 정세변화-일본의 외교전략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29.
- 加藤弘之, 1990a, 「疑堂備忘一」, 上田勝美·福嶋寛隆·吉田曠二 共編, 『加藤弘之文書』 第1卷, 京都: 同朋舎.
- _____, 1990b, 「疑堂備忘二」, 上田勝美·福嶋寛隆·吉田曠二 共編, 『加藤弘之文書』 第1卷, 京都: 同朋舎.
- 岡崎陽一, 1986, 「明治大正期における日本人口とその動態」, 『人口問題研究』 178.
- 高橋作衛, 1903, 「法學博士 高橋作衛君論文」, 藏原惟昶 編, 『日露開戦論纂』, 東京: 東京國文社.
- 宮武実知子, 2007, 「「帝大七博士事件」をめぐる輿論と世論: メディアと学者の相利共生の事例として」,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70.
- 金井延, 1903, 「法學博士 金井延君論文」, 藏原惟昶 編, 『日露開戦論纂』, 東京: 東京國文社.
- 渡邊千春, 1903, 「文學史 渡邊千春君論文」, 藏原惟昶 編, 『日露開戦論纂』, 東京: 東京國文社.
- 朴羊信, 1998, 「「七博士」と日露開戦論」, 『北大法学論集』 48(5).
- 寺尾亨, 1903, 「法學博士 寺尾亨君論文」, 藏原惟昶 編, 『日露開戦論纂』, 東京: 東京國文社.
- 山下重一, 1975, 「明治初期におけるスポンサーの受容」, 『年報政治学』 26.

- 矢田部良吉, 1967(1883), 「緒言」, エトワルト・モール스 口述, 石川千代松 筆記, 「動物進化論」, 明治文化研究會 編輯, 『明治文化全集』27(科學篇), 東京: 日本評論社.
- 雄邨遯吾, 1903, 「文學博士 雄邨遯吾君論文」, 藏原惟昶 編, 『日露開戰論纂』, 東京: 東京國文社.
- 藏原惟昶 編, 1903, 「滿州問題ニ關する七博士の意見書」, 『日露開戰論纂』, 東京: 東京國文社.
- 前原淳史, 2018, 「「七博士事件」の再検討: 「金井延日記」を中心として」, 『社会科学』48(2).
- 清水唯一朗, 2013, 「日本の選挙制度-その創始と経路-」, 『選挙研究』29(2).
- 戸水寛人, 1901, 「侵略主義と道德」, 『倫理界』2.
- _____, 1903, 「法學博士 戸水寛人君論文」, 藏原惟昶(編), 『日露開戰論纂』, 東京: 東京國文社.
- Cross, S, 1995, “Prestige and Comport: The Development of Social Darwinism in Early Meiji Japan, and the Role of Edward, Sylvester Morse”, *Annals of Science* 53.
- Haeckel, E, 1925(1890) “Algerische Erinnerungen”, *Teneriffa bis zum Sinai*, Leipzig: Kroner.
- Howland, D, 2000, “Society Reified: Herbert Spencer and Political Theory in Early Meiji Japan”,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42(1).
- Nagai, M, 1954, “Herbert Spencer in Early Meiji Japan”, *The Far Eastern Quarterly*, 14(1).
- Ratzel, F, 1897, “Ueber den Lebensraum, Eine biogeographische Skizze”, *Die Umschau*, 21(1).
- Reulecke, J, 1977, “Population Growth and Urbanization in Germany in the 19th Century”, *Urbanism Past & Present* 4.
- Smith, W, 1974, “The Ideology of German Colonialism, 1840~1906”,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46(4).
- Unoura, H, 1999, “Samurai Darwinism: Hiroyuki Katô and the reception of

Darwin's theory in modern Japan from the 1880s to the 1900s", *History and Anthropology*, 11(2-3), pp. 245~247.

Weikart, R, 1993, "The Origin of Social Darwinism in Germany, 1859-1895",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 54(3).

Weindling, W, 1981, "Theories of the Cell State in Imperial Germany", In C. Webster ed., *Biology, Medicine and Society 1840-194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기타 자료

日本 農林水産省 홈페이지, 「その1: お米の自給率」, https://www.maff.go.jp/j/zyukyu/zikyu_ritu/ohanasi01/01-03.html(검색일: 2024년 9월 8일).

생존경쟁과 영토 팽창

— 칠박사 집단이 제시한 러일전쟁 개전론의 사상적 배경 검토 —

박해운

19세기 멜서스와 다윈이 생존경쟁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후 헤켈로 대표되는 독일의 진화론자들은 이 개념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여 강자에 의한 약자의 정복, 즉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헤켈의 제자 라첼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레벤스raum의 확보를 제시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지정학은 사회진화론적 측면을 보여주게 되었다. 일본에서 이러한 국가의 생존과 진화를 결합한 집단주의적 사회진화론은 이미 1870년대 후반 헤켈의 영향을 받은 가토 히로유키에 의해 정립되었으며 이는 결국 메이지 헌법 공포 이후 일본이 본격적으로 집단 간의 생존경쟁을 통해 식민지 확보를 개시하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칠박사 사건의 참여자 중 대부분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던 188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 독일에서 공부하였다. 이들은 당시 세계정책을 추구하며 식민지의 확보와 다른 서구 열강과의 경쟁에 돌입한 독일에서 이를 정당화하는 이론을 접하였다. 특히 그들 중 오노즈카 기헤이지는 직접적으로 라첼의 영향을 받은 자였다. 당시 일본을 주도하던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칠박사 집단의 구성원 중 강경론자는

영토 팽창을 위해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논리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주도한 여론전은 결국 러일전쟁의 개전에 큰 영향을 끼침으로써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주제어: 러일전쟁, 사회진화론, 생존경쟁, 레벤스raum, 헤켈, 라첼,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철박 사사건, 도미즈 히론도(戸水寛人), 오노즈카 기헤이지(小野塚喜平次)

ABSTRACT

Struggle for Existence and Territorial Expansion: Examinations of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Russo-Japanese War Presented by the Seven Doctors Group

Park Haewoon

After Thomas Malthus and Charles Darwin introduced the concept of struggle for existence, German evolutionists represented by Ernst Haeckel applied this concept to human society, justifying the conquest of the weak by the strong, i.e., imperialist aggression. Haeckel's student, Ratzel, proposed that for a nation to develop, it must secure Lebensraum (living space), which after World War I, gave geopolitics in Europe a socio-evolutionary aspect. In Japan, this notion of national survival and evolution, influenced by Haeckel, was established by Katō Hiroyuki in the late 1870s, which laid the ideological foundation for Japan to start acquiring colonies through intergroup struggle after the proclamation of the Meiji Constitution. During the late 1880s to the early 1900s, when Japanese militarism

was intensifying, most of the participants in the Seven Doctors Incident were individuals who had studied in Germany, which was then pursuing the *weltpolitik* and entering into struggle for colonies with other Western powers. Notably, among them, Onotsuka Kiheiji was directly influenced by Ratzel. The group known as the Seven Doctors, primarily composed of professors from the Law School of Tokyo Imperial University, pressured the Japanese government with the argument that Japan needed to wage war with Russia to secure its *Lebensraum*, i.e., territorial expansion. The public opinion campaign led by the hardliners among them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outbreak of the Russo-Japanese War, thus it was one of the triggers that accelerated the territorial expansion of the Japanese Empire.

Keywords: the Russo-Japanese War, social Darwinism, struggle for existence, *Lebensraum*, Ernst Haeckel, Friedrich Ratzel, Katō Hiroyuki, the Seven Doctors Incident, Tomizu Hirondo, Onozuka Kiheiji

도바타 세이이치(東畑精一)의 전후 아시아개발론

— 배상에서 개발원조로

엄소정 |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센터 연구원

- I. 머리말
- II. 도바타 세이이치의 학문적 이력과 전전기 제국개발론
- III. 전후 아시아개발론
- IV. 맺음말

I. 머리말

아시아개발론은 패전 직후 일본의 주요 화두일 수 없었다. 그것은 전후 내부 경제 파탄의 수습 필요성이 모든 현안을 압도했던 현실에 더해, 점령 당국 SCAP의 제국 해체 정책, 즉 일본으로부터 아시아를 분리하는 정책 때문이었다.¹ 하지만 1947년 냉전의 기류로 인해 일어난 일명 역코스라는 점령정책의 전환으로 일본의 대아시아 무역 논의를 포함한 아시아개발론은 일본의 학계, 언론계, 관계 등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아시아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과 아시아 간 무역을 재개하고 각 나라의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전전과 전쟁 중에 활발했던 아시아 개발연구가 다시 본격화된 것이다.²

아시아경제 개발은 냉전기 동안 서방과 동방 양 진영 모두의 관심사였지만, 일본의 경우는 그 개발 논의가 배상이라는 큰 시대적 과제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미국 등 서방 진영은 아시아경제 재건에 일본과 아시아 나라들 사이의 배상 문제가 선결문제임을 파악하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의 지위를 독립국으로 회복시킨 후 1970년대까지 적극적으로 일본

* 투고: 2024년 10월 15일, 심사 완료: 2024년 11월 5일, 게재 확정: 2024년 11월 11일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8317).

1 점령 직후 SCAP의 일본 경제 지침은 1930년 또는 1934년 수준으로 일본의 경제 수준을 규제하는 것이었고, 공업 및 산업 시설의 무력화와 대아시아 무역 금지를 골자로 했다. 佐藤仁, 2012, 「戦後日本の対外経済協力と国内事情: 原料確保をめぐる国内政策と対外政策の連続と断絶」, 『アジア経済』 53卷 4号, 96쪽. 점령 당국의 제국 해체 정책, 특히 강제 인양 정책에 따른 일본과 아시아 국가 관계 변화 및 아시아 지역 재편성 문제는 淺野豊美 編著, 2013, 『戦後日本の賠償問題と東アジア地域再編: 請求權と歴史認識問題の起源』, 慈学社出版 참조.

2 植田捷雄, 1964, 「はしがき」, 『アジア研究』 11卷 1号, 2쪽.

의 대아시아 배상 협정 체결을 지원했다.³ 이때 미국과 일본 모두 배상 방식을 당시 일본의 경제력을 고려한 현물 및 역무배상으로 정하는 데 동의했다. 이로써 일본은 배상을 통해 대아시아 ‘원료수입-가공-완제품 수출’의 3각 무역 구도를 형성하고 국내 공업생산 증진과 아시아경제권 구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원료 수입은 ‘자원개발’로, 무역 관계는 ‘경제협력’이라는 언어로 대체되었다.⁴

이 과정, 즉 일련의 배상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는 배상을 아시아 개발-경제원조-경제협력과 동일시하는 흥미로운 사고틀이 생겨날 수 있었다. 1950년대 당시 저명한 국제경제학자 야마모토 노보루(山本登)를 비롯한 아시아 문제 연구자들은 “현재 배상의 형식은 제1차 세계대전 때의 처벌주의가 아닌 개발, 원조, 경제협력의 형식으로 변했으며 배상이 배상의 의무가 있는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도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⁵ 배상이 아시아 개발, 원조, 경제협력을 뜻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난

-
- 3 전후 일본의 맥락에서 아시아란 동남아시아를 뜻했다. 아시아 배상 협정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버마(현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과는 배상 협정이, 라오스, 캄보디아, 타이,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크로네시아는 준배상 협정이 맺어졌다. 준배상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국으로 구상권을 포기했거나 강화조약 체결국은 아니지만 구식민지였던 이유로 청구권을 가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도의상’의 배상을 뜻하는 경제협력이었다. 배상 협정은 버마(1954), 필리핀(1956), 인도네시아(1958), 남베트남(1959), 준배상 협정은 태국(1955), 말레이시아(1957), 라오스(1958), 캄보디아(1959), 한국(1965), 싱가포르(1966), 미크로네시아(1979)와 체결되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연합국은 대일강화조약 준비 과정에서 대만과 인도는 1952년 체결된 개별적인 강화조약에서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 임채성, 2007, 「전후 일본경제와 동아시아 경제권의 재편(1951-65년)」, 『국제지역연구』 11권 1호, 2~3장; 竹原憲雄, 2001a, 「戦後賠償・経済協力と政府開発援助(1)」, 『桃山学院大学経済経営論集』 42(4), 2장.
- 4 임채성, 2007, 위의 글; 佐藤仁, 2012, 앞의 글; 竹原憲雄, 2001a, 위의 글. 한편, 배상형식을 경제협력, 경제기술협력 식으로 정한 것은 무배상원칙에 다름없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原朗, 1984, 「賠償・終戦処理」, 大蔵省財政史室編, 『昭和財政史: 終戦から講話まで 第1巻 総説/賠償・終戦処理』, 東洋経済新報社.
- 5 山本登, 1957, 「アジア政経学会記事: 賠償と経済協力」, 『アジア研究』 3卷 2号,

것이다.⁶

전후 일본의 아시아 개발에 대한 기존 연구는 최근까지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었다. 우선 국제정치사, 경제사, 외교사 부문에서 배상외교, 배상 협정, 경제협력, 정부개발원조(ODA), 동아시아경제권, 동아시아지역재편에 관심을 두고 구체적 협정 과정과 수행 내용 및 결과를 확인하는 흐름이 있었다. 또 다른 연구 군은 지성사, 사상사 부문에서 전후 아시아 개발에 대한 학문적 담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자, 개발건설턴트, 연구기관, 연구잡지 및 학회를 조사했다. 전자를 통해서는 전후 일본 아시아 개발원조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미국의 외압 또는 일본의 내압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닌, 냉전기 미국, 일본, 아시아 각 나라의 이해관계 때문임이 밝혀졌다.⁷ 한편, 후자의 연구 군은 전자의 연구 군이 전후 일본 아시아 개발원조의 역사를 전후 미군정 시기 이후의 변화로만 국한하여 설명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개발론 자체 논리를 탐구함으로써 전후 일본의 아시아개발론이 사실은 식민·전쟁기의 제국개발론에 기원을 둔다

120쪽.

- 6 사토 진에 따르면, 1950년대 일본에서는 “관례적으로 경제협력 개념이 해외 투자, 연불 수출입, 배상, 기술 협력 등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었고, 1950년대부터 1960년대 문헌 대부분에서 “경제협력과 원조 개념은 서로 호환되어 이용되었다”. 佐藤仁, 2012, 앞의 글, 109쪽, 주1.
- 7 中村隆英, 1982, 「日米經濟協力關係の形成」, 近代日本研究会編, 『年報・近代日本研究Ⅳ 太平洋戦争: 開戦から講話まで』(山川出版社); 小林英夫, 1983, 『戦後日本資本主義と「東アジア經濟圏」』(御茶の水書房); 原朗, 1993, 『戦争賠償問題とアジア』, 『アジアの冷戦と脱植民地化』(岩波書店); 西川博史, 1995, 「東アジア經濟圏と日本の貿易」, 『日本經濟と東アジア: 戦時と戦後の經濟史』(ミネルヴァ書房); 竹原憲雄, 2001a, 앞의 글; 中野聡, 2002, 「賠償と經濟協力- 日本・東南アジア關係の再形成」, 池端雪浦編, 『岩波講座東南アジア史』8卷(岩波書店); 宮下明聡, 2004, 「日本の援助政策とアメリカ-外圧反応型国家論の一考察-」, 『レヴァイアサン』34号; Carol Lancaster, 2007, *Foreign Aid: Diplomacy, Development, Domestic Polit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원덕, 2007,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연구: 대 아시아 전후 배상정책의 구조와 함의」, 『日本學研究』22호; 임채성, 2007, 앞의 글; 金雄基, 2010, 「日本の役務賠償による賠償外交とアジア市場への再進出」, 『일본학보』82호.

는 사실을 드러냈다.⁸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는 전후 일본 아시아개발론의 독특한 특징인 배상의 개발, 원조, 경제협력으로의 논점 전환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단지 배상 협상 과정과 체결된 협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현상으로 간주될 뿐이었다. 전후 일본 아시아개발론의 특징인 배상론이 개발론으로 전환된 것과 그 안에서 배상, 개발, 원조, 경제협력의 네 가지 요소 간의 의미상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고리는 아직 설명된 적이 없다. 그 설명을 위해서는 배상의 실행과 관련해 생산되고 확대된 전문가들의 아시아개발론에 대한 더욱 상세하고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도바타 세이이치(東畑精一)의 사상을 집중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전후 일본의 아시아개발론의 핵심 논리와 특징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배상

8 이에 대해서는 전후 일본의 핵심 아시아 연구소인 아시아경제연구소의 계보를 만철 조사부에서 찾은 末廣昭, 2005, 「アジア調査の系譜-満鉄調査部からアジア経済研究所へ-」, 末廣昭 編, 『帝国日本の学知 第6巻 地域研究としてのアジア』, 岩波書店과 박준형, 2022,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공간 재편과 만철조사부: 권력·공간·학문의 삼중주』, 사회평론아카데미; 1950~1960년대 일본 외무성과 자민당 대외 경제협력 특별 위원회 및 정부 자문 지리학자 조직인 자원론연구회의 아키 고이치(安芸皎一)가 발언한 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언설 연구인 佐藤仁, 2012, 앞의 글; 전전기 도쿄상과대(현 릿쿄대) 식민정책학자로서 동아시아경제연구소 일원이자 해군성 및 남방군 휘하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현지조사팀 일원이자 관료였고, 전후에는 아시아경제연구소의 설립을 제안하는 등 민족주의 문제에 천착한 아시아개발론으로 각광을 받은 아시아경제, 국제정치 전문가 이타카기 요이치(板垣與一)의 전전기·전후 아시아개발 사상과 행적을 연구한 幸島理人, 2015, 『帝国日本のアジア研究: 総力戦体制・経済リアリズム・民主社会主義』, 明石書店; 식민·전쟁기에는 식민정책학자였고 전후에는 국제경제, 개발경제학자였던 게이오대학 야마모토 노보루의 아시아개발론에 대한 연구로는 박양신, 2021, 「근대 일본 식민정책학의 전후(戰後)-아시아 연구의 관전사(貫戰史)」 『日本學』 53호; 공학자이자 전후 일본 최대 건설 개발 컨설팅 회사 닛폰코에이(日本工営)의 설립자 구보타 유타카(久保田豊)의 '종합개발(綜合開發)' 모형의 성립과 전개를 그의 식민·전쟁기 조선에서의 경험에서부터 전후 아시아 배상 개발원조 사업까지 연결해 연구한 Aaron S. Moore, 2021, 「Interrogating 'Comprehensive Development': The Colonial-Wartime Background to Japan's Development Cooperation」, 『國際開發研究』 30卷, 1号 참조.

에서 개발원조로 인식론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지적인 흐름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도바타는 1940년대 초반 도쿄제국대학 농업경제학 교수이자 식민정책학 교수로서 대동아공영권의 경제 버전인 광역경제를 이론화하고 전후에는 아시아경제연구소(アジア経済研究所,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의 초대 소장을 맡아 아시아 경제개발 구상을 담당했던 전쟁기와 전후를 관통하는 일본의 유력한 아시아 개발 전문가였다.

특히 아시아경제연구소는 배상 협정 체결이 일단락되면서 그 실행을 위한 자문을 얻을 목적으로 1958년부터 일본 정·관·계 인사들이 설립을 준비하여 1960년 정부 산하로 부설한 학술 기관이자 일종의 싱크탱크였다. 이 연구소는 설립 이후 아시아 개발에 대한 담론 생성의 핵심 장이 되었는데, 배상, 개발, 원조, 경제협력을 하나의 동일어로 사용하면서 아시아경제권과 경제권 내 일본의 역할 및 위상, 아시아 경제발전에 대해 기본적인 논의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일본 정·관·재·학계와 대중에게 제공하며 나아가 국외에 설파하는 기능을 했다.⁹

이 글에서는 도바타의 아시아경제연구소 시절인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저작, 강연 및 회고록을 바탕으로 그의 전후 아시아개발론을 상세히 분석한다. 나아가 그의 이론이 단순한 경제개발론을 넘어서 일본 정부와 사회가 갖는 역사 인식에까지 미친 영향을 점검한다. 우선 도바타의 학문적 이력과 그가 전쟁기에 발전시킨 제국개발론인 광역경제의 핵심 내용을 살핀 후, 이 전쟁기 사상이 전후 아시아개발론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추적한다. 전후 사상에 대한 분석은 크게 4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배상, 개발, 원조, 경제협력에 대한 도바타의 관계 설정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자조론, 진보론, 일본

9 아시아경제연구소 설립 시 당시 수상 기시 노부스케가 도바타에게 주문한 것은 ‘개발도상국 전문가’ 양성과 ‘권위 있는 공개 도서관’ 마련 두 가지였다. 幸島理人, 2015, 「アジア研図書館はなぜ、どのように誕生したのか」(アジア研図書館を使い倒す第29回), 『アジア研ワールド・トレンド』 236号(日本貿易振興機構アジア経済研究所 IDE-JETRO), 46~47쪽.

영도론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도바타의 전후 아시아개발론이 현재에 주는 역사적 의미를 전후 역사 인식의 측면에서 논한다.

II. 도바타 세이이치의 학문적 이력과 전전기 제국개발론

도바타 세이이치는 전전기와 전후를 아우르는 일본 내 최고의 아시아 경제개발 전문가 중 하나였다.¹⁰ 그는 전전기에는 식민정책학자로서, 전후에는 아시아경제연구소 소장으로서 아시아 개발에 매진했다. 그는 1923년 도쿄제국대학 농학부 교수가 되어 일본, 조선, 중국의 농정을 연구했고, 1939년 경제학부의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가 사임한 후에는 식민정책학 과정을 겸임했하였다.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그는 당시 주창되던 대동아공영권을 광역경제라는 경제블록의 개념을 가지고 이론화하였고 1943년에는 정부 산하로 만들어진 무라타 쇼조(村田省藏)의 필리핀 현지 조사팀에 합류하여 점령 직후의 필리핀 농

10 그동안 도바타의 경제사상에 대해서는 전후, 전전기가 이분된 채 연구되어왔다. 그의 전후 사상과 전후 일본의 농정개혁, 경제부흥, 고도성장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로는 김웅기, 2022, 『『世界(세카이)』 창간호로 보는 패전 직후 일본 지식인의 경제부흥과 '제국' 인식』, 일본근대학연구 78집; 篠崎尚夫, 2008, 「東畑精一の經濟思想: 協同組合, 企業者, そして地域」, 日本經濟評論社; 美濃口武雄, 1999, 「東畑精一と日本の農業」, 池尾愛子 編, 『日本の経済学と経済学者一戦後の研究環境と政策形成』, 日本評論; Kiichirō Yagi, 2004, "Japanese Theory of Industrialization/Modernization between Liberalism and Developmentalism," Werner Pascha ed., Systematic Change in the Japanese and German Economies: Convergence and Differentiation as a Dual Challenge, Routledge Curzon; Mark Metzler, 2013, Capital as Will and Imagination: Schumpeter's Guide to the Postwar Japanese Miracle, Cornell Univ. Press 가 있다. 그리고 그의 전전기 사상에 관한 연구로는 盛田良治, 2001, 「日本社会科学と植民地アジア」, 大阪大学博士論文; 박양신, 2017, 「대동아공영권의 건설과 식민정책학」, 『일본연구』 28호; 엄소정, 2019, 「도바타 세이이치(東畑精一)와 제국일본의 식민정책학」, 『일본역사연구』 49호가 있다. 이 장에서는 엄소정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참고하겠다.

업 경제에 대해 보고서 등을 작성하며 동남아시아로 연구영역을 확장했다.

전후 그는 순수 학자로서의 삶에서 한층 반(半)관료적 삶으로 옮겨갔다. 1946년 요시다 시게루 내각 출범 시 농림상 자리를 제일 처음 제안받기도 했으나 고사했다. 대신 그는 농업기본법안을 만들고 주요 정부 산하 연구소의 소장직과 각종 협의회 및 회의의 회장 또는 고문직을 맡았다. 또한 정부 대표로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했으며 특히 배상 협정 체결에 깊이 관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46년 일본농업 재건을 목표로 설립된 농업종합연구소(農業綜合研究所)에 초대 소장으로 역임하던 중¹¹ 1954년 필리핀 배상 전권단의 단원이 되었다. 1956년 농업종합연구소를 사임한 이후, 1958년 제2차 요시다 내각에서 외무성 고문에 임명되어 특명전권 이동대사로서 중근동 및 동남아시아 나라를 순방하고 배상 경제협력 협정 체결 및 실행에 관여했다. 1959년 도쿄대에서 정년퇴임한 직후 1960년 아시아경제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어 8년 동안 재직하면서 일본 및 아시아 정부와 기업에 아시아 개발 문제를 자문하고 일본 정부개발원조(ODA)의 기본 방침에 대한 열개를 제공했다. 그는 아시아 농정과 개발에 대한 기여를 국내외로 인정받아 일본에서는 천황 문화 훈장을, 필리핀 정부로부터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다. 현재 그는 일본에서 “농정의 신”으로도 불린다.¹²

도바타의 전쟁기 아시아개발론은 소위 광역경제라는 제국개발론으로 요약된다. 광역경제론은 ‘대동아공영권’ 정책을 경제사상 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11 도바타는 농업종합연구소에 해외부를 수립하여 중국, 소련, 동남아시아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창립 당시 아시아 연구가 금기시되던 때였음을 생각할 때 과감한 기획”이었다. 이때 해외부에 있던 연구자들 중 다키카와 쓰토무(滝川勉), 후카자와 하치로(深澤八郎), 사이토 가즈오(齊藤一夫)는 14년 뒤 아시아경제연구소가 창설될 때 도바타를 따라 자리를 옮겼다. 이처럼 농업종합연구소의 해외부 연구는 아시아경제연구소의 도상국 농업 연구의 모태가 되었다. 加用信文·久我通武·深澤八郎·滝川勉·小島麗逸·木村哲三郎, 1984, 「(座談會) 途上国研究者への道標 - 東畑精一を偲ぶ」, 『アジア経済』 25卷, 5·6号, 52쪽.

12 故東畑精一先生合同葬実行委員会 編, 1984, 『東畑精一先生の足跡』, 故東畑精一先生合同葬実行委員会; 盛田良治, 2001, 「日本社会科学と植民地アジア」, 大阪大学博士論文.

것으로, 나치 독일의 광역경제(広域經濟, Großraumwirtschaft) 개념을 일본제국 경제개발 구상에 적용한 것이었다. 도바타는 오타와협정 이후의 세계적 블록 경제화 추세에 대하여 일본제국을 ‘경제후발국형 코먼웰스(Commonwealth)’, 즉 일명 ‘가지지 못한 자’들의 경제공동체로 규정하고 그 특징을 ‘아시아 경제후발국들이 전쟁기 자원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본의 지도하에 각자 국민경제를 건설하고 상호 협력하는, 착취 없는 경제발전의 공동체’라고 주장했다.¹³

도바타가 ‘착취 없는 개발’로 이상화했던 광역경제론¹⁴은 이론적 구성으로 보면 요제프 슈페터(Joseph Schumpeter),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rich List), 애덤 스미스(Adam Smith)를 결합한 결과였다. 그는 우선 스미스의 식민 비판에 영감을 받아 제국을 ‘구성 민족들이 각기 평등하고 독립된 정체로서 각자 최선의 이익을 위해 상호부조의 원칙을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공동체’로 이상화한 후, 여기에 슈페터의 경제 발전이론, 특히 ‘창조’와 ‘기업가’ 개념을 적용하여 제국 내 ‘국가들’이 전쟁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해 ‘지력과 에너지를 가진 기업가’인 일본의 전략적 지도를 받아 급속도의 경제개발을 해나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보호 무역론자 리스트의 ‘민족 체제’ 또는 ‘국민경제’ 개념을 추가했고, ‘제국 내 구성 국가들은 중핵국¹⁵ 일본의 지도를 받아 각자의 산업단계에 맞

13 엄소정, 2019, 「도바타 세이이치(東畑精一)와 제국일본의 식민정책학」, 『일본역사연구』 49호, 121~125쪽.

14 ‘착취 없는 개발’은 니토베 이나조에서 야나이하라 다다오, 그리고 도바타 세이이치로 이어지는 도쿄제국대학 식민정책학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던 이상적 제국의 모습이었다. 물론 이 이상향은 착취와 개발이 명확히 이분될 수 없다는 그 근본적 한계상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고, 따라서 이들의 논의는 제국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뿐이었다. 엄소정, 2019, 위의 글, 108~109쪽.

15 도바타의 광역경제론 내 중핵국 개념은 발달된 나라로 에너지 넘치는 일종의 ‘기업가’이지만, 자기방어가 가능한 국방 국가가 되는 데 필요한 물자는 세계시장에서 찾아야만 하는 ‘가난한’ 나라로서 소위 ‘가지지 못한 자’를 의미했다. 또한 유사시 지역 경제를 구성하고 통일된 경제 정책을 펼쳐, 지역 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식민지 또는 점령지의 유회된 말)이 전시에 필요한 물자를 구할 수 있도록 앞장서 지도하는 나라였다. 이상에서 광역경제는 일본제국 내 모든 ‘나라’가 ‘중핵국’ 일본의 지도 아래 전시 경제 운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일종의 ‘가지지 못한 자’들의

는 발전계획을 수행하여 단작 작물 경영과 같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방식이 아닌 각자 1차부터 고차산업까지 고르게 발전시키는 일종의 완결된 경제자립 상태에 도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이런 국민경제 개념은 본국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는 논리적 장치가 될 뿐이었다. '중핵국' 일본은 아시아에 금전적 지원이나 투자 없이 단계론만 강조하여 도리어 단작 작물 경영을 한층 강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필품 부족 현상을 경제자립, 자조라는 허울 속에 철저히 도외시켰던 것이다.¹⁶

도바타의 전쟁기 제국개발론은 전후에 '제국'이 '아시아'로 바뀔 뿐 그대로 계승되어 그의 전후 아시아개발론의 근간이 된다. 경제후발국, 고속 성장, 위기 속 경제발전, 국민경제, 자립, 상호부조 경제공동체, 기업가정신을 가진 지도자라는 전쟁기 개념들이 전후 아시아개발론에도 그대로 펼쳐진다.

III. 전후 아시아개발론

1. 배상, 개발, 원조, 경제협력

1960년부터 1962년까지 도바타는 『문예춘추』,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의 우수 언론들에 아시아개발에 관한 글을 연재했다. 당시는 일본이 대아시아 배상 협정 체결을 완료하고 시행단계에 접어든 때였으므로 아시아경제연구소의 초대 소장이 된 그의 기고문들은 시의성이 있었다. 이들은 연재 종료 이듬해인 1963년 『아시아의 여러 문제』라는 제목으로 취합되어 출판되었다.¹⁷

'경제공동체'로 정의되었다. 엄소정, 2019, 위의 글, 123쪽.

16 엄소정, 2019, 위의 글, 125쪽.

17 東畑精一, 1963, 『アジア諸国の諸問題』 IDE 教育選書 63, 民主教育協會, 민주교육협회(IDE)는 정부개발원조(ODA) 산하의 기관으로서, '교육을 통한 민주주의 고양'을 기치로 삼고 전문가의 연구를 교육종사자와 대중에게 알기 쉽게 전파하는

이 책은 도바타의 전후 아시아개발론의 요약본이라 할 만하다. ‘아시아는 하나가 아니다, 아시아 나라들과의 경제협력, 아시아의 인구 증가, 구 식민지 독립과 특색, 아시아의 성장, 잇따르는 신흥국 쿠데타, 사회투자로서의 교육, 전환점에 이른 후진국 경제개발 문제’라는 장의 제목들이 말해주듯, 『아시아의 여러 문제』는 당시 아시아의 지리, 그리고 정치와 사회 문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저술이었지만 그 핵심은 아시아의 경제협력과 경제개발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즉, 대아시아 경제협력과 개발의 성공을 위해 아시아의 기본 조건과 상황을 알자는 것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다.

이러한 기초 속에서 ‘배상’에 대한 내용은 책 전체에 걸쳐 단 한 번, 정부 기반의 경제협력을 설명하는 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일본은) 금일까지 여러 방법을 통해 아시아 나라들의 경제발전에 협력해왔다. 정부 기반의 협력 및 원조를 보면, 우선 배상 지불이 있다. 이를 거듭할수록 일본과 상대국 간 경제적 관계가 한층 밀접해졌다. 배상은 단순한 지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개발적인 의미에서 일종의 ‘투자’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본격적 의미에서의 경제협력인 합작사업이나 개발사업이 이루어졌다. 설령 민간의 일이라 해도 재정 금융 조치에서 보면 이들은 정부 기반의 일로 볼 수 있다. 기술센터 설치 등이 그러하다. 이 밖에 콜롬보 플랜에 의한 원조 협력, 채권국 회의, DAG(저개발국 원조 그룹) 등을 통한 경제협력을 생각해보도 상당히 다방면에 걸쳐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해왔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한층 증가할 것이다. 장래 일본의 아시아 역내 무역—실제로 그 3분의 1은 일본 무역이다—을 생각한다면, 일본 입장을 위해서라도 아시아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해야 할 것이다. (강조는 원저자)¹⁸

것을 목표로 했다.

18 東畑精一, 1963, 위의 책, 22~23쪽.

위에서 보듯, 도바타는 배상, 개발, 원조, 경제협력의 네 가지 개념 간 위상과 상호 관계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 그는 정부 기반 경제협력의 종류를 원조 식의 정부 기반 경제협력인 ‘배상’과 본격적 정부 기반 경제협력인 ‘개발’,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그러나 곧이어 배상이 일본 무역을 위한 시장 ‘개발’용 “투자”라고 특별히 강조하는 등 배상을 개발로 치환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그는 배상, 개발, 원조, 경제협력을 상호 구성력과 규정력이 있는 유사한 개념으로 지정하며, 배상은 원조인데 사실은 투자성 개발인 경제협력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도바타는 배상을 과오나 손실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순수 경제 행위의 하나로 재규정했다. 이러한 개념 전환의 배경은 그의 전후 아시아개발론의 논리적 구조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2. 자조론

배상, 개발, 원조, 경제협력을 개념적으로 일원화한 후, 도바타는 본격적으로 ‘일본식 아시아개발원조’에 대한 상을 그려나갔다.¹⁹ 그는 아시아의 특색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아시아 국가를 규정하는 특징은 무엇일까.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대개 3개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말할 필요도 없이 신흥의 독립국이라는 점일 것이다. 독립해서 10년 또는 15년 된 나라들이다. 이를 경제적 후진국이라고 말해도 좋다. 둘째, 그 대다수가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식민지였다는 점이다. 식민지였다는 유산은 신흥국의 곳곳에 깊이 배어 있다. 셋째, 신흥독립국에 선진국들로부터 경제, 군

19 그러나 이러한 배상, 개발, 원조, 경제협력의 일원화를 전제한 ‘일본식 아시아개발원조’는 주변 국가들로부터는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일례로 1960년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일본의 ‘원조’가 “투자나 배상[무역] 등과 같이 대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문제시하면서 그 ‘상업주의’식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佐藤仁, 2012, 앞의 글, 99쪽.

사 등 ‘원조’의 손길이 내밀어져 기술협력이 들어오고 있고, 또한 국제무대에서 발언할 기회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근대 국가로 세계 대열에 들었던 때와는 정세에 크게 차이가 있다.²⁰ (강조는 원저자)

도바타는 전후 아시아를 신흥독립국이자 경제적 후진국, 또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식민지, 전후에는 피원조국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전후 아시아를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경제적으로는 후진국이며, 식민지 유산이 남아 있어서 아직 경제나 국제정치 면에서 ‘원조’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 피원조성이야말로 아시아가 일본과 구분되는 지점이고²¹ 나아가 아시아를 ‘식민지 시대 때와 유사한 종속상태에 처하게’ 할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²²

아시아가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조(援助) 아닌 자조(自助)의 방식으로 국조(國造, 근대국가건설)를 이루어야 한다고 도바타는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자조적 국조란 아시아가 자국 내 ‘기업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 東畑精一, 1963, 앞의 책, 1쪽.

21 東畑精一, 1963, 위의 책, 15쪽.

22 이러한 위험성을 지적하기 위해 도바타는 영국 정치인이면서 외무 장관 및 인도 총독을 역임하는 조지 커존(George N. Curzon)의 1894년 발언을 빌렸다. 청일전쟁 직전 커존이 쓴 『극동의 여러 문제: 일본·조선·지나』(*Problems of the Far East: Japan-Korea-China*,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894)를 인용하면서, 도바타는 “(당시 커존은 조선에 대해,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가진 열강 사이에서) ‘독립국이자 종속국임을 주장하는(a country which itself claims to be both independent and dependent)’ ‘변칙적(anomalous) 상황’에 있다고 표현했는데, 만약 (그가) 현재 냉전기 원조 경쟁 속 아시아를 본다면, ‘politically independent and economically dependent한 상황이라고 형용할 것’”이라고 유추하면서, 오늘날 선진국이나 후진국 모두 이러한 변칙적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진력할 것을 주장했다. 東畑精一, 1972, 「後進國援助の一つの感想」, 『海外技術協力』 217호 (아시아경제연구소 해외기술협력 사업단 창립 10주년 기념호), 15쪽.

후진국이 자력으로 경제이륙의 대업을 이룩하기가 물론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하고 … 현대는 후진국 원조 정책이 세계의 상식이 되어 있기도 하다. 외국 원조를 바라는 것을 무턱대고 비난할 필요도 없고, 또 오로지 자력이어야만 할 일도 아니다. 단지 문제는, 경제이륙의 주체적 조건인 그 담당자를 자국 내에 갖는가, 키울 수 있는가에 있다. 그것이 없다면 원조는 살아 있는 것이 되기 어렵다. 여기에서 자력 배양의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주체성의 육성은 넓게 국민적 지반 위에 수행되는 일로서, 이를 위해서는 구시대 사회를 그대로 온존해서는 안 된다. 후진국이 식민지를 벗어나 독립국이 된 일은 큰 정치혁명이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사회혁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국민적 지반 위에 경제운용을 담당할 투사를 기르기가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서 ‘자력으로 경제이륙의 대업을 이룩하기’, ‘자력 배양’은 다른 아닌 ‘경제이륙의 주체적 조건인 그 담당자’, ‘주체성’, ‘경제운용을 담당할 투사’를 키우는 일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담당자, 투사는 누구인가? 슈페터식 경제발전 이론을 견지하는 도바타에게 이들은 ‘에너지’와 ‘기력’을 지닌 경제주체, 즉 ‘기업가’를 의미했다.²³ 그는 아무리 원조를 받아도 현지에 기업가가 없다면 혁신을 통한 창조 또는 경제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도바타의 핵심 문제는 이제 아시아가 어떻게 자국 내에 기업가를 양

23 도바타는 경제발전의 동력 또는 결정 요인을 경제주체, 즉 ‘기업가’ 정신에서 찾았다. 따라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조사 지역민의 경제 의식으로, 경제 구조는 이 경제 의식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조건일 뿐이었다. 이러한 도바타의 관점이 드러나는 대표 저작으로는, 전쟁기 필리핀 관련 연구인 「比島人の經濟意識(一)(二)」, 『国家学会雜誌』 58卷 4号, 8号 (1944), 전후에는 『日本資本主義の形成者: さまざまな經濟主體』 (岩波書店, 1964)가 있다. 도바타의 제자이자 아시아경제연구소 동료인 후카자와 하치로(深澤八郎)에 따르면, 도바타가 「비도인의 경제의식」을 쓰게 된 주요한 문제의식은 “왜 후진국에는 기업가가 없는가”, “왜 후진국에 자본주의가 발생하지 않는가”였다. 加用信文·久我通武·深澤八郎·滝川勉·小島麗逸·木村哲三郎, 1984, 앞의 글, 49쪽.

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모아졌다. 그에 따르면, 이는 ‘구시대의 사회를 벗어나’ ‘국민적 기반’을 만드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했다.²⁴ 그는 아시아가 광범위한 내정개혁을 철저하게 시행해 진근대적 구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테면 옛 토호 세력을 척결하는 정치개혁이나 지주제를 혁파하는 농지개혁, 카스트제도, 가부장제도 같은 차별적 사회제도나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와 같은 종교 문화 제도처럼 산업화를 억지하는 옛 관습들에 대한 개혁, 마지막으로 문맹을 타파하는 교육개혁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⁵ 그는 이와 같은 내정개혁을 ‘사회혁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예로 놀랍게도 공산주의 진영 내 중국 인민공사의 대약진 운동을 들었다.²⁶ 이 노년의 아시아개발론자에게는 냉전기 이데올로기 차이보다 급진적이고 발본적인 내정개혁을 통한 자조적 경제발전이 한층 중요한 것이었다. 그는 심지어 원조국과 피원조국 모두 아시아의 내정개혁에 ‘원조 전부를 쏟아부어도 좋다’고까지 표현했다.²⁷

도바타는 ‘성운’(星雲)론을 통해서도 자조적 국조의 중요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는 아시아를 성운에 빗대면서, 균질적인 하나의 덩어리가 아닌 각자가 자연, 정치, 사회, 경제, 인적 조건상 극명한 차이를 가진 비균질적인 집합이라고 했다. 그는 ‘아시아는 하나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전쟁기에 유행했던 아시아주의에 대해 대척점에서 있음을 피력했다.²⁸ 구체적으로 그는 아시아를 ‘거대국가’와 ‘다도국가’로 대별하고 별도의 정책을 제시했다. 중국과 인도는 거대국가로 내륙 개발정책을,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등은 다도국가로 수천 개의 섬

24 東畑精一, 1963, 앞의 책, 16쪽.

25 東畑精一, 1963, 위의 책, 7~10쪽.

26 “[중국은 현재] 자력갱생의 길을 걷는 기개를 보이고 … 자력을 담당하는 주체와 국민적 에너지의 환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東畑精一, 1972, 앞의 글, 15~16쪽.

27 東畑精一, 1972, 위의 글, 16쪽.

28 東畑精一·小倉武一, 1976, 「アジアを語る」, 『アジア経済』 17卷 1·2号, 160~161쪽.

사이의 교류망 형성 정책이 우선시된다는 것이다.²⁹ 이 외에 쌀 품종 면에서도 남베트남, 버마, 방글라데시는 천수답이 아니기에 모내기가 불필요하여 일본 모내기법을 적용할 수 없고, 치수 면에서도 인도 갠지스강이나 중국의 강은 불가능하여 일본식 관개 기술을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³⁰ 민족 간 종교나 경제 개념 차이 역시 아시아 경제개발 정책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³¹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독립 초기 아시아 나라들이 농업국임에도 고도의 공업화를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경제개발 계획에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우선 자기 단계에 맞는 농업과 경공업을 개발한 후 고차의 산업으로 이동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³² 이는 각 나라가 저마다의 조건과 상황, 자기의 발전 단계에 맞게 산업을 개발 육성함으로써 1차 산업부터 고차산업까지 고르게 발달한 사업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그의 전쟁기 광역경제론과 유사한 주장이었다.

이상과 같이 도바타는 아시아를 저마다의 개성을 지닌 나라들의 집합으로 보고, 자기의 특성에 맞는 경제개발을 자조적인 방법으로 이루기를 호소했다. 자조적 방법으로는 자체적인 혁신 세력, 즉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철저한 내정개혁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본의 역할은 무엇인가? 도바타는 일본의 원조가 아시아의 자조적 국조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서방과는 달리 아시아를 ‘중속상태’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차이의 근원을 도바타는 ‘현지주의’에서 찾았다. ‘현지주의’란 그가 아시아경제연구소의 기본 방침으로 삼은 연구기조로서, ‘아시아를 일본식 사고 틀로 판단하지 않고 직접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고 그 나라에 발을 딛

29 東畑精一, 1974, 「巨大国家と多島国家」, 『中央公論』 89卷 12号, 56~57쪽.

30 東畑精一·小倉武一, 1976, 앞의 글, 161~163쪽.

31 東畑精一·小倉武一, 1976, 위의 글, 152~156쪽; 東畑精一, 1963, 앞의 책, 19, 42쪽.

32 東畑精一, 1963, 위의 책, 4, 14, 40~41쪽.

고 살면서 현지 이익 중심의 연구'를 하는 것이었다.³³ 그는 현지주의에 기반한 일본식 원조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단연 우수하리라고 생각했다. 일례로 그는 미국 케네디 정부의 평화봉사단 정책에 대하여 그것이 일견 현지주의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실상은 '추한 미국인'의 전형성, 즉 '미국식 원조의 혐오스러움'을 없애려는 노력이라며 미국 원조는 대부분 아시아 현지 사정과 특수성을 모르는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며 단발성이었다고 다시 상기시켰다.³⁴ 그는 오직 일본만 아시아의 자조적 국조를 위한다고 생각했다.³⁵

3. 진보론

도바타가 일본을 아시아의 자조적 국조를 돕는 최적의 조연자로 상징³⁶한 데에

33 加用信文·久我通武·深澤八郎·滝川勉·小島麗逸, 木村哲三郎, 1984, 앞의 글, 64쪽.

34 東畑精一, 1963, 앞의 책, 16~17쪽. '추한 미국인'은 당시 미국 베스트셀러 정치풍자 소설이었던 William J. Lederer and Eugene Burdick, 1958, *The Ugly American*, Norton에서 비롯된 말로서, 해외 원조에 나선 미국인들이 현지에서 보이는 태도가 자기중심적임을 비판하는 말이다.

35 '미국을 넘어선다', 또는 넘어셔야 한다는 생각은 도바타의 전쟁기에 대한 회고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필리핀 조사단 시절 미국의 필리핀 조사 보고서에 뒤지지 않는 보고서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집필했음을 이야기했다. 東畑精一·中村尚司解説·末廣明, 1984, 『戦争期の回想-『私の履歴書』補遺』, 『アジア経済』25卷5・6号, 26쪽.

36 도바타의 바람과는 달리, 정작 일본은 아시아 나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1960년대 일본의 개발원조, 경제협력 방식은 국제사회에서 '상업주의'로 크게 비판받았다. 도바타는 이러한 일본의 국익만을 앞세운다는 지적을 의식했는지, 일본 원조 방향에 관해 '제3의 왜구론'을 펼치기도 했다. 이는 근세부터 근대까지 일본은 외국 진출 시 '왜구', 즉 약탈자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전후 원조 시에는 그 이미지를 벗어나자는 호소였다. 그는 제1의 왜구를 임진왜란기, 제2의 왜구를 제국일본기, 제3의 왜구를 전후 원조기로 규정하고, 제2기까지는 외국 또는 식민지에 무언가 유산을 남기는 바가 전혀 없었는데, 제3기는 현지 이익 중심의 개발을 통해 일본이 도와준 데 대해 피원조국에게 인정받고 일본의 도움을 길이 남길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유산을 남긴 예로 영국의 식민주의를 들며,

는 일본은 이미 자조적 국조를 달성한 바 있다는 일종의 진보론적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도바타는 전후 아시아 신흥국가와 메이지 일본의 비교를 즐겼다. 똑같은 ‘국조’ 상황에서 메이지 일본은 자조적 국조에 성공했고, 전후 아시아는 미숙하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상술하자면, 도바타는 전후 아시아가 1868년의 일본처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상황으로, 배외주의의 발흥, 반정부세력에 대한 국가의 대대적인 진압, 구체제와 신체제의 조우, 전근대적 구지배 세력과 근대적 마인드의 신개혁 세력의 충돌, 신개혁 세력의 중국적 승리, 적극적인 공업화와 산업화를 겪고 있다고 했다.³⁷ 하지만 그는 메이지 일본은 외국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자조적으로 근대 국가를 세운 반면, 전후 아시아는 외국 원조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그의 비교에 따르면, 메이지 일본은 전후 아시아가 좇을 모범 사례가 된다.

그렇다면 도바타는 ‘현재’ 아시아의 자조적 국조를 논하면서 왜 ‘과거’ 메이지 일본을 언급한 것일까? 분명한 것은 그가 아시아에 메이지 일본의 노후우를 전수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도바타는 흥미롭게도 메이지 일본은 원조 없이 국조를 이뤘다 선언할 뿐, ‘어떻게’ 자조적 국조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 방법에 관해서는 논하는 바가 없다. 그 이유는 아마도 메이지기의 국조 방법이 그가 주장해온 국조 방법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그는 아시아의 자조적 국조를 위한 방법으로 ‘철저한 내정개혁’을 통한 ‘기업가 육성’을 역설했다. 그런데 정작 메이지 일본은 여기에 적합한 사례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메이지 일본은 지주제가 혁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었

영국이 식민지 시기 동안 인도의 자체 발전을 위해 자체 인재 양성에 힘썼기 때문에, 독립 후 인도에는 영국식 유산인 문관제도 및 영국의 옛 지배를 상징하는 기념비들이 남아 있다고 소개했다. 東畑精一, 1963, 앞의 책, 36쪽. 물론 인도의 탈식민화 과정이 영국 측의 ‘세심한 준비’ 덕분에 폭력 없이 순조로웠다는 도바타의 주장은 이후 세대에 반박되고 있다. 와다 하루키 외 지음, 한철호 외 옮김, 2014, 『동아시아근현대통사』, 책과함께, 330~332쪽.

37 東畑精一, 1963, 위의 책, 2~4, 41, 46쪽.

고, 원조를 받은 일은 없었지만 대신 제국주의 전쟁 결과인 배상금으로 공업화·산업화의 자본을 마련했다.³⁸ 즉, 메이지 일본의 경우는 그가 전후 아시아에 제시한 내정개혁의 내용에 맞지 않을 뿐더러 제국주의 전쟁 같은 경우는 아시아가 따라 할 리 없는 ‘자조’의 방법이였다.

이와 같은 메이지 일본과 전후 아시아에 대한 도바타의 비역사적이고 자의적인 단순 비교는 일부 아시아 인사로부터 분노를 사기도 했다. 도바타는 1958년 배상 협정 논의를 위해 아시아를 순방하던 중 인도 총리 네루를 만난 자리에서, 전후 아시아는 메이지 일본의 경우처럼 원조에 기대지 않고 자력으로 국가를 만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직언’한 적이 있는데, 이때 네루가 매우 ‘언짢아’하면서 담화가 한동안 끊겼다. 이 일에 대해 도바타는 회고하기를, 당시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사적 ‘사실’을 말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며 여전히 자신의 판단을 옹호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사가인 네루조차도 이렇게 ‘사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당시 아시아가 얼마나 대외원조를 당연시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까지 했다.³⁹ 실제로 그는 일본 내에서 아시아 개발을 논하는 자리라면 어김없이 이 네루와의 일화를 언급하며 ‘원조에 기대는 아시아의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네루의 입장에서는 같은 사안을 전혀 다르게 바라봤을 것이다. 네루에게는 일본의 대아시아 원조 문제란 일본의 제국주의적 폭력 행위에 대해 아시아가 배상을 받는 정당한 권리의 문제로, 이를 자조 의지가 결핍된 후진 문명의 문제 정도로 치부하는 도바타의 인식이 오히려 본질을 크게 호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38 청일전쟁 후 받은 배상금으로 철도와 전신전화망을 확충하고, 일본 최초의 제철소인 이와타 제철소(신일본제철의 전신)가 세워져 그때까지 90퍼센트 이상의 철을 수입에 의존하던 일본이 그 수입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피터 두우스 지음, 김용덕 옮김, 1989, 『일본근대사』, 지식산업사, 155~156쪽.

39 東畑精一, 1963, 앞의 책, 16쪽; 東畑精一, 1972, 앞의 글, 15쪽. 이 일에 대해 도바타는 1960년대 초에는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며 본인의 외교적 무신경을 탓하는 반면, 1970년대는 과감하게 네루의 태도를 문제시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요컨대, 도바타는 ‘원조 없는 자조적 국조’라는 목표를 향한 발전 도상에서 1868년 메이지 일본과 1945년 전후 아시아가 시간적인 선후 관계에 있다고 상정했다. 이러한 발상은 전후 아시아에 메이지 일본의 성공방식을 알려주어 이들의 자조적 국조를 돕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본 원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일본 국내에서조차 일본을 중진국으로 간주하는 때로서,⁴⁰ 일본이 후진국 아시아를 상대로 원조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메이지 일본이 전후 아시아보다 ‘원조 없는 국조’라는 기준을 먼저 달성했었다는 도바타의 발상은 이 일종의 자격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이제 일본은 아시아 나라들이 국조 시에 맞닥뜨리는 위기를 이미 겪은 바 있는, 더욱이 이를 극복해 ‘자조적 국조’에 ‘성공’한 나라로서, 약 70년 먼저 경험한 이 업적에 기초하여 현재의 아시아 나라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해당 목표로 이끌 존재로 제시될 수 있었다.

이러한 진보론적 시각은 도바타의 아시아개발론 전체를 흐르는 일관된 논조였다. 그는 당대 아시아 경제개발계획 추진과 산업화가 ‘과도한 민족주의’, ‘조급한 민주화’, ‘성급한 공업화’라는 문제점을 갖는다고 주장했다.⁴¹ 그는 단언하기를, 아시아 나라는 외국인이나 외국 자본을 지나치게 배격하거나 문맹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보통 선거를 하는 등 ‘조급하고, 준비 없이, 일거에, 일의 순서가 전도된 식으로 뛰어드는’ 행태를 보이며, 농업국인데도 선진국들의 고도공업화를 단번에 이루려고 자기의 조건, 일의 단계, 순서를 무시한 채 ‘모두 뛰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학생이 일거에 대학생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비유를 통해 단계론적 진보관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⁴² 즉, 아시아는 자기 발전 단계와 수준에 맞지 않는 단순 속도전으로 산업화를 추진하고

40 佐藤仁, 2012, 앞의 글, 2장.

41 東畑精一, 1963, 앞의 책, 2~4쪽.

42 東畑精一, 1963, 위의 책, 4쪽, 10~12쪽, 40~41쪽.

있다는 것이었다. 도바타의 눈에는 아시아가 자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수준을 알려주고 다음 단계들로 효과적으로 이끌어 올려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종의 ‘역사의 대기실’에 있는 상태로 보였다.⁴³

4. 일본 지도론

이렇게 도바타의 진보론은 자연스럽게 일본 지도론으로 연결되었다. 아시아가 혼자 힘으로는 자조적 국조에 다다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그는 이를 아시아 순방 중에 만난 한 아프가니스탄 정부 인사의 말을 빌려 확증하고자 했다.

(일본은) 신흥국의 경제계획 그 자체가 자생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원조를 해야 할 것이다. 일찍이 아프가니스탄 기획원 총재 대리가 내게 했던 말, “우리나라에 가장 부족한 것은, 경제원조가 아니라 경제 기획 입안자”라던 말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다.⁴⁴

위의 인용에서 보듯, 도바타는 대아시아 원조에서 일본의 역할이 반드시 ‘경제 기획 입안자’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일본이 아시아에 물질적 제공자로서 금전적 자본을 공급하기보다는 인적자본, 즉 지식,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아시아 각국의 경제계획 수립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바람직한 일본 원조의 형태로 인적 능력, 이를테면 경영, 기술, 기획력, 조언 등의 제공과 아시아 나라와의 공동출자나 능력 합동으로 하는 합작(合弁/合辦) 등을 꼽았다. 당시 EEC 성립 이후 회자되던 아시아 공동체나 공동시장의

43 ‘상상 속 역사의 대기실(the imaginary waiting room of history)’ 개념은 Dipesh Chakrabarty, 2000, *Provincializing Europe: Postcolonial Thought and Historical Difference*, N.J.: Princeton, pp. 8~10 참조.

44 東畑精一, 1963, 앞의 책, 17쪽.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못 박고, 그보다는 아시아 나라들과 장기 계획을 통합하는 수준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⁵ 아시아경제권 형성보다 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을 통한 전체적인 지역 성장에 그가 더 큰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전반적인 국제분업보다는 각 개별 국가의 상황과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한 발전 지원, 그리고 일본과 아시아 개별 국가 간의 일대일 식 장기 경제계획의 통합을 꿈꿨다.⁴⁶ 이는 당시 유행하던 미국식 근대화론보다 덜 획일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⁴⁷

도바타가 일본을 ‘경제 기획 입안자’로 상정한 데에는 일본 자신이 전후 경제 재건 중으로 미국만큼 부유하지 않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지만,⁴⁸ 그보다

45 東畑精一, 1963, 위의 책, 19~20쪽, 시기상조라고 말한 데에는 물론 빈약한 일본 재정의 현실도 있었지만, 일본에 대해 아시아 나라들의 부정적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1955년 반동회의에서 일본은 한마디도 제대로 발언하지 못할 정도의 위치였는데, 아시아 나라들은 제국 일본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일본과 경제권을 형성하는 데 회의적이었다. Jessamyn Abel, 2015, *The International Minimum: Creativity and Contradiction in Japan's Global Engagement, 1933-1964*, University of Hawai'i Press, Ch. 8.

46 東畑精一, 1963, 위의 책, 20쪽, 25~27쪽.

47 예를 들어 월트 로스토프(Walt Rostow)류의 미국의 근대화론의 경우, 모든 국가가 미국식의 근대화 경로를 따라야 한다고 단선적인 근대화 경로를 주장하는 데 반해, 도바타는 아시아 모두가 일본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다만 ‘자조적 국조’라는 그가 상정한 근대 국가 건설의 이상향을 일본이 아시아 나라들보다 미리 달성했다고 전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을 아시아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격으로 위치시켰다. 도바타의 근대화론은 이타가키 요이치와 같이 기본적으로 아시아 개발에서 아시아의 특수성, 특히 아시아의 내셔널리즘에 대한 고려를 강조했다. 이타가키는 전시 중에 동남아시아 개발 현지 조사팀으로 파견되어, 인도네시아 경제개발을 연구할 때 민족주의를 발전의 주요 조건으로 삼았다. 전후 그는 아시아에 여전히 뿌리내리고 있는 ‘식민지주의적 자본주의’로부터 오는 정체를 타파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 내셔널리즘에 근거한 국유화 정책, 토지개혁, 공영화 등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이타가키 저작과 생애에 대한 연구는, 辛島理人, 2015, 앞의 책; 이타가키의 후진국의 경제발전 및 민족주의 연구에 대한 도바타의 전면적인 신뢰는 東畑精一, 1963, 위의 책, 7쪽.

48 東畑精一, 1963, 위의 책, 19쪽.

더 중요하게는 그가 전쟁기 때부터 세워온 아시아개발이론의 내적 논리 때문이기도 했다. 도바타의 전후 ‘경제 기획 입안자’론은 그의 전쟁기 광역경제 주장에서의 ‘중핵국’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다. 전쟁기 중핵국론 역시 일본을 물적 제공자가 아닌 경제계획 입안자 또는 지도자로 규정했던 것으로, ‘지역별 지도 시스템을 통한 개발’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중핵국 일본이 제국 내 ‘나라’들에게 각각의 수준과 단계에 맞는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이들 각자가 본국에 의존하는 일 없이 균형적 산업 발전을 이루고 개별 국민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구상이었다.⁴⁹

또한 전후 경제 기획 입안자론은 일본과 아시아 국가 간에 명백한 위계 관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중핵국론의 계승이자 확장이었다. 전쟁기부터 전후까지 그의 개발 논리 속에서 일본은 항상 경제개발 기획자, 계획자, 지도자였고, 아시아는 일본을 따르는 피지도국이었다. 그가 전후에 말하는 일본과 아시아의 파트너 관계, 즉 서로의 경제계획을 일대일로 조정하고 통합하는 관계는 사실 아시아를 일본과 대등한 위치로 본 것이 전혀 아니었다. 그에게 아시아 정부는 일본을 돕는 일종의 조력자이고, 지도자는 한결같이 일본이었다.

이러한 성격은 도바타의 아시아 정부에 대한 묘사를 들여다보면 분명해진다. 그는 경제계획 입안 파트너로서 아시아의 쿠데타 정부를 특히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들을 ‘식민 본국에서 근대적인 교양을 몸에 익힌’⁵⁰ 자라고 소개한 후, ‘(현재) 전근대적 유산을 타파하는 신개혁 세력’으로 ‘합리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안정적으로 실행하며 경제성장을 이끄는 자’라고 설명했다. 즉, 그에게 아시아의 쿠데타 정부 지도자들은 스펀터식 ‘기업가’들, 즉 경제발전을 이끄는 이들이었고, 이들의 ‘창조성’은 바로 식민지기 식민 본국으로부터 온 것

49 이러한 광역경제 시스템은 식민지나 점령지에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지원하는 일은 없었고 오히려 자원만 공수할 뿐이었다. 결국 도바타가 “분할통치를 통한 착취적 형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서양제국주의 세력의 단장경영 체제와 다를 바 없었다. 엄소정, 2019, 앞의 글, 125쪽.

50 東畑精一, 1963, 앞의 책, 6쪽.

이었다. 결국 일본과 파트너십을 이루는 아시아 신흥국 정부는 이미 ‘일본’(또는 식민 본국 일반)의 특징을 지닌 존재로서, 일본 그 자체, 대리자 또는 하수인 격으로 상정된 존재였다. 이처럼 도바타는 전후에도 아시아 각국 정부의 자율적 지도력을 인정하기보다 일본만이 유일한 지도자라는 식의 논리를 구사했고 이는 전쟁기 중핵국 논리와 다름없는 것이었다.⁵¹

이러한 논리 속에서 아시아 쿠데타 정부들의 개발독재 역시 도바타에게는 긍정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의 반정부세력 탄압은 도바타가 봤을 때 경제 발전을 위한 여건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전쟁기 도바타는 슈페터식 경제발전 논리를 정리하면서 경제발전, 즉 ‘창조’는 기업가의 ‘혁신’으로 일어나는데, 이 혁신이 일어날 수 있으려면 소위 ‘여건 정책(Datenpolitik)’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건 정책의 예로는 ‘자연 치안’과 ‘사회 치안’을 들었고, 전자는 백신처럼 열대 풍토병을 저지하는 공중 보건 위생 정책 등 자연을 안정시키는 정책, 후자는 사상 통제, 언론통제, 문화정책, 군사정책과 같이 사회를 ‘안정’시키는 질서 유지 정책이라고 제시했다. 이상의 논리로 전후 아시아 쿠데타 정부의 독재는 도바타에게 일종의 ‘사회 치안’의 성공으로 비친 것이다.⁵²

요컨대, 도바타의 전후 아시아개발론은 전쟁기 광역경제론의 ‘지도자 일본’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광역경제에서는 일본이 제국 전체를 관장하는 유일한 지도자였다면, 전후 세계에서는 아시아에 신흥독립국 쿠데타 정부라는 ‘식민 본국의 교양, 문화의 담지자’인 일종의 일본 대리자를 두고 이들과 함께 아시아의 경제개발을 이뤄간다는 주장이었다.

51 도바타는 전쟁기 광역경제 논의에서 제국 일본만 기업가이고 일본제국 내 식민지, 점령지 민족들은 기업가, 즉 중핵국 또는 지도국이 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엄소정, 2019, 앞의 글, 118쪽.

52 엄소정, 2019, 위의 글, 117쪽.

IV. 맺음말

냉전기 일본 사회는 대아시아 배상 협정 과정을 거치며 배상을 개발, 원조, 경제 협력과 동일시하는 현상을 겪었다. 배상에 대한 논의는 개발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었고, 여기에는 도바타와 같은 아시아 개발론자들의 역할이 컸다. 도바타는 배상을 투자로 치환하여 개발, 원조, 경제협력의 한 종류로 재규정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개발 목표를 ‘원조 없는 자조’를 통한 ‘근대 국가 만들기’로 상정하고, 이 목표를 이미 일본은 메이지 시기에 달성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자국의 지도적인 역할을 정당화했다. 그의 전후 아시아개발론은 개별 국민경제를 인정하면서 상대적으로 국제분업을 덜 강조하는 입장이었지만, 논리 면에서 그가 전쟁기에 펼쳤던 대동아공영권 주장의 재판이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의 자조를 향한 자율적 경제공동체, 국민경제 설립, 경제계획 입안자이자 지도자인 일본이라는 구상들은 대동아공영권의 경제 버전인 광역경제 논의와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사실 도바타는 전후 아시아 개발이 전쟁기 아시아 개발의 연장이자 완성형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일본의 개발원조가 나아갈 바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식민, 식민지 경영에는 ...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지배·착취·억압이고, 다른 하나는 중주국 대 피지배국의 관계가 아닌, 한층 인류적인 입장에 서는 것이다. 개척이랄까, 개척자 정신이랄까, 후진국 민의 교육 같은 것은 후자의 범주에 속하지만, 전자는 바로 그 평판 나쁜 ‘식민지주의’다. 식민지 영유의 수백 년간, 아프리카 분할의 일 세기 동안 세력을 떨친 것은 오히려 식민지주의였다. 신흥의 후진 독립국의 상당수는 이 주의에 시달린 후에, 성급하고 과도한 민주화, 공업화, 민족주의로 쏠리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 선진국들은 과거의 오랜 식민지주의 덕분에 자신의 부를 이루어 나라를 구축했지만, 국면은 일대 전환하여 과거 소행의 뒤처리며 그 쓴 과실을 먹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몇십 년, 후진

국 문제는 세계의 고민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후진국 개발정책은 새로운 치장을 한 구식민지주의의 변형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⁵³ (강조는 원저자)

여기서 도바타는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 식민지 경영’은 착취와 개발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가졌지만, 전후의 후진국 원조는 오직 개발의 성격만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전쟁기 개발 논리가 전후의 바뀐 상황 속에서는 착취 없는 개발의 논리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섞인 말이었다. 이 주장을 그 자신의 경우에 적용한다면, 광역경제는 식민지주의가 팽배한 전쟁기에는 착취를 동반하기도 했지만, 전후에는 그러한 ‘나쁜’ 면 없이 드디어 본래의 취지인 개발만, 즉 ‘인류적’인 개척, 개척자 정신을 구현하는 방향으로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결국 도바타의 전후 아시아개발론은 대동아공영권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연장한 것이었고, 특히 그 지도론으로 인해 전쟁 책임과 배상 문제를 희석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의 사상적 궤적 속에서는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가 오직 순수 경제 관계로 치환되었고, 일본은 식민·전쟁기와 전후라는 근현대 전체 시기를 걸쳐 아시아에 ‘개발’이라는 근대적 ‘발전’을 가져다준 시혜적 존재이거나 그들의 전범(典範)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식민·전쟁기와 전후는 아시아 지역 개발의 완성을 향해 가는 긴 여정의 한 지점들로 간주되었고, 식민·전쟁기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착취는 발전단계상 미숙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시적인, 하나의 과도기적인 것이 될 뿐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 속에서는 식민과 전쟁이 사죄하고 배상할 일이 아닌 개발의 완성을 향हे가는 일련의 꾸준한 전진이 되는 것이었다.

전후 일본 사회 속 식민지근대화론의 서사는 이와 같은 냉전기 배상 협정을 둘러싸고 전개된 전후 일본의 아시아개발론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전후 아시아개발론은 전쟁기 제국개발론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쓰는 가운데 전쟁

53 東畑精一, 1963, 앞의 책, 36~37쪽.

기를 ‘배상할 일 없는 개발의 시대’로만 그리게 되었다. 이처럼 배상이 개발원
조로 전환된 논리 구조 속에서는 식민지 배상 문제가 적절한 위치를 찾기는 어
려웠다.⁵⁴

54 역사인식문제의 기원을 따질 때, 아사노 도요미(淺野豊美) 등은 일본 사회 내 식민
지 배상 책임에 대한 거부감이 일었던 1940년대 말 인양과 역청구권 문제로 불거진
감정 문제를 중요시한다. 하지만 필자는 그러한 감정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여 한
층 광범위하고 지속력 있게 만든 것에 더욱 주목하며, 이는 1950년대, 1960년대 배
상 협정기 동안 만들어진 아시아개발론자들의 언설들, 즉 전쟁기와 전후를 개발을
향한 단선적 여정에 위치시킨 서술이었다고 본다. 일례로 아마키 나오토(天木直
人) 일본 외무성 인사는 한 인터뷰에서 한일협정 당시 일본 측 분위기를 전하며 다
음과 같이 말했다. “1969년 외무성에 들어가 한국 경제원조 업무를 맡았을 때, 당시
‘원조’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배상’이라고 해야 맞(았)다. 되짚어 보면 그때부터 외
무성은 침략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았다.” 즉 외무성은 배상을 원조로 부른 시기,
즉 배상 협정을 거치며 이전 식민지 나라들에 사죄할 일이 없다는 역사 인식을 정립
하게 되었다는 증언이다. 필자는 이 현상을 패전 직후의 배상에 대한 감정적 거부감
이 배상협정기 아시아개발론자들의 언설 속에서 ‘논리적인’ 정당화 근거를 찾아 강
화되고 고착된 것이라고 분석하겠다. 淺野豊美 編著, 2013, 앞의 책, 서론; 박형
준, 「일본인들, 귀무덤의 역사 알면 한국에 사죄할 것」, 『동아일보』, 2021.10.26.

참고문헌

자료

- 東畑精一, 1940, 「植民現象の本質」, 『経済学論集』, 10卷 8号.
- _____, 1943, 「逆植民」, 『上田貞次郎博士記念論文集』 第4卷, 科学主義工業社.
- _____, 1963, 『アジア諸国の諸問題』, 民主教育協会.
- _____, 1964, 「韓国農業の振興のために」, 『親和』 131号.
- _____, 1967, 「アジアと日本」, 『中経速報』 64号.
- _____, 1972, 「後進国援助の一つの感想」, 『海外技術協力』 217号.
- _____, 1974, 「巨大国家と多島国家」, 『中央公論』 89卷 12号.
- _____. 小倉武一, 1976, 「アジアを語る」, 『アジア経済』 17卷 1・2号.
- _____, 1976, 「アジアの中の日本」, 『アジア』 111号, アジア評論社.
- _____, 1979, 『私の履歴書』, 日本経済新聞社.
- 東畑精一·中村尚司 解説·末廣明, 1984, 「戦争期の回想-『私の履歴書』補遺」, 『アジア経済』 25卷 5・6号.
- 加用信文·久我通武·深澤八郎·滝川勉·小島麗逸·木村哲三郎, 1984, 「(座談会) 途上国研究者への道標-東畑精一を偲ぶ」, 『アジア経済』 25卷 5・6号.
- 山本登, 1957, 「アジア政経学会記事: 賠償と経済協力」, 『アジア研究』 3卷 2号.
- _____, 1965, 「日本の海外経済協力の現状と展望」, 『アジア研究』 11卷 4号.
- シュンペーター 著, 東畑精一·中山伊知郎 共訳, 1937, 『経済発展の理論』, 岩波書店.

단행본

- 박준형, 2022,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공간 재편과 만철조사부: 권력·공간·학문의 삼중주』, 사회평론 아카데미.
- 와다 하루키 외 지음, 한철호 외 옮김, 2014, 『동아시아근현대통사』, 책과함께.
- 허영란, 2022, 『남양과 식민주의: 일본 제국주의의 남진과 대동아공영권』, 사회평론 아카데미.

故東畑精一先生合同葬実行委員会 編, 1984, 『東畑精一先生の足跡』, 故東畑精一先生合同葬実行委員会.

小林英夫, 1983, 『戦後日本資本主義と「東アジア経済圏」』, 御茶の水書房.

辛島理人, 2015, 『帝国日本のアジア研究: 総力戦体制・経済リアリズム・民主社会主義』, 明石書店.

浅野豊美[編]著, 2013, 『戦後日本の賠償問題と東アジア地域再編: 請求權と歴史認識問題の起源』, 慈学社出版.

Abel, Jessamyn R., 2015, *The International Minimum: Creativity and Contradiction in Japan's Global Engagement, 1933-1964*, University of Hawai'i Press.

Chakrabarty, Dipesh, 2000, *Provincializing Europe: Postcolonial Thought and Historical Difference*, Princeton, N.J.

Lancaster, Carol, 2007, *Foreign Aid: Diplomacy, Development, Domestic Polit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ederer, William J. and Eugene Burdick, 1958, *The Ugly American*, Norton.

Metzler, Mark, 2013, *Capital as Will and Imagination: Schumpeter's Guide to the Postwar Japanese Miracle*, Cornell University Press.

논문

박양신, 2017, 「대동아공영권의 건설과 식민정책학」, 『일본연구』 28호.

_____, 2021, 「근대 일본 식민정책학의 전후(戰後) - 아시아 연구의 관전사(貫戰史)」, 『日本學』 53호.

엄소정, 2019, 「도바타 세이이치(東畑精一)와 제국 일본의 식민정책학」, 『일본역사연구』 49호.

이원덕, 1996, 「한일회담과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한국과 국제정치』 12권 1호.

_____, 2005, 「한일회담에서 나타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인식」, 『한국사연구』 131호.

_____, 2007,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연구: 대 아시아 전후 배상정책의 구조와 함의」, 『日本學研究』 22호.

임채성, 2007, 「전후 일본경제와 동아시아 경제권의 재편(1951-65년)」, 『국제지역연

구』 11권 1호.

홍중욱, 2017, 「일본 지식인의 근대화론 비판과 민중의 발견」, 『사학연구』 125호.

宮下明聡, 2004, 「日本の援助政策とアメリカ-外圧反応型国家論の一考察-」, 『レヴァイアサン』 34号.

金雄基, 2010, 「日本の役務賠償による賠償外交とアジア市場への再進出」, 『일본학보』 82호.

末廣昭, 2005, 「アジア調査の系譜-満鉄調査部からアジア経済研究所へ-」, 末廣昭編, 『帝国日本の学知 第6巻 地域研究としてのアジア』, 岩波書店.

武藤秀太郎, 2024, 「アジア研究の過去と未来」, 『アジア研究』 70巻 1号.

美濃口武雄, 1999, 「東畑精一と日本の農業」, 池尾愛子編, 『日本の経済学と経済学者-一戦後の研究環境と政策形成-』, 日本評論.

西川博史, 1995, 「東アジア経済圏と日本の貿易」, 『日本経済と東アジア: 戦時と戦後の経済史』, ミネルヴァ書房.

盛田良治, 2001, 「日本社会科学と植民地アジア」, 大阪大学博士論文.

植田捷雄, 1964, 「はしがき」, 『アジア研究』 11巻 1号.

辛島理人, 2015, 「アジ研図書館はなぜどのように誕生したのか」(アジ研図書館を使い倒す 第29回), 『アジ研ワールド・トレンド』 236号 (日本貿易振興機構アジア経済研究所 IDE-JETRO).

原朗, 1984, 「賠償-終戦処理」, 大蔵省財政史室編, 『昭和財政史: 終戦から講話まで 第1巻 総説/賠償-終戦処理』, 東洋経済新報社.

_____, 1993, 「戦争賠償問題とアジア」, 『アジアの冷戦と脱植民地化』, 岩波書店.

篠崎尚夫, 2008, 「東畑精一の経済思想: 協同組合, 企業者, そして地域」, 日本経済評論社.

佐藤仁, 2012, 「戦後日本の対外経済協力と国内事情: 原料確保をめぐる国内政策と対外政策の連続と断絶」, 『アジア経済』 53巻 4号.

竹原憲雄, 2001a, 「戦後賠償・経済協力と政府開発援助(1)」, 『桃山学院大学経済経営論集』 42巻 4号.

_____, 2001b, 「戦後賠償・経済協力と政府開発援助(2・完)」, 『桃山学院大学経済経営論集』 43巻 1号.

- 中野聡, 2002, 「賠償と経済協力-日本・東南アジア関係の再形成」, 池端雪浦 編, 『岩波講座東南アジア史』8巻, 岩波書店.
- 中村隆英, 1982, 「日米経済協力関係の形成」, 近代日本研究会編, 『年報・近代日本研究Ⅳ 太平洋戦争: 開戦から講話まで』, 山川出版社.
- 後藤健太, 2024, 「戦後アジアの経済発展と日本のアジア経済研究」, 『アジア研究』70巻 1号.
- Macekura, Stephen, 2023, “The Consultant Complex: Management Consultants, Global Development, and the History of U.S. Foreign Relations,” 『발전을 다시 생각하다II』 학술대회 발표,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연구 교육 역량 강화 사업단.
- _____, 2013, “The Point Four Program and U.S.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28, no. 1.
- Moore, S. Aaron, 2021, 「Interrogating ‘Comprehensive Development’: The Colonial-Wartime Background to Japan’s Development Cooperation」, 『國際開發研究』30巻 1号.
- Yagi, Kiichirō, 2004, “Japanese Theory of Industrialization/Modernization between Liberalism and Developmentalism,” Werner Pascha ed., *Systematic Change in the Japanese and German Economies: Convergence and Differentiation as a Dual Challenge*, Routledge Curzon.

기타

- 박형준, 「일본인들, 귀무덤의 역사 알면 한국에 사죄할 것」, 『동아일보』, 2021.10.26.
<https://www.donga.com/news/People/article/all/20211026/109906992/1>

도바타 세이이치(東畑精一)의 전후 아시아개발론

— 배상에서 개발원조로 —

엄소정

냉전기 일본 사회는 아시아 배상 협정 과정을 거치며 배상을 개발, 원조, 경제협력과 동일시하는 현상을 겪었다. 본고는 이 배상론이 개발원조론으로 전환되는 논리를 밝히기 위해 아시아경제연구소 초대 소장인 경제학자 도바타 세이이치의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전후 아시아개발론을 분석한다. 도바타는 배상을 투자로 환언하며 개발, 원조, 경제협력의 한 종류로 재구정했다. 이렇게 배상을 경제 행위로만 취급하는 시각은 그의 전쟁기 제국관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는 전쟁과 식민을 사죄하고 배상할 일이 아닌, ‘개발’의 완성을 위해 가는 긴 여정의 한 지점으로 치부했다.

도바타는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발전 목표를 ‘원조 없는 자조’를 통한 ‘근대 국가 만들기’로 상정하고 일본은 이 목표를 메이지 시기에 이미 달성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자국의 지도적인 역할을 정당화했다. 그의 전후 아시아개발론은 개별 국민경제를 인정하면서 상대적으로 국제분업을 덜 강조하는 입장이었지만, 논리 면에서 그가 전쟁기에 펼쳤던 대동아공영권 주장의 재판이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의 자조를 향한 자율적 경제공동체, 국민경

제, 계획 입안자이자 지도자 일본은 광역경제의 논의와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대동아공영권의 논리가 그대로 연장된 전후 아시아개발론은 특히 그 지도론으로 인해 전쟁 책임과 배상 문제를 희석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는 오직 순수 경제 관계로 치환되었고, 일본은 근현대 전체 시기 동안 아시아에 ‘개발’이라는 근대적 ‘발전’을 가져다준 시혜적 존재이거나 그들의 전범(典範)으로 제시되었다. 전후 일본 사회 속 식민지근대화론의 서사는 이와 같은 냉전기 배상 협정을 둘러싸고 전개된 전후 일본의 아시아개발론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전후 아시아개발론은 전쟁기 제국개발론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쓰는 가운데 전쟁기를 ‘배상할 일 없는 개발의 시대’로만 그리게 되었다. 이처럼 배상이 개발원조로 전환된 논리 구조 속에서는 식민지 배상 문제가 적절한 위치를 찾기는 어려웠다.

주제어: 도바타세이이치, 아시아개발론, 배상, 개발원조, 경제협력, 역사인식

ABSTRACT

Tobata Seiichi's Vision for the Development of Postwar Asia: From Reparations to Development Assistance

Um Sojung

During the Cold War, Japanese society experienced a phenomenon in which reparations were equated with development, aid, and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the process of negotiating Asian reparation agreements. This paper analyzes the postwar Asian development theory of Tobata Seiichi, an economist and the first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from the 1960s to the 1970s, in order to elucidate the logic behind the transformation of the theory of reparations into a theory of development assistance. Tobata redefined reparations as a form of investment, positioning them as one component of economic cooperation alongsi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His perspective of treating reparations solely as an economic activity stemmed from his views of empire formed during the wartime period. He regarded reparations not as

something to apologize or atone for, but as a milestone on the long journey toward the completion of “development.”

Tobata envisioned the economic development goals of Asia’s emerging nations as the creation of a “modern state through self-help without aid,” and argued that Japan had already achieved this goal during the Meiji period, thus justifying Japan’s leadership role over Asian countries. Although his postwar theory of Asian development acknowledged the existence of individual national economies and relatively downplayed the emphasis on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t was, in its logic, a rehash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argument that he advocated during the war. The concept of a self-reliant economic community for the “have-nots,” with Japan as the planner and leader of national economies, was essentially no different from discussions on the Grand Regional Economy.

This postwar Asian development theory, with its extension of the logic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particularly due to its emphasis on leadership, had the effect of diluting Japan’s war responsibility and the issue of repar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Asia was reduced purely to economic terms, and Japan was portrayed either as a benevolent entity that brought modern “development” to Asia throughout the modern era or as a model to be followed. The narrative of colonial modernization in postwar Japanese society originated from this postwar Asian development theory, which was centered around Cold War reparation agreements. By borrowing the logic of wartime imperial development theories, the postwar period came to be depicted solely as an “era of

development without the need for reparations.” Within this logical structure, in which reparations were transformed into development aid, the issue of colonial reparations found little space.

Keywords: Tobata Seiichi, Idea of Developing Asia, Repar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Economic Cooperation, Historical Consciousness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 중국의 백두산 연구와 개발의 새로운 추세

배성준 | 동국대학교 인간과미래연구소 연구원

- I. 머리말
- II. 동북 지역개발의 전환과 '장백산문화론'의 쇠퇴
- III.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 동북지역의 지역개발과 문화산업의 새로운 추세
- IV. '양산' 이념의 형성과 실천
- V. '양산' 이념과 백두산 개발
- VI. 맺음말



I. 머리말

2000년 지린성 ‘장백산문화연구회’가 발족한 이래 중국의 백두산 연구와 개발을 규정해온 것은 ‘장백산문화-장백산문화산업-장백산 지역개발’이라는 체계였다. ‘동북진흥전략’ 추진과 더불어 설립된 장백산문화연구회와 ‘장백산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이하 장백산관리위)’가 제도적 틀이었고, ‘동북공정’을 통한 동북지역의 역사지리 연구도 장백산문화 연구가 태동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처럼 장백산문화 연구와 이를 문화산업에 적용한 장백산문화산업, 그리고 장백산관리위를 통한 백두산 지역개발이 맞물리면서 중국의 백두산 연구와 백두산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한국에는 ‘백두산공정’으로 불리는 ‘장백산문화론’과 백두산 개발이 ‘백두산 화산폭발’과 더불어 전국민의 관심을 끄는 이슈가 되었다.

그렇지만 ‘동북공정’이 끝나고 동북지역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중국의 백두산 연구와 개발을 규정해온 ‘장백산문화-장백산문화산업-장백산 지역개발’ 체계도 위기에 직면하였다. ‘장백산문화연구회’는 활동 소식이 전해진 지 오래되었고, 장백산문화 연구 또한 『중국장백산문화(中國長白山文化)』(2014) 발간으로 그간의 연구를 정리한 이후에는 별다른 연구 성과를 찾아볼 수 없다. ‘동북진흥전략’도 명맥을 잇고 있지만 경기 침체의 와중에서 ‘신동북진흥전략’의 모색 등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장백산 브랜드 개발에서 관광리조트와 테마파크 조성으로 확대되었던 문화산업 개발도 한계에 다다른 듯하다.

한편 중국에서는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을 계기로 지역개발의 새로운 모습과 이를 추동하는 이념이 나타나고 있다.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

* 투고: 2024년 10월 15일, 심사 완료: 2024년 11월 5일, 게재 확정: 2024년 11월 11일

** 이 글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임(NAHF-2023-기획연구-10).

건설을 내세운 첫 번째 백 년을 보내고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한 두 번째 백 년이 개시되는 시점에 제시된 국무원의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전례 없이 시진핑 주석과 당의 영도가 강조되고 중화 문화의 우수성이 강조되는 등 새로운 면모가 나타나고 있다. 백두산 지역에서는 2022년 들어 바이산시와 장백산관리위가 공동으로 시진핑의 생태문명 사상에 기반하여 새로운 방식의 지역개발에 착수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온다.¹ 이러한 국가의 기본계획에서 지역개발에 이르는 변화는 그동안 백두산 연구와 개발을 규정해온 기존의 체계가 시진핑의 생태문명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체계로 대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백산문화 연구와 백두산 지역개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장백산문화-장백산문화산업-장백산 지역개발’ 체계를 부분적으로 소개, 분석하는 데 치중되어 왔다. 장백산문화에 대해서는 조법중, 윤희탁 등의 연구가 있고,² 백두산 개발과 장백산문화산업에 대해서는 윤희탁, 문상명의 연구가 있다.³ 이들 연구는 장백산문화와 백두산 지역개발과 관련한 초기의 성과를 정리하였을 뿐 최근 백두산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2010년대 이후 변화하고 있는 동북진흥전략 등 지역개발과 장백산문화론의 양상을 살펴보고, 국무원과 지린성의 제14차 5개년 계획에 나타난 문화산업과 지역개발의 새로운 추세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출현한 시진핑의 생태문명 사상에 기반한 백두산 개발의 배경과 추진과정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1 「白山市与长白山保护开发区加深合作共建践行“两山”理念试验区第一次联席会议的召开」, 『中国日报』, 2022.4.28; 「加快建设践行“两山”理念试验区」, 『大长征』, 2023年 第3期

2 조법중, 2006, 「중국의 ‘장백산문화’론과 고구려」, 『백산학보』 76; 윤희탁, 2007, 「중국의 동북강역 인식 고찰-‘장백산문화론’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55.

3 윤희탁, 2018, 「중국의 ‘백두산공정’-장백산문화건설공정에 대한 시론-」, 『중국근현대사연구』 78; 문상명, 2022.6, 「중국의 ‘백두산공정’과 대응」, 『동북아역사논총』 76.

II. 동북 지역개발의 전환과 ‘장백산문화론’의 쇠퇴

1. 동북 지역개발 전략의 전환

2008년의 미국발 경제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중국경제는 2010년대 들어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의 고도성장기를 끝내고 ‘신창타이(新常態)’에 접어들게 되었고, 동북지역에서도 투자 부진과 수출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대폭 하락하자 성장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동북지역의 성장률 급락 원인으로 구조적·체계적 모순의 심화에 주목하고 동북지역의 안정적인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이 모색되었다.

동북지역의 경제성장과 지역개발을 규정하였던 기존의 지역발전 전략은 ‘동북진흥계획’이었다.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연해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북지역의 구조 개혁을 위하여 2003년 중공중앙과 국무원에서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대한 의견’이 발표되어 동북진흥전략 추진을 공식화하였고, 2007년 국무원과 중국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에서 동북진흥전략을 승인함으로써 동북진흥전략은 국가 차원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2009년 국무원은 ‘창지투(長吉圖) 개발·개방 선도구를 위한 중국 두만강 구역 합작개발계획’과 ‘랴오닝(遼寧) 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을 승인하여 동북진흥전략의 주요 지역개발사업으로 삼았다. 2012년에는 ‘동북진흥 12차 5개년 계획(東北振興‘十二五’規劃)’을 발표하여 동북진흥전략을 정부의 제12차 5개년 계획과 연동시켜 추진하였다.⁴ 동북진흥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동북지역의 경제는 성장세를 회복하였으며,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1인당 GDP

4 정보은, 2020, 「중국 동북진흥전략과 소수민족정책의 함의」, 『중국연구』 86, 213~214쪽; 유은하, 2022, 「중국 지역발전전략 성과에 관한 비교 연구-동북진흥과 중부굴기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6-2, 61~62쪽.

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3배가량 늘어났다.⁵

그러나 2013년 들어 세계경제의 급속한 둔화라는 외부적 요인에 더하여 ‘신동북현상’과 같은 구조적 모순이 겹침에 따라 중국 정부에서는 동북지역의 경기 진작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2015년 12월 당 중앙에서 ‘동북지역 등 노공업기지의 전면 진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2016년 11월 국무원은 ‘새로운 동북진흥전략의 심화 추진 및 동북지역 경제의 안정적 발전 가속 추진에 관한 몇가지 중요 조치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2020년까지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한 ‘동북진흥 제13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⁶

‘동북진흥 제13차 5개년 계획’은 산업시스템 개혁과 구조조정 추진을 통한 경제성장 회복, 민생 개선, 생태환경 보호를 위하여 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혁신 발전, ② 농업현대화 제고, ③ 현대 산업시스템 구축 및 기구 최적화, ④ 기초 인프라 시설 완비 및 지원 강화, ⑤ 동북아지역 국제협력 강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⁷ 새로운 동북진흥전략은 동북지역의 경기 침체 원인을 국유기업에 대한 미진한 개혁과 혁신의 부재로 파악하고 산업시스템 개혁, 농촌의 제도 개혁, 대외개방 시스템 개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대외개방과 관련하여 동북지역이 ‘일대일로’ 전략에 적극 참여하여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동북지역은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을 통하여 러시아,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을 통하여 경제협력 플랫폼을 조성하고,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전략의 핵심 방향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두는 등 지역개발의 전환을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시켜 추진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랴오닝성은 2018년

5 유은하, 2022, 위의 글, 63~65쪽.

6 정보은, 2020, 앞의 글, 215~216쪽.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4, 『「13.5 규획」 기간 중국 동북지역 발전 방향 및 평가』, 5~7쪽.

에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건설 총체방안’을 발표하고 중·몽·러 경제회랑에 적극 참여하여 ‘동북아 경제회랑’의 공동건설을 모색하고 있다.⁸

2. ‘장백산문화론’의 쇠퇴

‘장백산문화론’은 1990년대 중반 바이산시(白山市)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 문화 연구의 일환으로 출현하였고, 2000년 10월 지린성 ‘장백산문화연구회’가 발족하고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장백산문화는 동북지역 문화의 상징으로 부각되었다. 장백산문화연구회는 ‘장백산문화학술대회(長白山文化研討會)’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연구 성과를 기관지인 『동북사지(東北史地)』에 발표하고 이를 모아서 『장백산문화논총』[2003(제1집), 2007(제2집), 2009(제3집), 2011(제4집)]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장백산문화는 ‘한문화를 주체로 하는 일체다원(一體多元)의 복합문화’로서 개념화되고 장백산의 역사가 체계화되었다.⁹

장백산문화론은 2008년 유건봉(劉建封)의 백두산 답사 100주년을 계기로 장백산관리위의 백두산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과 결합하면서 지린성의 문화산업으로 발전하였다. 2010년 지린성위원회와 지린성 정부는 ‘장백산문화건설계획요강(長白山文化建設規劃綱要)’을 발표하고, ‘장백산문화건설사업(長白山文化建設工程)’을 지린성 제12차 5개년 계획의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요강에 따르면 장백산문화건설사업은 지린성의 우수한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 보호, 건설, 전승 및 이용을 위한 사업’으로서 5개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 즉 ‘① 장백산문화의 발굴, 보호와 연구를 강화하여 장백산을 지린성의 대표적 문화로 만들고, ② 장백산 문예창작과 선전보급을 강화하여 장백산문화의 영향력을 확대

8 성시일, 2022, 「중국 동북지역의 일대일로 적용과 전략」, 『한중사회과학연구』 20-3, 170쪽.

9 『중국의 장백산문화론 논문 선역』, 동북아역사재단, 2008.

시키며, ③ 장백산문화 관련 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건설과 더불어 ‘장백산문화산업대’를 건립하고, ④ 장백산 관련 산업의 문화함량을 제고하여 인삼, 광천수, 송화석(松花石), 녹산품(鹿產品) 등 상품의 문화함량을 높이며, ⑤ 장백산문화와 관광의 결합을 촉진하여 지린성 특유의 문화관광산업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¹⁰

이처럼 장백산문화 연구는 장백산문화건설사업의 자원이자 기반이 되었고, ‘장백산문화건설사업’은 지린성의 중점 사업이 되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의 경기침체 속에서 장백산문화건설사업이 위축되고 장백산문화연구회 회장으로 지린성 장백산문화 연구와 『동북사지(東北史地)』 발간을 주도하였던 장푸요(張福有)가 물러나면서 그가 주도하였던 장백산문화 연구는 침체되었다.¹¹ 장백산문화 연구는 2010년 이후 『중국장백산문화』(2014)를 발간하여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과 2015년 6월 동북사범대학에 장백산문화건설연구센터(長白山文化建設研究中心) 설립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낳지 못하였다. 장백산문화연구회의 활동도 침체하여 지린성이 주최하는 장백산문화학술대회는 2015년의 제8차 장백산문화학술대회에 이은 2017년의 제9차 장백산문화학술대회가 마지막이 되었고, 『장백산문화논총』도 제4집 발간 이후로 더 이상 발간되지 않았다.¹²

특히 지린성 사회과학원에서 ‘동북공정’ 추진과 더불어 2004년부터 발간한 『동북사지(東北史地): 학문』은 2016년에 『학문(學問)』으로 제호를 변경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린성 사회과학원에서 1999년부터 『학문』을 발간하다가 2004년에 동북지역의 역사와 지리 연구를 통하여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을 촉진

10 荀風栖, 2010, 「啓動長白山文化建設工程 - 在長白山文化研討會上的書面講話」, 『東北史地』2010年 第5号.

11 「東北大地上的文化行者」, 『草地』, 2022.9.16. 張福有가 물러난 원인은 유적지의 개발을 반대하고 발굴과 보존을 주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3년 2월 이미 착수한 ‘보마성경제개발구(宝马城经济开发区)’의 개발을 중단하고 유적의 발굴과 보존을 주장하였고, 이후 약 4년간 보마성유적지의 고고 발굴이 진행되었다.

12 「吉林省第九次长白山文化研讨会在靖宇召开」, 『中國县域經濟報』, 2017.8.14.

시킨다는 발간 목표 아래 잡지 명칭을 『동북사지: 학문』으로 변경하였다. 『동북사지』는 동북공정의 연구 성과와 더불어 장백산문화론과 관련된 논문을 중점적으로 게재해왔으며, 2016년에 원래의 잡지 명칭으로 복귀하였다가 2017년에 폐간되었다.¹³ 『동북사지』가 그간 장백산문화론과 관련된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장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동북사지』의 제호 변경과 폐간은 ‘동북공정’과 연관된 장백산문화론 연구의 시효 만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Ⅲ.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 동북지역의 지역개발과 문화산업의 새로운 추세

1. ‘14·5 계획’에서의 지역개발과 중화문화

2021년 3월 국무원에서 2021~2025년의 정책 대강을 집대성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 강요’(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四個五年規劃和2035年遠景目標綱要, 이하 ‘14·5 계획’)를 발표하였다. ‘14·5 계획’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한 두 번째 백 년이 개시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의 이념을 기반으로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와 국제의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제시하였다.¹⁴

‘14·5 계획’은 모두 19편 65장에 걸쳐 국민경제 발전의 장기적인 목표와 방

13 ‘장백산문화론’ 관련 논문은 2004년에서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게재되었다. 박선영, 2022.2, 「근현대 한중변경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시각과 비판-『백도백과』, 『동북사지』, 『중국변강사지연구』 내용 병론-」, 『중국사연구』 136, 323, 344~346쪽.

14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2021.3.

항을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역개발, 문화산업, 녹색발전에 관련된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지역개발과 관련된 ‘지역경제 배치 최적화와 지역협조발전 촉진’(제9편) 항목에서는 지역개발의 핵심지구로서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지역, 창강(長江)경제벨트, 웨강아오(粵港澳, 광둥성-홍콩-마카오) 연안지구, 창강삼각주(長三角)지구를 제시하고, 동북진흥과 관련해서 랴오닝(遼寧) 연해경제벨트 조성, 창지투 개발개방선도구 건설, 하얼빈 대리합작개발능력 제고를 비롯하여 장비제조업 등 전통우세산업 개조, 신흥산업 육성, 한지빙설(寒地冰雪), 생태관광 등 특색산업의 발전,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빙설관광벨트 조성 등을 제기하였다. ‘사회주의 선진문화 발전과 국가문화 소프트파워 제고’(제10편) 항목에서는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화문화 전승·발전 프로젝트를 시행을 통하여 중요 문화유산, 자연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와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추구하며, ‘중국 느끼기(感知中国)’, ‘중국 둘러보기(走讀中国)’, ‘중국 견문하기(視听中国)’ 등의 활동과 문화 교류를 통하여 중화문화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문화유산이 풍부한 세계급 관광지와 리조트 및 문화적 특색이 선명한 국가급 관광휴양지 건설을 추진하는 등 문화와 관광의 융합에 중점을 두었다. ‘녹색발전 추동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촉진’(제11편) 항목에서는 시진핑의 ‘양산(兩山) 이념에 기반한 녹색발전을 강조하였다. 특히 자연의 보호와 회복을 위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구현하며, 사회경제 발전의 전면적 녹색 전환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중국(美麗中国)’을 건설할 것을 제기하였다.

‘14·5 계획’에서 문화, 특히 중화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걸고 시진핑 사상을 중심으로 새로운 100년을 건설한다는 중국공산당의 통치 구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007년의 제17차 당대회에서 ‘문화 건설’이 사회주의 물질문명 건설의 중요한 조건으로 거론되었으며, 2017년의 제19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위한 ‘사상문화 건설’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3개의 자신(自信)-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에 대한 자신, 이론에 대한 자신, 제도에 대한 자신-에 ‘문화 자신’을 추가하여 중화문화

에서 기원하는 전통문화와 혁명문화, 사회주의 선진문화가 융합된 ‘중국 특색 사회주의문화’를 제시하였다.¹⁵ 이처럼 중화문화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문화’의 기반이자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역사적 근원이면서, 중화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2. ‘지린성 14·5 계획’에서의 지역개발과 문화산업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 동안 경기침체가 심각했던 동북지역에서는 제 14차 5개년 계획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발전과 함께 지역별 우위산업 업그레이드 및 신흥산업 육성으로 현대적 산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¹⁶ 지린성의 2021~2025년의 정책 대강을 제시한 ‘지린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 강요(吉林省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四個五年規劃和2035年遠景目標綱要, 이하 ‘지린성 14·5 계획’)'에서는 “지린의 전면적 진흥과 전방위 진흥을 추진하여 돌파를 실현”한다는 전략 목표 아래 “경제발전, 혁신주도, 민생복지, 녹색생태, 안전보장”에 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지린성 14·5 계획’은 모두 16개 장에 걸쳐 지린성 국민경제 발전의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제13차 5개년 계획과 비교하여 체제·구조 개혁 심화, 한지빙설 경제 발전, 문화 소프트파워 강화, ‘아름다운 지린(美麗吉林)’ 건설, ‘761’ 프로젝트¹⁷ 실시 등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여기에서는 백두산

15 장윤미, 2023, 『당치국가 중국: 시진핑 시대 통치구조와 정치의 변화』, 서강대학교 출판부, 137~138쪽.

16 최지원, 2021.4, 『중국 동북지역의 14·5 계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7 “‘761’工程”이란 사회인프라 건설에 관한 총괄 프로젝트로서, 7대 신형 인프라(5G 인프라, 특고압, 고속철도, 자동차배터리, 빅데이터, 인공지능), 6개 망(정보통신망, 도로망, 수로망, 전력망, 석유가스망, 市政인프라망), 1개 단점(사회사업)을 말한다.

〈표 1〉 지린성의 제13차 5개년 계획과 제14차 5개년 계획의 정책 방향 비교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
① 혁신주도 발전, 내생동력 육성	① 혁신주도 발전, 발전 원동력 구축
② 개혁 심화, 발전신체제 구축	② 산업 기초능력 향상, 제조업 고도화 추진
③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경쟁력 증대	③ 寒地水雪경제 발전, 서비스업 질적 향상
④ 농업현대화 실현	④ 농촌진흥과 농업·농촌 현대화 추진
⑤ 민영경제 발전 촉진	⑤ 체제·구조 개혁 심화
⑥ 공간 배치 최적화, 지역의 조화로운 개발	⑥ 국토 공간배치 최적화, 지역 협조 발전, 신형 城鎮化 촉진
⑦ 신행 城鎮化 추진, 현대식 인프라 완성	⑦ 혁명정신 계승, 文化强省 건설, 소프트파워 강화
⑧ 생태문명 건설, 발전의 지속가능성 증대	⑧ 녹색 발전과 생태환경 관리 강화, ‘美麗吉林’ 건설
⑨ 長吉圖 개발개방 가속화, ‘一帶一路’ 융합	⑨ 長吉圖 개발개방 가속화, ‘일대일로’ 융합
⑩ 관리 능력 증대, 조화사회 건설	⑩ ‘761’ 프로젝트 실시, 현대식 인프라 완성
⑪ 정신문명 건설, 문화강성 건설	⑪ 사회사업 건설, 인민 복지 향상
⑫ 민생의 보장·개선, 발전성과 공유	

출처: 제13차 5개년 계획은 吉林省人民政府, 2016.3, 『吉林省国民经济和社会發展第十三个五年規劃綱要』; 제14차 5개년 계획은 吉林省人民政府, 2021.3, 『吉林省国民经济和社会發展第十四個五年規劃和2035年遠景目標綱要』.

개발과 관련된 지린성의 지역개발, 문화산업, 녹색발전에 관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한지방설경제(寒地水雪經濟)의 적극 발전, 서비스업 질적 전환 추진, 거대 신에너지 육성’(제4장) 항목에서는 장백산, 차간호(查干湖), 베이다호(北大湖), 완커송화호(萬科松花湖) 등을 세계급 생태관광 풍경구와 리조트로 조성하며, 대장백산구역과 지린시를 ‘빙설대구역’으로 조성하여 ‘지린국가빙설경제 고품질발전시험구(吉林國家水雪經濟高質量發展試驗區)’와 ‘장백산국제생태휴양관광구(長白山國際生態休閒旅遊區)’를 건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린성이 추구하는 문화 브랜드로 문화와 관광의 융합에 필요한 “항연문화(抗聯文化), 빙설문화, 요금문화(遼金文化), 민족민속문화”¹⁸를 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혁명요소(紅色基因) 계승, 문화강성(文化强省) 건설, 소프트파워(軟實

18 吉林省人民政府, 2021.3, 『吉林省国民经济和社会發展第十四個五年規劃和2035年遠景目標綱要』, 36쪽.

力) 발전’(제9장)에서는 혁명요소 계승을 위해 각종 혁명교육기지를 건설하고,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부여, 고구려, 발해 대유적지 보호를 핵심으로 하고 요 금 유적지 보호에 중점을 둔 문물의 보호·이용 체계를 수립할 것을 제기하였다. 또한 문화사업의 중점 프로젝트로 ‘장백산신묘유적지(長白山神廟遺址) 보호 및 전시·이용’과 ‘장백산 향전유적지 보호·이용’을 들고 있다. ‘녹색발전 우세 견고화, 생태환경 관리 강화, ‘아름다운 지린’ 건설’(제10장) 항목에서는 녹색 저탄소발전, 지속적 환경 개선, 생태보호 및 복원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특히 생태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장백산 산림생태 보호육성 프로젝트(長白山森林生態保育工程)’ 등의 생태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동북 호랑이·표범 국가공원(東北虎豹國家公園) 같은 자연보호구역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협작공간 확대, 창지투 개발개방 가속화, 일대일로 심층 융합’(제11장) 항목에서는 지린성과 저장성(浙江省)과의 상호협작(對口合作), 창지투 개발개방 전략을 조정하여 국가의 주요 구역 발전전략과 결합시키는 전략협작, 동북아 주변국가와의 국제협작 등을 심화시킬 것을 제시하였다.¹⁹ 그리고 개방협작 플랫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창지투 개발개방 과정을 가속화하고 지린자유무역시험구, 지린-옌지-창바이 중점개발개방시험구, 중한국제협작시험구(長春), 해양경제발전시험구(琿春) 등의 개방협작 플랫폼을 조성할 것을 제기하였다.

문화와 관광 부문에 중점을 둔 ‘지린성 문화와 관광 발전 14차 5개년 계획’에는 문화강성(文化強省), 관광강성(旅遊強省), 빙설경제강성(冰雪經濟強省) 건설을 목표로 문화와 관광의 실력과 경쟁력 제고, 문화와 관광의 전면 융합 등을 제시하였다. 문물의 보호, 이용에서 주요 프로젝트로서 ‘지린 문명식별체계건설 프로젝트(吉林文明標識體系建設工程)’를 제시하고 있는데, 고구려, 발해 고고

19 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창지투 개혁개방 가속화, 일대일로 창의(倡議)와의 융합’(제13장)에서 창지투 전략을 장춘-지린 배후지, 연길-용정-도문의 최전방, 훈춘, 白城 같은 창구와 연동하여 발전시키고, ‘일대일로’ 건설과 융합하여 동북아 구역과의 개방협작을 확대할 것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창지투 개혁개방과 라오닝 연해경제벨트와의 협작을 추진하여 개방협작의 신국면을 형성할 것을 제기하였다.

연구와 더불어 ‘고고 중국(考古中国)’의 주요 프로젝트로 지린동부장백산지구 고인류유적지 조사와 연구 프로젝트(吉林東部長山地區古人類遺址考察與研究項目), 고구려 문화연구 프로젝트(高句麗文化研究項目), 발해 문화연구 프로젝트(渤海文化研究項目), 지린문명탐원 프로젝트(吉林文明探源工程) 등이 포함되어 있다.²⁰ ‘지린성 14·5 계획’에서 문화사업의 중점 프로젝트로 선정한 ‘장백산신묘 유적지’는 국가문물국에서 발표한 ‘대유적지 보호이용 14·5 특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다. 즉, 국가문물국에서 ‘14·5 계획’ 시기에 선정한 대유적지로서 고구려 유적지, 발해 유적지, 요금나발(遼金捺鉢) 유적지와 더불어 장백산신묘 유적지를 지린성의 대유적지로 제시하고 장백산신묘 유적지의 보호·이용 프로젝트를 중점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²¹

IV. ‘양산’ 이념의 형성과 실천

백두산 지역에서는 2020년 푸쑹현이 ‘녹수청산이 금산은산’ 실천창신기지(“綠水青山就是金山銀山”實踐創新基地)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시진핑의 ‘양산(兩山)’ 이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²² ‘양산’ 이념, 즉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다(綠水青山就是金山銀山)”라고 표현되는 이념의 출현은 2005년 8월 저장성위(浙江省委) 서기 시진핑이 저장성 후저우시(湖州市) 안지현(安吉縣)을 시찰할 때 좌담회에서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다”라고 언급하고, 며칠 뒤 『저장일보(浙江日報)』에 “녹수청산도 역시 금산은산이다”라는 논평을 게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시진핑의 발언은 오염을 발생시키는 광산을 폐쇄하고 생태관광

20 吉林省文化和旅游厅, 2021.11, 『吉林省文化和旅游发展“十四五”规划』, 19쪽.

21 國家文物局, 2021.10.12, 「大遺址保護利用“14·5”專項规划」.

22 「抚松县: 成功创建“綠水青山就是金山銀山”實踐創新基地」, 新浪吉林, 2020. 10.17.

지로 전환시킨 안지현의 보고를 듣고 나온 것으로, 논평에서 “생태환경의 장점을 생태농업, 생태공업, 생태관광 등 생태경제의 장점으로 전환한다면 녹수청산도 금산은산으로 변한다”고 강조하였다.²³

2015년 4월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에서 발표한 「생태문명 건설을 급속히 추진하는 데 관한 의견」에서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라는 사실을 견지하”는 것이 생태문명 건설에 핵심적이라는 설명을 통하여 ‘양산’ 이념이 생태문명 건설의 중요 사상이 되었다.²⁴ 이후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공존을 견지하고, 녹수청산이 금산은산이라는 이론을 필수적으로 확립,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새로 개정된 『중국공산당장정』에 ‘양산’ 이념이 수록됨으로써 ‘양산’ 이념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18년 5월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에서 시진핑의 생태문명사상이 정식으로 제출되었고, ‘양산’ 이념이 생태문명사상의 6대 원칙의 하나가 되었다. 이 대회에서 생태문명사상은 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② 녹수청산은 바로 금산은산, ③ 양호한 생태환경은 가장 보편적인 민생복지, ④ 산, 강, 숲, 들, 호수, 풀은 생명공동체, ⑤ 가장 엄격한 제도와 법치로 생태환경을 보호, ⑥ 전 지구적인 생태환경 건설을 함께 도모한다는 6개 원칙으로 제출되었고, 이후 ‘8대 견지(堅持)’나 ‘10대 견지’로 확장되면서 생태문명 건설의 주요 원칙이 되었다.²⁵

‘양산’ 이념이 생태문명 건설에서 하나의 원칙으로 강조되면서 안지현의 전환 사례는 생태문명 건설의 모델로서 확산되었다. 2016년 환경보호부는 저장성 안지현을 “녹수청산이 금산은산” 실천 시점현(“綠水青山就是金山銀山”實踐

23 王會·姜雪梅·陈建成·宋维明, 2017.4, 「“绿水青山”与“金山银山”关系的经济理论解析」, 『中國農村經濟』, 2쪽.

24 中共中央·国务院, 2015.4.25, 「关于加快推进生态文明建设的意见」.

25 「习近平生态文明思想」, 学习平台, 共产党员网(www.12371.cn/special/xxzd/hxnr/st/).

試點縣)으로 삼았고, 이후 전국적으로 ‘양산’ 이념을 실천하는 다양한 플랫폼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 안지현의 경험을 기반으로 환경보호부는 안지현을 비롯한 전국의 13개 지구를 제1차 ‘녹수청산이 금산은산’ 실천창신기지(“綠水青山就是金山銀山”實踐創新基地; 이하 ‘양산’ 기지)로 지정하였다.²⁶ 이후 2018년 제2차 지정 16개, 2019년 제3차 지정 23개, 2020년 제4차 지정 35개, 2021년 제5차 지정 49개, 2022년 제6차 지정 51개, 2023년 제7차 53개 지정 등 모두 239개의 ‘양산’ 기지가 설립되고 양산 이념을 실천하는 다양한 경로가 모색되었다. 2019년 생태환경부에서는 “‘녹수청산이 금산은산’ 실천창신기지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양산’ 기지 설립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였다.²⁷ 관리규정에 따르면 ‘양산’ 기지는 “‘양산’ 전화(轉化)의 제도적 실천과 행동적 실천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한” 실천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양산’ 기지의 선정 기준은 ① 생태환경이 양호하고 생태환경 보호사업의 기초가 견고할 것, ② ‘양산’ 전화의 성과가 탁월하고 향, 진, 촌 또는 소구역을 단위로 ‘양산’ 전화의 전형적인 사례가 있을 것, ③ ‘양산’ 전화를 효과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을 제시하였다.²⁸

2019년 6월 저장성 개혁위원회에서 ‘신시대 저장(안지)현역(浙江(安吉)縣域)의 ‘양산’ 이념 종합개혁창신시험구 총체방안」이 채택됨에 따라 안지현은 ‘양산’ 기지를 개혁하기 위한 “‘양산’ 이념 시험구’ 건설에 착수하였다. “‘양산’ 이념 시험구’는 안지현에서 저장(안지)현역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양산’ 전화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 추진에 중점을 둬으로써 ‘양산’ 기지의 질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²⁹

26 「“兩山”转化：在实践中探索创新」, 『光明日报』, 2019.12.14.

27 董战峰·张哲予·杜艳春等, 2020, 「“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理念实践模式与路径探析」, 『中国环境管理』 12-5, 11~12쪽.

28 生态环境部, 2019, 「“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实践创新基地建设管理规程」.

29 浙江省发展改革委, 2020.5.11, 「安吉县“三聚焦”提速新时代“两山”试验区建设」.

V. '양산' 이념과 백두산 개발

1. 장백산관리위의 백두산 개발과 '장백산 14·5 계획'

장백산관리위 설립 이후 백두산 개발은 장백산관리위 주도로 이루어졌다. 장백산관리위 설립과 더불어 지린성 관광의 제1명소이자 중국의 대표적 '생태관광 경제시범구'를 목표로 추진된 백두산 개발은 2006년에 관광인원 70만 명, 관광수입 4억 2,000만 위안에 불과하였지만, 지난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장백산관리위 관할 구역의 관광인원은 2,025만 명, 관광수입은 190억 위안 이고, 풍경구 관광인원은 1,014만 명, 관광수입은 28억 9,000만 위안에 달하였다.³⁰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장백산관리위가 추진하는 백두산 지역개발은 '지린성 14·5 계획'에 규정되면서 장백산관리위 차원에서 수립하는 제14차 5개년 계획을 통하여 개발의 방향과 주요 프로젝트가 설정되었다. 장백산관리위는 2021년 5월 「장백산보호개발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 강요(長白山保護開發區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四五”規劃和2035年遠景目標綱要)」(이하 '장백산 14·5 계획')를 발표하여 백두산 개발의 대강을 제시하였다. '장백산 14·5 계획'은 생태 보호와 녹색 발전을 통하여 세계 수준의 생태관광지와 국제생태휴양(빙설온천)관광구 건설을 목표로 하여, '생태안전체계 건설, 산업 융합발전,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도시(宜居宜游城鎮) 건설, 개혁 심화 및 혁신 강화, 대외 교류협력 강화, 민생 보장, 사회 관리 개선' 등 7개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³¹

주요 중점 항목을 살펴보면, '생태안전체계 건설'(제2장) 항목에서는 생태자

30 長白山保護開發區, 2021, 5, 「長白山保護開發區國民經濟和社會發展“十四五”規劃和2035年遠景目標綱要」, 제1장.

31 長白山保護開發區, 2021, 5, 위의 글.

원 보호,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환경품질 개선, 생태문명제도 건설, 생태환경 관리능력 향상, 녹색저탄소발전 추동 등을 제시하였다. ‘산업 융합 발전’(제3장) 항목에서는 관광+문화 융합을 통한 문화관광산업, 관광+빙설 융합을 통한 빙설관광산업, 관광+건강(康養) 융합을 통한 건강관광산업, 관광+생태 융합을 통한 특색 있는 자원산업, 관광+서비스 융합을 통한 현대서비스업의 발전을 제시하였다. 특히 관광+문화 융합에서는 민족문화관광 발전과 홍색문화 관광 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장백산 민족문화, 풍습과 민속, 역사문화 등의 특색있는 문화적 내용을 바탕으로 민족문화관광, 역사문화관광을 중점 발전시키고 … 장백산만족문화풍정원(長白山滿族文化風情園) 건설을 추진하여 만주족 문화의 언어·문자, 팔기제도, 민족신앙, 민족복장 등 역사적 표지를 완전하게 복원하며 … 장백산신묘 유적지, 라오헤이허유적지(老黑河遺址)의 문화적 핵심을 심층 발굴·정련하고 너인고성 동부확장 프로젝트(訥殷古城東擴工程), 장백산신묘유적지 고고공원 건설 등을 실시하여, 유적지 보호 및 복원을 추진하고 장백산 역사문화관광, 고성 문화관광을 조성”³²할 것을 강조하였다.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도시 건설’(제4장) 항목에서는 도시와 풍경구의 일체화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관광교통망의 원활 등을 제시하였다.

이 기간에 추진될 주요 프로젝트는 ‘장백산 14·5 계획’의 마지막에 첨부된 ‘장백산보호개발구 14·5 기간 중점 프로젝트 계획표’에 정리되어 있는데, 모두 176개 항목-산업류 59개, 기반시설류 69개, 생태환경보호류 9개, 공공서비스류 39개-에 1,025억 위안이 투자될 예정이다.³³ 이 중에서 문화와 관광 부문의 중점 프로젝트는 모두 48개 항목에 806억 위안이 투자될 예정인데, <표 2>는 문화와 관광 부문의 중점 프로젝트 중에서 문화산업에 관련된 주요 프로젝트 11개를 정리한 것이다.

32 長白山保护开发区, 2021.5, 위의 글, 제3장.

33 附表: 長白山保护开发区“十四五”期间重点项目规划表, 「長白山保护开发区国民经济和社会发展“十四五”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표 2〉 장백산보호개발구 제14차 5개년 계획 문화와 관광 주요 프로젝트

번호	제목	구분	건설 규모 및 내용	건설 기간	투자액 (亿元)	담당 주체
1	지북구 문화창작 산업공원 건설 프로젝트	신규	점유면적 27,04ha, 장백산 박물관, 국제 생태 오락 센터, 장백산 국립 문화 창작 센터, 장백산 휴양 리조트 등을 건설하여 문화관광, 호텔, 오락, 음식, 문화가 통합된 장백산 지북구의 대표적인 문화창작 복합체를 조성함	2021~2025	3.2	지북구
2	연변佳田 조선족 민속관광리조트 건설 프로젝트	신규	점유면적 14만 2,000m ² , 민속 상업 지점, 민속 숙박시설, 민속 호텔, 장백산 특산물 시장 등을 건설함	2021~2023	9.9	연변佳田置業유한공사
3	장백산 신묘 유적지 보호 및 전시·활용 프로젝트	신규	점유면적 약 94.92ha, 주요 건설 내용은 유적 본체와 부속물 보호 공사, 유적지 박물관, 유적지 모의 전시 공사, 고고 작업실, 관광객 서비스센터 및 관련 기반 시설 건설 등을 포괄함	2021~2025	10.35	관광문체국
4	장백산 문화창의산업원 건설 프로젝트	계속	건축면적 7만 1,548m ² , 박물관, 온실 화원, 실내 모험관, 관광센터, 오락센터 등을 건설함	2021	12.6	지서구
5	지서구 松山 민속문화촌 건설 프로젝트	신규	새롭게 건립한 민속문화 관광구로서, 각종 농원, 설상스포츠 시설, 민속공방 체험구, 민속상업거리와 문화 광장 등을 포함함	2021~2025	20	지서구
6	지서구 半島小鎮 민속풍경 거리 건설 프로젝트	신규	점유면적 139.6ha, 수안풍경 마을을 건설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광장, 아동 놀이공원, 극한운동장, 특색 있는 풍경거리, 상업광장, 수상공원, 습지 등을 포함함	2021~2025	100	지서구
7	華音국제장백산寶馬국제문화관광마을 건설 프로젝트	신규	점유면적 7.1km ² , 장백산의 역사, 문화 및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금대 황제의 신묘 유적지를 보호, 발굴하고, 보마고성과 신전을 핵심으로 회복, 중건함. 주요 내용은 장백산 국제회의컨벤션 센터, 여진 문화원, 영화 문화원, 장백산 연구학습기지 등 휴양관광, 건강관리, 영화문화, 테마파크, 테마민박, 문화체험 등을 주제로 하는 보마경제구를 건설함	2021~2025	150	지북구

8	장백산 十八坊 산업단지	신규	'문화회귀'와 '산업회귀'라는 이중의 요구를 기반으로 '대문화' 공간발전 이념을 이어받아 '공업, 산업, 문화, 관광, 주거'가 통합된 산업관광 창의 종합단지를 조성함	2021~2023	50	지북구
9	關東 문화창의원	신규	문화창조를 주요 업무로 하여 지서구의 창의단지를 조성함	2021~2023	16.38	지서구
10	장백산 항진 유적지 보호 및 이용 프로젝트	신규	총 점유면적은 4만 1,312m ² , 총 건축면적은 3만 6,068,68m ² . 주요 건설 내용은 건설 공사, 도로와 교량 공사, 외부망 공사, 경관공사 및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함	2020~2022	2.99	지남구
11	장백산 老黑河 유적지 풍경구	신규	라오헤이허 유적지를 위주로 하여 홍색문화의 집단구역을 조성함	2021~2023	3	지남구

출처: 「附件一: “十四五”时期文化和旅游重点项目一览表」, 「长白山保護開發區“十四五”文化和旅游發展規劃」, 2021.10.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화인국제장백산보마국제문화관광소진 건설 프로젝트(華音國際長白山寶馬國際文旅小鎮建設項目)'로서 2021~2025년까지 150억 위안이 투자될 예정이며, '장백산신묘유적지 보호와 전시·이용 프로젝트(長白山神廟遺址保護與展示利用工程)'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0억 3,500만 위안이 투자될 예정이다.

2021년 10월에 발표된 '장백산보호개발구 문화와 관광 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녹수청산과 빙천설지라는 양대 자원을 바탕으로 역사와 문화, 민속과 풍습, 홍색항연(紅色抗聯), 변경문화 등의 문화자원을 융합하여 문화관광 자원의 문화관광상품으로의 전환, 단일관광경제에서 휴식·휴가·체험경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양산’ 이념을 깊이 실천하고, “양산” 이념 시험구”를 건설하며, 백산-장백산 일체화 발전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³⁴ 문화와 관광 발전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관광과 문화, 스포츠를 융합하여 고효율산업 창출'

34 长白山保护开发区, 2021.10, 「长白山保护开发区“十四五”文化和旅游发展规划」.

(제4장) 항목에서는 관광+문화 융합, 관광+빙설 융합, 관광+건강 융합, 관광+생태 융합, 관광+서비스 융합을 제시하고, ‘전체 공간이 협력하여 환장백산관광공동체 건설’(제5장) 항목에서는 ‘하나의 핵심, 하나의 고리, 3개의 기지(一核一環三基地)³⁵’라는 새로운 발전 구조를 만들 것을 제시했으며, ‘풍경구와 도시의 일체화로 문화와 관광,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제6장)에서는 고속철도가 지원하는 교통망 건설과 더불어 풍경구 건설과 관광지도시 건설의 통합을 제시하였다.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장백산 문화관광 브랜드 보급’(제8장)에서는 문화와 관광 브랜드와 마케팅 체계 형성과 더불어 백산-장백산 일체화 발전의 추진,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제시하고, ‘저탄소관광과 녹색관광추진’(제9장)에서는 풍경구의 저탄소 건설, 저탄소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2. 바이산시와 장백산보호개발구의 백두산 공동 개발

백두산 지역개발에 ‘양산’ 이념을 도입한 것은 바이산시였다. 2018년 9월 시진핑 총서기는 지린 시찰시 “녹수청산, 빙천설지(氷天雪地)도 금산은산이다. 생태 보호와 생태관광 발전은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강조함에 따라 지린성이 녹색발전에 주목하게 되었고, 바이산시 또한 저장성 후저우시(湖州市)와 동서부의 상호협력도시(對口合作城市)이기에 후저우시 안지현이 ‘양산’ 이념의 탄생지이고 ‘양산’ 기지의 출발점임을 익히 알고 있었다. 특히 안지현이 우수한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생태·레저관광을 발전시켜 3년 연속 전국 현급 관광종합실력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양산’ 기지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자 바이산시는 자연생태가 유사한 안지현의 사례에 착안하였다.³⁶

35 ‘一核一環三基地’에서 ‘一核’은 장백산 핵심 풍경구, ‘一環’은 環長白山慢行綠道, ‘三基地’는 지북구, 지서구, 지남구의 3개 구역을 말한다.

36 「“生态高地”的突围之路」, 『吉林日报』, 2022.8.29.

바이산시의 ‘양산’ 이념 도입은 2020년 10월 푸쑹현(抚松縣)이 ‘양산’ 기지에 선정되고 바이산시가 ‘국가생태문명건설 시범구(国家生态文明建設示範區)’³⁷에 선정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푸쑹현은 장백산국가급자연보호구에 위치하며 송화강의 발원지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나다. 또한 ‘중국 인삼의 고향’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삼 생산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지금도 전국 인삼 생산량의 38%를 차지한다. 또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토대로 조성된 루닝명승지관광리조트(魯能勝地旅游度假區)는 2020년 8월에 ‘국가4A급관광지’가 되었다. 이러한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푸쑹현은 “녹색발전을 견지하고 생태푸쑹을 조성하며 아름다운 생태(生態美), 부유한 백성(百姓富), 강한 현역(縣域強), 바른 기풍(風氣正)을 실현”한다는 것을 지침으로 삼고 생태입현(生態立縣)을 관광부현(旅游富縣)과 산업강현(產業強縣)의 기반으로 삼아 녹수청산에서 금산은산으로 전화경로를 탐색함으로써 ‘양산’ 기지에 선정되었다.³⁸ 푸쑹현은 ‘양산’ 기지 선정 이래 기술 혁신, 구조 최적화, 사고 전환을 통해 인삼, 광천수, 관광 위주의 녹색산업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함에 따라 2022년 11월 ‘국가생태문명건설 시범구’로 선정되었다.³⁹

바이산시는 장백산의 배후지에 위치하여 자연자원이 풍부하며, 예로부터 ‘중국 구조토의 도시’로 불렸다. 바이산시는 ‘생태입시(生態立市)’ 발전전략 아래 녹색발전을 추구하여 2019년에 생태환경의 품질에서 지린성 1위를 차지하

37 ‘国家生态文明建设示范区’는 2013년 12월 국가발전개혁위 등 6개 부서에서 「국가생태문명 선형시범구 건설 방안 발표에 관한 통지(关于印发国家生态文明先行示范区建设方案的通知)」를 발표하고, 2014년 3월 복건성을 ‘생태성 전략으로 생태문명 가속화 선형시범구(生态省战略加快生态文明先行示范区)’로 지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2014년 6월 제1차 55개 시·현(市·县), 2018년 12월 제2차 45개 시·현, 2019년 11월 84개 시·현, 2020년 10월 제4차 87개 시·현, 2021년 10월 제5차 100개 시·현, 2022년 11월 제6차 106개 시·현이 ‘국가생태문명건설 시범구’로 지정되었다.

38 「抚松县: 成功创建“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实践创新基地」, 『新浪吉林』, 2020. 10.17.

39 「吉林: 精心守护 让生态环境底色更亮丽」, 吉林新闻联播, 2023.1.6.

였고, 2020년 10월 ‘국가생태문명건설 시범구’에 선정되었다.⁴⁰ 2021년 7월 중공당 지린성위원회는 제11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시진핑 생태문명사상의 지도에 따라 생태강성(生態強省)을 전면 건설하는데 관한 결정’과 “일주육쌍(一主六雙)⁴¹의 고품질 발전전략 배치를 전면적으로 구축하는 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여 생태환경 우선의 고품질 녹색발전 전략을 제기하였다. 전원회의 직후 바이산시위원회는 지린성위원회에 ‘바이산시의 ‘양산’ 이념 시험구 건설을 지지하는 데 관한 품의’를 보고하였고, 8월에는 “양산’ 이념을 깊이 실행하고 녹색전환 고품질 발전을 힘껏 개시하고 신국면을 전면 진흥하는 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여 바이산시를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지린의 명함(吉林名片)’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⁴²

바이산시의 ‘양산’ 이념 시험구 추진에 대해서 지린성 정부와 지린성위원회는 2021년 9월 ‘바이산시의 ‘양산’ 이념 시험구 건설을 지지하는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바이산시의 ‘양산’ 이념 시험구 건설을 공식화하였다.⁴³ 이 문건에서는 바이산시가 출선하여 생태 우선과 녹색 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추동하고 녹색 전환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기 위하여 생태문명 건설, 녹색 전환 발전, 생태·관광 융합발전, 국경 개방합작, 도시·농촌 융합발전 등 5개 부문에서 시범이 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산양강(一山兩江)⁴⁴ 브랜드 전략과 ‘일체양익(一體兩

40 生态环境部, 2021.1.18, 「国家生态文明建设示范区—吉林省白山市」.

41 ‘一主六双’은 지린성의 핵심 발전전략으로, 장춘을 위주로 하고(‘一主’) 2개의 회랑(双廊, ‘环长春四辽吉松工业走廊’와 ‘长辽梅通白延医药健康产业走廊’), 2개의 벨트(双带, ‘大图们江开发开放经济带’와 ‘中西部粮食安全产业带’), 2개의 선(双线, ‘长通白延吉长避暑休闲冰雪旅游大环线’와 ‘长松大白通长河湖草原湿地旅游大环线’), 2개의 통로(双通道, ‘白松长通至辽宁大通道’와 ‘长吉珲大通道’), 2개의 기지(双基地, ‘长春国家级创新创业基地’와 ‘西部国家级清洁能源基地’), 2개의 협동(双协同, ‘长吉一体化’와 ‘长平一体化’)으로 구성된다.

42 「打造生态文明建设“吉林名片”」, 『吉林日报』, 2021.11.19.

43 省委·省政府, 2021.9, 「中共吉林省委吉林省人民政府关于支持白山市建设践行“两山”理念试验区的意见」.

44 ‘一山’은 백두산, ‘两江’은 압록강과 송화강을 말한다.

翼)⁴⁵의 발전구도를 구축하여 생태보호와 생태관광을 동시에 추진하는 녹색발전의 길을 견지함으로써 바이산시를 세계 수준의 생태관광지이자 환장백산관광유통센터(環長白山旅游集散中心)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바이산시 발전개혁위원회는 10월에 ‘바이산시 ‘양산’ 이념 시험구 건설·실행 실시방안’을 편성하는 한편, ‘양산’ 이념 영도소조를 조직하여 바이산시의 ‘양산’ 전화 경로를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 바이산시의 실시방안에 따르면 문화관광, 녹색식품, 의약·의료 서비스, 구조토, 현대서비스업 등의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었고, 2022년 바이산시의 중점 프로젝트 163개 중에서 생태산업 관련 프로젝트는 105개에 달하였다.⁴⁶

지린성은 바이산시에서 시작된 ‘양산’ 이념 시험구 건설을 바이산시와 장백산보호개발구의 공동 건설로 확대하였다. 장백산보호개발구는 생태가 백두산 최고의 가치라는 인식 아래 “생태 우선, 보호 제일”을 개발의 원칙으로 삼아왔다. 지린성 환경보호국을 거쳐 바이산시위 서기 겸 장백산관리위 당공위 서기를 맡고 있는 세중연(謝忠岩)은 장백산관리위 주임 시절부터 생태보호와 녹색발전을 내세우며 생태와 문화의 융합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주장해왔다.⁴⁷ 특히 장백산보호개발구 지북구(池北區)는 “관광 도시화(旅游城鎮化), 도시 관광지화(城鎮景區化), 관광지 국제화(景區國際化)”라는 발전 이념 아래 특색 있는 도시화를 추진하여 국가4A급 관광지이자 전국 수위의 ‘국가전역관광시범구’가 되었고, 생태보호와 녹색발전을 시행하여 2020년 11월 ‘국가생태문명건설 시범구’로 선정되었다.⁴⁸ 이처럼 바이산시와 장백산보호개발구는 생태보호, 녹색발전, 생태문명 건설이라는 이념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바이산시에서는 제품은 있

45 ‘一体’는 浑江区와 江源区의 一体化를 통한 장백산구역의 중심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이고, ‘两翼’은 압록강과 송화강 연안의 생태경제벨트인 ‘长白·临江沿鸭绿江生态经济带’와 ‘抚松·靖宇沿松花江生态经济带’를 말한다.

46 「“生态高地”的突围之路」, 『吉林日报』, 2022.8.29.

47 「谢忠岩代表: 建设长白山文化旅游融合发展示范区」, 中国经济网, 2014.3.12.

48 「吉林长白山: 生态保护创造出的生产力」, 『瞭望』 2020年第37期.

지만 브랜드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고, 장백산보호개발구에서는 산봉우리는 있지만 배후지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산’ 이념 시험구는 ‘양산’ 이념의 새로운 발전경로를 모색하는 한편 행정구와 개발구를 통합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설 기반을 제공해주었다.⁴⁹

2022년 4월 바이산시와 장백산관리위는 공동으로 「바이산시·장백산보호개발구의 ‘양산’ 이념 시험구 공동 건설을 위한 행동강요(2022~2025)」와 ‘‘양산’ 이념 시험구를 공동 건설하여 장백산 3대 생태경제구 건설을 추진하는 데 대한 의견」을 공포하여 ‘양산’ 이념 시험구 건설에 착수하였다.⁵⁰ 바이산시와 장백산보호개발구는 산업혁신, 기반시설, 구역시장, 녹색발전, 공공서비스 등 5개 부문의 일체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존 구역을 확대하여 3대 생태경제구-중부생태경제구, 남부생태경제구, 북부생태경제구-를 건설하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각 생태경제구의 구역과 편재를 살펴보면, 훈장구(浑江区), 장위안구(江源區)와 푸쑹 대부분 및 장백산관리위의 지서구(池西區)를 포괄하는 중부생태경제구는 관광, 인삼, 광천수, 구조토 등의 기간산업을 확대, 강화하고, 장백산 구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점을 형성하며, 린장, 창바이, 푸쑹, 만장진(漫江鎮)과 장백산관리위의 지남구(池南區)를 포괄하는 남부생태경제구는 레저 및 건강관리, 빙설 스포츠, 변경 관광을 위주로 하는 문화관광 융합 경제벨트로 육성하고, 쑹화강에 연한 6개 향진과 장백산관리위의 지북구(池北區)를 포괄하는 북부생태경제구는 쑹화강 관광을 개발하고, 주변 지역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편재되었다.⁵¹

바이산시와 장백산보호개발구는 4월 말에 ‘양산’ 이념 시험구 건설을 위한 제1차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양 지역의 협동발전 시스템과 선전업무 연계시스템

49 「聚焦“两山”理念试验区 | 特别对话：建设践行“两山”理念试验区背后的白山三个“关键词”」, 中国吉林网, 2022.7.27.

50 「“生态高地”的突围之路」, 『吉林日报』, 2022.8.29.

51 「全力建设践行“两山”理念试验区—访白山市委书记, 长白山保护开发区党工委委书记谢忠岩」, 『吉林日报』, 2022.11.27.

등을 논의하였으며,⁵² 9월에는 ‘양산’ 이념 시험구 건설추진회의를 개최하여 바이산시의 ‘양산’ 이념 시험구 실시방안이 보고되고 그간의 진척 상황이 논의되었다.⁵³ 바이산시는 2023년을 ‘양산’ 이념 시험구 건설과 녹색발전 진흥을 위한 관건적인 해로 정하고 녹색산업체계 형성과 ‘일산양강(一山兩江)’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주력하였다.⁵⁴ 이에 따라 2023년 10월 바이산시 ‘중부 경제생태구’가 ‘양산’ 기지에 선정되었고,⁵⁵ 바이산시 징위현(靖宇縣)은 ‘국가생태문명건설 시범구’에 선정되었다.⁵⁶

2022년 하반기 들어 각 생태경제구 건설이 추진되었다. 중부생태경제구의 경우 9개 실무그룹으로 이루어진 조직기구를 설립하고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구역의 핵심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남부 및 북부 생태경제구와 적극 연계하는 한편, 바이산, 푸쑹, 장백산관리위 간의 ‘30분 경제권’ 구축에 나섰다.⁵⁷ 남부생태경제구의 경우 업무전담반을 구성하여 ‘남부생태경제구 협동발전계획’을 제정하였고, 린장시와 장백산관리위 지남구는 ‘후아수천휴온천건강소진(樅樹樺天沐溫泉健康小鎮)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였다.⁵⁸

바이산시에 이어 장백산보호개발구에서도 ‘양산’ 이념 시험구 실시방안이 제정되고 영도소조가 조직되었다. 장백산관리위에서는 2023년 6월 ‘장백산보

52 「白山市与长白山保护开发区加深合作共建践行“两山”理念试验区第一次联席会议的召开」, 『中国日报』, 2022.4.28.

53 「白山市—长白山保护开发区践行“两山”理念试验区建设推进会议召开」, 2022.9.30.

54 「奋力谱写建设践行“两山”理念试验区新篇章—白山市人大常委会2023年工作综述」, 2024.1.19.

55 生态环境部, 2023.10.26, 「关于命名第七批“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实践创新基地的公告」.

56 生态环境部, 2023.10.26, 「关于命名第七批生态文明建设示范区的公告」.

57 白山市政府, 2023.2.22, 「长白山中部生态经济区: 发挥带动作用 促进协同发展」.

58 白山市政府, 2023.3.2, 「长白山南部生态经济区: 释放辐射带动作用 打造生态经济核心区」.

호개발구 ‘양산’ 이념 시험구 건설·실행 시험구 실시방안’을 발표하고, 장백산 관리위 당공위 서기와 관리위 주임을 조장으로 하는 “‘양산’ 이념 실천사업 영도소조”를 조직하였다.⁵⁹ 장백산관리위의 실시방안은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을 제1의 원칙으로 삼아 시험구 건설의 중대한 진전을 목표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생태안전 건설의 새로운 모형 탐색, 생태산업 발전의 새로운 경로 탐색, 생태생산물 가치실현의 새로운 방식 탐색,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향진 건설을 위한 새로운 경로 탐색, 대외교류합작 구축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탐색, 민생 보장과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 탐색, 백산과 장백산의 일체화발전의 새로운 모델 탐색’ 등 7개 항목의 중점 임무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인 내용은 시험구 건설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기보다는 대부분 앞에서 살펴본 ‘장백산 14·5 계획’의 내용을 재배치한 것이다. 새롭게 제시되는 부분은 ‘백산과 장백산의 일체화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고 ‘양산’ 이념 실천을 위한 새로운 유형 구축’에 대한 항목인데, 여기에서는 협조 발전, 선도구 발전, 구역협조 연계를 통한 구역협조 발전 시범구 조성, 생태 공동 관리를 통한 송화강 상류 생태장벽 공동 구축, 국제관광지 및 송화강과 압록강 생태경제벨트 공동 개발, 문화발전 고지(高地) 공동 건설을 통한 현대 산업체계 협동 건설, 교통망 소통을 통한 기반시설 상호 연계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⁶⁰

VI. 맺음말

이 글에서는 2000년대 이래 중국의 백두산 연구와 개발을 규정해온 ‘장백산문화-장백산문화산업-장백산 지역개발’이라는 체계가 2010년대 중반 동북 지역

59 长白山保护开发区, 2023.6.30, 「长白山保护开发区建设践行“两山”理念试验区实施方案」.

60 长白山管委会, 2023.6.30, 「长白山管委会关于印发长白山保护开发区建设践行“两山”理念试验区实施方案的通知」.

의 경기침체를 계기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대 들어 제14차 5개년 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바이산시와 장백산관리위가 공동으로 시진핑의 ‘양산’ 이념에 기반한 “‘양산’이념 시험구” 건설을 추진하게 되면서 백두산 연구와 개발의 새로운 이념과 체계가 출현하였음을 규명하였다.

‘장백산문화-장백산문화산업-장백산 지역개발’ 체계가 변화하는 계기는 동북 지역의 경기침체에 따른 동북 지역개발전략의 변화와 ‘장백산문화’론의 쇠퇴이다. 동북지역의 경제성장과 지역개발을 추동하였던 동북진흥전략이 경기침체 속에서 ‘신동북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시스템 개혁과 대외개방에 중점을 둔 새로운 동북진흥전략으로 전환되었고, 제14차 5개년 계획의 수립에 따라 ‘녹수청산’과 ‘빙천설지’로 대표되는 자연자원에 기반한 문화산업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동북지역 문화의 상징으로 부각되었던 ‘장백산문화’는 지린성의 중점사업인 장백산문화건설사업의 자원이 되었지만 장백산문화건설사업의 위축과 장백산문화론을 이끌었던 장푸요의 퇴진으로 동력을 잃게 되었고, 이를 대체할 이념으로 시진핑의 생태문명사상의 일부를 이루는 ‘양산’ 이념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백두산 지역개발을 새롭게 추동할 이념으로서 ‘양산’ 이념에 주목하고 “‘양산’이념 시험구” 건설에 착수한 것은 바이산시였다. ‘양산’ 이념을 시험적으로 도입한 바이산시는 지역개발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백두산이라는 자원과 브랜드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장백산관리위를 끌어들여 2022년부터 “‘양산’ 이념 시험구” 공동건설에 나서게 되었다. 바이산시가 2021년 10월에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편성하고 “‘양산’ 이념 시험구” 건설을 개시하였고, 장백산관리위도 2023년 6월에 실시방안을 편성하고 “‘양산’ 이념 시험구” 건설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장백산관리위에서 지북구, 지서구, 지남구 3개의 지구로 나누어 관할하던 백두산 지역은 새롭게 중부 생태경제구, 남부 생태경제구, 북부 생태경제구로 확대, 개편되었고, ‘양산’ 전화의 다양한 경로 및 방식에 대한 모색이 개시되었다.

이 글에서는 백두산 지역의 연구와 개발에서 새롭게 ‘양산’ 이념이 도입되는

사실에 주목하고, 기존의 ‘장백산문화-장백산문화산업-장백산관리위에 의한 백두산 개발’이라는 체계가 ‘양산’ 이념-장백산문화관광산업-바이산시·장백산관리위에 의한 백두산 공동개발’이라는 체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바이산시와 장백산관리위에 의한 백두산 지역의 재편과 ‘양산’ 이념에 기반한 백두산 연구와 개발이 아직 출범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체계가 들어섰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부른 것일 수 있다. 현재의 변화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제도로써 확립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100년을 ‘당의 전면적 영도’와 ‘시진핑 사상’을 중심으로 열어나가고자 하는 상황에서 ‘양산’ 이념에 기반한 백두산 연구와 개발은 새로운 제도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백두산 연구와 개발의 체계 변화에 대한 분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두산 지역에 대한 정책과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2021.3.
國家文物局, 2021.10.12, 「大遺址保護利用“14·5”專項規劃」.
吉林省人民政府, 2016.3, 『吉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_____, 2021.3, 『吉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吉林省文化和旅游厅, 2021.11, 『吉林省文化和旅游发展“十四五”规划』.
长白山保护开发区, 2021.5, 「长白山保护开发区国民经济和社会发展“十四五”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_____, 2021.10, 「长白山保护开发区“十四五”文化和旅游发展规划」.
_____, 2023.6.30, 「长白山保护开发区建设践行“两山”理念试验区实施方案」.

단행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2017.4, 『“13.5 계획” 기간 중국 동북지역 발전 방향 및 평가』.
장윤미, 2023, 『당치국이 중국: 시진핑 시대 통치구조와 정치의 변화』, 서강대학교출판부.
刘厚生 外, 2014, 『中國長白山文化』, 吉林省: 吉林出版社.

논문

- 문상명, 2022.6, 「중국의 ‘백두산공정’과 대응」, 『동북아역사논총』 76.
박신영, 2022.2, 「근현대 한중변경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시각과 비판-『백도백과』, 『동북사지』, 『중국변강사지연구』 내용 병론-」, 『중국사연구』 136.
성시일, 2022, 「중국 동북지역의 일대일로 적용과 전략」, 『한중사회과학연구』 20-3.

- 유은하, 2022, 「중국 지역발전전략 성과에 관한 비교 연구-동북진흥과 중부굴기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6-2.
- 윤휘탁, 2007, 「중국의 동북강역 인식 고찰-‘장백산문화론’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55.
- _____, 2018, 「중국의 ‘백두산공정’-장백산문화건설공정에 대한 시론-」, 『중국근현대사연구』 78.
- 정보은, 2020, 「중국 동북진흥전략과 소수민족정책의 함의」, 『중국연구』 86.
- 정성훈, 2013, 「중국의 동북진흥전략 10년 평가와 전망」, 『KIEP 중국 성별 동향브리핑』 13-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법중, 2006, 「중국의 ‘장백산문화’론과 고구려」, 『백산학보』 76.
- 최지원, 2021.4, 『중국 동북지역의 14·5 규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荀風栖, 2010, 「啓動長白山文化建設工程-在長白山文化研討會上的書面講話」, 『東北史地』 2010年 第5号.
- 王会·姜雪梅·陈建成·宋维明, 2017.4, 「“绿水青山”与“金山银山”关系的经济理论解析」, 『中國農村經濟』.
- 董战峰·张哲予·杜艳春等, 2020, 「“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理念实践模式与路径探析」, 『中国环境管理』 12-5.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 중국의 백두산 연구와 개발의 새로운 추세

배성준

이 글은 2000년대 이래 중국의 백두산 연구와 개발을 규정해온 ‘장백산문화-장백산문화산업-장백산 지역개발’이라는 체계가 2010년대 중반 동북지역의 경기침체를 계기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대 들어 제14차 5개년 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시진핑의 생태문명 사상에 기반한 새로운 이념과 체계가 출현하여 백두산 연구와 개발을 추동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백두산 연구와 개발의 기존 체계가 변화하는 계기는 동북지역의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개발 전략의 변화와 ‘장백산문화’론의 쇠퇴이다. 동북지역의 경제 성장과 지역개발을 추동하였던 동북진흥전략이 시스템 개혁과 대외개방에 중점을 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동북지역 문화의 상징으로 부각되었던 ‘장백산문화’는 장백산문화건설사업의 위축과 장백산문화연구회의 활동 중단으로 동력을 상실하였다.

2020년 이래 바이산시는 백두산 개발을 추동할 이념으로 시진핑의 ‘양산’ 이념에 주목하고 “‘양산’이념 시험구’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문화 소프트파워와 녹색발전을 강조하는 제14차 5개년 계획이 ‘양산’ 이념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이에 바이산시와 장백산관리위원회는 백두산 지역을 새롭게 편재하고 “‘양산’ 이념 시험구’ 공동 건설에 나서게 됨에 따라 백두산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이념과 체계가 출현하였다.

주제어: 백두산, 장백산문화, 동북진흥전략, 장백산관리위원회, 양산 이념, 양산 기지

New Trends in China'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Baekdu Mountain in the 14th Five-Year Plan Period

Bae Sungjoon

This study analyzed that the system of 'Mt. Changbai culture-Mt. Changbai cultural industry-Mt. Changbai regional development', which has defined China'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Baekdu Mountain since the 2000s, began to change in the mid-2010s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in the Northeast region, and that in the 2020s, along with the promotion of the 14th Five-Year Plan, a new ideology and system based on Xi Jinping's ecological civilization thought emerged to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Baekdu Mountain.

The change in the existing system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Baekdu Mountain is due to the change in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caused by the economic recession in the Northeast region and the decline of the "Mt. Changbai Culture"

theory. The Northeast Revitalization Strategy, which promoted economic growth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Northeast region, has shifted to a new method focusing on system reform and opening up to the outside world. In addition, “Mt. Changbai Culture,” which emerged as a symbol of the culture of the Northeast region, has lost its momentum due to the decline of the project of Mt. Changbai Culture and the suspension of the activities of the Mt. Changbai Culture Research Association.

Since 2020, Baishan City has focused on Xi Jinping’s ‘Two Mountains’ ideology as the ideology fo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Mt. Changbai and has started to build the construction of the ‘Two Mountains’ ideology test site. The 14th Five-Year Plan, which emphasizes cultural soft power and green development, has become the backgroun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Two Mountains’ ideology. Accordingly, Baishan City and Mt. Changbai Management Committee began to reorganize the Baekdu Mountain area and jointly build a ‘Two Mountains’ ideology test site, and a new ideology and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Baekdu Mountain have emerged.

Keywords: Baekdu Mountain, Mt. Changbai culture, China’s Northeast Revitalization Strategy, Changbai Mountain Management Committee, ‘Two Mountains’ ideology, ‘Two Mountains’ base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 실장,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전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거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여 재심의·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연구(책임)자 : _____ (인)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소(한·중관계연구소, 한·일관계연구소, 독도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수행하는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편집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 4) 사무간사는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2021년 12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 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景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2020년 8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연구소장

● 편집위원

김영숙 동북아역사재단 초빙연구위원

박정민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위기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정은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종수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병준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순일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조영광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최은진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교수

홍성화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편집간사

허란 동북아역사재단 콘텐츠팀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86호(2024. 12)

초판 1쇄 발행 2024년 12월 31일

펴낸이 박지향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홈페이지 www.nahf.or.kr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